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민(순천향대학교·교수)
김영호(백석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이명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간 사 ■ ■ ■

산업혁명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인증제도는 최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정책영역에 확산도입되고 있으며, 청소년분야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각국에서는 청소년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인증, 기관인증, 청소년 개인의 성취수준인증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도부터 시행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중심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달리 인증제로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과평가의 결과가 인증의 효과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은 안전에 관한 인증시스템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평가 또는 일반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의성에 착안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지원을 해주신 청소년관련학과교수,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및 관계자,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등 전문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정책적 차원에 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증제 관련 문헌분석 및 국내외 주요 인증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관련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면접조사 분석결과와 전문가워크숍 등을 통하여 도출된 인증방안(안)에 대해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제 운영유형은 기관인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어야 하나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인증범위는 종합인증 형태가 적절하다. 넷째,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증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인증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증절차는 5단계 2과정(1단계 인증신청-2단계 인증시설개선-3단계 현장실사 및 이의신청과정-4단계 인증심의-5단계 인증확정 및 사후관리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곱째, 인증기준 영역은 공통기준영역(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개별기준영역(시설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로는 첫째,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증제 운영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지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합리적인 인증절차(과정)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증기관(인증전담기구) 구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증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시범기간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덟째, 청소년수련시설평가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의 통합(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기관인증제, 인증유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및 추진에 따른 논의점과 청소년정책 관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의미, 인증제의 의의와 유형 등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및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설문·면접조사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요구조사를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사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자문·워크숍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 및 면접조사지 개발과 기관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 및 기준,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회의 및 전문가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의견조사 : 청소년수련시설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정책자문회의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정책제언에 대한 정책자문회의를 주관부처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1)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분석

- 국내 주요 인증제도 분석 : 국내 주요 인증제도 분석은 청소년들의 활동실적/성과에 대한 인증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기관인증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인증기준 구성, 인증 심사원, 인증정보시스템, 인증신청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방식으로부터 향후 인증제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보육시설인증제의 경우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은 정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서비스 수준 개선과 소비자들의 인증제도 활용과 연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사후관리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인증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인증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의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국외 주요 인증제도 분석 : 국외 주요 인증제는 미국, 영국, 독일의 인증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요 국가들에서 자국의 여건에 맞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도 한국 현실에 맞추어 인증제를 실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① 미국은 청소년시설이라는 특화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 자체에 대한 인증보다는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캠프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사례, 가족서비스와 아동복지관련 서비스를 인증하는 사례,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 서비스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서비스를 실시하는 주체들은 주로 민간단체이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어 국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증지표 및 영역, 인증에 수반되는 제반 과정 등을 관리하며, 인증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인증을 신청하며 일반 이용자 및 인증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되고 있음. ② 영국의 경우도 청소년기관의 외부 평가와 외부 인증이 법정 필수 요소이거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평가와 인증에 임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기관이 원하는 인증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영국은 청소년 대상의 모든 기관에게 평가나 인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평준화와 인지도 향상,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있으며, 인증을 위한 사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급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인증과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인증과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기관들이 전문성 있는 평가를 받아 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③ **독일**은 2007년에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연방아동·청소년포럼은 인증제도와 등급화 제도의 도입에 시설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독일의 연방인증기관이 공적으로 외부 심사자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 인증을 얻도록 한 시설들에게 수요자들은 보다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음. 독일의 연방아동·청소년포럼에는 25개의 청소년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54개의 협력 파트너들이 존재하며 회원들은 인증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개발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인증을 받는 비용을 많이 할인 받으며 시설의 발전과 경영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많은 이점들을 갖게 됨으로써 더 많은 시설들의 인증제도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78.3%)이 청소년지도자(75.0%)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공무원 51.8%, 청소년지도자 47.2%)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인증체계 : 인증주체는 ‘정부’(청소년지도자 55.0%, 공무원 42.2%)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60.3%, 공무원 52.4%)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범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지도자는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40.2%),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3.0%), ‘영역별 부문인증’(2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47.0%),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28.3%), ‘영역별 부문인증’(24.1%) 순으로, 청소년은 ‘영역별 부문인증’(38.4%),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7.6%),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11.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방식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지도자는 ‘포괄적 인증방식’(50.0%), ‘등급부여 인증방식’(47.7%)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등급부여 인증방식’(62.7%), ‘포괄적 인증방식’(35.5%)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는 ‘3년’(59.0%), ‘4년’(18.3%), ‘2년’(16.9%)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3년'(57.2%), '2년'(24.7%), '4년'(12.0%)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재원** 부담은 **의무인증** 시에는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76.7%, 공무원 62.7%)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자율인증** 시에는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44.9%, 공무원 32.5%)해야 한다는 응답비율과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 40.0%, 공무원 36.7%)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모니터링 필요성 및 주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89.0%)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0.4%)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주기는 '연1회'(공무원 60.4%, 청소년지도자 51.4%)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활동지도환경개선비'(청소년지도자 62.9%, 공무원 56.0%), '시설개·보수비'(청소년지도자 32.9%, 공무원 38.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증절차기준 :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91.1%)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2.8%)은 청소년 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자체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현장인증심사→인증심의→인증서발급→사후관리 단계로 이루어진 **인증절차(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공통기준'(청소년지도자 3.85, 공무원 3.78)과 '개별기준'(청소년지도자 4.05, 공무원 3.92)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인적자원관리'(청소년지도자 4.03, 공무원 3.83), '시설운영 및 관리'(청소년지도자 3.97, 공무원 3.87), '이용자관리'(청소년지도자 3.87, 공무원 3.70), '재정사무관리'(청소년지도자 3.84, 공무원 3.69)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계획·관리'(청소년지도자 4.00, 공무원 3.93), '지역사회관계'(청소년지도자 3.85, 공무원 3.73)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 청소년지도자(72.4%)보다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4.1%)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증신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증기대효과**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43.0%),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32.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18.4%)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43.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31.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21.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려사항**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4.34), '합리적인 인증시

스텝 구축'·'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33)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4.31),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29)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4.19), '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16)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11),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3.98) 순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증활용방안**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57.6%),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30.7%),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9.5%)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49.4%),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2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20.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시설지원방안**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78.4%),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2.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54.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24.7%),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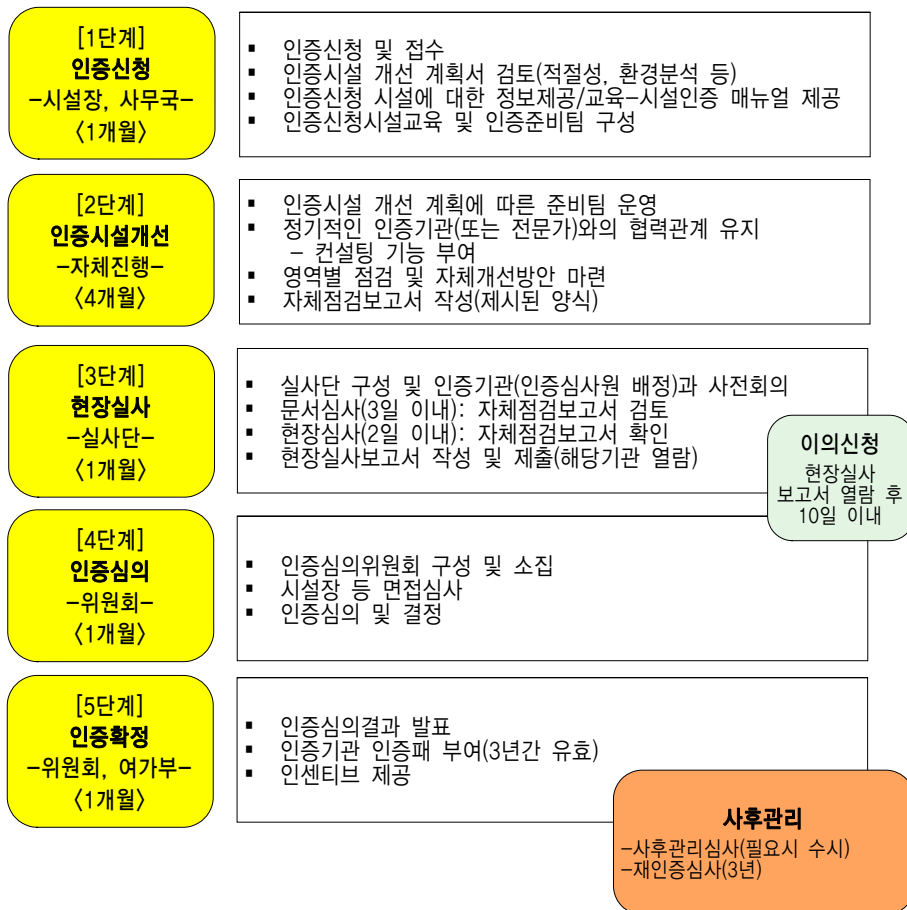
- 시사점 : 설문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 둘째, 인증신청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함.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 넷째,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지표)이 마련되어야 함. 여섯째, 인증 사후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보가 필요함. 여덟째, 인증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홍보 등)이 필요함.

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음. 첫째, 인증제 운영유형은 청소년수련시설유형 별인증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둘째, 인증대상은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 셋째, 인증범위는 종합인증형태가 적절함. 넷째,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다섯째, 인증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함. 여섯째, 인증절차는 5단계 2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일곱째, 인증기준 영역은 공통기준영역과 개별기준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4. 정책제안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체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는 기관인증으로 **인증주체**는 정부,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전담기구, **인증범위**는 종합인증,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 **인증유효기간**은 3년, **인증재원**은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 적용하며, **인증절차**는 1단계(인증신청)-2단계(인증시설개선)-3단계(현장실사)-이의신청과정-4단계(인증심의)-5단계(인증확정)-사후관리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절차】

-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둘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셋째, 인증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지표)이 마련되어야 함. 다섯째, 합리적인 인증절차(과정)가 마련되어야 함. 여섯째, 인증기관(인증전담기구) 구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일곱째, 인증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여덟째, 시범기간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아홉째, 청소년수련시설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열째, 청소년수련시설평가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의 통합(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II. 이론적 배경	11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따른 논의점	13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추진에 따른 논의점	20
3. 청소년정책관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23
4. 인증평가의 의의와 유형	25
III.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33
1. 국내 주요 인증제도	35
2. 해외 주요 인증제도	56
IV.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관련 의식·요구 분석	113
1. 설문조사 결과	115
2. 면접조사 결과	200
3. 소결 및 시사점	289
V.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299
1.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안) 관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	301
2.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325
VI. 정책제안	339
1. 인증관련 정책현황	341

2. 정책제안	343
참고문헌	353
부 록	361
1. 면접조사지	363
2. 설문조사지	369
3. 전문가의견조사지	392

표 목차

〈표 I-1〉 설문조사틀	8
〈표 I-2〉 면접조사틀	9
〈표 II-1〉 성과중심평가와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의 비교	27
〈표 II-2〉 인증제 유형	31
〈표 III-1〉 인증프로그램 유형	38
〈표 III-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구성표	39
〈표 III-3〉 국내 및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40
〈표 III-4〉 인증제 운영체계의 핵심요소	40
〈표 III-5〉 포상 단계별 포상활동 영역 최소 활동 기간	42
〈표 III-6〉 보육시설 평가인증 심의기준	46
〈표 III-7〉 보육시설 평가인증결과	47
〈표 III-8〉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0항목)	48
〈표 III-9〉 사무국 및 유관기관 평가인증 업무현황	49
〈표 III-10〉 2006년 인증시범사업	50
〈표 III-11〉 2007년 인증시범사업	50
〈표 III-12〉 2008년 인증시범사업	50
〈표 III-13〉 공통경영지표	53
〈표 III-14〉 서비스지표	53
〈표 III-15〉 ACA 인증영역	58
〈표 III-16〉 방과후프로그램 인증 평점 개요	70
〈표 III-17〉 방과후프로그램 인증위원회의 인증결정유형	71
〈표 III-18〉 2006년 개정된 평가인증제의 기준 및 주제영역	74
〈표 III-19〉 COA의 인증지표	77
〈표 III-20〉 인증을 위한 점검 단계	82
〈표 III-21〉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프로그램과 내용	83
〈표 III-22〉 평가기준	86

〈표Ⅲ-23〉 인증 포상을 위한 시스템의 종류와 주체	87
〈표Ⅲ-24〉 인증기준	90
〈표Ⅲ-25〉 인증단계	92
〈표Ⅲ-26〉 인증의 기준	93
〈표Ⅲ-27〉 인증틀의 구성과 요소	96
〈표Ⅳ-1〉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117
〈표Ⅳ-2〉 조사대상자(청소년지도자)의 일반적 특성	118
〈표Ⅳ-3〉 운영주체 지역별 비교	121
〈표Ⅳ-4〉 공공기관 위탁단체 성격	122
〈표Ⅳ-5〉 민간기관 위탁단체 성격	123
〈표Ⅳ-6〉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 정도	124
〈표Ⅳ-7〉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를 안 하는 이유	125
〈표Ⅳ-8〉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	126
〈표Ⅳ-9〉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준비수준	127
〈표Ⅳ-10〉 학교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준비를 안 하는 이유	127
〈표Ⅳ-11〉 가장 많이 운영(계획)중인 창의적 체험활동영역	128
〈표Ⅳ-12〉 수련시설 신뢰도 제고 및 활동참여 활성화 방안	129
〈표Ⅳ-1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130
〈표Ⅳ-1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	132
〈표Ⅳ-1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주된 목적	133
〈표Ⅳ-1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주체	134
〈표Ⅳ-17〉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대상	135
〈표Ⅳ-1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	136
〈표Ⅳ-19〉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방식	137
〈표Ⅳ-20〉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138

〈표Ⅳ-2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청소년지도자)	140
〈표Ⅳ-22〉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적절성	141
〈표Ⅳ-23〉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142
〈표Ⅳ-24〉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142
〈표Ⅳ-25〉 인증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43
〈표Ⅳ-26〉 인증결과 활용방안	145
〈표Ⅳ-27〉 조사대상자(청소년관련업무담당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147
〈표Ⅳ-28〉 담당 청소년수련관 현황	148
〈표Ⅳ-29〉 담당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149
〈표Ⅳ-3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별 효과성	150
〈표Ⅳ-31〉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수행 시 만족도	152
〈표Ⅳ-32〉 청소년정책 관련 연수 경험 유무	153
〈표Ⅳ-33〉 연수 참가 만족수준	154
〈표Ⅳ-34〉 수련시설 신뢰도 제고 및 활동참여 활성화 방안	155
〈표Ⅳ-3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불필요 이유	156
〈표Ⅳ-3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주체	157
〈표Ⅳ-3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	159
〈표Ⅳ-3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	160
〈표Ⅳ-39〉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 비용	161
〈표Ⅳ-4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청소년관련업무담당공무원)	162
〈표Ⅳ-41〉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적절성	163
〈표Ⅳ-42〉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164
〈표Ⅳ-43〉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164
〈표Ⅳ-44〉 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	166

〈표Ⅳ-45〉 조사대상자(시설이용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167
〈표Ⅳ-46〉 청소년수련시설 정기 이용 이유	169
〈표Ⅳ-47〉 이용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만족수준	170
〈표Ⅳ-48〉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문제점	173
〈표Ⅳ-49〉 학교생활 만족수준	173
〈표Ⅳ-50〉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운영 희망 이유	177
〈표Ⅳ-51〉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운영 시 고려사항	178
〈표Ⅳ-5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참고 이유	180
〈표Ⅳ-53〉 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181
〈표Ⅳ-54〉 심층면담 참가 청소년지도자	201
〈표Ⅳ-55〉 심층면담 참가 청소년	202
〈표Ⅳ-56〉 심층면담 참가 공무원	203
〈표Ⅴ-1〉 조사대상	301
〈표Ⅴ-2〉 조사영역	302
〈표Ⅴ-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필요성 기술에 대한 적절성	303
〈표Ⅴ-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개념 기술의 적절성	304
〈표Ⅴ-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목적에 대한 적절성	305
〈표Ⅴ-6〉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운영유형으로서의 적절성	306
〈표Ⅴ-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의 적절성	307
〈표Ⅴ-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의 적절성	308
〈표Ⅴ-9〉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의 적절성	310
〈표Ⅴ-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의 적절성	311
〈표Ⅴ-11〉 인증절차(안)의 인증단계에 대한 적절성	312
〈표Ⅴ-12〉 청소년수련시설 절차(안)의 활동내용에 대한 적절성	313
〈표Ⅴ-13〉 인증절차(안)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에 대한 적절성	315
〈표Ⅴ-14〉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기준 영역의 적절성	317

〈표 V-15〉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318
〈표 V-16〉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320
〈표 V-1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및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	322
〈표 V-18〉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법 규정의 변천	329
〈표 V-19〉 공통기준 인증요소 및 내용(안)	334
〈표 V-20〉 개별기준 인증요소 및 내용(안)	33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흐름도	10
【그림 II-1】 학교중심교육모델 극복 유형	16
【그림 III-1】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45
【그림 III-2】 인증 절차	102
【그림 III-3】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 인증 인장	102
【그림 III-4】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 최고등급 별5개 인증 인장 사례	104
【그림 IV-1】 조사설계	115
【그림 IV-2】 설립 주체	120
【그림 IV-3】 운영 주체	120
【그림 IV-4】 공공기관 위탁단체 성격	121
【그림 IV-5】 민간기관 위탁단체 성격	122
【그림 IV-6】 근무시설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	123
【그림 IV-7】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수준 및 연계하지 않는 이유	125
【그림 IV-8】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준비수준	126
【그림 IV-9】 학교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시 예상되는 어려움	129
【그림 IV-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31
【그림 IV-1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주된 목적	132
【그림 IV-1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주체	133
【그림 IV-1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대상	134
【그림 IV-14】 의무인증 시 재원부담 주체	135
【그림 IV-15】 자율신청 시 재원부담 주체	135
【그림 IV-16】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	138
【그림 IV-17】 적당한 모니터링 주기	139
【그림 IV-18】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 비용	139
【그림 IV-19】 인증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140

【그림Ⅳ-20】 인증 절차(안)에 대한 적절성	141
【그림Ⅳ-21】 인증신청 희망 여부 및 비신청 이유	143
【그림Ⅳ-2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144
【그림Ⅳ-23】 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	144
【그림Ⅳ-2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145
【그림Ⅳ-25】 담당 청소년시설 현황	148
【그림Ⅳ-26】 담당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형태	149
【그림Ⅳ-27】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에 대한 적당성	150
【그림Ⅳ-28】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효과성	151
【그림Ⅳ-29】 민간기관위탁 계약기간	152
【그림Ⅳ-30】 민간기관위탁 계약기간의 적당 여부	152
【그림Ⅳ-31】 청소년정책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154
【그림Ⅳ-3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공무원)	156
【그림Ⅳ-3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의 주된 목적	157
【그림Ⅳ-3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	158
【그림Ⅳ-35】 의무인증 시 재원부담 주체	159
【그림Ⅳ-36】 자율인증 시 재원부담 주체	159
【그림Ⅳ-3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	160
【그림Ⅳ-38】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161
【그림Ⅳ-39】 인증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162
【그림Ⅳ-40】 인증 절차(안)에 대한 적절성	163
【그림Ⅳ-41】 인증 신청 희망 여부 및 비신청 이유	165
【그림Ⅳ-42】 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165
【그림Ⅳ-43】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166
【그림Ⅳ-44】 이용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168
【그림Ⅳ-45】 청소년수련시설 정기 이용 여부 및 이유	169

【그림Ⅳ-46】 청소년수련시설의 활동프로그램 참여수준	170
【그림Ⅳ-47】 청소년수련시설 인지수준	171
【그림Ⅳ-48】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준	172
【그림Ⅳ-49】 학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준	172
【그림Ⅳ-50】 여가활동 참여수준	174
【그림Ⅳ-51】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평일	175
【그림Ⅳ-52】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학교 가는 토요일	175
【그림Ⅳ-53】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일요일(휴일)	176
【그림Ⅳ-5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법	176
【그림Ⅳ-55】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영역 및 지역사회시설 연계 희망 영역	178
【그림Ⅳ-56】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참고여부 및 이유	179
【그림Ⅳ-57】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영역	180
【그림Ⅳ-5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181
【그림Ⅳ-59】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비교	182
【그림Ⅳ-60】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불필요 이유	183
【그림Ⅳ-61】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의 주된 목적	183
【그림Ⅳ-62】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 주체	184
【그림Ⅳ-6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대상	184
【그림Ⅳ-64】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범위	185
【그림Ⅳ-65】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식	186
【그림Ⅳ-6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유효기간	186
【그림Ⅳ-67】 의무 인증 시 재원부담 주체	187
【그림Ⅳ-68】 신청에 의한 자율인증 시 재원부담 주체 비교	187
【그림Ⅳ-69】 모니터링 필요성	188
【그림Ⅳ-70】 적당한 모니터링 주기	188
【그림Ⅳ-71】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 비용	189

【그림Ⅳ-72】 인증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189
【그림Ⅳ-73】 인증 절차(안)에 대한 적절성	190
【그림Ⅳ-74】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구분에 대한 적절성	190
【그림Ⅳ-75】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191
【그림Ⅳ-76】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191
【그림Ⅳ-77】 인증 신청 희망 여부	192
【그림Ⅳ-78】 인증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92
【그림Ⅳ-79】 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193
【그림Ⅳ-80】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93
【그림Ⅳ-81】 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	194
【그림Ⅳ-82】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195
【그림Ⅵ-1】 인증절차	34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산합리화 수단으로 의식적인 표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인증제도는 최근에는 그 대상이 과학, 정보, 교육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이광호 외, 2004).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평가인증제(2006)와 의료기관인증제(2011)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2010) 연구도 진행된 상황이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 확대정책에 따라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우려가 높아지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24일부터 ‘의료법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는 의료기관인증제는 세부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는 수많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IMF 이후 한정된 자원과 그에 따른 공공자원 투입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요구가 증대하였고, 시설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오늘날 청소년분야에서 인증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일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청소년정책(시설)과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된 바 있고(이광호 외, 1996; 이광호·이태제·윤철경, 1999; 이광호·전명기, 2002; 조영승, 1999; 천정웅·김정주, 1999), 최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등장과 같은 교육과정의 변천과 함께 청소년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실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은(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9; 이광호 외, 2004; 이민희 외, 2005; 최창욱, 2007; 최창욱 외, 200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 2006) 사실상 청소년분야의 프로그램 및 시설 인증제 도입의 직접적 배경에 해당한다. 즉, 학교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의 허브기관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준하는 기관 및 서비스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어 온 것이다(김민, 2011에서 재인용).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각국에서는 청소년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인증, 시설이나 기관 인증, 청소년 개인의 성취수준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 개인의 성취수준에 대한 인증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에 대한 연구 차원의 논의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1996년도에 (구)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이광호 등에 의해 ‘청소년수련거리 인증제도 도입의 방안’을 주제로 이미 추진이 되었다.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수련활동의 품질관리 등의 측면에서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었다. 에딘버러포상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한국식의 포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도 1995년 전후로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인증 자체는 아니지만 씨랜드청소년수련원의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전기, 건축 등에 대한 시설별 안전등급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2000년부터 (구)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이 시작이었으며 전수조사 및 일부 시설의 현장실사, 또는 신청에 의한 평가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의도한 바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시설평가 방식으로 수행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은 시범이 될 만한 시설을 선정하는 것으로 인증의 방식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부터 전수조사를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3년을 주기로 평가대상 유형에 따라 순차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는 운영시스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순위제, 등급방식이 적용이 되나 최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김혁진, 20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달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는 인증제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나 성과평가의 결과가 인증의 효과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은 안전에 관한 인증시스템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평가 또는 일반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2009년부터 실시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는 앞서 실시된 평가와 비교하여 단순 실적 보다는 운영시스템을 확인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지속되고 평가의 주기가 연례적이 된다면 평가는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목표나 내용, 평가의 결과가 단순한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의 운영에 대한 품질 보장이 가능한 운영 시스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인증평가 모형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증이란 다양한 평가모형의 하나로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정 사업은 사실상 인증평가 모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지자체 등에서 설립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방식이 도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평가시스템이 없는 곳 보다는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경우에 더 쉽게 적용이 되고 인증평가 방법이 쉽게 정착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인증방식의 평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혁진, 2011).

이러한 논의들은 지금이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던 시범청소년수련시설(현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9조)사업의 연계선상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어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 되는 제한점을 지니고 수행되었다.

2. 연구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인증 방안 모색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및 추진에 따른 논의점과 청소년정책 관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의미, 인증제의 의의와 유형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인증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인증제 도입 관련 요구조사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 국내·외 주요 인증제 조사 및 분석

국내와 국외의 주요 인증제도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인증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요구조사(설문·면접조사) 및 분석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요구조사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 학교활동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 수준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만족수준 및 요구수준(청소년)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공무원)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면접조사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와 이용 청소년, 시도 및 시·군·구의 수련시설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interview) 핵심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지도자 대상으로는 ㉠ 인증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요건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련활동인증제와 시설 평가 등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과정의 만족도 및 욕구 ㉡ 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는 ㉠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질 관리 방안 ㉢ 시설간의 차이(시설 기준, 운영기준, 안전기준)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4)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모색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시설이용청소년,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조사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인증방안을 모색하였다.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및 추진에 따른 논의점과 청소년정책 관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의미, 인증제의 의의와 유형 등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및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 및 면접조사지 개발과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 및 기준,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3) 양적연구(설문조사)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요구조사를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통계청(2010)자료를 기초로 시도 및 시군구별, 청소년수련시설종류별, 지역별 비례층화 집락추출법과 전수컨택(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통해 선정한 후 2011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조사(공무원)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상근지도자와 이용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 166명,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1331명,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청소년 636명이었다.

조사내용은 ㉠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 학교활동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 수준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만족수준 및 요구수준(청소년)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공무원) 등이었다.

표 I-1 설문조사들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표집틀	통계청자료(2010)	
표본수	2,400명(청소년지도자 1,500명, 시설이용청소년 700명, 공무원 200명)	
표집방법	지도자, 청소년 : 시설유형별, 지역별, 상근지도자수에 따른 확률표집 (비례층화집락추출법) 공무원 : 전수컨택을 통한 응답자 선정	
조사시기	6~7월	

4) 질적연구(면접조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와 주요 수요자들인 청소년, 시도 및 시·군·구의 수련시설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은 청소년지도자는 ㉠ 인증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 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요건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와 시설 평가 등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청소년은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과정의 만족도 및 욕구 ㉤ 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은 ㉥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질 관리 방안 ㉧ 시설간의 차이(시설기준, 운영기준, 안전기준)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표 I-2 면접조사들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청소년수련시설유형별(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추천	
면담참여자 수	청소년 지도자: 시설유형 및 지역별 2~3명 총 15명 수련시설이용청소년: 시설유형 및 지역별 2~3명 총 24명 청소년관련업무담당공무원: 지역별 2~3명 총 15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운영책임자, 지도자(팀장급), 청소년수련시설이용청소년, 청소년관련업무담당공무원	
면담방식	반구조화 집단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1~2시간,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기록 및 녹취	
면담자	연구진 또는 면접조사요원	

5) 기타 연구방법

○ 전문가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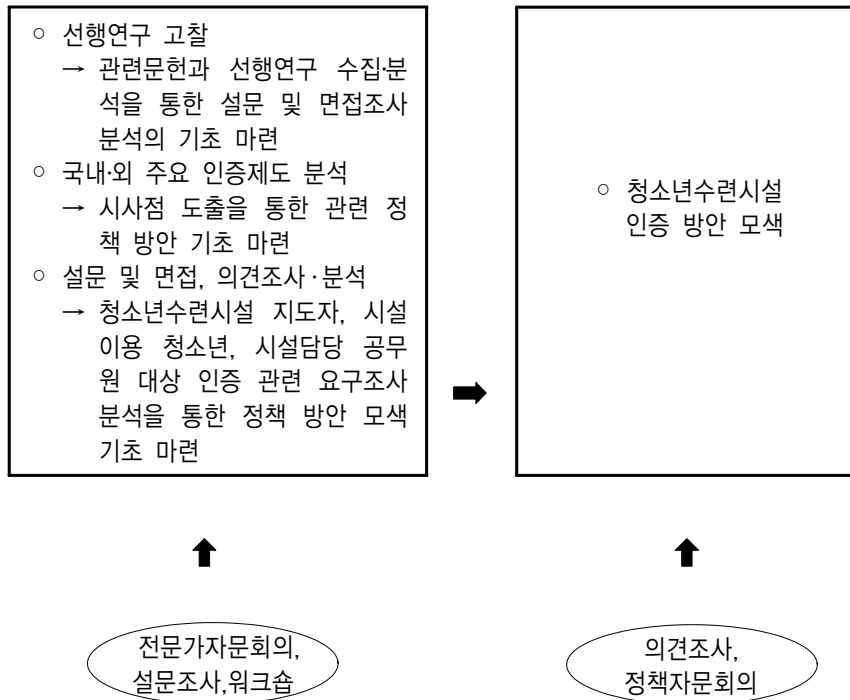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는 청소년수련시설관련전문가(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관련기관 관계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유효표본수 42부(학계 9부, 관련기관 12부, 청소년수련관 11부, 청소년문화의집 10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 정책자문회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정책제언(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자문회의를 주관부처,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전문가 워크숍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로 인증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부처·학계·현장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그림 I-1】 연구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따른 논의점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추진에 따른 논의점
3. 청소년정책관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4. 인증평가의 의의와 유형

제 2 장 이론적 배경¹⁾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따른 논의점

새로운 제도 도입의 과정에는 응당 당해 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신제도 구축에 소요되는 사회적(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보편적 대상자인 사회구성원들에게 당해 제도를 널리 알려 이를 수용하고 참여케 하는 설득적인 메커니즘을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제도이든 간에 그 제도가 사회적으로 온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필요충분조건과 배경, 맥락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마땅히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이하 시설인증제 혼용)는 왜 필요한가? 주지하다시피 여기에는 ‘우리만의 논리’가 아닌 ‘보편타당한 논리’를 내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증제가 “수요자에게 미치는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란 이유는 물론이고, 오늘날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환경들, 예컨대 교육적·경제적·사회문화적·복지적 차원에서 그 타당한 논리를 발굴하고 적극 설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증제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단순한 명분은, 논의의 초점을 시설인증제에 맞추기보다는 인증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마치 인증제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것이란 ‘제도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인증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갖는 고유의 독자성, 독특성을 간과하기 쉽고 인증제의 성패와 밀접한 인증주체와 절차, 기준과 요소, 평가와 피드백 등 세부적 차원의 논의가 초기부터 배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란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방안의 첫 단계로써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이 장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콜로키움 자료집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관련 논의의 초점들’(김민, 1/2절)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김혁진, 3/4절)을 요약·정리하였음.

1)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기관인증: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적 공공재인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과 같은 기관인증의 필요성은 - 이미 적지 않은 이론가들과 선행연구자들이 논의한 바대로 - 오늘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는 나름의 품질(quality)을 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품질 개선 및 보장에 따른 이유와 밀접하다(김혁진, 2011;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이광호, 2005; 이지숙정호원, 2005; 정원주, 2007;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는 단순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와 그 구성원의 ‘윤리적 차원’의 이유가 깃들어 있으며(Yamatani, 2005; 이대균, 2008), 시설 및 기관, 그리고 그곳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실천장면에 대한 평정과 심사의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Klarberg, 2005). 동시에 인증제를 통해 해당분야의 자체적 발전을 견인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있다(경기복지재단, 2008; 김혜정, 2008;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2010;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오해섭 외, 2009; 이광호 외, 2004;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0).

따라서 인증제는 다분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리적 차원의 인준욕구가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특히 기관인증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기관에서 생산하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기관 및 시설 내에 작동하는 다양한 역동성과 인적 자원 모두의 품질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총체적 차원의 인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로 이어가면, “청소년수련시설 자체가 공공적 차원의 사회적 재화로 오늘날 우리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다. 보육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학교육기관(대학) 등이 인증제를 추구하려는 본바탕에는 이들 시설이 마땅히 사회적 재화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또 이런 사실 자체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써의 자기 위상을 확고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뼈아픈 대목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공적 성격을 갖춘 기관이란 사회적 인준을 아직 확실히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를 스스로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춘 기관으로 인준 받아야 마땅하다면 수련시설 운영유형(직영/공영/민간위탁형/출연재단 설립 후 위탁형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일찍이 제기됐어야 하며, 청소년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역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일정 수준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얼마나 공공재적 성격을 갖춘 기관인가에 대한 청소년분야 스스로의 자기점검과 이에 따른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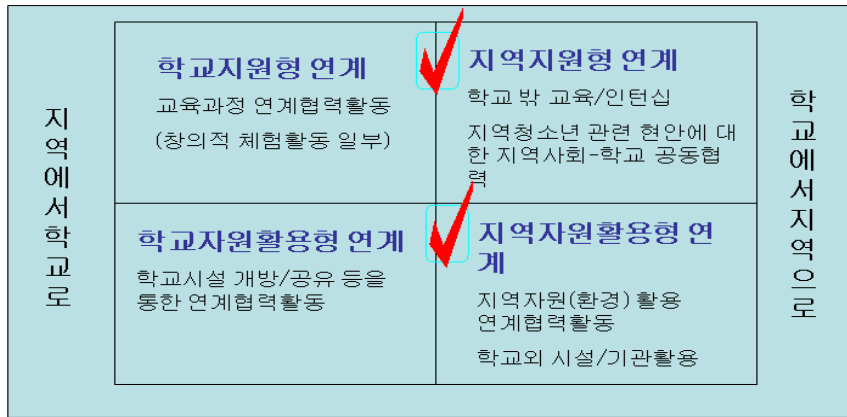
2) 청소년개발 및 교육의 다원적 책무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의 중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가?

시설인증의 배경에는 오늘날 청소년개발 및 교육에 대한 교육개혁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다원적 교육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조류와 연동되어 있다. 작금의 교육현실이 오늘날 성장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위기적이란 지적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인정하고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각계에서 분출되어 왔다. 이런 논의는 교육개혁의 장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는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학교교육 내부의 혁신에 바탕을 둔 교육적 개혁의 움직임이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 사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양성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백년대계로써 공교육의 기반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은 1994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동년 9월5일 제1차 대통령보고 교육개혁방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교육계의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이다.

동시에 이러한 학교 내부의 개혁과 함께, 성장세대를 가운데에 놓고 학교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교육적 책무성을 가지면서 청소년개발 및 교육장면에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갖는 학교외적 장면의 교육개혁 움직임이 있다. 이른바, 학교교육 일변도의 단일 책무성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 외의 다양한 자원들 역시 성장세대에 대한 교육책무성을 지니고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은 오늘날 청소년개발 및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다종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은 물론이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업중단청소년대책 및 관련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연중돌봄학교, 대안교육, 평생학습도시 등 교육관련 정책에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을 기본으로 삼는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사회복지관련 정책에서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는 삼성꿈장학재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움터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서 두 가지 차원의 교육개혁 움직임 중 후자의 경우가 오늘날 다원적인 교육책무성을 학교 외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려는 움직임인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그림 II-1] 참고). 학교중심교육모델 극복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이 유형은 크게 지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중심-지역사회파트너모델’과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범주를 확대하는 ‘학교연계 지역사회중심모델’이 있다.



【그림 II-1】 학교중심교육모델 극복 유형

‘학교중심-지역사회 파트너모델’은 다시 학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지원형 유형(교육과정연계유형)’과 학교시설 및 장비 등을 지역사회가 활용하는 ‘학교자원 활용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과 협력하여 학교 안에서 연계협력, 운영하는 유형이라 한다면, 후자는 학교의 물적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교육장면에서 공유·활용하는 유형이다.

반면, ‘학교연계 지역사회 중심모델’은 교육의 장면을 학교범주로부터 지역사회 장면에 이르기까지 확장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장면을 가능케 하는 모델이다. 여기에는 학교 밖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턴십 등)은 물론이고 지역 청소년 관련 현안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지원형 연계’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장면에 투입하는 ‘지역자원 활용형 연계유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학교교육과 밀접히 연동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적극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 밖 장면에서의

다양한 청소년개발전략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술한 바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이자 학교 외부의 교육적 개혁전략인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분야에서 인증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일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청소년정책(시설)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된 바 있고(이광호 외, 1996; 이광호·이태제·윤철경, 1999; 이광호·전명기, 2002; 조영승, 1999; 천정웅·김정주, 1999), 최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등장과 같은 교육과정의 변천과 함께 청소년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실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은(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9; 이광호 외, 2004; 이민희 외, 2005; 최창욱, 2007; 최창욱 외, 200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 2006) 사실상 청소년분야의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제의 직접적 배경에 해당한다. 즉, 학교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략의 허브기관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준하는 기관 및 서비스 품질을 인증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관련 인프라 현황과 관련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심적 위치를 충분히 차지할 못했고,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역량관련 전문성 개발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그다지 높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전략에 따른 유관 사업에서 청소년분야의 관심과 실제적 참여는 여전히 낮은 편인데, 교육복지지원사업(기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드림스타트와 같은 공공적 성격의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지원사업 역시 청소년분야의 참여는 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네트워크 전략에 따른 교육책무성 다원화에 대한 사회적 조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고, 다만 단순히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 냉혹하게 말하자면 - 자칫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형국을 자아낼 수 있다.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개발 네트워크 중심에 설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개별 시설로써 미미한 역량을 갖춘 채 인증만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인증에 따른 사회적 투자비용의 실익: 보상체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비용(cost)이 지출되는 이유에는 마땅한 실익(merit)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실익에는 비용을 초과하는 실제적 규모의 수익(benefit)이 있는가 하면, 비용 대비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투자수익이 있을 수도 있다. 가급적 국가정책의 입장에선 전자를 선호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후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인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그에 따른 실익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인증제도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따른 사회적 투자비용의 실익을 따지는 것은 전혀 무용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공공재로써 그 성격을 채 인준 받지 못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에 따른 사회적 투자비용의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대사회 구성원 설득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쩌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사회구성원보다는 인증에 참여하는 수련시설들을 설득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근거가 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분야의 인증제(수련활동인증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1년 현재 기준으로 연 5억3천1백64만원이다. 2010년의 5억7천6백만원에 비해 4천4백3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3십3억6백52만원의 17.42%, 2011년 4십8억4천6백33만원의 10.97%로 전년 대비 사업비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6.45%가 감소하였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0; 2011).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지만, 미국의 가족서비스 및 아동기관의 인증사업만을 수행하는 COA(Council of Accreditation)의 연 예산규모가 8백만 달러(한화 96억, 2005년 기준, 정직원 60명)란 사실과, 그 외의 운용형태 및 재무구조 등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인증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이다(Klarberg, 2005). 특히 인증의 혜택이 다름 아닌 아동 및 가족서비스 분야의 국가적 기준의 기관 적용에 있으며, 이를 자율적 체제 내에서 대부분의 인증대상 기관들이 수용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보다 면밀한 선행연구 고찰이 요구되지만, 수련시설인증과 관련해 평균적인 인증사업비 지출에 따른 비용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국적 상황에 맞춰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또한 이러한 인증시행에 따른 비용지출과 밀접히 연동되는 인증의 보상체제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인증으로 그 성격을 분명하게 가지고 간다면, 생활권시설인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자연권시설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체제의 이유 - 그것이 물적 보상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보상이라 하더라도 - 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객관적 근거의 하나로 사회적 투자비용 및 그에 따른 실익을 경제적 차원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1990년대부터 제도적으로 육성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고유의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청소년교육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약 780 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청소년의 자기개발, 지역사회 참여, 국제교류 등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비롯한 청소년 역량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의 영역에서 학교교육(formal education)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 청소년시설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의 교육관행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등 사회여건의 미비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학교 주5일제의 시행과 같은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일부 사회구성원의 몰이해 등으로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청소년시설들은 조직, 프로그램, 지도자 및 재정 등에서 매우 어려운 구조적·기능적 취약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과 맞물려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소년시설들의 위기와 시련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리매김,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자기 혁신적 노력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등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자기 혁신적 노력을 유도하는 조그마한 방향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회복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이광호 외, 2004; 이광호, 2005), 청소년분야에서는 인증제도로서는 처음 등장하였다. 즉, 청소년분야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양질의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고, 국민들에게는 청소년활동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자원들과 협력연계하여 지역 내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청소년시설 및 단체는 단순히 활동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하는 인증대상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함께 이끌어 가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야 하는 주체이다. 문제는 과연 지금까지 그러했는가이다. 신제도의 등장을 환영하며 같이 견인해 나갈 주체적 인식을 갖추었는지를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인증제인 수련시설인증제 역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관건은 청소년시설들이 시설인증제의 추진과 관련해 주체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설득적 근거와 보상을 사전에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였느냐에 달려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추진에 따른 논의점

1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점들을 기술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추진에 따른 논의 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어떤 제도이든지 그 제도가 함의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이해당사자 및 보편적 당사자 모두에게 설득력을 충분히 갖춘다면 그 제도는 성공적인 안착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인증의 목적을 초기부터 분명하고 간결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흔히 시설인증은 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되, 타율적 의지가 아닌 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조장하는 ‘교육적 의미와 평가의 목적’이 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고 압축시켜 상징해 놓은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기관인증 제도들을 살펴보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의 현재 수준을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 국가 혹은 민간기구가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기관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직접적 대상자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사례: 보육시설인증제/의료기관인증제/친환경건축물인증제/한국공학교육인증제). 유형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호주의 아동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을 담당하는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나 NCAC(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미국 가족서비스 및 아동서비스기관(가족 및 아동중심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범 사회복지기관 전체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인증을 맡고 있는 인증협회(COA)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핵심은 인증을 통해 인증기관 및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인증신청기관들이 이러한 명분과 목적에 동의하고 인증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인증의 경우 초기부터 인증의 목적을 분명하고 타당하게 설정하되, 여기에는 인증신청기관들의 자율적 참여를 견인하고 인증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적으로 압축시키는 그 ‘무엇’으로 해야 한다.

인증대상 신청기관의 범위는 다소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서비스인증제도의 경우 대부분 동일 서비스를 인증대상으로 삼거나 삼을 수 있지만, 기관인증의 경우는 그 성격과 특성이 달라 처음부터 모두를 포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증대상 신청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 인증대상 신청기관의 범주를 초기부터 모두로 잡기는 곤란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프로그램) 인증제도 중 하나인 ACA(American Camping Association) 인증제는 일일 이벤트

를 제외하고는 일일캠프, 숙박캠프, 여행캠프, 단기간 숙박프로그램, 기타 준 정부기관, 개인 또는 종교기관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단위 프로그램 등 모든 기관의 모든 캠프활동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의 일일 및 숙박캠프, 주말용, 집단 숙박캠프 사용 등은 인증 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된다. 단지 하루 미팅의 이벤트, 만찬, 프로그램 이벤트 혹은 훈련 등은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을 인증대상으로 삼는 NAA(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 인증제 역시 학교 밖(out-of-school)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5-14세)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이광호 외, 2004; 2005). 반면 기관인증제는 통상 초기부터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자발적 참여 원리에 기초하여 초기에는 인증제 수용이 가능한 소수의 기관이 대상으로 참여하여 인증을 받고 점차 인증대상(신청)기관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이대균, 2008; 2005).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의 경우 유형에 따라 일부 시설의 참여를 조장할 수는 있되 초기부터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가 있다. 특히 자연권 시설보다는 생활권 시설 중심으로 인증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다. 시설인증제의 인증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시설의 운영형태 및 성격, 그리고 청소년의 접근성과 인지도 등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증주체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논의점이다. 방식과 유형은 국가차원에서 수행되는 기관인증의 방식과 유형, 제3자 인증주체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식과 유형, 민간의 자율적 기구(협회/혹은 협회)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방식과 유형이 갖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또 현재의 청소년분야가 안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한계, 역량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중 제3자 인증주체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식과 유형은 청소년분야에 대한 선이해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인증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이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특히 인증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 그리고 성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 예컨대 제도적 안착기-발전기-성숙기 - 그 과정에서 인증주체를 설정하고 유연하게 바꾸는 방식도 있다. 만약 단계적 절차를 두고 인증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면 여기에는 청소년분야의 내외부적 환경변수와 함께 궁극적으로 제도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인증기준은 인증주체만큼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다. 어떤 기준지표와 요소를 갖고 인증하느냐에 따라 이해당사자(기관)는 물론이고 보편적인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관인증의 경우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 예컨대 기관 내의 역동과 인적자원 모두를 인증기준의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최소기준(basic minimum standards) 혹은 공통기준(common standards)과 함께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는 특별기준(special standards)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본 최소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기관별 특성을 어떻게 고려하여 특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런데 기관인증의 요소들을 구안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zero base)에서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기존의 서비스(프로그램) 인증유형에서 착안할 것이 많다는 점에서 기존 인증유형들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ACA, NAA 등의 서비스 인증제에서도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인증기준 등이 있는 바, 이를 참고하면서 최소기준의 범주와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초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역시 상당한 평가기준과 요소들을 초기에 구안하였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들이 다소 완화되고 없어졌지만 없어진 기준들이 대체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기준인 바,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기관인증의 요소들을 누가 어떻게 평정하여(인증결과의 기록) 인증하는가도 사실 핵심적인 논의점이다. 기존의 다른 기관인증의 경우에는 보통 인증주체 및 인증심사원 등이 이미 확정되어진 일정한 척도(4점 혹은 5점 척도)에 따라 평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앞서 기술한 인증주체와 인증기준 및 요소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논의가 가능한 주제이다.

한편, 인증결과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인증제 추진 초기 과정부터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수련활동인증제와 마찬가지로 인증결과를 누가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수요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증정보시스템을 갖추는데 따르는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이를 새롭게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인증제(수련활동인증제)와 연동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증제와 연동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증주체를 현재의 수련활동인증제처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인증위원회)이 맡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물론 인증제를 위한 독립기관을 이번 기회에 따로 두어 차제에 인증사업만을 전담하는 기구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정책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인증기록의 유지·관리는 일정한 보상체제(reward system)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인증기록 자체가 신청기관은 물론이고 수요자들에게 어떤 보상적 가치를 갖는지를 추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신청기관의 보상은 도입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가치이지만 수요자에 대한 보상가치는 추진단계에서도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품질을 정책적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의미가 수요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

한편, 이 모든 논의점들은 일정한 법적·제도적 추진체계로 외화(外化)되어야 한다. 즉, 시설인증 시행을 위한 세부법령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하여 기관인증의 법적 목적,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요소,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전체 인증시스템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침 유사한 국내외 기관인증제와 관련된 법령이 있으니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비교·분석이 추진단계에 고려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관 법령에 대한 사전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관련법령에 주는 시사점들이 도출될 것이고 이를 다시 어떤 형태의 법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모색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정책 관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인증제의 도입은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후 영국의 에딘버러공작포상계획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이름으로 도입 되어 실행되고 있는데 이 포상제 또한 청소년들의 활동 실적-성과에 대한 인증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에 대한 연구 차원의 논의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1996년도에 (구)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이광호 등에 의해 “청소년수련거리 인증제도 도입의 방안”을 주제로 이미 추진이 되었었다.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수련활동의 품질관리 등의 측면에서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제기가 되었다. 에딘버러포상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한국식의 포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도 1995년 전후로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일부 청소년수련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한 등급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등급제란 호텔의 등급과 같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품질의 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급은 평가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인증의 방식일 수도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적 인증 자체는 아니지만 씨랜드청소년수련원의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전기, 건축 등에 대한 시설별 안전등급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2000년부터 전수 조사 및 일부 시설의 현장실사, 또는 신청에 의한 평가 등의 방법으로 (구)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시작이었다. 의도한 바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시설 평가 방식으로 수행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은 인증방식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고 2006년에 청소년수련관부터 전수 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사업 역시 평가결과는 운영시스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순위제, 등급 방식이 적용되나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달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는 인증제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며 성과평가의 결과가 인증의 효과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의 경우 2006년 1차로 실시되었고 2009년 2차 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의 시작은 청소년시설의 질 관리와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 강화 추세에 맞추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평가의 의의는 기관 대상의 종합 평가로 수련관 개별적으로 내부적인 진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체적인 발전 방안 도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 실시된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개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자체적인 현황을 점검하게 되었다고 본다. 청소년수련관 평가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공신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수련관의 개별 시설의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의 효과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09).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평가는 2007년에 1차로 이루어졌고 2010년에 2차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문화의집 평가 역시 시설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한 기본 방향 준수와 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모범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사업을 통해 개별 청소년문화의집은 자체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즉, 자체 평가 준비 과정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자기 진단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 2010년 평가사업의 경우 현장방문 평가에 시설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의 의견 반영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0).

다만,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은 안전에 관한 인증 시스템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평가 또는 일반적인 운영성과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인증평가의 의의와 유형

1) 인증평가모형의 이해

인증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증명하는 것”(민증서립, 1997)이다. 여기에서 인정이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준 또는 사회적 인정이란 해당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인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 인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증을 한다 또는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정받을만하다는 근거로 수요자들에게 제시되는 증거는 인증을 위한 심사 또는 평가의 결과가 될 것이다.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인증(creditation)은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한 인증 자체를 평가적 판단의 결과로 인정하며 전문가들이 사전에 정한 기준의 도달 또는 충족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의 하나가 된다. 인증평가란 인증방식, 즉, 전문가가 인정을 했는가의 여부를 통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인증여부의 판단을 위해 절차적 단계와 방식의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증의 시스템이란 곧 인증을 제도화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인증제라 함은 인증을 제도화하였다는 것으로 제도화란 주로 정책적 또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제도로서의 인증은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적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화는 법과 정책, 운영조직 측면에서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편화되면서 사회적인 제도로 확장된다.

일반적인 인식이나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흔히 ‘인증’과 ‘평가’를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정책 과제나 사업의 수행 시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인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인증제 도입 시기에 제기되는 질문의 하나이다. 이 때 사용되는 인증의 개념과 평가의 개념은 이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식과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공모심사 과정에서의 선정이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과중심의 평가를 평가로 이해할 때는 인증은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의 개념과 관점, 평가의 모형에서 볼 때 ‘인증’이란

다양한 ‘평가모형’의 하나이다.

평가의 일반적 개념은 평가대상에 대해 목표달성 여부나 성과를 측정, 확인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판단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평가에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는데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분류나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목표달성 평가모형, 의사결정중심 평가모형, 실험 평가모형, 전문성중심 평가모형, 판단중심 평가모형, 자연주의 모형, 참여자 평가모형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인증’은 전문성중심 평가모형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전문가심의모형(전문가들의 심의, 검토, 평정을 통해 가치, 장점을 파악하는 평가모형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평가결과로 인정함)과 인증평가모형(또는 평가인정모형-전문가들이 사전에 정한 평가의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 도달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 도달 시 인증을 부여함)이 있다.

인증평가모형(accreditation evaluation model)은 미국에서 Flexner에 의해 1910년에 의과대학 설립인가 결정을 위해 처음 시도되었다(김진규, 2002). 대학평가제도 이 모형에서 발전한 것이며 학교 설립과 허가를 위한 심사 등에도 적용된다. 인증평가모형은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 및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평가의 목표를 둔다. 이는 기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용으로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특히 인증평가모형은 단순히 일시적인 시점에서의 성과 여부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서비스가 기획되어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운영 전반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확인, 보완을 통한 개선의 유도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 품질 자체를 인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관 평가나 프로그램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 모형 또는 평가방법에 ‘인증’과 ‘평가’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인증방식의 평가냐 아니면 일정 기간의 성과수준에 대한 평가(이를 성과중심 평가로 부르고자 함)를 의미한다.

특히 정책사업으로서의 평가 시스템의 목표는 ‘대민 서비스의 품질관리 수준 제고’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성과중심 평가이든지 인증방식의 평가이든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평가의 방식으로 어떠한 특정모형이 효과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흐름, 정책평가의 경향 및 해당 분야의 현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정하면 된다. 일정기간에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경우에는 중복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 사업 평가의 목적 설정에 따라 평가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목적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목적1) 운영기간 동안의 성취수준에 따른 서열화 : 평가 총점에 의한 성과평가
- 목적2) 지속적 품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전 과정에 걸친 인증평가

이를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적용을 한다면 일정 기간의 성과에 대한 평정 중심의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모든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체제를 갖추어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인증평가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어떠한 평가모형이 우위에 있느냐의 관점보다는 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례적인 성과평가로 품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거나 수요자들의 선택과 이용에 안정감 차원에서 인증평가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방법을 병행 또는 인증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정책서비스의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좀 더 부연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방법, 모형은 서비스 품질 개선의 강제성, 의무성에 차이가 있다. 지나간 일정 기간의 운영체제나 성과-실적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의 우수성이나 미흡함을 평가한다. 일부 평가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족해도 순위나 등급을 부여받는데 문제가 없다. 감점처리가 된 평가내용에 대해서만 평점을 부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했고 앞으로도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적정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평가로 미래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보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증의 기준 자체는 전문가들이 사전에 정하기 때문에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증의 기준이란 최고의 수준 보다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최소 수준 또는 적정 수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증은 우수기관 선정의 의미보다는 최소-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한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내용 또는 인증기준에 대해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인증을 못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인증평가 방식이 부담이 더 클 수 있고 모든 요소에 대해 확인을 하고 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성과중심 평가와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를 평가의 체계면에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1 성과중심평가와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의 비교

기준	일반적인 성과중심 평가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평가
평가지표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지표 구성 성취수준 확인 중심의 지표 활용	평가지표 구성은 큰 차이 없음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지표 구성

기준	일반적인 성과중심 평가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평가
	예: 참가자는 만족하였는가?	(예:만족여부+만족도제고체제?)
평정방식	평정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부여 항목별 점수의 합으로 총점 산출 평점에 의한 순위산정, 등급부여	평정기준에 의한 평가등급 부여 등급은 통과여부를 기준으로 함 모든 지표의 등급 통과시 인증
평가과정	선정심사를 통한 기획서 평가 중간점검, 평가를 통한 과정평가 최종 성취평가를 통한 결과 평가 과정상 평가결과는 점수에 반영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 평가단계 자체는 큰차이 없음 기획-과정-성과에 대한 평가운영 단계별 평가는 개선을 전제로 함
운영개선	기획과 중간평가를 통한 개선요구 개선 여부에 대한 수용은 임의적 필수항목의 평점이 매우 미흡하여도 총 점에서는 우수 평점 가능 다음해 개선여부는 기관의 자율	심사/보완요구 자체-컨설팅 효과 미흡항목에 대한 개선은 필수과제 1개평가지표 미흡시-인증 탈락 적정이상의 운영체제 구축 효과 지속적 개선을 거쳐 인증을 함
평가효과	당해년도 사업의 운영 수준 확인 익년도 사업에 가산점/불이익 효과 *불이익효과:지원대상 배제, 감점 -단, 익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으면 효과 없음(평가결과는 해당 연도에 국한)	모든 영역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운영시스템 확보여부 확인 인증 후 일정기간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인정(연례평가부담경감) 평가점수에 의한 왜곡방지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

2) 인증평가 도입과정의 유형

앞에서의 논의, 즉 인증평가와 성과평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증과 평가로 단순화하여 적용한다면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의 성과에 대한 수준의 판단을 주로 의미한다.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이미 이러한 평가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는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인증제 또는 인증평가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인증에 대한 개념의 이해 부족과 기존의 평가외에 추가적인 평가로 인식이 되거나 아예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될 경우 거부감을 갖게 된다. 실상은 인증방식의 평가가 전문가가 미리 정한 인증기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기준이 그 내용과 형태상 평가의 지표(평정기준 포함)와 유사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방식이 도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평가시스템이 없는 곳 보다는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경우에 더 쉽게 적용이 되고 인증평가 방법이 쉽게 정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인증평가 방식이 도입이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김정주·김혁진 외, 2009).

① 유형 1 : 서비스가 필요하나 초기 단계 또는 민간의 공급자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할 기관(공공, 민간)이 설립되면 기능을 제한적으로 위탁한다. 점진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공급자)가 성장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공모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부터는 위탁 개념이 아닌 민간의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방식으로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단계가 지나면서 수요자가 확대되어 민간의 공급만으로도 시장이 형성이 될 때는 정부의 역할은 자율적 경쟁체제의 지원으로 전환된다. 민간보조방식 또는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수요자의 선택을 하게 될 때 국가의 인증 또는 민간의 자체 “인증” 방식을 통해 수요자가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② 유형 2 : 정책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과 용역 또는 보조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게 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위탁의 방식이나 용역방식의 경우에는 초기단계는 성과물에 대한 검수 및 정산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일방적 지원 보다는 선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선정의 관리만으로는 그 이후의 운영관리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 운영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중심의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전체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가 정례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영역 또는 특정분야의 서비스가 정착되고 평가가 매년 실시되면서 평가를 통한 운영체제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단이 설 때 반복적인 평가보다 인증을 통한 운영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정을 통해 평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품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확인 수준의 관리로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도록 운영체제를 전환하게 된다.

③ 유형 3: 일반적으로 수요자에게 기관 자체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공공/민간단체에서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품질을 관리한다. 또는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시 연례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해 자체적인 서비스의 품질을 알리기 위해 해당 기관/협의체에서 사회적 인정 차원에서 외부평가를 도입한다. 연례적 또는 일회적

평가로는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민간 스스로 수요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민간/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공급자들이 서비스(프로그램)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으로 인증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인증을 받고 난 후 해당 기관에서는 인증 자체를 기관/서비스의 품질 보장의 근거로 홍보에 활용한다. 수요자 대상의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로 ‘인증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요자들에 의한 사회적 선택을 받는 입장임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음을 정책적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평가 도입에 대한 3가지의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공급자의 증대와 수요자의 선택이라는 측면,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체제의 측면이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비율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를 초과할 때에는 공급자 주도가 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선택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수요자-공급자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공급자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투자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요가 제한적일 경우 공급자들은 수요자의 선택 자체가 생존에 영향을 미쳐 품질관리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공공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공급-수요의 비율보다는 품질관리가 우선될 수 있다. 문제는 품질관리의 방식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이고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례적인 평가방식 보다는 1년간의 평가로 일정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인증평가 방식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성과중심의 평가가 평가 대상에 있어서 과거에 관한 것이라면 인증평가는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운영과정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확인으로 현재와 미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수요자들에게 제시한다는 데에도 차이점이 있다.

3) 인증평가의 대상별 유형 및 사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제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인증의 대상 유형에 관한 것이다. 수련시설이 갖는 성격과 관련하여 무엇을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례가 중요한데 인증제 관련 연구에서는 인증의 대상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기관 인증, 프로그램 인증, 참가자 인증이다. 기관 인증은 기관 자체에 대해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인증은 콘텐츠로서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과정의 품질관리의 시스템 수준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며, 참가자 인증은 주로 참가자들이 경험한 활동의 경험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인증의 대상 또는 인증의 유형은 실제로 적용되는 인증의 기준에서는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보완 또는 중복관계에 있다. 기관을 인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의 ‘무엇’을 인증하느냐에 따라 인증의 내용이 달라진다.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제는 ‘안전’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 인증제에 해당이 된다. 기관의 품질을 인증한다고 했을 때 품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 인증이라고 할 경우에도 기관의 규모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의 적정성은 전제가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업무가 포함이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인증의 기준 요소에는 기관 인증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연계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실적인증은 해당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실적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기관인증이나 프로그램인증이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 유형을 살펴보면 인증대상에 따라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제품)인증, 기관(운영시스템)인증, 개인활동실적(역량)인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광호 외, 2004).

표 II-2 인증제 유형

구분	인증유형	사례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제품)중심인증 (서비스 내용중심인증)	공학교육프로그램인증 우수여행상품인증제 KS 표시인증제도 미국방과후프로그램인증제도(NSACA) 미국캠프프로그램인증제도(ACA) 등
	기관(운영시스템)중심인증(서비스 기관중심인증)	ISO인증제도 중소기업인증제도 등
수요자 중심	개인활동실적(역량)중심인증(서비스 참가자실적중심인증)	에딘버러포상제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등

*이광호 외(2004)와 오해섭 외(2009) 자료를 정리한 것임.

프로그램중심인증이라 함은 특정프로그램이 인증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구안·제작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인증제, 우수여행상품인증제, KS 표시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며, 외국의 경우 NSACA에서 시행하는 미국방과후프로그램인증제도, ACA에서 시행하는 미국캠프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프로그램 중심 인증이지만 실적인증을 병행한다. 기관중심인증이라 함은 특정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기관의 운영시스템이 인증기준과 규격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입증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ISO 인증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인활동실적중심인증이라 함은 개인의 활동참가 실적이나 일정 수준의 개인활동 성취 혹은 개인의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의 에딘버러포상제도(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미국의 체력포상제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제 3 장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1. 국내 주요 인증제도
2. 국외 주요 인증제도

제 3 장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1. 국내 주요 인증제도

국내와 국외의 주요 인증제도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제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청소년활동 내역을 기록하여 성과를 인정해주는 성취포상제를 살펴보고자 하겠으며 그 밖에 청소년활동 외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사회복지시설 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 18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의 공포로 구체적 시행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시범적용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 목적 및 기대효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목적은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도모,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들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을 관리·제공함에 있다(오해섭 외, 2009).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먼저 국가가 인증하는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받은 활동프로그램은 인증요소에 대하여 이미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것임을 확인받은 것이며, 인증사항을 이행하며 운영됨을 보증한다. 따라서 인증 받은 내용을 실행하지 않거나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신청이 제한된다.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전국 어디서나 one stop service로 발급되며, 활동기록은 지속적으로 누가되어 ‘활동기록부’형태로 관리되고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발급된다. 활동기록부는 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시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기록유지·관리·발급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인증수련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인증 절차 및 법적 요건

① 수련활동 인증절차(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 해당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장소, 운영 시기, 목적, 대상, 내용, 진행방법, 평가운영에 필요한 자원조달, 프로그램을 담당할 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에 따라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인증신청절차 및 방법(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21조)

-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60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인증의 사후관리(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2)

-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선정할 수 있고,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취소

- 수련활동을 인증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그 원인이 인증 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⑤ 활동기록 유지관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0조)

- 참여 인증수련활동의 기록관리 담당자가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 활동기록은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참여청소년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⑥ 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

-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한 시설개인법인단체는 다음과 같이 활동내용을 기록하여 참여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활동에 참여한 기록은 개인단위로 작성
 - 청소년 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활동참여 일자,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야 함
 - 활동 내용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제시함
 - 참여한 청소년의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함

(3) 인증프로그램의 유형

인증수련활동의 유형은 정기형, 숙박형, 이동형으로 구분된다. 정기형은 총 활동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당일 또는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이며, 숙박형은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은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영역은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등

9가지로 분류하여 규정되며, 2009년 11월 현재 총 976건의 프로그램이 인증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표 III-1 인증프로그램 유형

활동유형	내 용
정기형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1회 3시간 이상에 걸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4) 인증 프로그램 조건

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활동목표가 청소년활동으로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② 공공성과 신뢰성

상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개설됨으로써 선택과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③ 적합성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5) 인증기준

① 공통기준

모든 수련활동 인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관리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② 개별기준

숙박형과 이동형 활동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각 활동 유형별 인증기준과 확인요소를 말한다.

표 III-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구성표

구분	영역 / 유형	기준
공통기준	1. 활동프로그램	1. 발달특성과 욕구반영
		2. 프로그램 구성
		3. 프로그램 자원운영
		4. 프로그램 평가체계
		5. 홍보 및 참여방안
	2. 지도력	6. 지도자 자격
		7. 지도자 역할 및 배치
	3. 활동환경	8. 공간 및 설비
		9. 사용여건 확보
		10. 안전관리 계획
		11. 안전보험 가입
		12. 위생관리
		13. 영양공급관리
4. 활동기록관리	14. 활동기록관리	
개별기준	1. 숙박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 인력 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2. 이동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 인력 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4. 이동관리
		5. 휴식관리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매뉴얼. p. 20

한편 국내와 국제활동을 구분하여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청소년활동에서 ‘국내’라 함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하며, ‘해외’라 함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 III-3 국내 및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국내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구분	영역 / 유형		기준	확인요소	구분	영역 / 유형		기준 (국내/해외)	확인요소 (국내/해외)		
인증기준	공통기준	1. 활동프로그램		5	9	인증기준	공통기준	1. 활동프로그램		5/5	13/14
		2. 지도력		2	3			2. 지도력		2/2	6/6
		3. 활동환경		6	10			3. 활동환경		6/6	11/14
		4. 활동기록관리		1	1			4. 활동기록관리		1/1	1/1
		소 계		14	23			소 계		14/14	31/35
	개별기준	활동유형	숙박형	3	3	개별기준	활동유형	숙박형	2/1	2/1	
이동형			5	5	이동형			4/3	4/3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매뉴얼. p. 19

(6) 인증운영체계

수련활동 인증 운영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들과 체계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III-4 인증제 운영체계의 핵심요소

구분	기능 및 특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수련활동의 인증여부, 인증제 제반규정 등 심의의결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활동에 관한 인증제도의 운영을 수행하는 실무기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지역에서 지원하는 기관
인증기준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기준
인증심사원	인증신청프로그램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증정보시스템	수련정보 및 개인 활동기록을 관리하고, 인증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인증신청자 (인증 받은 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참여 청소년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기록 이용자	학교/대학/기업 등 청소년 개인의 인증수련활동기록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매뉴얼. p. 22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 목적 및 기대효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공작에 의해 1956년 처음 소개되었다. 그 목적은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기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제도는 독특한 유연성으로 인하여 다른 문화와 사회 속으로 쉽게 적용되고 통합될 수 있어 많은 나라의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의해 채택되어 그 나라마다 고유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1956년 이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127개국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 예로 ‘에딘버러 공작상’, ‘청소년을 위한 국제포상제’, ‘대통령 포상제’, ‘국립 청소년 성취포상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0년 현재 4회 포상식이 이루어졌다(<http://www.koraward.or.kr/>).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포상단계(금장, 은장, 동장)별 공통으로 4가지 포상활동(신체, 봉사, 자기개발, 탐험)을 정해진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면서 각 활동 별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참가대상은 만 14세에서 만 25세(만 25세 생년월일 생일 전까지) 국내외 청소년이며, 포상단계는 동장, 은장, 금장으로 나뉜다. 동장은 만 14세 이상, 은장은 만 15세 이상, 금장은 만 16세 이상에게 주어진다(<http://www.koraward.or.kr/>).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기본이념은 ①비경쟁성 ②평등성 ③자발성 ④유연성 ⑤균형성 ⑥단계성 ⑦성취지향성 ⑧지속성 ⑨과정 중시성 ⑩흥미에 있다. 포상식은 매년 한국 사무국에서 2회 이상 개최하며 개최일은 별도로 공지된다. 포상식 이후 또는 그 이전에도 진학 및 취업에 필요시 포상심의회 통과되면 온라인으로 언제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포상품으로 주어지는 것은 국제포상협회 인증서, 여성가족부 인증서, 뺏지, 휘장이다(<http://www.koraward.or.kr/>).

(2) 참여 및 심의 절차

청소년 참여 및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http://www.koraward.or.kr/>).

① 참여절차

온라인 회원가입 → 온라인 운영기관 검색 → 운영기관 포상담당관과 상담 → 온라인 입회신청(입회비 납입) → 4개 활동영역 세부계획 및 성취목표 수립 → 포상담당관 승인 → 포상활동 시작 → 활동내용 활동기록부 기록 → 영역별 활동 완료 → 포상심사 → 포상승인 및 반려 → 포상식 참여

② 심의절차

포상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 → 중앙운영기관 & 광역사무국 → 한국사무국 → 국제포상협회사무국(영국)

(3) 포상활동별 유형

포상활동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ttp://www.koraward.or.kr/>).

- 봉사활동: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 자기개발활동: 개인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
- 신체단련활동: 신체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
- 탐험활동: 자연을 통해 도전정신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활동
- 합숙활동: 새로운 사람들과 가치 있는 목적을 공동으로 이루는 활동

표 III-5 포상 단계별 포상활동 영역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구분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출처: <http://www.koraward.or.kr>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소개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개요

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1) 목적 및 기대효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에 평가인증 모형개발 연구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2004년 1월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005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래, 2009년까지 제1차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제2차 주기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대균, 2005).

평가인증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시설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보육시설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한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다. 보육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과정을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 부모에게는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http://kca.childcare.go.kr/cais/content/cnt_intr_05.jsp)

(2) 인증절차 및 법적 요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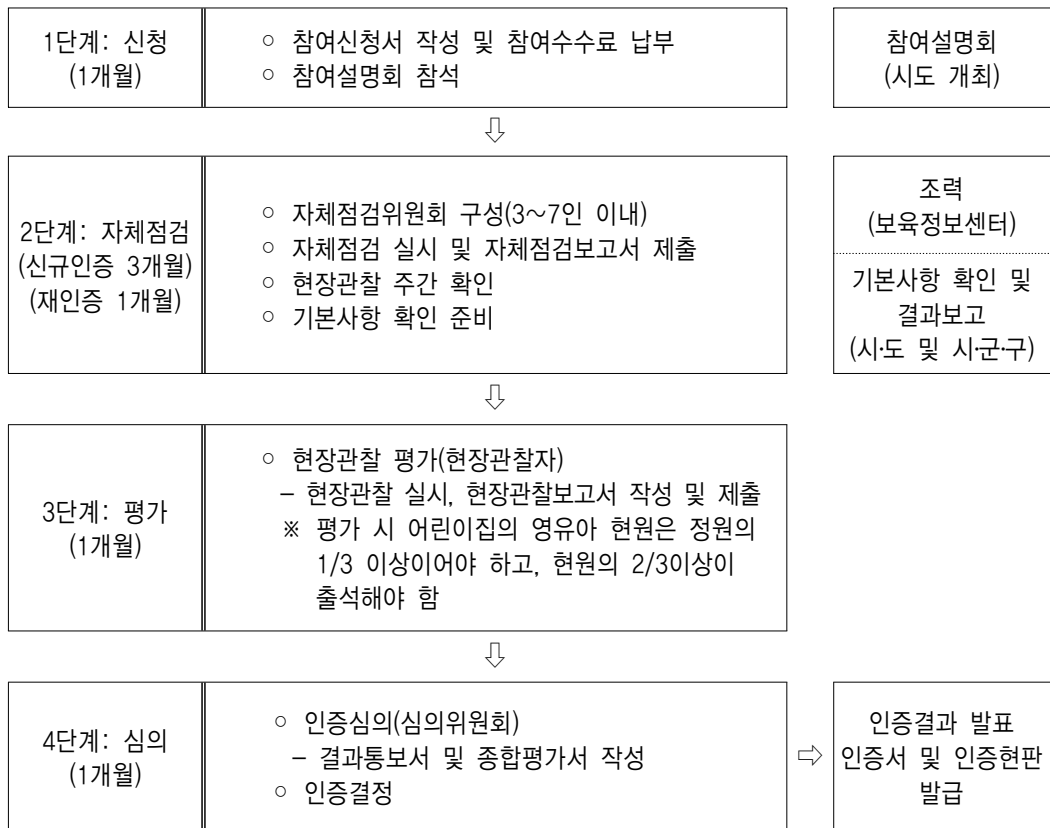
-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0.3.1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④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전문개정 2009.7.3]
-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전문개정 2009.7.3]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보육시설 29,084개소(86.8%)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그 중 20,255개소(60.5%)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한편,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인증율이 낮은 편이나 참여·인증율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평가인증 지표에 따른 보육시설의 자율적 점검 기회부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 자체점검, 평가, 심의 4단계로 진행되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출처: 서문희(2011), p. 10

【그림 III-1】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3) 인증 및 심의기준

① 평가인증 심의기준

보육시설 평가인증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I-6 보육시설 평가인증 심의기준

심의자료	심의기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2. 평가인증기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우수사례</th> <th>부적절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td> </tr> </tbody> </table>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출처: 서문희(2011), p. 18.

보육시설 인증은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점수는 2.25점(3.00만점)/75점(100점만점)이다. 결과는 인증과 인증유보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표 III-7 보육시설 평가인증결과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인증유보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출처: 서문희(2011). p. 17, 김형오(2011). p. 7.

인증결과 확인은 평가인증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이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편,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시설은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평가인증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점검, 재관찰 및 재심의 과정은 일반참여 방법과 동일하나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유보시설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경우는 전체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사후관리는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방문지원, 각종 교육제공, 인증취소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김형모, 2011).

② 평가인증지표

초기 평가인증지표는 21인 이상, 20인 이하,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의 4종이 개발되었으나, 2005년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지표의 종류를 축소하여 2006년부터 2008년 3기까지는 21인 이상, 20인 이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3종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소규모 어린이집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이 2008년 4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평가인증지표 적용기준을 40인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구분함으로써 현재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의 3종으로 적용되고 있다(서문희, 2011).

40인 이상 어린이집용 지표는 6개 영역 7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9인 이하 어린이집용 지표는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지표는 6개 영역 7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용 평가인증지표의 영역과 하위 항목은 <표 III-8>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평가인증지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3단계 기술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3점은 '우수한 수준'으로 바람직한 실재를 기술하며, 2점은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적으로 우수한 실재를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점은 ‘부적절한 수준’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실재를 기술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3단계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인증 지침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참여시설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서문희, 2011).

표 III-8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0항목)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11항목)	가. 어린이집 환경 (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 (3항목)
영역 2. 운영관리(12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3항목) 나. 보육인력 (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 (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영역 3. 보육과정(14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7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2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2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출처: 서문희(2011), p.23

(4) 행정 및 지원체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사무국이 주관 기관으로 추진하지만, 시도와 시·군·구 행정기관,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행정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신청,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에 참여한다. 신청단계에서는 설명회 개최, 적합판정 확인, 필수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확인(재참여 시설 포함), 취소시설 조치 등을 담당한다. 보육정보센터는 자체점검 단계에서 참여

어린이집을 위한 조력 등을 지원하고 사업안내,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서문희, 2011).

표 III-9 사무국 및 유관기관 평가인증 업무현황

구분	보건복지부(사무국)	시·도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지원 - 수수료 수납 - 참여 확정 - 시설 지원관리 - 취소, 포기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개최 - 적합판정 확인 - 필수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확인 - 취소시설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판정 - 필수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확인 - 취소시설 조치 	
자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 등 지원 - 사업안내, 교육 및 상담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관찰자 선발·교육·파견 - 현장관찰 진행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심의, 결정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취소 및 인증시설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취소 및 인증시설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취소 및 인증시설 사후관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등 자료개발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보, 자료 제공

출처: 서문희(2011), p. 24.

4)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인증제 시범 운영 중이며,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제는 현행 평가제도와 추구하는 목표나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운영 및 활용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평가대상 기관의 불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형모, 2011).

(1) 인증시범사업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인증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의 제도적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2005년부터 여러 시설 유형의 인증지표개발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인증지표가 개발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장애인주간을 대상으로 인증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아동생활시설을 대상으로, 2008년에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인증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III-10 2006년 인증시범사업

유형	인증일	인증시설
노인요양시설	2007.04.06	서울시립노인요양원
노인단기보호	2007.04.06	신목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	2007.04.06	도봉서원치매주간보호센터
	2007.12.20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	2007.04.06	원광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p. 134

표 III-11 2007년 인증시범사업

유형	인증일	인증시설
장애인직업재활	2007.12.20	동천모자근로시설
아동생활시설	2007.12.20(조건부인증)	천사의 집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p.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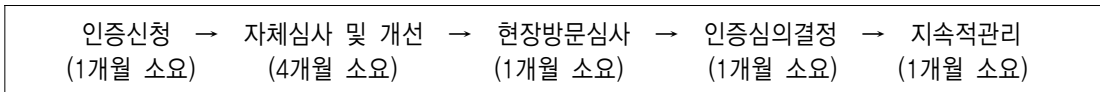
표 III-12 2008년 인증시범사업

유형	인증일	인증시설
아동생활시설	2008.09.25	천사의 집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p. 134

(2) 인증절차 및 법적 요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7개월 정도이다. 인증과정은 5단계를 거친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p. 134).



○ 관련 법 마련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2010.1.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이에 따라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에서 ‘시설의 평가’를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되었다(김형모, 2011).

(3) 향후 추진 계획

① 평가인증제도 전담 기구 설치

평가인증제도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되었다. 현행처럼 매 3년 마다 새로운 평가담당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기 보다는, 평가인증제도를 전담하는 평가인증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최균, 2010). 평가인증 전담기구에서는 그동안 4기에 걸쳐 12년 동안 개발되고 보완되어 사용되었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를 기초로 하고, 2010년 개발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최소기준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인증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인증 전담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위원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각 시설유형별 평가인증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김형모, 2011).

② 평가인증지표 개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적합한 평가인증지표의 개발이다. 평가인증지표의 개발은 그동안 총 4기에 걸쳐 지난 12년 동안 개발되고 보완되어 온 각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시설 유형별로 개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토대로 하고, 2010년 개발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의 최소 기준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정무성·오충순, 2010).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경우 서울시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제6기(2014년~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는 전면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제5기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된다. 단계적으로 제5기(2011년~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전체적인 평가구조를 기본영역과 전문영역으로 구분하고, 기본영역(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영역(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에서는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인증제의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인증지표는 2005년 노인요양시설 인증모형개발, 노인주간단기보호서비스 인증모형개발, 장애인주간단기보호 서비스 인증모형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인증지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공통경영지표는 8개 대영역, 14개 하위영역, 3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지표는 9개 대영역, 20개 하위영역, 5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3 공통경영지표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인력자원관리	인력확보(3)
	운영위원회 운영(3)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4)
정보·문서관리	체계적인 정보·문서관리(3)
재정회계관리	재정 및 회계의 투명관리(3)
	적절한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반영(2)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2)
리더십	시설의 목표 실현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3)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 확립(2)
시설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3)
	전염병 발생 대비(2)
지역사회관계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도모(2)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의 적극적 활용(3)
이용자 관리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적극반영(2)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p. 139

표 III-14 서비스지표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서비스 안내	이용자에게 충분한 입소관련 정보제공(3)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3)
	이용자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지원(2)
표준적 서비스 수준 확보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서비스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2)

대영역	하위영역(평가항목 수)
서비스 계획	이용자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3)
	서비스 실시, 정기적 평가와 재사정에 기초한 서비스 계획 개선(3)
일상생활 서비스	영양을 고려한 즐거운 식사시간 제공(3)
	적절한 목욕서비스 제공(2)
	배설관리서비스를 위한 적합한 자원(3)
	개인위생관리서비스의 적절한 제공(3)
간호 및 재활서비스	적절한 간호서비스 제공(5)
	잔존능력 유지 및 회복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3)
치매노인 서비스	치매성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4)
사회서비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서비스 제공(3)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이용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서비스 환경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공간의 구성·정비(4)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2)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철저히 보호(3)
	서비스 실시에 있어 이용자 및 가족의 의사 존중(2)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p.140

5) 시사점

이상으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인증제의 도입은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인증제 운영을 사업 기능으로 부여하여 인증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 포상 계획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이름으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데 이 포상제 또한 청소년들의 활동 실적-성과에 대한 인증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김혁진, 2011). 하지만 이러한 인증제들은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며, 활동 참여에 대한 인증이다. 이러한 인증제의 운영사례로부터 향후에는 청소년수

련시설 인증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인증제의 인증기준 구성, 인증 심사원, 인증정보시스템, 인증신청자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방식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향후 인증제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설 인증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 인증제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실시 중이고 향후 전면 실시 예정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증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로 평가와 인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국가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증참여율도 2010년 현재 86%가 넘어서고 있다. 결국 체계적인 보육시설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양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보육시설 선택 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용하는 시설의 평가인증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서문희, 2011). 보육시설인증제의 경우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은 정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서비스 수준 개선과 소비자들의 인증제도 활용과 연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도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도입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에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증제도는 심사 프로세스를 포함한다는 면에서는 평가제도와 동일하지만 일회성 심사를 통해 시설을 평가하는 평가제도와는 달리 인증심사 후에도 인증기관과 인증대상 시설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필요한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나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접근 면에서도 결과가 서비스 품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평가제도와는 달리 인증제도는 인증지표 및 인증전반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심사대상 시설의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의 총체적인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와 관련된 법에서 평가를 평가인증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원칙, 절차, 운영, 평가지표,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방향성을 수립하였다(김형모, 2011).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시설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시설 및 협회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시스템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2. 국외 주요 인증제도

1) 미국의 인증제 사례

미국은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과 달리 체계화된 청소년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청소년시설 체계도 별도로 존재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캠프 등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기구나 시설, 단체 등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별도로 이들에 대한 기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인증제도를 살펴보기 보다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청소년시설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캠프인증제(American Camp Association 인증)와 청소년 방과후활동 인증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 사례인 보육시설인증제와 가족,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인증기구인 인증협회(Council of Accreditation)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ACA(American Camp Association) 인증

ACA는 1910년 캠프 지도자 연합(Camp Directors' Association)으로 발족하여 1935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캠프전문가 단체이다. ACA는 미국 50개 주와 일부 외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민간 비영리 조직으로 캠프 경험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CA 인증 프로그램은 캠프 운영과 프로그램 품질, 캠프참가자와 스태프의 건강과 안전 등을 관리하는 캠프 사업자와 소장을 교육한다. 또한 캠프가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책과 절차,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정한다. 그리고 업계가 인정하고 정부가 공인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캠프를 선택하는 일반인을 지원한다. ACA의 캠프찾기(Find a Camp)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적합한 ACA 인증 캠프를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① ACA 인증의 목적

ACA 인증의 첫 번째 목적은 캠프 소유자와 운영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하여 캠프 운영의 주요 요소들을 관리하도록 교육하며, 캠프 참가자들과 관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절차, 실행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캠프들이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목표는 일반 대중을 위하여 캠프 산업이 수용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표준에 맞는 캠프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ACA의 캠프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 인증 받은 캠프 검색을 위한 11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ACA 인증기준은 캠프 관리와 운영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http://www.acacamps.org>).

② 인증의 효력 및 대상

ACA의 인증기준은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 기준에 중점을 두지만, 인증을 받음으로써 캠프참가자가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인증은 캠프 운영진이 캠핑 업계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에 자체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일반에 알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숙련된 캠핑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인증심사팀은 적어도 3년마다 캠프를 방문하여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주 면허 당국의 검사와 달리 ACA 인증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ACA는 인증 지위의 철회를 제외하고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폐쇄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 면허는 최소 기준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인증은 캠프 운영의 교육과 평가에 중점을 두며 최소 면허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CA 표준은 캠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ACA 인증 프로그램은 원시적인 시설이나 전원 시설, 첨단 시설 등, 광범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제공된다. 각 프로그램은 고유의 방식으로 인증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주간 캠프나 숙박 캠프, 여행 프로그램, 학교 캠프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캠프(예, 스포츠, 학술, 치료, 종교)를 운영하는 다양한 유형의 캠프와 프로그램 등에서 ACA 인증을 추진한다.

③ ACA 인증 영역과 기준

ACA 인증은 아래와 같이 캠프 관리와 운영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인증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 현장: 소방, 급식 서비스, 취침 지역, 유틸리티 및 정비 시스템.
- 운송: 운전자와 차량, 현장 교통에 관한 절차
- 건강과 웰빙: 스태프의 자격, 시설 요건, 기록 비치, 의약품 보관 및 배포, 연락처, 건강 양식
- 운영 관리: 안전 규정, 비상 통신 시스템, 침입자 대응 절차, 개인 소지품 규정

- 인적자원: 스태프 자격, 심사 및 훈련, 감독 비율, 절차
- 프로그램 활동: 수상경기, 어드벤처/챌린지, 여행, 승마,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스태프 자격

표 III-15 ACA 인증영역

영역	하위 영역
현장 및 급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 공구의 적절한 취급 및 이용 - SF-11 • 등유나 세제와 같은 유해 물질의 적절한 취급 - SF-2 • 청소, 유지보수 문제 보고와 같은 필수 일반 유지보수 과정 - SF-7 서면 • 음식 조리, 보관, 취급 절차(해당 사항)- SF-19 - SF-28, 일부 서면.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밴 안전 절차 및 그룹 관리 - TR-8 및 TR-9 서면 • 여객 차량의 안전 규정과 절차 오리엔테이션 - TR-10 • 운송 중 사고 대응 절차 - TR-7 서면 • 정시 도착 및 출발과 차량 하역을 위한 안전 절차 - TR-3 • 차량 운전자 교육 - TR-17 및 TR-18 서면 • 비여객 차량의 인원 수송 - TR-4 • 스태프와 캠프참가자 감독 비율과 건강 정보의 가용성 및 장소, 치료 허가 양식을 지정하는 운송 정책 - TR-6 서면
건강과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참가자의 특수 수요를 스태프에게 통지하는 절차 - HW-10 • 캠프참가자 건강관리에 대한 스태프의 책임 - HW-13 서면 • 캠프 출소 시 건강관리와 응급 처치 제공 - HW-14 • 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을 캠프에 보관하는 방법 - HW-20 • 제출된 건강 일지 및 사고 보고서 기록 - HW-21, A 및 B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참가자 보안 절차- OM-17 서면 • 비상 통신 계획- OM-15 서면 • 일반 캠프 안전 규정 및 규칙 - OM-9 서면, OM-S, OM-12 • 공공장소 캠프참가자 감독 절차 - OM-16 서면 • 사건 및 사고 보고서 작성 - OM-13 • 실종자 대응 절차- OM-14 서면 • 개인 소지품에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 - OM-10 서면 • 흡연 정책 - OM-11 • 침입자 취급 절차 -OM-6 서면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관리 - HR-16 서면 • 캠프참가자/스태프 비율 - HR-9 서면 • 인사 정책- HR-S 서면 • 프리캠프 스태프 교육(구체적인 주제 취급)- HR - 11 • 민감한 쟁점 정책- HR-17 • 스태프/캠프참가자 상호작용 - HR-15 • 스태프 훈련의 다양성 - HR-5

영역	하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캠프 활동에 대한 캠프 스태프 책임- HR-14 서면 • 스태프 감독- HR-18 서면 • 감독자 훈련- HR-19 서면 • 특정 업무에 대한 훈련 - HR-7
프로그램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에 지명된 담당자 신상정보- PD-14 • 긴급 정보 - PD-13 • 환경 기준과 활동 - PD-3, PD-12 • 전문 활동 분야 감독- PD-1S • 각 전문 활동의 운영 절차 - PO-19 서면 • 기술 검증과 활동 감독- PD-16, PD-17 서면 • 활동 지역 접근 통제 절차 - PD-18 • 숙박 및 여행 절차 - PO-1 서면 • 참가자 역량 시연 - PD-21 •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PO-6 서면 • 참가자 안전 오리엔테이션 - PO-20 • 프로그램 장비의 사용 - PD-4

④ ACA 인증절차

ACA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료를 낸다. 신청료는 인증 서비스를 위한 것뿐 아니라 스텝 개발, 공공 인식 개선, 합법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된다.
- 캠프 스텝은 지역 ACA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표준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사무소는 인증과정을 설명하며, 표준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한다.
- 캠프 스텝은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캠프 운영의 각 영역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 캠프 스텝은 표준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한다.
- 캠프는 ACA의 방문단을 맞는다. 방문단은 하루 동안 캠프를 실시하며, 표준에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 책임자와 작업하게 된다. 이 방문은 캠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이루어진다.
- 캠프 디렉터는 해마다 표준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윤리적, 합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캠프기준에 맞추어 운영할 것이라는 서약을 한다.

⑤ ACA 인증 캠프 혜택

ACA 인증을 받은 캠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㉑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

미국소아과학회나 미국적십자와 같은 전문 단체는 AC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캠프 표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ACA 인증은 자문위원회의 전문지식을 넓게 해준다. 가맹 캠프는 위험 관리와 아동 발달, 수상경기, 건강관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접할 수 있다.

㉒ 연중무휴 재인증

모든 하계 장기 ACA 인증 캠프는 위기 대응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숙련된 요원이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한다.

㉓ 격려 및 지지와 멘토링

인증 과정은 격려를 제공한다. 숙련된 인증 강사와 참관 요원은 동료가 되어 ACA 인증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알리며 성공을 기원한다. 인증기준 준수는 인증 실사를 통한 초기 훈련부터 계속되는 학습과 격려의 과정이다.

㉔ 위험 관리

인증 과정을 통해 캠프는 구체적인 위험 분야를 식별하거나 관리하고 캠프의 기준을 평가하고 캠프 스태프의 비판적 사고를 확립할 수 있다. 업계의 인정을 받는 ACA의 표준은 이미 확인된 우수 기준에 대한 캠프의 성과를 측정한다.

㉕ 스태프 훈련비용 절감

인증 캠프는 대다수 교육 행사와 ACA 북스토어 품목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ACA 교육 기회가 전 스태프에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㉖ 독점 업체 할인

ACA는 다양한 필수 업무 서비스를 인증 캠프에 특가로 제공해 왔다. 신용카드 처리와 스태프 채용 서비스, 장거리 선불 전화 카드 등. 대다수 캠프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투자액을 회수한다.

㉗ 품질을 위한 맞춤 템플릿

학부모는 캠프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최소 요건 이상의 성과를 기대한다. 그에 따라 ACA 인증

프로그램은 우수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서를 제공한다.

④ 적시 지식

고용법이나 차량 안전, 캠프참가자 폭력, 해외 등록 간호사, 스태프 심사,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1년 중 거의 모든 달에 Camping Magazine이나 Camp Line를 구독할 수 있다.

⑤ 워싱턴의 친구

ACA의 입법 감시와 활동은 캠프 체험에만 집중된다. 캠프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거나 터무니없는 요금을 내야 하는 미국 산악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해외 스태프 교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⑥ 1년 안에 수백만 명에게 캠프의 성공담을 알릴 수 있다.

전국 “Camp Gives Kids a World of Good”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에 대한 ACA의 투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캠프에 대한 보도의 수량뿐 아니라 품질도 1994년 이후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캠프참가자 등록은 28퍼센트 증가했다.

⑦ 역동적인 스태프 서비스

Summer Jobs @ Camp와 Year Round Jobs @ Camp 연중무휴 취업 서비스에 구인 목록을 등재할 수 있다. 구직자 수천 명이 매일 이 서비스를 확인한다. 캠프뿐 아니라 구직자로부터도 높은 찬사를 받고 있다.

⑧ 가족이 방문하는 ACA 캠프 데이터베이스

ACA 웹사이트는 매일 평균 5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ACA 캠프 데이터베이스는 ACA 인증 캠프만 등재된다. 가족들은 이러한 캠프를 신뢰할 뿐 아니라 가장 적합한 캠프 체험을 검색하는 다양한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㉓ 신뢰받는 ACA 마크 사용

ACA 인증 마크는 50년간 학부모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마크는 학부모의 관심을 인정하고 캠프의 책임감과 신뢰성, 헌신의 확증을 제공한다.

㉔ 기타 전문가 네트워크

캠프 전문가는 현지 회의, 지역 및 전국 교육 행사에서 만난다. 캠프 업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다.

㉕ 스태프 교육 시간 단축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탁월성 보장을 위해서는 일대일 교육에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인증 과정은 이러한 대인 교육 시간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인증은 전문가의 청렴성과 자질로 귀결되는 절제된 경영 방식이다.

⑥ ACA 인증의 의미

ACA 인증을 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 받는다.

㉑ 신뢰/인증

- 전국 캠프 소장 10명 가운데 9명은 캠프참가자와 스태프에게 안전한 양질의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캠프에 대한 인증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증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1997 ACA 하계 캠프 조사, 미국캠핑협회.)
- 하계시즌에는 위기 대응 핫라인을 제공한다.
- ACA는 지난 50년 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 왔다.
- 업계에서 확립되었다.
- 캠프 전용으로 개발되었다.

㉒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 우수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재가 제공된다.
- 전문가의 청렴성과 자질로 귀결되는 절제된 경영 방식을 제공받는다.

㉔ 위험 관리 프로세스

- 구체적인 위험 분야를 관리하고 캠프의 기준을 평가하고 캠프와 스태프의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㉕ 일반인에 대한 의미

- 신뢰 받는 마크 ACA 인증 캠프 마크는 50년간 학부모의 신뢰를 받고 있다.
-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일반인이 캠프 옵션을 사전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인증은 건강과 안전, 프로그램 품질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건강과 안전, 프로그램 품질 표준을 최대 300개까지 준수한다는 인증을 의미한다.
- 책임과 신뢰성, 헌신에 대한 확증이다. 관심에 대한 증거이며, 캠프가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하고 ACA의 평가를 받고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한다.
- 캠프가 전문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미국소아과학회나 미국적십자 등은 AC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캠프 표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㉖ 캠프 감독자/캠프위원회에 대한 의미

-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캠프 건강 및 안전 감사
- 캠프의 3분의 2가 홍보와 학부모의 관심이라는 압력을 토대로 인증을 유지 (“인증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1997 ACA 하계 캠프 조사, 미국캠핑협회.)
- 정치권 압력 - 캠프가 의도하지 않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과 해외 스태프 교류 프로그램의 유지
- 전국 홍보 - ACA 메시지는 1998년 7억 명에게 홍보 (ACA 가맹 캠프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캠프 참가율이 28퍼센트 증가했다)
- 우수 기준에 대한 고유의 스태프 교육
- 신용카드 처리, 스태프 채용 서비스, 스태프 교육, 프로그램 자료, 교육 등에 대해 ACA 가맹 캠프에만 할인 제공

㉗ 후원자에 대한 의미

- 책임감의 증명(캠프는 업계에서 정한 건강과 안전 표준을 최대 300개까지 준수한다)
- 입소 아동에 대한 헌신의 입증

- 전국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 요청(표준 프로그램은 위험 관리와 아동 발달, 수상경기,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 및 검토한 결실)
- 우수 기준에 대한 스태프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⑦ ACA 인증 수수료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캠프는 인증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증 서비스에 대해 연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면 추가 요금은 없다. 연간 수수료와 서비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0.5퍼센트 미만이다. 캠프는 캠프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ACA 인증 기준 사본을 받는다. 인증기준 과정에 대한 참가자 실사팀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없다. 서비스 사용료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는 ACA 표준 프로그램의 관리를 비롯하여 현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현지 ACA 지부에 전달된다.

전국 사무소에 예치되는 기금은 전국표준위원회의 지속적 업무를 지원하고 이러한 전국 프로그램을 유지할 직원을 충원하는데 사용된다. 서비스 사용료는 표준 프로그램의 유지뿐 아니라 수상실적에 빛나는 ACA의 국민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나 국가 차원에서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한 입법 감시 및 활동과 같이 모든 캠프에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 NAA(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 인증

방과후프로그램연합(The 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은 1987년에 창립되었다. 과거에는 미국학령기아동돌보기연맹(National School-Age Care Allianc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이 단체는 미국 아동교육연맹(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으로부터 발족하였다. NAA는 방과후 동안 학습을 확장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연합이다.

① 인증의 목적

방과후프로그램 인증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인증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들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NAA는 보다 나은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해 양질의 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현재 방과후 분야의 유일한 전문가 단체로 7000명의 멤버와 38개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방과후프로그램

디렉터, 코디네이터, 스폰서, 일선현장의 스텝, 학교 지도자, 교장, 교사, 관련전문가, 교육행정가, 비영리단체의 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 정치가,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http://www.naaweb.org>).

NAA의 인증기준은 총 144개이며 이는 인간관계(지도력), 내부환경, 외부환경, 안전·건강·영양, 활동, 운영행정 등 6개의 영역 및 36개의 핵심분야로 구분된다. 방과후프로그램 인증위원회는 비영리 기관으로 인증분야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현재는 7백만여 명의 아동, 청소년, 가족 등을 위해 제공되는 180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해 인증을 하였다(<http://www.naaweb.org>).

현재 방과후프로그램 인증은 COA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NAA 이사회는 이 같은 논의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인증 과정은 COA에 이전하고 NAA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이 인증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②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기준

COA의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기준은 NAA의 인증기준과 COA 표준 8쇄를 통합한 것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관리 (ASP-AM)와 방과후 프로그램 인적 자원(ASP-HR), 방과후 프로그램 및 서비스 (ASP-PS)와 같이 크게 3개 인증기준 섹션이 포함된다.

- 첫째, 관리 기준은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재정 관리, 위험 예방 및 관리, 윤리적 기준과 관련된 기준이 포함된다.
- 둘째, 인적 자원 기준은 채용과 선발, 교육과 전문성 개발, 지원, 감독을 취급한다.
- 셋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준은 방과후 시간에 아동 및 청소년과 협력하는데 권장되는 추가 기준을 명시한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3개 인증기준 영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증기준에 맞추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증진하는 일련의 기준을 나타낸다. 각 인증기준 섹션은 철저한 자체 평가와 인증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3단계 구조에 따라 구성된다.

- 첫째는 목적 기준(Purpose Standard)으로 각 영역의 서두에 있다. 목적 기준은 영역에 포함되는 기준의 전체 목표와 원하는 성과를 명기한다.
- 둘째는 핵심 개념 기준(Core Concept Standard)이다. 이 영역은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영역은 핵심 개념 기준으로 시작된다. 핵심 개념 기준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각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핵심 개념의 이행은 목적 기준의 달성에 기여한다.

- 셋째는 실무 기준(Practice Standard)이다. 대다수 하위 섹션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이 포함되는데 이를 실무 기준이라 한다. 본 기준은 프로그램 이행의 증거를 입증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준이다.

③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 추진 절차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을 위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COA의 웹사이트 www.coanet.org 를 방문하여 인증협의회에 관한 정보와 이해를 얻는다.
-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이 제공하는 장점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이해관계자와 함께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기준, 책임을 논의한다.
- COA 인증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을 비롯하여 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해당 정보 및 신청료와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다.
-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보장한다는 점을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알린다.

④ COA 인증 프로그램 준비 방법

- 각 영역이나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표준에 대한 개선/실행 계획에 적합한 검토와 표현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해당 섹션을 배정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기준 검토에 관여하는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COA는 각 섹션이나 하위 섹션별로 최종 책임자를 1명을 지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팀원을 상대로 기준을 이용하여 현행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기준의 구조, 각 섹션에 포함되는 관련 내용, COA 평가 시스템 및 COA 평가지침을 이용하여 내부 평점을 해석, 평가, 할당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체 평가” 실시를 위한 일정을 배정한다. 자체 평가에는 전체 표준의 검토와 각 표준에 대한 “예비 평점” 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체 평가에는 필요한 최신 문서가 제공되고 프로그램이 향후 진행될 현장 활동에 참가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섹션의 증거 테이블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 COA가 자체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툴을 사용한다. COA에는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비롯하여 유용한 툴이 구비되어 있다.

- 해당 예상질문지(Tip Sheet)를 검토하여 프로그램 고유의 구조 및 모델을 토대로 표준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를 개선한다.
- 무엇보다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은 표준 이행의 명확한 증거를 입증할 때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OA 현장 인증 담당관이 실시하는 면담은 정책과 절차가 프로그램 안에서 운용된 범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면담 과정을 폭넓게 이용하고 정기 프로그램/부서별 직원 회의 의제에 면담 질문을 포함시킨다.
- “실행되지 않음”으로 식별된 표준에 대해서는 개선/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인증 단체의 피드백에 따르면 업무 실행에 소요되는 일정 및 명확한 기대치와 함께 책임자를 배정하는 등, 실행 계획을 입안하면 인정 일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재평가: 실행 계획의 개발 및 이행 이후 일정 시점에 개별 담당자나 팀원이 표준의 이행 증거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한다. 과제로 확인된 분야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한다.
- 협력을 시작한다. 증거 테이블의 사전 및 현장 문서 일체를 구성 및 작성하여 프로그램 자체 조사에 제출하거나 현장 방문팀에 제공해야 한다.
- “모의 현장 방문”의 진행을 고려한다. 모의 현장 방문은 인증/재인증에 대한 프로그램의 준비도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모의 현장 방문은 강력한 틀이며 현장 방문이 인접하면 다른 모의 검토와 함께 이 과정을 개시할 때 진행을 고려할 수 있다. 모의 현장 방문에는 시설 검토와 아동 파일 검토, 인증기준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직원 면담이 포함될 수 있다. 모의 현장 방문을 과정 초기에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격차가 존재하는 지점을 평가하고 재원과 직원의 시간을 대부분 투자해야 하는 분야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현장 방문의 유형

현장 방문 기관과 심사위원 수를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현장 방문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무수한 모범 사례를 결정한다.

- 소규모 프로그램 현장 방문(일일 평균 등원 아동이 75명 미만)에는 일반적으로 현장 인증 담당관 1명과 서류 검토(정책, 절차 등)와 직원 및 이해관계자 면담을 수행하는 원격 인증 담당관 1명이 참가한다.
- 대형 프로그램(일일 평균 등원 아동이 75명 이상)의 현장 방문은 일반적으로 현장 인증 담당관이 2명 이상이다.
- 아동이 150명(일일 평균 등원 아동) 이상인 프로그램에는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데 추가 재원/인증

담당관이 필요할 수 있다.

- 등교전 및 방과후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갖추거나 구성요소가 총 세(3) 개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구성요소의 관찰과 직원 면담을 수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2) 일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현장 방문 일정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을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 동시에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 현장이 한 곳 이상인 단체의 현장 방문 일정은 사례별로 논의할 수 있다.

⑥ 인증 담당관(endorser)과 역할

인증 담당관은 본인이 참가하는 각 현장 방문에 최선을 다한다. 이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면담과 기록 검토, 관찰에 덧붙여, 프로그램을 방문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된다.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 담당관은 방과후 프로그램 분야의 경험과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감을 토대로 채용 및 교육된다. 인증 담당관 팀을 파견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할 때는 인증 담당 책임자가 팀을 이끈다. 인증 담당 책임자는 인증 및 현장 방문 과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COA 방과후 프로그램 인증의 취지와 목표에 대해 진정한 사명감이 입증된 선임 심사위원이다. 인증 담당 책임자는 현장 방문 이전에 실시하는 자체 조사 자료 검토에 덧붙여 사전 활동과 현장 활동 일체를 관리 및 조직한다. 책임자는 기타 인증 담당관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팀원과 프로그램, COA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⑦ 현장 방문 준비 방법

- 사전 준비: 처음 인증을 받기로 결정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과 만나 직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이번 방문이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강조한다. 면담 직원과 논의될 표준을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현장 방문 과정을 숙지하고 직원이 기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의 현장 방문을 고려한다.
- 인증 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현장 방문 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을 알린다. 이는 직원의 참여의식을 보장한다.
- 사전 회의와 마무리 회의를 준비하고 현장 방문 팀과의 회의에 참석할 핵심 직원에게 초대장을

발송한다.

- 현장 방문팀이 현장에서 방해받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한다. 자체 조사 자료 사본을 비롯한 관련 현장 문서는 현장 방문팀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실내에 비치한다. 팀에게 이 공간의 열쇠를 제공한다.
- 증거가 전자 포맷 형태로 되어 있다면 온라인 매뉴얼과 기타 주요 문서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현장 방문팀에 제공한다. 이 컴퓨터에는 가급적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팀원에게 전자 문서 접속 방법을 설명할 담당자를 지명한다.
- 팀원을 프로그램 현장에 안내할 주요 직원을 파악한다.
- 현장 방문이 종료된 후 참가 직원을 보상하고 마무리 회의의 피드백을 공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⑧ 현장 방문 절차

- 시작 전 회의

시작 전 회의는 현장 방문의 정식 “개시”이다. 이는 프로그램 관리자 및/혹은 현장 담당 국장, 현장 방문에 참가하는 기타 직원에게 팀원을 소개하는 시기이다. 회의 중에 인증 담당 책임자는 향후 수 일간 예상되는 내용을 검토한다.

- 면담 및 관찰

현장 방문팀은 시설의 안전과 관리, 유지를 관찰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설을 시찰한다. 시찰을 진행하는 동안 인증 담당관은 직원/고객 상호작용도 관찰한다. 방문 중에는 프로그램 관찰을 위한 추가 일정도 마련된다.

면담의 목적은 서비스 만족도를 판단하고 프로그램을 통틀어 서면으로 기록되어진 정책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하고, 프로그램의 전체 문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마무리 회의

마무리 회의는 프로그램에 일부 최초 피드백을 제공하고 주요 직원과 이사회 위원이 추후 예상되는 사항을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방문 과정을 종결할 수 있다.

⑨ 평점 결정 방법

- 평점의 배정

현장 방문팀은 전문적 판단과 프로그램이 자체 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동안 인증기준을 이행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해당 표준에 관한 현장 방문팀의 평점은 아래 내용을 토대로 한다.

- 자체 조사 문서
- 프로그램 및 시설 관찰
- 설문 자료와 정보
- 현장에서 제출되는 자료
- 직원, 클라이언트,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 평점 시스템 개요 및 인증달성 여부

현장 방문팀은 아래의 평점 척도를 이용하여 표준의 이행과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하며, 평점 지표가 프로그램의 정확한 현황을 설명할 수 없다면 팀은 표준의 목표에 대한 프로그램의 대응을 가장 근접하게 파악하는 평점을 배정한다.

표 III-16 방과후프로그램 인증 평점 개요

평점	내 용
1	전면적 이행/탁월한 성과
2	실질적인 이행/강력한 성과
3	부분 이행/일부 성과
4	이행 및 성과 미비

프로그램의 인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아래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 목적 표준: “1” 또는 “2”
- 핵심 개념 표준: “1” 또는 “2”
- 프로그램의 일부 실무 표준에 대한 평점: “3”이나 “4”를 받아도 인증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이 평점은 부분 이행이나 이행 미비 패턴을 반영할 수 없다.
- 기본 실무 표준: “1” 또는 “2”

⑩ 가능한 인증 결정

방과후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부여할 수 있는 인증 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III-17 방과후프로그램 인증위원회의 인증결정유형

인증 결정 유형	내 용
• 인증 및 재인증	방과후 학교 위원회는 4년 인증이나 재인증을 프로그램에 수여한다.
• 긴급	COA 회장은 아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고 프로그램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 현장 방문 이후 COA 평점 시스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 COA 표준의 이행/지속적 성과를 우려할 원인이 없을 경우.
• 미결	위원회는 승인을 위한 문서가 필요한 일부 표준에 대한 프로그램의 이행/지속적인 성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에 미결 상태를 부여하고 본 문서를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
• 연기	위원회는 표준에 대한 프로그램의 이행/지속적 성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결정을 연기하고 추가 정보 및/혹은 추가 현장 방문을 요구할 재량권이 있다.
• 유예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건강이나 안전, COA 인증 과정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숙지할 경우 일(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인증 프로그램에 인증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프로그램의 유예 상태는 공개 정보이다.
• 중지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건강이나 안전, COA 인증 과정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숙지할 경우 삼(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인증 프로그램의 인증을 중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COA는 인증이 중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중지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요구한다. 인증이 중지되는 프로그램은 중지 기간 동안 인증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중지 시에는 인증 프로그램을 주장할 수 없다.
• 취소	위원회는 COA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기술하는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철회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 거부 또는 철회	위원회는 COA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기술하는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거부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인증 과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3) 미국 NAEYC 보육시설 평가인증

미국의 보육시설평가인증은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가적으로 합의된 인증기준의 부재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980년대 초에 평가인증에 대한 기준 개발 및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1985년 NAEYC

내 평가인증 담당 운영기구를 설치하였으며, 1986년에는 평가인증 참여 후 첫 통과시설이 탄생하였다. 이후 2006년 까지 11,0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인증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증된 보육시설에 수백만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시작한 NAEYC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모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정부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그 결과 지난 7년간 지방 정부 및 주 정부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도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NAEYC는 Academy로 불리는 평가인증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평가인증을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자 훈련을 주관하고 있다(이대균, 2005).

① 인증 목적

NAEYC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관련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결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전문성을 인증해 주는 것이다(NAEYC, 2006;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에서 재인용).

② 인증 절차

미국 NAEYC 평가인증 과정은 크게 자체점검(self-study), 현장관찰(validation), 인증심의(accreditation decision)로 구분할 수 있다. NAEYC의 평가인증 체제의 첫 번째 단계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자체점검(enrolling in self-study)단계이다. 자체점검 과정에 등록한 기관은 다양한 자체점검을 마친 후 NAEYC 평가인증을 위한 형식적인 지원, 즉 다음 2단계로 연속하여 진입하는 기관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더 많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이를 보류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증지원(becoming an applicant) 단계로, 전 단계인 자체점검을 마친 후 인증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단, 이 단계에서는 1년 이내에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마쳐야 하며, 일단 인증 지원자가 되면 영유아, 가족 프로그램 종사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급 관찰, 기록, 문서화를 진행해 간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종사자, 학부모와 함께 인증 기준과 지표를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공식적인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는 현장방문이며, 공식적인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는 현장방문(on-site visit)이 진행되는 동안 검토된다(NAEYC, 2006;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에서

재인용).

다음 단계인 3단계는 인증후보(becoming a candidate for NAEYC accreditation)단계이다.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필수조건(eligibility requirements)과 요구조건(candidacy requirements)을 충족시키며, 현장방문(on-site visit)을 받을 사전 준비가 완료된 기관이 NAEYC 인증을 위한 후조가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지원신청자격 관련 자료를 인증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현장방문 일정이 정해진다(NAEYC, 2006;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에서 재인용).

4단계는 인증결정(accreditation decision)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NAEYC 평가인증 기준과 지표에 대한 신뢰롭고 일관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평가자(assessor)에 의해 현장방문(on-site visit)이 진행된다. 평가자는 현장방문 기간 동안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지표를 확인하고, 모든 인증 대상 연령의 학급을 관찰하며,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또한 종사자 및 부모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고,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다. 인증후보가 된 기관은 15일 이내 현장방문 이후 바로 인증여부(인증, 인증지연, 인증거부)가 결정된다. 2006년 개정된 NAEYC 평가인증제에서는 인증시설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시설에 대한 확인방문뿐만 아니라 불시방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후 질적인 관리차원의 전략으로써 활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③ 인증 기준

NAEYC 평가인증 기준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용, 교사의 자격 및 발달, 운영, 교사 편제, 물리적 환경, 건강 및 안전, 영양 및 급식 서비스, 평가의 10개 영역에 걸쳐 1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가 지표의 채점은 부족, 부분적으로 적절, 충족의 3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하게 되어 있다. 평가 영역은 1998년도에는 10개 영역 193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지표의 내용은 영유아의 교육과 발달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http://kca.childcare.go.kr/cais/content/cnt_intr_05.jsp).

기준(Standard)	주제영역(Topic Area)
1. 관계 아동개인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관계의 촉진	A. 교사와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B. 교사와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C. 친구관계 형성 돕기 D.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교실 만들기 E. 문제 행동에 대한 처리 F. 자기-조절 증진
2. 교육과정 아동발달의 전 영역을 촉진하는 교육 과정의 실행	A. 교육과정: 필수적인 특성 B. 발달영역: 사회-정서 발달 C. 신체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D.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E.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초기 문해 F.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초기 수학 G.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과학 H.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교수용 기자재 I. 숫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표(criteria)없음 J.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 내용: 예술의 창의적인 표현과 감상 K.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건강과 안전 L.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 사회
3. 교수 발달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하며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활용	A. 풍부한 학습 환경을 설계하기 B. 학습을 위한 보육 공동체 만들기 C. 아동 감독하기 D.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 집단, 일과운영하기 E. 아동의 관심과 요구에 대한 반응 F. 모든 아동을 위한 학습의 의미 만들기 G. 아동의 이해력을 심화시키고 기술과 지식을 획득시키기 위한 교수
4. 아동 평가 학습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가족과의 의사소통	A. 평가계획 개발하기 B. 적절한 평가도구 사용하기 C. 아동의 흥미와 욕구 확인하기와 아동의 발달단계 서술하기 D. 교육과정의 적용, 교수의 개별화, 프로그램의 발달 E. 가족과 의사소통하기, 평가과정에 가족 참여하기
5. 건강 건강과 영양 제공 질병으로부터 보호	A.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며 전염병 통제하기 B. 아동의 영양적인 복지 보장하기 C. 건강한 환경 유지하기
6. 교사 자격기준, 지식, 전문성 있는 교직원	A. 교직원의 준비, 지식, 기술 B. 교사의 계획과 전문가 위원회

기준(Standard)	주제영역(Topic Area)
7. 가족 가족 간의 협동적 관계형성 및 유지	A. 가족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B. 직원과 가족 사이에 정보 공유하기 C. 아동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가족을 양성하기
8. 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 활용	A. 지역사회와의 관계 B.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C. 이웃과 유아교육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행동하기
9. 물리적 환경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리적 환경 제공	A. 실내외 시설, 설비, 교재교구 B. 실외 환경 조직 C. 건축과 물리적 설계 D. 환경보건
10. 리더십과 운영 아동, 가족, 교직원에게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정책	A. 리더십 B. 경영 지침과 절차 C. 재무 책임 지침과 절차 D. 건강, 영양, 그리고 안정 지침과 절차 E. 개인적인 지침 F. 프로그램의 평가, 책임,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pp.16-17

미국 NAEYC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비용은 보육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 수에 따라서 차등화된다. 그리고 평가자는 유아교육이나 아동발달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교사, 관리자 또는 장학담당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평가결과 유형은 3년 기한의 인증과 인증지연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평가결과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인지 아닌지의 여부만 공개되고 있다(김형모, 2011).

(4) 미국의 인증협회(Council on Accreditation, COA)

COA는 1977년 미국아동복지연맹과 가족서비스협회를 모체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설립된 인증기관이다. 1975년 미국가족서비스협회(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약칭 FSA)와 미국아동연합(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약칭 CWLA)이라는 두 조직을 중심으로 인증기구를 설립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① 인증 목적

이들 조직은 회원에 대한 자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독립성 부족이 문제가 되어 별도의 인증기관을 두기로 한다. 다음해에 보건·교육·복지부 산하 아동개발국은 책임성 있는 객관적인 제도 수립, 최소한의 허가조건을 넘어서도록 하는 사회복지관 유도, 적절한 자금운용 보장, 보조금 지급기준 수립 등 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33만 달러의 예산으로 36개월간의 기관인증체제 구축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나서 1977년 FSA와 CWLA는 개별적 인증현황을 감독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서울복지재단, 2005).

같은 해 COA는 비영리 독립기구로 정식 설립되었다. 그 후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최초의 ‘인증 규정’을 발간하였으며, 최초의 심사단을 대상으로 COA의 인증기준과 절차, 심사규약 교육을 실시하였다. COA 인증의 가치와 신뢰도는 4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뿐 아니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의뢰되는 사례 100 건 이상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는 헤이그 조약을 비준한 송출국과 협력하여 미국 안에서 국가 간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해 유일한 국내 독립 인증기관으로 COA를 지정했다.

COA는 현재 1,800개 이상의 공사 사회복지시설을 인증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증조사팀 리더와 조사자들이 있다. 2011년 1월 현재 미국의 44개 주와 DC지역, 캐나다의 한 지방을 포함하여 160개의 사례를 인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ttp://www.coastandards.org/about.php>).

② 인증 기준

인증기준은 엄격하되 준수 가능한 것이라야 하며, 해당기관 및 서비스 대상 지역사회의 문화를 반영해야 한다. COA 인증기준은 현지 전문분야가 정의하는 고유의 최상의 실천을 반영하고자 한다. COA는 포괄적인 과정을 거쳐 인증기준을 개발한다. COA는 서비스 제공기관, 자금지원기관, 정책입안자, 전문가, 소비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포함한 질적·양적 연구조사를 활용한다. 인증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4년 주기로 완전 개정된 기준서가 발간된다(서울복지재단, 2005).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COA는 2008년 7월 개발한 8판을 발표하였다. COA의 8판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총 3개의 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행정 및 운영과 서비스 전달체계 행정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서비스지표는 서비스분야를 총 46개(예: 입양, 주간보호, 가정폭력 등)로 구분하여 서비스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 및 경영기준은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 경영실천의 경우 조직경영과 책무성을 촉진하고 지배구조, 질 향상, 재무관리, 위기에방과 관리, 윤리적 실천과

인적자원관리 등을 포함한다. 둘째, 서비스전달행정기준은 행동지원과 관리, 클라이언트 관리, 행정서비스환경, 교육과 슈퍼비전과 같은 서비스 행정과 관련된 실천을 책임진다. 셋째, 서비스기준은 유형별로 구별되는 서비스영역을 위해 제시된 실천 영역을 말한다(경기복지미래재단, 2008;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경영 및 행정기준과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세부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9 COA의 인증지표

대영역	인증영역	인증기준
행정 및 경영 기준	윤리적 실천 (Ethical Practice)	명백한 조정(Open, Transparent Operation), 이익의 갈등(Conflict of Interest), 기금(Fundraising), 부정행위보고자의 보호(Protection of Reporters of Suspected Misconduct), 윤리강령(Professional Conduct), 조사연구보호(Research Protections)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관의 재정적 책임(Governing Body Financial Responsibilities), 내부통제환경(Internal Control Environment), 재무위험평가(Financial Risk Assessment), 안정된 예고세입(Stable Predictable Revenue),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 재정책임성(Financial Accountability), 재무관리시스템(Financial Manage System), 지불봉급(Payroll)
	지배구조 (Governance)	조정을 위한 법적강조(Legal Authorization to Operate), 이사회와 지역사회대표(Governing Body & Community Representation), 미션(Mission), 지역사회 참여와 옹호(Community involve and Advocacy), 이사회조직(Organization of the Governing Body), 지배구조의 책임성(Governance Responsibility), 투자에 대한 감독(Oversight of Investment),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노동환경(Work Environment), 인적자원계획(Human Resources Planning), 신입·선택·배치(Recruitment, selection, and Deployment), 만족 및 근속(Satisfaction and retention), 인적자원실천(Human Resources Practice), 수행평가(Performance evaluation), 직원기록(Personnel Records)
	행정네트워크 (Network Administration)	네트워크 특성(Network Characteristics),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 계획(Planning), 네트워크 서비스(Network Services), 네트워크 서비스 접근(Access Network Services), 적격판정심사와 접수(Screening and Intake), 유용성 관리(Utilization Management), 성과결과측정(Outcomes Measurement), 회원 및 지역사회파트너(Members and Community Partners), 네트워크 적용과정(Network Application Process)

대영역	인증영역	인증기준
	성과와 질개선 (Performance and quality improvement)	질의 리더십 보증과 성과가치(Leadership Endorsement of Quality and Performance), 성과와 질개선을 위한 기초(The Foundation for Broad Use of PQI), 성과를 위한 지원과 결과측정(Support for Performance and Outcomes Measurement), 정보 분석과 보고(Analyzing and Reporting Information), 향상을 위한 질 정보 의사소통과 사용(Use and Communication of Quality Information to Make Improvements, 직원교육과지지(Staff Training and Support)
	위기에방과 관리 (Risk Prevention and Management)	법과 준수(Legal and Regulatory), 위기예방(Risk Prevention), 약물통제와 행정(Medication Control and Administration), 보험예방(Insurance Protection), 정보관리와 사용(Information Management and Use), 정보의 안전성(Security of Information), 케이스기록(case Records), 케이스기록에 대한 접근(Access to Case Records), 계약과 서비스 동의(Contracts and service Agreements), 구입된 서비스의 질 모니터링(Quality Monitoring of Purchased Services)
서비스 전달 체계 행정 기준	행정 및 서비스환경 (Administration and services Environment)	보건과 안전의 촉진(Promotion of Health and Safety), 접근성(Accessibility), 법과 규정 준수(Legal and Regulatory Compliance), 시설유지(Facility Maintenance), 도구와 장비(Tools and Equipment), 안전과 보안(safety and Security), 비상상태 대비와 대응(Emergency Response Preparedness), 특별할 보건예방대책(Special Health Precautions)
	행동지지 및 관리 (Behavior Support and Management)	조직정책 및 철학(Philosophy and Organization Policy), 행동지지 및 관리기법(Behavior Support and Management practice), 안전 교육(Safety Training), 제한적 행동 개입 교육(Restrictive Behavior Management Intervention Training), 제한적 행동개입(Restrictive Behavior Management Interventions), 기록과 보고(Documentation and Debriefing)
	클라이언트 관리 (Client Right)	권리보호 및 윤리적 의무(Protection of Rights and Ethical Obligations), 비밀성과 사적보호(Confidentiality and Privacy Protections), 불만처리절차(Documentation and Debriefing)
	교육과 수퍼비전 (Training and Supervision)	직원개발 및 교육(Personnel Development and Training), 교육내용(Training Content), 수퍼비전(Supervision), 네트워크교육(Network Training)

출처: 경기복지미래재단(2008), pp. 30-31.

③ 인증과정

인증과정은 인증신청단계 → 시설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현장방문 조사 → 인증여부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인증결과는 3~4년 인증, 1년 유예 인증, 인증거부가 있다. 기관구성은 현재 80명의 직원과 34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재정의 98%이상이 인증과 관련된 비용(인증비, 신청비, 자료판매비)을 통해 유지된다(서울복지재단, 2005;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 신청 및 재무 협약서

COA는 조직(기관)이 작성한 (재)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약 2-4주 안에 심사를 완료한다. 그후 (재)인증 수수료가 포함되는 재무 협약서가 동봉되는 서한을 조직(기관)에 발송한다. 조직(기관)은 인증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거나 재무 협약서 서명 시 오십 퍼센트(50%)를 납부하고 잔액은 육십(60)일 내에 납부할 수 있다. 조직이 선택하는 옵션을 불문하고 관련 표준과 자습 매뉴얼은 48시간 안에 발송되며, 3-4주 안에 접수 조정관(Intake Coordinator)과 함께 전화 회의를 예약한다.

• 접수

인증 프로그램은 (재)인증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조직(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접수 팀을 조직하여 접수 및 배정 과정을 인정하였다. 접수 팀은 과정에 대한 설명, (재)인증에 대한 조직(기관)의 준비성 평가, 서비스 전달의 이해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COA는 각 조직(기관)의 다양한 구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인증 조정관을 배정하고 적절한 서비스 표준을 할당하고 인증일정을 개발하며 기술지원과 교육기회를 식별할 수 있다.

• 자체 조사 자료(Self-Study)

자체 조사 자료(Self-Study)는 조직(기관)이 현장 방문단을 맞이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면 문서이다. 조직(기관)은 행정 섹션과 서비스 섹션 등 2개 단계로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직이 자체 조사 자료를 두 부분으로 제출할 경우, 인증 조정관은 자체 조사 자료가 작성되는 동안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COA의 표준 및 자기 학습 매뉴얼은 조직(기관)이 표준의 이행을 증명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각 표준으로 조직(조직)의 이행을 평가하는 4단계 지표 시리즈가 포함된다. 자기 학습은 CD ROM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기 학습 과정은 4-6개월이 소요되며 참여적 자기 평가와 변화가 수반된다.

• 현장 방문

조직(기관)에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약 10주 후 동료심사팀(Peer Reviewers)이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이 팀은 COA 프로세스 교육을 받고 팀원으로 조직의 서비스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장 방문 전에 동료심사팀은 조직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이행에 관한 예비 결정을 내린다. 현장에서 동료심사팀은 자체 조사 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를 확인 및 해명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현장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 기록 검토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심사팀은 각 표준의 이행 수준을 판단한다. COA는 단일 기준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경우 인증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의뢰 전 검토

심사팀의 결과를 토대로 COA는 내부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의뢰전 심사 보고서(Pre-Commission Review Report)(PCR)를 작성한다. PCR 위원회는 현장 방문 중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의무 기준과 필수 기준, 보건 및 안전 기준의 이행을 증명하는 추가 증거에 대한 권고를 조직에 제공한다. PCR은 현장 방문 이후 45 업무일 안에 조직에 발송된다. 그 후 조직은 45 업무일 안에 COA의 의사결정 기구인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mmission)에 답변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

- 인증위원회

조직을 인증하거나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추가 문서를 요청할 최종 결정권은 인증위원회에 있다. 인증에 관한 동 위원회 결정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 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검토한다(즉, COA 직원은 조직에 코드를 할당하고 조직을 식별하는 일체의 정보는 삭제된다).

- 최종 인증 보고서

조직은 심사 과정이 성공리에 완료된 후 최종 인증 보고서를 수취한다. 본 보고서는 해당 기준 전체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조직의 장점 목록, 개선이 필요한 분야 목록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조직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일정

대다수 조직은 신청 시점부터 의사결정 시점까지 12-14개월이 소요되는 전체 인증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COA는 조직(기관) 내외부에서 마감일이 부과되는 조직에 대한 촉진 시간 틀을 실행할 수 있다. COA의 경험상 12-14개월의 시간은 소비자 및 직원, 이해관계자 등 당사자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고 조직이 성장을 촉진하는 변화를 모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COA 인증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단, 연방정부가 3년 주기를 의무화하는 오피오이드(opioid) 치료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모든 조직은 인증 심사를 받는 동안 매년 표준을 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조직이 선호하거나 출자자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3년 인증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COA 재인증 과정은 COA 서면 통보를 통해 인증 만료일로부터 18개월 전에 개시된다. 신설 표준의 발표 이후 재인증 대상이 되는 조직은 신설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

COA 심사원의 역량은 인증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심사원의 자격요건은 인증된 교육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졸업자, 5년 이상 중간관리 및 임상관리 유경험자, COA 인증을 획득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COA 인증과정에 참여한 유경험자 또는 COA 인증기준을 숙지한 자이다. 모든 지원자는 이틀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COA 심사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 계약서와 심사원 행동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연간 최소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도 마쳐야 한다. 심사원이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COA와 계약을 맺은 외부 평가기관이 COA 인증기준 및 과정에 대한 숙지도, 객관성, 문화적 민감성, 비밀유지, 윤리적 책임성, 직업적 책임성,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태도 등의 구체적 기준을 근거로 심사팀의 성과에 대해 전화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방문은 팀 리더가 주도하게 된다. 리더의 역할은 팀의 모든 현장방문을 관리·조정하는 것이다. 심사팀 리더는 세 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마치고, 훌륭한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지녔으며, COA 의사결정과정을 숙지한 경험 많은 심사원이 맡게 된다. 팀 리더도 심사원과 동일한 평가과정을 거친다.

2) 영국의 인증제 사례²⁾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 운영주체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청소년시설 분류가 운영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국은 제3섹터라고 불리는 민간영역 부분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정책의 집행과 운영, 실시에 관한 사항은 민간영역이 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과는 달리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없다.

일례로 한국에도 이미 잘 알려진 영국의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는 국가(national)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정부기관이 아닌 자선단체로 분류된다.³⁾ 이렇게 국가청소년

2) 이 절은 박선영교수(동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3) 사실 영국의 제3섹터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영역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자선단체라고 해도 한국에서의 인식과는 매우 다르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양한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집행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서 민간단체로서의 역할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시설에서의 분류도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이 여러 법에서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규정하고 시설의 종류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반면 영국은 학교와 학교 시설의 이분법적인 분류만이 존재한다. 학교시설의 경우는 크게 Charity

위원회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칭하는 이유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국가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 청소년기관의 질적 점검과 인증제도등에 있어서 정부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는 기관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6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I-20 인증을 위한 점검 단계

단계		내용
1	기관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기	실무자회의를 통해 기관의 질적 향상이란 무엇인지 논의하기 실무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등으로부터의 폭넓은 자문구하기 기관의 질적 향상에 대한 합의된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인증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에 대해 합의하기
2	기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평가하기	여러 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다음의 질문들을 확인하기 - 주요한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가? - 기관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또는 장애물이 있는가? - 기관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만한 상황인가? 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	기관 인증을 위해 적합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인증 제도가 있는지 점검하기 기관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하기
4	가능한 모든 인증제도를 검토하기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유사 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5	인증을 위한 외부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온라인을 통한 자료 조사 인증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전국적으로 알아보기 인증을 위한 실무자의 교육 필요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인증을 통한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6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하기	예산 편성에 포함되어야 할 것 - 자료 구입비 - 교육프로그램 참가 및 외부 지원을 얻기 위한 비용 - 기관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 외부 인증을 위한 예산 예산 총당 계획

Oragnisation(자선단체)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청소년관련시설은 이 기준에 의해 자선단체로 분류된다.

(1) 청소년 기관 대상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 프로그램 및 시스템⁴⁾

청소년기관에 더 특성화된 청소년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아래의 <표 III-21>은 청소년 관련기관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개선 기준과 기준을 제시하는 주체들에 관한 설명 및 프로그램 별 자세한 소개이다. 아래의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외부 인증을 통한 자체 기관 평가가 주목적일 뿐 이를 통해 대외적 홍보나 공신력을 얻기 위한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다.

표 III-21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프로그램과 내용

프로그램명	기준의 내용	관리부처
Hear by Right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기준 제시	국가청소년위원회
Quality Standards	청소년의 정보 제공과 지도에 관한 지도 기준	교육부
Quality Standards	청소년 정보, 상담 및 지원 서비스 기준	Youth Access
You' re Welcome	청소년중심의 보건 서비스 기준	보건부

① Hear by Right :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기준 제시

㉠ 목적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개선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7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세부 기준으로는 다음의 7가지 항목이 제시된다.

- 공동의 가치추구(Shared Values), 전략(Strategy), 구성(Structures), 조직(Systems) 실무자 (Staff), 기술과 지식(Skills and knowledge), 리더십 유형(Style of leadership)

㉡ 대상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법정기관(초, 중등, 대학교 등)과 자원기관(Voluntary Orgnisations)의

4)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 (2002) First steps in quality.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2006). PQASSO in practice.,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에서 요약 발췌함

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상이며 재단이나 지역교육청, 지방정부의 부서, 학교, 대학,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포함된다.

㉔ 운영

이 프로그램은 자체 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각각의 기준에 기관이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기준은 Emerging(초기단계), Established(완성단계), Advanced(고급단계)로 나뉘며 기관은 자신들의 현 단계에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좀 더 유도함으로써 다음단계로 상향조정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CD-ROM을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Quality Standards for Young People's 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㉕ 목적

2007년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에 의해 소개되어 2008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청소년기관에 대한 인증이라기보다는 정보, 조언 및 지도 (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IAG) 관련 서비스향상을 위한 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㉖ 대상

IAG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당되며 정부 주도의 종합복지지원서비스인 코백션즈와, 교육기관, 자원봉사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들이 주요 인증 대상이다.

㉗ 평가요소

Quality Standards의 12가지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이 IAG(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
서비스 이용방법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숙지
- 청소년들이 필요한 개인적 웰빙에 대한 정보와 경제적인 교육을 제공받고 있는가?
-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진학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지도와 조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정보와 조언, 지도에 관한 서비스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청소년들이 정보와 조언, 지도 서비스의 기획과 전달,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부모와 보호자들이 IAG(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서비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자신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가?
- IAG(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진로지도와 청소년 개인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가?
- IAG(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서비스가 정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모니터링은 물론 평가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IAG(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이며 부모와 보호자,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③ Quality Standards for Youth Information, Advice, Counselling and Support Services(YIACS) (Youth Access 회원단체 중심)

㉠ 목적

YIACS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정보와 조언, 상담과 지원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대상

청소년에게 정보와 조언, 상담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해당이 되며 주로 Youth Access 회원단체들의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인증을 받기도 한다. 회원단체들에게는 관련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며 비회원 단체들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다.

㉢ 평가 요소

3개의 카테고리 아래에 17개의 인증 요소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증요소들은 기회의 균등 보장, 비밀보장, 이용자 참여라는 3대 주요 인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표 III-22 평가기준

운영	사용	상담서비스
운영 감독 및 지도	건물 및 부지 확보율	개인 지원 서비스
채용 및 직원 교육	정보 서비스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
훈련 지원	서비스	사례 기록
공공성과 홍보	상담평가	사례 수퍼비전
모니터링과 평가	파트너십	

④ You're Welcome: 청소년친화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증(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

㉠ 목적

아동과 청소년, 산모를 위한 국가 서비스 기준(Standard 4 of the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Maternity Service)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보건과 의료에 관한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목적이다.

㉡ 대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의료 시설 및 기관이 인증 신청의 대상이 된다.

㉢ 평가요소

10개의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접근성
- 공공성
- 비밀보장과 동의
- 환경
- 실무자 훈련, 기술, 태도 및 가치
- 업무의 연계성
- 청소년의 모니터링, 평가에의 참여
- 청소년의 보건 이슈
- 성과 출산에 관련한 서비스
- 정신 보건 서비스

(2) 청소년 관련 기관 인증제도⁵⁾

아래의 <표 III-23>은 청소년관련 기관이 여러 평가기준을 통한 심사를 거쳐 Award를 수여받음으로써 한국의 인증에 해당하는 공적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이다. 개별 기관은 자신의 형편과 수준에 맞추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일정 수준과 자격을 통과하게 되면 Award를 수상하게 되고 이것은 공적으로 기관의 우수성과 효율성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certificate)의 역할을 하게 된다.

표 III-23 인증 포상을 위한 시스템의 종류와 주체

	기준	내용	주체
1	Becoming VISIBLE	지역사회단체를 위한 기준	Community Matters
2	Clubmark	청소년대상의 스포츠활동 프로그램과 클럽	Sport England / Managed by KKP
3	Insync (For YMCA member associations)	지속적인 개발과 향상	YMCA
4	Keeping It Safe / Sound Systems	아동과 청소년대상의 안전과 보호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Youth Services
5	Quality Mark	청소년 참여	Clubs for Young People
6	NAVCA Quality Award		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ary and Community Action
7	Staying Safe Commitment Scheme	기관 내 청소년 보호	NSPCC
8	The NYA Quality Mark	청소년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The National Youth Agency

① Becoming VISIBLE: 지역사회 기관 대상/ Community Matters

㉠ 목적

Becoming VISIBLE은 지역사회 기관의 시스템과 프로그램, 프로그램 성과도 등에 대해 증명할

5)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 (2006) PQASSO in practice,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 / National Youth Agency (2008) Raising the Standards – a guide to Quality Systems in the Youth Sector, National Youth Agency.에서 요약 발췌함

수 있는 진단 및 개발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㉞ 대상

전국에 있는 지역 센터(community centres)와 복합 지역기관이 인증의 대상이 된다.

㉟ 인증요소

총 7개의 인증 요소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 V(voice): 지역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의견의 제시
- I(independent):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S(service):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 I(initiator):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B(builder): 다른 지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형성
- L(local): 사람과 기관 사이의 지역 네트워크
- E(engage):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정도

㊱ 인증

이상에서 제시된 인증요소들은 개별기관의 발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모든 인증요소들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증을 넘어 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국가가 직접 하는 인증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의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Community Matters에 위임을 함으로써 국가 공인인증으로서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㊲ 인증 절차와 비용

인증기간은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비용은 기관 당 1,400파운드에서 1,650 파운드 정도 소요된다.

② Clubmark: 청소년 스포츠 활동 기관 인증 /Knight Kavanagh & Page

㉠ 목적

Clubmark의 목적은

- 스포츠 클럽의 질적 향상과 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 전달
- 스포츠 클럽을 선택할 때 청소년과 부모에게 적절한 정보의 제공
-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반적인 기준 제공

㉞ 대상

아동청소년대상의 모든 스포츠 활동 시설 및 기관의 스포츠 활동 클럽

㉟ 인증 기준

Clubmark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분야에서의 최소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여부
- 프로그램의 안전과 아동 보호 관련 규정
-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
- 클럽 운영 여부

㊱ 인증 포상

인증은 3년에서 4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프로그램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진다. 일단 인증을 받고 나면 기관은 국가 스포츠운영위원회(National Governing Bodies of Sport)의 자체평가 기준에 의해서 매해 변하는 규정에 의해 내부 변경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 인증의 갱신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므로 처음 인증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㊲ 비용과 규모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어떤 경우에는 실무자가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증 비용은 무료이다.

③ Insync(YMCA)

㉠ 목적 및 대상

YMCA에서 인증하는 것으로서 기관의 개발과 질적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YMCA회원 기관이 인증의 대상이다.

㉞ 인증 기준

인증을 위해서는 핵심 기준과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4 인증기준

핵심 기준	서비스 기준
분명한 목적	식품위생관리
운영	숙박
이용자 중심	국제관계
다양성과 기회균등	부모역할 교육
참여	기술 및 교육
실무자의 헌신도와 능력	스포츠, 보건, 운동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	아동 참여
운영, 자원, 위기 관리 능력	청소년 참여
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㉟ 인증 포상 방법

위에서 제시한 핵심기준과 서비스기준을 가지고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우선 자체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자체평가 후 각각의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하고 전문가의 방문을 통해 외부 실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㊱ 소요시간 및 비용

인증을 위한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으며 비용은 YMCA 회원 회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실사에 필요한 실비용은 인증을 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Keeping it Safe Sound Systems: 청소년 중심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평가/국가 청소년 자원봉사위원회

㉠ 목적

아동과 청소년대상 기관의 안전과 보호를 극대화하여 이용자중심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인증의 목적이다.

② 대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관이 인증의 대상이다.

③ 인증규정

아동과 청소년대상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개별기관들은 기관 내 안전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세한 인증 기준은 6개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 기관의 안전규정
- 위기 및 위험에 대한 관리 보고
- 실무자 채용에 있어서의 안전 규정 준수 (범죄기록 조회 등)
- 실무자와 자원봉사 관리 능력
- 안전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
- 활동 및 프로그램의 안전성

④ 인증방법

이 인증을 받기 위해 모든 기관은 미리 제공되는 기관 평가지와 포트폴리오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관 평가지와 포트폴리오에는 기관의 안전성 개선과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과 시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이 평가지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가청소년자원봉사위원회의 실사를 받게 되며 현장을 방문하여 인증을 평가받게 된다.

⑤ 기간과 비용

인증을 위한 평가지와 포트폴리오 구매에 드는 비용은 35파운드정도이며 인증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무료이다.

⑤ Quality Mark: 청소년활동의 질적 보장을 위한 인증/ Clubs for Young People

① 목적

Quality Mark는 청소년 클럽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활동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즉 Quality Mark 는 통과냐 실패냐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청소년

클럽들이 활동에 있어서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⑥ 주요대상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클럽과 프로젝트가 해당이 된다.

⑦ 인증요소

Quality Mark 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자기평가 모형이다. 인증을 위한 11개의 하위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중심 서비스
- 성과물
- 청소년보호
- 기회와 접근에의 평등성 보장
- 실무자
- 시설
- 자원
- 운영
- 행정
- 지역사회 참여
- 기관운영 정책

이상의 인증요소는 3단계로 평가받게 된다.

표 III-25 인증단계

단계	내용
1	11개의 요소를 기본적으로 모두 만족하며 몇몇 요소들은 기본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2	정책개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노력과 성과물을 도출했다고 고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개발 전략을 채택한 경우

⑧ 인증방법

Quality Mark인증의 최소 기준은 위의 표에서 제시한 1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기관이나 아니면 Quality Mark로부터 모의 인증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인증에 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모두 수합되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모든 증빙자료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인증서가 수여된다. 만약 인증을 위한 자료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증달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⑤ 비용 및 소요기간

인증에 필요한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단계 1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된다. 1단계로 인증을 받은 클럽은 추후에 2단계 혹은 3단계의 인증심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비용은 회원과 비회원에 따라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 정도이며 훈련 워크샵 참가비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⑥ NAVCA Quality Award (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ary and Community Action)

㉠ 목적

NAVCA는 지역의 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인증을 한다.

㉡ 주요 대상

NAVCA의 회원단체로서 지역내 활동기반을 둔 지역단체가 인증 대상이다.

㉢ 인증의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서비스 개선 정도, 지역사회자원과 조직 지원 및 네트워킹, 지역사회 정책입안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표 III-26 인증의 기준

인증의 종류	내용
Standard 1	기관이 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떤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Standard 2	이용자와 회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지역내 자원조직과 지역사회 단체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Standard 3	지역내 자원조직과 지역사회 단체들과 얼마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네트워킹,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Standard 4	지역 자원조직과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관계와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Standard 5	지역사회의 정책입안과 정책기획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④ 인증절차 및 비용

기관인증을 위한 절차는 첫째, 투입과 산출에 근거한 자체 평가 기준 설정하고 두 번째, 제출된 자료의 확인을 위한 NAVCA의 현장평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인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한 소용 비용은 1,755파운드(세금 제외)이다.

⑦ NSPCC : Staying Safe Commitment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인증)

① 목적

이 인증에는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9개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활동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NSPCC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준에는 유해한 것부터 학대까지 포함된다.

② 인증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된 모든 시설 및 기관, 단체가 인증대상이 된다.

③ 인증요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관들은 First Check라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규정이 담긴 안내책자를 배포 받게 되는데 이는 모든 기관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전과 보호의 영역에는 9개의 기준요소가 있다

- 아동보호정책
- 의사소통
- 시스템 및 절차
- 교육과 훈련
- 예방
- 정보와 지원에의 접근
- 행동과 실천 규약
- 프로그램 실행, 모니터링, 평가
- 평등과 포섭

④ 인증방법

NSPCC 인증은 안전규정에 관한 자체평가를 거치고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가를 배치하고 아동보호 정책과 규약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증명될 때 가능하다.

㉔ 비용 및 소요 시간

기관의 규모에 따라 비용 및 인증 소요시간이 다르다.

⑧ Quality Assurance System : Quality Mark

2010년 영국의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는 Quality Assurance System (QAS) 'Overarching framework' 라는 인증제를 소개하여 2010년 4월부터 청소년관련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도입되었다. 첫째,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교육청, 청소년학습국(Young People's Learning Agency)을 포함한 정부 조직 내 청소년과 성인 관련 교육과 학습을 담당하는 기관들에게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된 가이드라인이자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관련 기관에게는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청소년들이 질 높은 청소년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인증기준을 제작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차원의 모든 서비스 질을 높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㉕ 인증의 목적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도하는 Quality Mark 인증제도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활동분야에의 유용한 정보제공
-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 사례 발굴 및 소개
- 기관 프로그램 내의 불필요한 중복과 행정적 낭비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이외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둘째, 자원조직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셋째, 다양한 인증시스템의 종류를 소개함으로써 기관의 특징에 맞는 인증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관련 시설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⑥ 인증영역과 기준(Frame work)의 제시

이 기본 틀은 청소년기관에게 자체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기본 틀 안에는 3가지의 주요 요소와 11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요 요소는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관이 이 11가지의 모든 요소를 충족시킬 경우 Quality Mark를 수여받게 된다. 기본 틀은 다양한 용도로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기관의 자체 평가 자료
- 모니터링과 평가 절차
- 질, 효과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 결과물의 개선
- 기관의 팀 향상
-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3가지 주요 요소와 11개의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27 인증틀의 구성과 요소

3대 요소	정책과 전략	구성원	파트너십
세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성과 - 기관운영 정보 - 서비스 품질 보증 - 평등과 다양성 -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활동 - 법정규정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사회적 발전정도 - 청소년참여 - 근무환경 개선 및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 자료구축
평가척도	3점 Established : 완성단계 2점 Aspiring : 향상단계 1점 Emerging : 시작단계		

⑦ 인증 절차

Quality Mark를 취득하기 원하는 기관은 위의 <표 III-27>에서 제시하는 11가지 모든 세부항목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때 각 항목이 최고점인 3점의 Established(완성단계)를 받아야 한다. 모든 항목에서

3점을 받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일단 Quality Mark를 취득한 기관은 전국적인 인지도와 프로그램 및 기관, 시설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위의 11개의 항목은 유지하되 청소년기관 및 시설의 상황이나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일단 Quality Mark 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기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소년시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증이 된다. 현재까지 Quality Mark를 취득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Connexions(코넥션즈)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YMCA 같은 시민단체 등이 있다. 시설인증팀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National Youth Agency)에서 대내외 전문가를 통하여 구성한다.

㉔ Quality Mark의 유용성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고유한 업적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영역이나 공공기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증시스템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양한 홍보효과는 물론 기관이나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관 내부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영국의 많은 청소년관련기관들이 Quality Mark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유용성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 청소년시설의 효과적이고 우수한 운영과 관리, 서비스의 질,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대외적인 입증
- 1996년 개정된 교육법(Section 507B of the Education Act (1996))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이행
- 프로그램 서비스 질과 운영에 대한 내부 운영 위원회나 자문단에 대한 증거자료 제공

3) 독일의 인증제 사례⁶⁾

독일에서는 다양한 범주의 독립적인 시설들이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과학시설 등으로 따로

6) 이 절은 이민희교수(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개념의 본질이 학교 내의 지식 교육과 교육적 활동을 보완하여 차별적으로 학교 밖 자연권과 생활권에서 청소년들의 덕성과 신체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볼 때에 이와 같은 개념의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설은 우리나라의 유스호스텔에 해당되는 ‘유겐트헤어베르게(Jugendherberge)⁷⁾이다. 독일연방통계청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현재 독일의 대표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은 전국에 총 541개소가 있다. 2009년의 총 이용 숙박자의 수는 천만 명이 넘어 10,233,270명에 달한다. 이중 개별적인 유랑(流浪; wandern) 청소년⁸⁾은 약 60만 명이 넘으며,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가자가 약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 같은 광역시 주에도 유스호스텔이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시에만 3개의 유스호스텔이 있고, 평균 침대수가 200개가 넘으며, 연중 10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독일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독일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 관련 제도는 각 주마다 질적 관리를 위한 인증 기준을 만들기도 하지만 독일 중앙 연방정부에서 질적 관리를 위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급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BFKJ)⁹⁾’을 따로 두고 있다. 이 연방포럼은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 여행 주최 단체들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확보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5개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54개의 파트너들은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지도 지침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 포럼은 공익법인체로서 1997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우리의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독일연방아동·청소년계획(KJP)¹⁰⁾’에 따라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¹¹⁾에서 지원되고 있다. 독일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은 2003년 11월 회원들의 총회에서 부모와 교사,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과 평가를 위한 질적 기준을 결정하였다. 모든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회원들과 파트너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더 개발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

7) 편의 상 독일어 원어로 쓰지 않고 이하 원어의 영문표기인 ‘유스호스텔’로 통칭한다.

8) 독일에서는 일반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여행(Reise)’과 달리 주로 도보로 자연을 유람하는 것을 ‘유랑(Wandernung)’으로 표기하는데 19세기말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의 효시로 유명하다.

9) BundesForum Kinder- und Jugendreisen

10)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

1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① 인증기준 결정 배경

독일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인증기준 결정의 배경은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그의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의 11조 3항에는 “청소년사업의 중점들에는 학교 밖에서의 일반적, 정치적, 사회적, 보건적, 문화적, 생태적, 기술적 교육, 그리고 스포츠, 게임, 사교에서의 청소년사업, 노동, 학교, 가족 관련 청소년사업, 국제청소년교류, 아동·청소년 여가, 청소년상담들이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아동·청소년포럼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파트너들도 법의 일부분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연방아동·청소년포럼은 이 때문에 그의 창립 전체인 1996년 이미 발표된 지침에서 아동과 청소년 여행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높은 ‘고객만족도’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의 효력범위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그들의 삶에 아름답게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적 인증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은 따라서 서비스와 숙박 그리고 지도자의 질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포럼은 이미 그의 전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질이 아동·청소년여행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여행주최자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여행주최자의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여행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기획하는 자의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여가시간에 어떠한 활동들이 주어지는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행주최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과 갈취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와 의식이 강한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여행주최자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행의 출발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다.

② 인증기준 내용

독일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인증기준 내용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포럼이 여행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 부모들에게 보내는 체크리스트(checklist)이다. 다음은 포럼이 부모들에게 보내는 체크리스트 전문이다.

친애하는 부모님들께,

귀하가 자녀들을 위하여 적합한 여행숙소를 찾으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은 귀하의 선택을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민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점

들을 만들었습니다.

√ 서비스의 전달성

- 서비스가 설득력이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참가비에 상응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접촉 가능성

- 여행기간 동안 긴급 상담이나 정보가 있습니까?
- E-Mail로 접촉이 가능합니까?
- 내가 항상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는 확정된 시간이 있습니까?

√ 예약 가능성

- 예약의 용이함이 있습니까?
- 즉시 예약의 확인이 가능합니까?
- 선수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여행이 개최되기 위한 최소한의 참가인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 정보 자료

- 예약 후와 여행 중에도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합니까?
- 여행이 자녀들의 기대에 부응합니까?
- 여행주최자는 참가자와 참가비 내에서 어떤 보험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 도착과 서비스

- 여행에서 도착했을 때에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 짐 수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숙박

- 침대가 많은 방은 얼마나 큰가요?
- 공간들은 조용한 곳에 있습니까?

√ 보건

- 원하는 식사가 고려되고 있습니까?
- 알레르기 반응자들에게 처방이 있습니까?

√ 지도

- 지도자가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도자가 성폭력과 갈취와 같은 주제에 민감해 있습니까?

√ 용돈과 귀중품 보관

- 귀중품은 잘 보관될 수 있습니까?
- 용돈을 맡아서 보관해 줄 수 있습니까?

√ 프로그램

- 프로그램이 진행됩니까?
- 프로그램 선택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까?

√ 여행의 귀로

- 여행 개최자는 귀로 여행의 출발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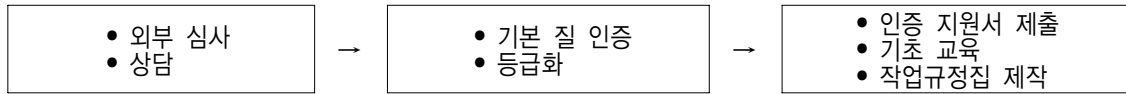
- 여행 후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여행에 관하여 참가자들로 평가 되었습니까?
- 얼마나 참가자의 소망과 의견들이 내년 여행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③ 인증절차

독일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절차는 특별히 아동·청소년숙소들의 욕구와 특성들을 조율하고 질적 발전과 숙소들의 재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독일재정부와 독일청소년상표단체의 지원으로 인증과 등급을 민간업소보다 공공업소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포럼은 다른 16개 주 체제에도 전국이 통일된 인증 체제를 갖는 것에 찬성하였다. 1/5 정도의 숙소들은 인증기준에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증 교육을 통하여 많이 개선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에 참여하는 것은 숙박 수련시설들에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자유이다. 또한, www.sichergut.net 사이트에서 무료로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포럼에서 직접 인증을 받거나 중앙인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이다. 청소년단체 여행주최자들에게 포럼의 중앙인증센터의 절차가 매년 인증서와 등급 등을 위해 약 30유로만 받고 있어 청소년단체들에게는 저렴하게 할인되고 있다.

시설의 질은 아동·청소년숙박시설의 미래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여행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인증을 받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큰 장점을 가져다준다.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QMJ에 관심을 보이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다. 인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림 III-2】 인증 절차

먼저 포럼에서 보내준 협력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이후에 인증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매우 유용한 최대 12주 QMJ 기본교육에 초대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증명서를 받고 외부 심사에 붙여질 수 있게 된다. 기본교육 후 한 외부심사자가 방문해서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연방포럼은 추천을 받으면 외부심사자와 시설의 합의에 따라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인증 받은 시설은 이어서 모든 알려진 데이터은행에 등록이 되게 되고 모든 단계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시설은 이후부터 자신들의 시사회나 인쇄물 등에 인증 허가 로고와 등급 마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을 받는 시설들은 많은 장점들을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 공공성 사업과 언론보도나 대규모 전시에서의 홍보, 그리고 포럼으로부터 받는 가능한 네트워크 간 소통들이나 지원들을 얻게 된다.

(2) 인증의 단계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를 받고자 하는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두 단계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기본인증이고 두 번째 단계가 별 등급화이다. 독일 전역에 최소한 5,000개가 넘는 이 시설들은 교육과 심사를 거친 후 질을 인증하는 인장을 받게 되고 별 1~5개 사이의 등급화를 신청하게 된다.



【그림 III-3】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 인증 인장

① 1단계: 인증

인증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 인증신청 서류의 제출(기본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신청 문항 참조)
-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인증절차 허락
-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교육(최소 1일)
- 체크리스트에 따른 인증절차 수행에 이은 외부 심사자의 심사보고서 작성
- 긍정적 심사결과에 따른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으로부터의 추천으로 QMJ 인증서와 인장 수여

심사를 받는 영역은 시설허가 관련 사항, 식사, 서비스인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자유시간, 마케팅, 숙소 등이다. 인증은 사업신고, 건축신고, 보험, 소방 등에 관한 모든 검사필증과 물품의 저장과 준비, 주방위생 등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숙박 조건들에 관한 내용들을 심사하게 된다. 인증은 글과 이미지로 된 인증 인장으로 보게 된다. 인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든 시설들은 이 인장으로 표식 되고 자신들의 홍보나 인쇄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은 이 인장과 등급화 된 숙박시설들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외부심사자가 시설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인증서와 인장 표찰은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에 의해 확실한 기준에 따라 수여된다. 인증의 부여는 제한 없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지만, 건축물의 큰 변경, 법 개정 혹은 경영자의 교체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2단계: 별 등급화

별 등급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등급화는 3년 간 효력이 있다.

- 형식 없는 신청
- 시설장의 교육(최소 1일)
- 체크리스트에 따른 인증절차 수행에 이은 외부 심사자의 심사보고서 작성
- 긍정적 심사결과에 따른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으로부터의 추천으로 등급에 따른 별을 수여



【그림 III-4】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 최고등급 별5개 인증 인장 사례

☆

별 한 개의 등급은 좋은 가구달린 방, 이층침대방과 세면대, 아침식사, 지도자의 재교육집회 참여, 지도자의 포괄적이고, 적합한 정보 전달능력, 충분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자료, 운동과 놀이 장비 대여 등

☆☆

별 두 개 등급은 화장실이 딸린 지도자 방, 청소년들에 맞는 3식 식단, 작은 상점, 스포츠 시설, 놀이 시설, TV시청 공간, 안전한 자전거 거치대 등의 비치

☆☆☆

별 세 개 등급은 최소한 25% 이상의 화장실이 딸린 방, 뷔페 아침식사, 세미나실, 안내 데스크, 프로그램 제공, 음료 자동판매기, 스낵 자동판매기, 어린이용 의자 등의 비치와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여행자수표 사용

☆☆☆☆

별 4개 등급은 식사, 숙박, 등록 등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절차 안내와 근무자들의 이에 대한 사전 교육, 친절함 영접, 현대식 세미나 장비를 갖춘 공간, 개인적 자유시간 동안 취미, 독서, 놀이, 휴식에 필요한 공간, 방문객들을 위한 세탁기, 아동침대, 장애인 화장실이 딸린 방, 교육적 지도가 있는 프로그램들 등의 비치

☆☆☆☆☆

별 5개 등급은 최고등급으로서 80% 이상의 화장실(장애인 용)이 딸린 방,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서비스, 카페테리아, 지도인력의 질적 심사 실시, 직원의 언어능력, 세탁건조기, 물품 보관함과 인터넷 사용 가능 등

아래의 표는 별 등급화에 따른 각 등급의 인증을 위한 지표들이다.



인증의 일반 지표

2008년 11.06 기준

0.0. 공통 지표	
0.0.1	사업등록/규정집
0.0.2	일반 사업조건들
0.0.3	건축허가서/아동·청소년 숙소 사용건물들의 이용조건들, 기름제거제, 빗물처리, 난방, 엘리베이터 등의 허가
0.0.4	모든 토지와 건물의 임대 형태 명시(매매, 월세, 임대)
0.0.5	보험가입
0.0.6	쓰레기 처리 허가/저장
0.0.7	근로 안전
0.1. 아동·청소년 숙소	
0.1.1	소방통제, 최근 2년 동안의 소방안전 검사
0.1.2	여행 설명서
0.1.3	아동·청소년숙소 안팎 영역의 양호 상태; 잡초, 쓰레기가 없고 모든 장비의 가동 능력, 최상의 장비와 시설
0.1.4	아동·청소년숙소의 정기적 안전, 질서, 청결의 심사와 관련 문서
0.1.5	시설(이동 및 기술적 설비)의 기능에 관한 정기적 통제
0.1.6	일 년 내(시즌만 말고) 아동·청소년숙소 운영에서의 난방의 보급
0.1.7	식당, 세탁실, 화장실의 충분한 환기
0.1.8	우천 시 실내에서의 여가활동 가능성; 보드게임, 신문, 잡지, 책, 미니축구, TV, Video, Radio, internet 등
0.1.1 방 구조	
0.1.1.1	1~2인용 침대 방(지도자 방)
0.1.2 공중위생	
0.1.2.1	청소와 소독을 위한 지침서 비치
0.1.2.2	냉 온수 공급
0.1.2.3	법이 허용한 충분한 위생 설비들의 비치

0.2 식사	
0.2.1	식품의 저장과 보관, 음식물찌꺼기 처리, 주방위생, 위생당국기준의 법 준수
0.2.2	아동 음료는 대형 취급소에서 취득
0.3 인력	
0.3.1	QMJ 기본교육에의 시설 책임자의 참여
0.3.2	방문자에게 사려 깊고, 친절하며, 도움 준비가 된 인력, 개인적 욕구의 고려
0.3.3	소유지에서의 서비스 시스템, 항상 연락될 수 있고, 능력 있는 대담자
0.4 정보 제공	
0.4.1	중요 정보 중앙에 게시와 긴급 시 시행(숙소규칙, 긴급연락번호, 소방규칙)
0.4.2	소유지 안내서
0.4.3	최초 입금 전에 고객을 위한 확인서
0.4.4	시설의 충분한 정보자료 파일(숙박과 식사 요금, 여가 프로그램 등)
0.5 프로그램	
0.5.1	여가활동 시 지도자의 긴급구조 능력 증명서(긴급구조 교육 이수)
0.5.2	여가활동 시 청소년그룹 지도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0.5.3	여가활동 시 책임담보 설명서 비치
0.6 마케팅	
0.6.1	숙소 안내 카탈로그가 있는 시설 홍보
0.6.2	인터넷을 통한 시설 홍보
0.7 시설 밖의 부지	
0.7.1	시설 밖 부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별 1개 등급

1.1 아동·청소년 숙소	
1.1.1	사용하지 않는 모든 기기의 꺼진 상태 확인
1.1.2	절전 전구 사용
1.1.1 방 구조	
1.1.1.1	세면대 딸린 1~2 베드 방(지도자 방)
1.1.1.2	지도자를 위한 분리된 위생영역
1.1.1.3	비흡연자 방
1.1.2 공중위생	
1.1.2.1	라운지와 식당, 휴식 공간과 가까운 위생시설(일일화장실)
1.1.2.2	위생시설; 10개 침대 당 1개 샤워시설/6개 침대 당 1개 화장실
1.2 식사	
1.2.1	아침식사 제공

1.3 인력	
1.3.1	인력의 재교육 과정 참여
1.3.2	시설의 모든 것에 대한 인력의 소개 능력
1.3.3	각 인력의 책임 영역에 대한 아동·청소년 숙소의 조직표
1.4 정보 제공	
1.4.1	시설안내서에 따른 최소 1인 인력의 정확하며, 믿을 만한 정보제공 능력
1.4.2	근린 여가활동을 위한 충분한 최신 정보지 제공; 관광지, 교통, 투어 등 관련
1.4.3	시설 내부의 설비에 관한 충분한 설명
1.4.4	시설의 친환경성에 관한 정보
1.5 시설 밖의 부지	
1.5.1	울타리가 있는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외부 부지
1.5.2	스포츠와 놀이 장비의 대여



별 2개 등급

아동·청소년숙소의 등급화 지표	
2.1.1	재활용 용지의 사용
2.1.2	여행 설명서
2.1.1 방 구조	
2.1.1.1	좋은 가구가 딸린 방, 숙박자 수에 따른 의자, 책상 공간, 밝고 친근한 조망
2.1.1.2	1~4개 침대 방이 최소한 15%
2.1.1.3	화장실 딸린 1~2개 침대 방(지도자 방)
2.1.2 공중위생	
2.1.2.1	남녀 화장실 분리
2.1.2.2	최소한 30%의 세면대 딸린 방
2.2 식사	
2.2.1	1일 3식의 가능성
2.2.2	주말 식단의 가능성
2.2.3	아동에 맞는 식단
2.2.4	작은 상점
2.2.5	채소 음식
2.2.6	(돼지고기 없는) 급식
2.3 인력	
2.3.1	시설의 프로그램, 환경, 주변 관광지 등에 대한 인력의 소개 능력
2.3.2	책임 규정을 포함한 인력의 시설관련 설명
2.4 정보 서비스	
2.4.1	아동·청소년숙소의 접근성(개장 시간 외에도 자동응답기 등)

2.4.2	전화나 서면 질문에 대한 안내서, 특히 시설 질문에 대한 안내
2.4.3	필수적인 서면이나 전화 및 인터넷 예약의 사전 확인
2.4.4	숙박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아동·청소년숙소의 정보 제공
2.4.5	확정된 기간의 체류 동안 배정된 연락담당 인력
2.4.6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이해와 소통
2.5	프로그램
2.5.1	프로그램 제공(개발한 프로그램이거나 다른 시설의 프로그램)
2.6	시설 안과 밖의 환경
2.6.1	스포츠 시설(축구, 배구, 볼링 등)
2.6.2	게임 공간
2.6.3	여가활동의 다른 가능성(당구대, 탁구대 등)
2.6.4	TV 수상기
2.6.5	그룹작업 공간
2.7	서비스 / 기타
2.7.1	이용자를 위한 세탁물 건조기
2.7.2	자전거의 안전 거치대
2.7.3	자가용 없이 방문한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별 3개 등급

3.1	아동·청소년숙소
3.1.1.	숙소에서 쓰레기 분리
3.1.1.	방 구조
3.1.1.1	1~4개 침대 방이 최소한 30%
3.1.2	공중위생
3.1.2.1	최소한 25%의 화장실 딸린 방
3.1.2.2	최소한 50%의 세면대 딸린 방
3.1.2.3	최소한 1개의 장애인 공중 화장실
3.2.	식사
3.2.1	뷔페식 아침식사
3.2.2	시간에 따른 음료의 공급(음료 자동판매기)
3.2.3	시간에 따른 간식 공급(간식 자동판매기)
3.3	인력
3.3.1	안내데스크 서비스
3.3.2	최소한 7시간의 안내데스크 서비스와 추가 5시간 서비스 체제(5분 거리 내)
3.3.3	충분한 수의 숙소와 방의 열쇠 - 필요에 따른 공급
3.3.4	숙소 폐장시간의 융통성 있는 규정 운용(시즌이 아닐 때)

3.3.5	근무인력의 식별성(이름표나 공동 T-shirts 복장 등)
3.4	프로그램
3.4.1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자료 제공, 보조 지도
3.5	마케팅
3.5.1	고객관리 카드 비치(예, PC 데이터)로 새로운 서비스 안내, 명절 안부 제공
3.5.2	고객 설문 실시(구두나 서면, 질문지, 결과 분석)
3.5.3	고객 불만처리 체제에 따른 작업
3.6	서비스 / 기타
3.6.1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여행자수표 사용
3.6.2	아동용 의자
3.6.3	규정에 따른(10개 침대 당 1개 주차 공간) 충분한 주차 공간
3.6.4	공공교통(ÖPNA) 승차권의 판매
3.6.5	물품 관리대



별 4개 등급

4.1.1	방 구조
4.1.1.1	1~4개 침대 방이 최소한 50%
4.1.1.2	장애인을 위한 방 - 중앙 공동 화장실 설치
4.1.2.	공중위생
4.1.2.1	최소한 40%의 화장실 딸린 방
4.1.2.2	모든 방은 세면대를 갖추
4.2	식사
4.2.1	점심 도시락의 제공
4.3	인력
4.3.1	시설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QMJ 교육 참여
4.3.2	식사, 숙박, 등록 등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절차 안내
4.3.3	안내데스크 서비스
4.3.4	최소한 10시간의 안내데스크 서비스와 추가 5시간 서비스 체제(5분 거리 내)
4.4	정보 제공
4.4.1	숙소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안내(컴퓨터 사용)
4.5	프로그램
4.5.1	프로그램 구조의 교육적 지도(전문인력 투입)
4.5.2	교육적 지도가 따르는 종합 프로그램의 중개 및 수행(전문인력의 그룹 지도)
4.6	시설 안과 밖의 환경
4.6.1	개인적 자유시간 동안 취미, 독서, 놀이, 휴식에 필요한 공간 제공
4.6.2	현대식 세미나 장비를 갖춘 공간

4.7 서비스 / 기타	
4.7.1	어린이용 침대
4.7.2	방문객들을 위한 세탁기
4.7.3	귀중품의 안전한 보관
4.7.4	손 씻는 종이/ 면수건/ 손 건조대 비치
4.7.5	공중전화 비치
4.7.6	인터넷 공간
4.7.7	버스 주차 공간
4.7.8	자전거, 카누, 스키, 롤러스케이트 대여



별 5개 등급

5.1 아동·청소년숙소	
5.1.1	화장실이 딸린 장애인용 방
5.1.2	독서등과 간이 탁자가 딸린 지도자용 방의 설비
5.1.2 공중위생	
5.1.2.1	최소한 80%의 1인용 화장실 딸린 방
5.2 식사	
5.2.1	카페테리아
5.3 인력	
5.3.1	최소한 16시간의 안내데스크서비스와 추가 8시간 서비스 체제(5분 거리 내)
5.3.2	직원의 언어능력(안내데스크; 예 영어 등)
5.3.3	지도인력의 질적 심사 실시
5.4 서비스 / 기타	
5.4.1	세탁물 건조기
5.4.2	인터넷 공간 개방

(3) 인증의 비용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을 받고자 하는 시설들이 등급화를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인증 비용은 970유로이며 부가세가 따른다. 현재 공공시설은 7%, 민간 시설은 19%의 부가세가 부여된다.

- 추가 할인이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의 회원이나 파트너인 시설에 주어진다.
- 시설이 충분히 인증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심사자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300 유로이며 여행비용은 시설이 따로 지불하여야 한다.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일간의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QMJ) 기본교육
- 외부 심사자의 방문과 상담
- 외부 심사자의 보고서
- 인증서 부여 예식
- 인증 관련서류 작업

4) 시사점

이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의 인증제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에서 자국의 여건에 맞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도 한국 현실에 맞추어 인증제를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라는 특화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 자체에 대한 인증보다는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캠프에 대한 인증제도 사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사례, 가족서비스와 아동복지관련 서비스를 인증하는 사례,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 서비스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실시하는 주체들은 주로 민간단체이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국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증지표 및 영역, 인증에 수반되는 제반 과정 등을 관리하며, 인증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인증을 신청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지원을 하는 입장이다. 결국 철저히 이용자인 고객들의 만족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민간에서 주도하고 참여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이용자 및 인증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청소년기관의 외부 평가와 외부 인증이 법정 필수 요소이거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평가와 인증에 임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 청소년기관이 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개별 청소년기관들은 인증과 평가를 위하여 소정의 실비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었다. 영국은 청소년 대상의 모든 기관에게 평가나 인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평균화와 인지도 향상,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한국에서 수련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청소년관련 모든 서비스 공급자를 인증과 평가의 대상으로 확장한다면 국가적인 청소년서비스 질의 보급과 균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은 인증을 위한 사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급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인증과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인증과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기관들이 전문성 있는 평가를 받아 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통독 전에는 각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관리를 맡겨놓았고, 통일 후 중앙 연방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질적 관리를 시도한 것은 1997년 연방아동청소년여행포럼을 만들면서부터였다. 이후 이 포럼은 질적 관리를 위한 많은 논의와 전문 및 지침의 개발,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발전해오다가 마침내 최근 2007년에 아동·청소년여행의 질적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독일의 연방아동·청소년포럼은 인증제도와 등급화 제도의 도입에 시설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시설이용자들이 인증을 받고, 등급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시설들을 찾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연방 인증기관이 공적으로 외부 심사자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 인증을 얻도록 한 시설들에게 수요자들은 보다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일의 연방아동·청소년포럼에는 25개의 청소년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54개의 협력 파트너들이 존재하고 있다. 회원들은 인증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개발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인증을 받는 비용을 많이 할인 받으며 시설의 발전과 경영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많은 이점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회원제도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설들의 인증제도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증제도는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시설이 재정과 인력 면에서 열악하고 인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청소년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가제도의 방향을 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수련시설 자체의 개선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제 4 장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관련 의식·요구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제 4 장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관련 의식·요구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1-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관련정책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근무 지도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
유효표본수	총 166개 시/도, 166명	총 277개 시설, 1331명	총 209개 시설, 636명
조사 방법	Online Survey	우편 조사	
표본 추출	전수컨택을 통한 응답자 선정	시설유형별, 지역별, 상근근로자수에 따른 확률표집(비례층화집락추출법)	
조사 기간	2011년 6월 21일 ~ 7월 11일		

【그림 IV-1】 조사설계

조사대상은 통계청(2010)자료를 기초로 시도 및 시군구별, 청소년수련시설종류별, 지역별 비례증화 집락추출법을 통해 선정한 후 2011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설문조사(온라인조사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 166명,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1331명,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청소년 636명이었다([그림Ⅳ-1]참조).

2) 조사내용

(1)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 학교활동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한다. 주요 배경변인은 성, 연령, 시설유형, 지역, 교육수준, 경력, 자격유무, 담당업무 등이다.

(2) 청소년

청소년의 ㉠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수준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만족수준 및 요구수준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활동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한다. 주요 배경변인은 성, 학교급, 시설유형, 지역, 성적 등이다.

(3) 공무원

공무원의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수준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한다. 주요 배경변인은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력, 담당업무 등이다.

이와 같은 조사항목들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예비조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안면타당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설문조사내용의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사영역	세부항목	비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관련 인식 및 요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종류, 설립주체 등 ○ 운영(이용) 활동영역 ○ 만족수준 및 문제점 ○ 활성화 방안 등 	지도자 청소년 공무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증주체, 대상, 영역, 방식, 기간, 비용, ○ 인증절차, 기준에 대한 적절성 ○ 인증 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등 	지도자 공무원 청소년(일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 수련시설 위탁 ○ 수련시설 관련 민원업무 ○ 공사관련 심의 등 	공무원
학교활동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실태 및 요구 ○ 문제점 등 	지도자 청소년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력수준, ○ 자격증소지유무, 전공학과, 담당업무 등 	지도자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학교급, 지역, 성적, 경제수준 등 	청소년

3) 분석방법

설문조사결과 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주요 배경변인별 교차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이 사용되었다. 교차분석의 통계는 χ^2 값을 산정하여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교차분석과 t-검증, 일원변량분석에서 사용될 주요 배경변인은 성, 연령, 지역, 시설유형, 학교급·성적·경제수준(청소년), 교육수준·경력(지도자·공무원), 자격유무·전공학과·담당업무(지도자·공무원) 등이었다(자세한 통계분석표는 부록 참조).

1-2.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2〉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지도자는 503명으로 전체의 37.8%, 여자지도자는 828명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어 여자지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32.5%, 30대 43.4%, 40대 19.1%, 50대 이상이 5.0%로 나타나 청소년지도자의 40% 정도가 20~3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분야 근무년수는 2년 미만이 26.3%, 2년 이상~3년 미만이 10.8%, 3년 이상~5년 미만이 18.1%, 5년 이상이 38.5%인 것으로 나타나 40% 정도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설 종류별로는 청소년수련관이 62.5%(832명), 청소년문화의집이 37.5%(499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이 98.9%, 민간시설이 1.1%로 나타났고, 운영주체별로는 공공기관직영이 13.1%, 민간기관직영이 1.1%, 공공기관위탁이 26.3%, 민간기관위탁이 59.6%로 나타나 공공시설의 민간기관 위탁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별로는 시설운영자 10.3%, 활동지도직 73.7%, 행정지원직 14.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졸업 4.2%, 전문대학졸업 16.3%, 대학교졸업 63.8%, 대학원졸업이상 13.4%로 40% 이상이 대학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청소년관련학과 31.3%, 사회복지관련학과 27.31%, 교육관련학과 8.3%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조사대상자(청소년지도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계	
	사례수	%
전체	1,331	100.0
시설종류	청소년수련관	832 62.5
	청소년문화의집	499 37.5
성별	남자	503 37.8
	여자	828 62.2
설립주체	공공시설	1,317 98.9
	민간시설	14 1.1
운영주체	공공기관직영	174 13.1
	민간기관직영	14 1.1

	공공기관위탁	350	26.3
	민간기관위탁	793	59.6
연령	20대	433	32.5
	30대	577	43.4
	40대	254	19.1
	50대 이상	67	5.0
근무지역	서울	242	18.2
	인천/경기	333	25.0
	대전/충청	120	9.0
	광주/전라	192	14.4
	대구/경북	100	7.5
	부산/울산/경남	199	15.0
	강원/제주	145	10.9
청소년분야근무년수	2년 미만	350	26.3
	2~3년 미만	144	10.8
	3~5년 미만	241	18.1
	5년 이상	513	38.5
	모름/무응답	83	6.2
현직장근무기간	2년 미만	536	40.3
	2~3년 미만	170	12.8
	3~5년 미만	248	18.6
	5년 이상	341	25.6
	모름/무응답	36	2.7
학력	고졸	56	4.2
	전문대졸	217	16.3
	대졸	849	63.8
	대학원졸업 이상	178	13.4
	무응답	31	2.3
전공	청소년관련	417	31.3
	교육관련	110	8.3
	사회복지관련	364	27.3
	기타	428	32.2
담당업무	시설운영자	129	10.3
	활동지도직	923	73.7
	행정지원직	182	14.5
	기타	3	0.2
	모름/무응답	1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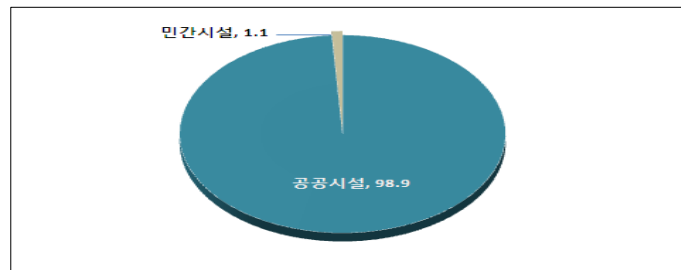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결과는 크게 근무시설 및 청소년활동지도 관련환경,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의견 및 요구수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근무시설 및 청소년활동지도 관련환경

(1) 근무시설의 설립·운영 주체

① 설립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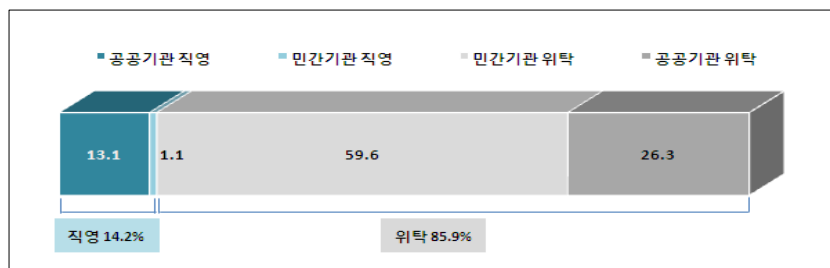
근무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설립 주체에 대해 살펴본 결과, 98.9%가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시설이고, 1.1%만이 개인단체나 법인 등에서 설립한 민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설립 주체

② 운영 주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위탁 85.9%(민간기관 위탁 59.6%, 공공기관 위탁 26.3%), 직영 14.2%(공공기관 직영 13.1%, 민간기관 직영 1.1%) 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 위탁은 서울과 광주/전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위탁은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서, 공공기관 직영은 대전/충청, 대구/경북, 강원/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운영 주체

표 IV-3 운영주체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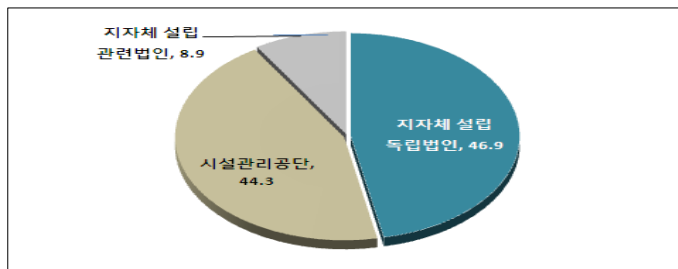
(단위:%, N=1,331)

구 분	민간위탁	공공위탁	공공직영	민간직영	전체	χ^2 유의도	
전체	59.6	26.3	13.1	1.1	100.0	-	
근무 지역	서울	87.6	12.4	0.0	0.0	100.0	540.941 0.000
	인천/경기	28.8	64.6	4.2	2.4	100.0	
	대전/충청	62.5	16.7	20.8	0.0	100.0	
	광주/전라	82.3	1.6	13.5	2.6	100.0	
	대구/경북	29.0	36.0	35.0	0.0	100.0	
	부산/울산/경남	65.3	18.1	16.1	0.5	100.0	
	강원/제주	64.1	6.9	29.0	0.0	100.0	

③ 공공기관 위탁단체 성격

공공기관 위탁단체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반수정도(46.9%)가 지자체설립독립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관리공단(44.3%)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설립독립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대전/충청, 광주/전라, 인천/경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비해 청소년수련관이, 그리고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지자체설립관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리고 대구/경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 공공기관 위탁단체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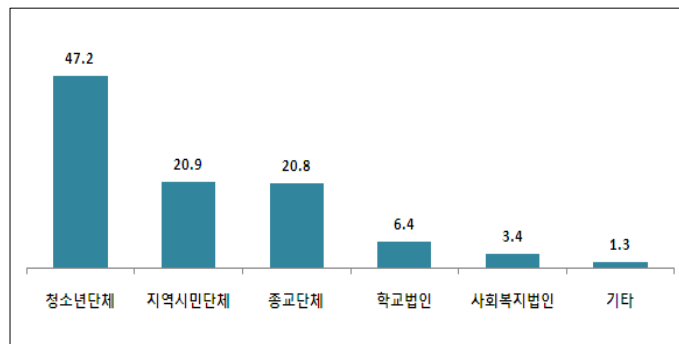
표 IV-4 공공기관 위탁단체 성격

(단위:%, N=350 base:공공기관위탁 응답자)

구분	지자체설립독립법인	시설관리공단	지자체설립관련법인	전체	χ^2 /유의도	
전체	46.9	44.3	8.9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44.2	49.6	6.2	100.0	20.137 0.000
	청소년문화의집	56.6	25.0	18.4	100.0	
근무 지역	서울	3.3	83.3	13.3	100.0	108.106 0.000
	인천/경기	57.7	35.3	7.0	100.0	
	대전/충청	80.0	0.0	20.0	100.0	
	광주/전라	100.0	0.0	0.0	100.0	
	대구/경북	44.4	33.3	22.2	100.0	
	부산/울산/경남	0.0	100.0	0.0	100.0	
	강원/제주	40.0	60.0	0.0	100.0	

④ 민간기관 위탁단체 성격

민간기관 위탁단체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반수정도(47.2%)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시민단체(20.9%), 종교단체(20.8%), 학교법인(6.4%), 사회복지법인(3.4%) 순으로 위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청소년문화의집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지역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5】 민간기관 위탁단체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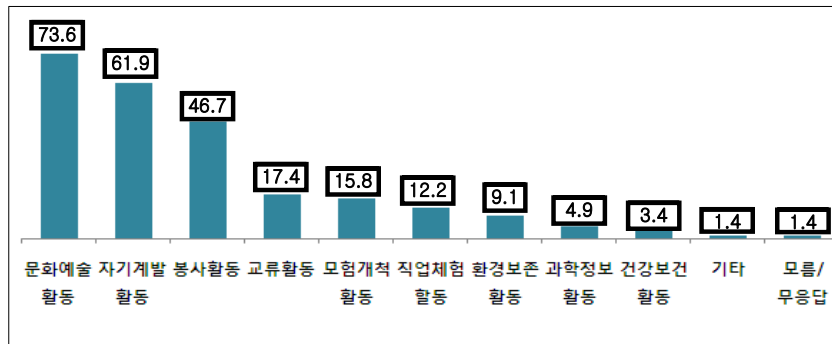
표 IV-5 민간기관 위탁단체 성격

(단위:%, N=793 base:민간기관 위탁 응답자)

구	분	청소년 단체	지역시민 단체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 단체	기타	전체	x 2/유의도
	전체	47.2	20.9	20.8	6.4	3.4	1.3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42.0	19.6	27.2	8.4	2.7	0.0	100.0	54,688 0,000
	청소년문화의집	54.9	22.9	11.3	3.4	4.4	3.1	100.0	
근무 지역	서울	50.5	7.5	21.2	15.1	5.7	0.0	100.0	170,155 0,000
	인천/경기	35.4	25.0	27.1	8.3	4.2	0.0	100.0	
	대전/충청	45.3	17.3	22.7	14.7	0.0	0.0	100.0	
	광주/전라	44.9	29.7	22.2	0.0	3.2	0.0	100.0	
	대구/경북	58.6	0.0	24.1	0.0	17.2	0.0	100.0	
	부산/울산/경남	55.4	28.5	10.8	0.0	0.0	5.4	100.0	
	강원/제주	41.9	31.2	22.6	0.0	1.1	3.2	100.0	

(2) 청소년활동지도 관련환경

① 근무시설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그림 IV-6】 근무시설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응답결과 문화예술활동이 7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계발활동(61.9%), 봉사활동(46.7%), 교류활동

(17.4%), 모험개척활동(15.8%) 순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보존활동(9.1%), 과학정보활동(4.9%), 건강보건활동(3.4%) 등은 10%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②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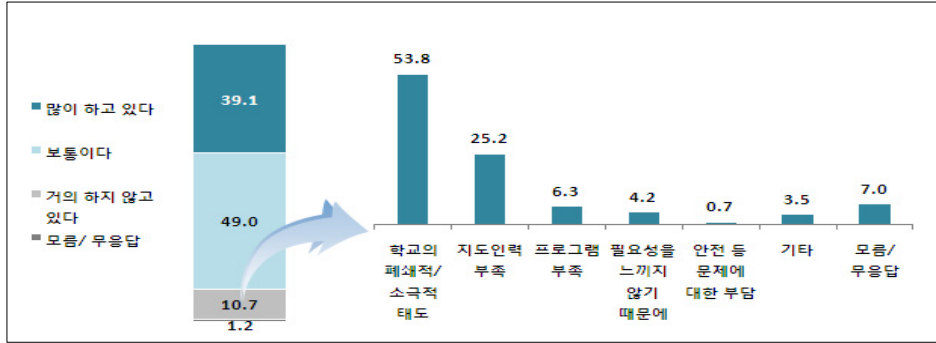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과반수정도(49.0%)는 보통수준으로, 39.1%는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의 연계하지 않고 있는 비율도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청소년수련관, 민간기관 위탁, 서울 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직영,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 정도

(단위:%, N=1,331)

구	분	거의하지않음	보통	많이하고있음	모름/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10.7	49.0	39.1	1.2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7.2	45.7	45.9	1.2	100.0	57.359
	청소년문화의집	16.6	54.5	27.7	1.2	100.0	0.000
설립 주체	공공시설	10.8	48.8	39.3	1.1	100.0	6.128
	민간시설	7.1	64.3	21.4	7.1	100.0	0.106
운영 주체	공공기관직영	23.0	54.6	21.3	1.1	100.0	53.744 0.000
	민간기관직영	7.1	64.3	21.4	7.1	100.0	
	공공기관위탁	8.9	49.7	40.9	0.6	100.0	
	민간기관위탁	9.0	47.2	42.5	1.4	100.0	
근무 지역	서울	2.9	36.8	59.1	1.2	100.0	89.655 0.000
	인천/경기	7.5	48.0	42.9	1.5	100.0	
	대전/충청	20.0	50.0	29.2	0.8	100.0	
	광주/전라	15.1	48.4	35.9	0.5	100.0	
	대구/경북	13.0	57.0	29.0	1.0	100.0	
	부산/울산/경남	12.1	59.8	27.1	1.0	100.0	
	강원/제주	14.5	51.0	32.4	2.1	100.0	

③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하지 않는 이유



【그림 IV-7】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수준 및 연계하지 않는 이유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N=143)들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과반수 이상(53.8%)이 ‘학교의 폐쇄적/소극적 태도’때문인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지도인력 부족(25.2%), 프로그램 부족(6.3%),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응답비율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도인력부족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를 안 하는 이유

(단위:%, N=143)

구분	학교의 태도	지도인력부족	프로그램부족	필요성 못느낌	안전부담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x ² /유의도
전체	53.8	25.2	6.3	4.2	0.7	2.8	7.0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48.3	16.7	11.7	10.0	0.0	3.3	100.0	18.763
	청소년문화의집	57.8	31.3	2.4	0.0	1.2	2.4	100.0	0.005

④ 가장 많이 하는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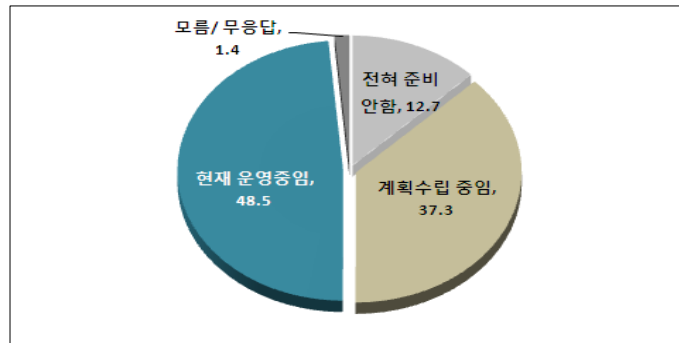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자유응답 분석 결과, CA활동 및 계발활동(2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학 및 창의적 활동(16.6%), 봉사활동(8.3%), 탐방 및 체험활동(6.1%), 문화예술교육(5.0%), 학업이나 교과목과 관련된 방과후 교육(4.9%), 인성

및 생활교육(4.5%), 진로·직업활동(4.2%), 상담프로그램(2.3%), 체력증진·신체활동(2.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

분야	세부 내용
CA활동/계발활동(21.1%)	CA활동/계발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활동 등
과학/창의적 활동(16.6%)	창의적 체험, 과학동아리, 해양활동, 로봇교실, 별자리여행 등
봉사활동(8.3%)	봉사활동 등
탐방/체험활동(6.1%)	수련활동, 캠프활동, 환경보존활동, 역사탐방, 생태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5.0%)	문화존, 문화예술활동, 미디어, 도자기, 서예, 악기, 비즈공예, 신문제작 등
방과후 교육(4.9%)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프로그램, 수업지원 연계, 영어 등
인성/생활교육(4.5%)	성교육, 인성교육, 사회적응프로그램, 예절교실, 장애인 인식개선 등
직업/진로교육(4.2%)	직업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상담프로그램(2.3%)	또래 상담자 교육, 집단상담,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체육/체력증진(2.0%)	수영, 건강관리프로그램, 실내암벽등반, 요가, 농구, 축구, 자전거 등

⑤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준비수준



【그림 IV-8】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준비수준

각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기 위한 준비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과반수정도(48.5%)가 현재 연계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그리고 계획 수립 중인 비율도 37.3%로 나타났으나 12.7%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곳은 청소년수련관과 서울지역인 것으로, 전혀 준비 안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곳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대전/충청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준비수준

(단위:%, N=1,331)

구	분	전혀준비안함	계획수립중	현재운영중	모름/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12.7	37.3	48.5	1.4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8.8	32.1	57.5	1.7	100.0	80.645
	청소년문화의집	19.2	46.1	33.7	1.0	100.0	0.000
근무 지역	서울	8.7	20.2	69.8	1.2	100.0	84.388 0.000
	인천/경기	12.9	40.2	44.1	2.7	100.0	
	대전/충청	24.2	44.2	30.8	0.8	100.0	
	광주/전라	11.5	43.8	43.8	1.0	100.0	
	대구/경북	13.0	32.0	54.0	1.0	100.0	
	부산/울산/경남	11.1	43.2	45.7	0.0	100.0	
	강원/제주	13.1	40.7	44.1	2.1	100.0	

⑥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준비 안하는 이유

학교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준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예산 부족(28.4%), 지도 인력 부족(25.4%), 학교와의 연계 가능성 부족(17.8%), 관련정보 부족(16.0%)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프로그램 부족은 3.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0 학교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준비를 안 하는 이유

(단위:%, N=169 base: 연계 준비 안함 응답자)

구	분	사업예 산부족	지도인 력부족	연계가능 성 부족	관련정 보부족	프로그램 부족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28.4	25.4	17.8	16.0	3.6	4.7	4.1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24.7	26.0	24.7	13.7	5.5	1.4	4.1	100.0	8.941
	청소년문화의집	31.3	25.0	12.5	17.7	2.1	7.3	4.2	100.0	0.177
근무 지역	서울	14.3	14.3	9.5	23.8	0.0	28.6	9.5	100.0	58.854 0.009
	인천/경기	27.9	30.2	11.6	16.3	7.0	2.3	4.7	100.0	
	대전/충청	37.9	31.0	17.2	10.3	3.4	0.0	0.0	100.0	
	광주/전라	31.8	22.7	27.3	9.1	4.5	4.5	0.0	100.0	
	대구/경북	7.7	38.5	23.1	15.4	0.0	0.0	15.4	100.0	
	부산/울산/경남	36.4	9.1	27.3	22.7	0.0	0.0	4.5	100.0	
	강원/제주	31.6	31.6	15.8	15.8	5.3	0.0	0.0	100.0	

⑦ 가장 많이 운영(계획)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영역

학교와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과반수 정도(42.2%)는 동아리 활동 연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활동(27.0%), 봉사활동(16.1%), 진로 활동(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활동 응답비율은 공공기관 직영, 광주/전라, 강원/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활동 응답비율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진로활동 응답비율은 공공기관 위탁, 인천/경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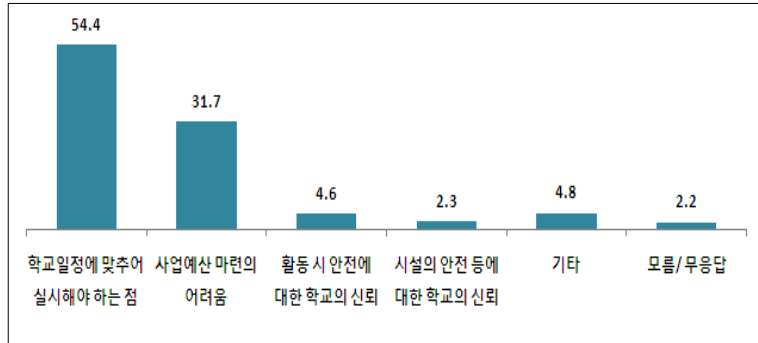
표 IV-11 가장 많이 운영(계획)중인 창의적 체험활동영역

(단위:%, N=1,143, base: 창의적 체험 활동 관련 학교 연계계획 수립중이거나 운영함 응답자)

구 분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모름/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42.2	27.0	16.1	12.8	1.9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39.8	27.6	16.6	13.9	2.0	100.0	5.839
	청소년문화의집	46.6	25.9	15.1	10.6	1.8	100.0	0.212
운영 주체	공공기관직영	51.2	27.1	17.1	2.3	2.3	100.0	34.755 0.001
	민간기관직영	15.4	38.5	7.7	38.5	0.0	100.0	
	공공기관위탁	37.0	30.3	13.3	17.0	2.3	100.0	
	민간기관위탁	43.2	25.4	17.3	12.4	1.7	100.0	
근무 지역	서울	30.3	25.2	28.4	13.8	2.3	100.0	178.329 0.000
	인천/경기	37.2	19.9	13.5	27.3	2.1	100.0	
	대전/충청	41.6	31.5	20.2	3.4	3.4	100.0	
	광주/전라	64.3	23.8	5.4	5.4	1.2	100.0	
	대구/경북	41.9	46.5	4.7	5.8	1.2	100.0	
	부산/울산/경남	36.7	35.0	20.3	5.1	2.8	100.0	
	강원/제주	52.8	22.8	13.8	10.6	0.0	100.0	

⑧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시 가장 많이 예상되는 어려움

학교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학교 일정에 맞추어 실시해야 하는 점’이라고 과반수이상(54.4%)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예산 마련의 어려움(31.7%)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활동 시 안전에 대한 학교의 신뢰(4.6%), 시설의 안전 등에 대한 학교의 신뢰(2.3%) 등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9】 학교와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시 예상되는 어려움

⑨ 청소년수련시설 신뢰도 제고 및 청소년활동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4.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 확대(4.52), 지도인력의 배치인원 확대(4.48),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4.4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4.26), 우수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4.2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수련시설 신뢰도 제고 및 활동참여 활성화 방안

구 분	빈도(명)	평균1)	표준편차
우수활동프로그램개발·보급	1331	4.24	0.68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지도자의 자질향상	1331	4.26	0.657
평가컨설팅을 통한 운영 및 관리시스템지원	1331	4.02	0.73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	1331	4.67	0.56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	1331	4.46	0.695
지도인력의 배치인원 확대	1331	4.48	0.68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확대	1331	4.52	0.654

1) 전혀 불필요(1점), 불필요(2점), 보통(3점), 필요(4점), 매우필요(5점)

3)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인증제 도입관련 의식 및 요구수준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도입

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도입의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대해 4이상(75%; 매우필요 10.4%, 필요 64.6%)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4.0%(전혀불필요 3.2%, 불필요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민간시설, 민간기관직영, 부산/울산/경남지역, 청소년 분야 근무경력이 짧을수록(2년 미만 83.5%)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민간기간위탁, 광주/전라, 강원/제주지역, 청소년분야 근무경력이 길수록(5년 이상 29.8%)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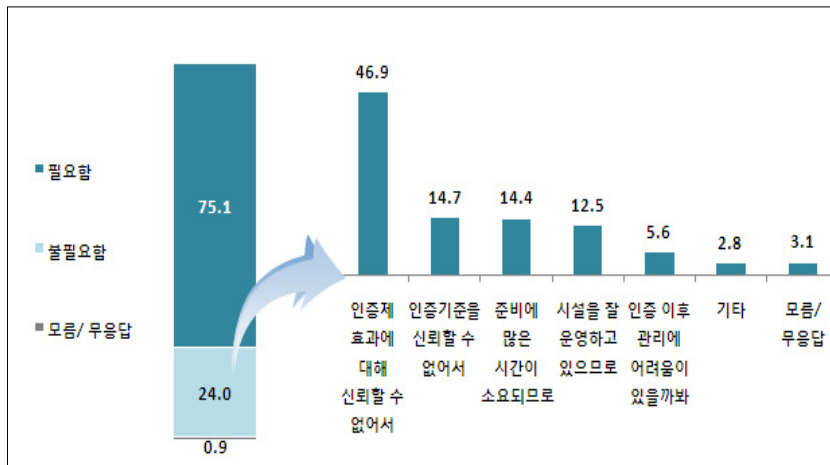
표 IV-1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단위:%, N=1,331)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름/ 무응답	전체	x ² /유의도	
전체	3.2	20.8	64.6	10.4	0.9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3.4	19.7	65.0	11.1	0.8	100.0	2.364
	청소년문화의집	3.0	22.6	63.9	9.4	1.0	100.0	0.669
설립 주체	공공시설	3.3	21.0	64.6	10.3	0.8	100.0	13.967
	민간시설	0.0	0.0	64.3	28.6	7.1	100.0	0.007
운영 주체	공공기관직영	2.3	14.4	69.0	13.8	0.6	100.0	26.656 0.009
	민간기관직영	0.0	0.0	64.3	28.6	7.1	100.0	
	공공기관위탁	2.6	20.0	65.1	11.7	0.6	100.0	
	민간기관위탁	3.8	23.0	63.4	8.8	1.0	100.0	
근무 지역	서울	1.7	23.6	64.0	9.9	0.8	100.0	50.327 0.001
	인천/경기	3.0	20.4	64.0	11.7	0.9	100.0	
	대전/충청	2.5	20.0	66.7	10.8	0.0	100.0	
	광주/전라	6.3	24.5	62.5	4.7	2.1	100.0	
	대구/경북	1.0	16.0	75.0	8.0	0.0	100.0	
	부산/울산/경남	1.0	14.6	68.8	15.1	0.5	100.0	
	강원/제주	7.6	24.8	55.2	11.0	1.4	100.0	
청소년 분야 근무 수	2년 미만	2.0	13.7	72.6	10.9	0.9	100.0	40.989 0.001
	2~3년 미만	4.2	18.1	65.3	11.8	0.7	100.0	
	3~5년 미만	3.3	24.9	63.5	7.9	0.4	100.0	
	5년 이상	3.7	26.1	59.1	10.3	0.8	100.0	
	모름/무응답	3.6	10.8	67.5	14.5	3.6	100.0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N=320)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정도(46.9%)가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14.7%),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14.4%),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12.5%), ‘인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5.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과 인증이후 사후관리체제를 수립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V-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필요하지 않은 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자지도자는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남 56.8%, 여 41.1%), 여자지도자는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남 8.5%, 여 18.3%),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남 9.3%, 여 17.3%)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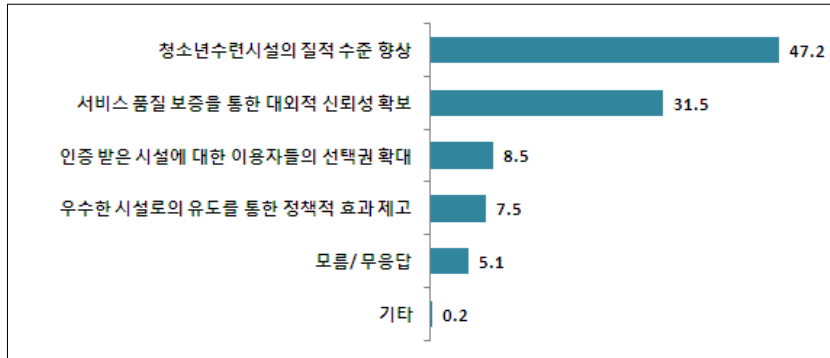
표 IV-1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

(단위: %, N=320, base: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불필요 응답자)

구분	효과신뢰못함	기준신뢰못함	많은시간소요	운영만족	사후관리염려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x ² /유의도
전체	46.9	14.7	14.4	12.5	5.6	2.8	3.1	100.0	-
시설종류	청소년수련관	47.9	14.6	15.6	9.9	5.2	4.2	100.0	5.129
	청소년문화의집	45.3	14.8	12.5	16.4	6.3	3.1	100.0	0.527
성별	남자	56.8	8.5	9.3	15.3	4.2	3.4	100.0	14.344
	여자	41.1	18.3	17.3	10.9	6.4	2.5	100.0	0.026
담당업무	시설운영자	17.9	46.2	0.0	20.5	5.1	5.1	100.0	26.432
	활동지도직	10.2	49.1	14.6	13.7	7.1	3.1	100.0	
	행정지원직	18.5	38.9	24.1	13.0	0.0	3.7	100.0	
	모름/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100.0	

(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체제

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주된 목적



【그림 IV-1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주된 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의 주된 목적에 대해 과반수정도(47.2%)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품질 보증을 통한 대외적 신뢰성 확보(31.5%),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수요자)들의 선택권 확대(8.5%),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유도를 통한 정책적 효과 제고(7.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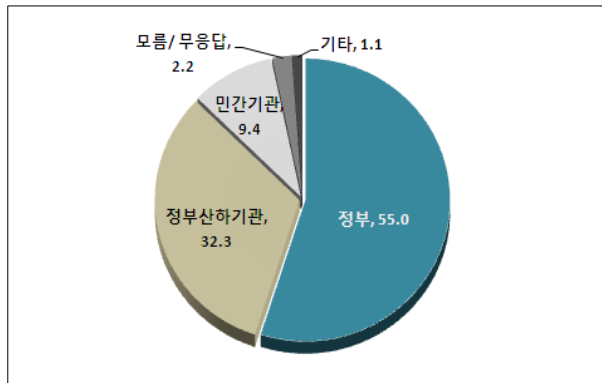
표 IV-1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주된 목적

(단위:%, N=1,331)

구분	질적수준상향	신뢰성확보	선택권확대	정책효과제고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47.2	31.5	8.5	7.5	0.2	5.1	100.0	-	
시설종류	청소년수련관	47.0	32.8	8.8	7.0	0.2	4.2	100.0	5.905
	청소년문화의집	47.5	29.3	8.0	8.4	0.2	6.6	100.0	0.316
연령	20대	49.2	30.0	9.2	7.6	0.5	3.5	100.0	23.343
	30대	44.0	35.5	8.8	6.2	0.0	5.4	100.0	
	40대	50.4	25.6	7.5	8.7	0.4	7.5	100.0	
	50대 이상	49.3	28.4	4.5	13.4	0.0	4.5	100.0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

과반수이상(55.0%)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산하기관(32.3%), 민간기관(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증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민간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남자지도자, 광주/전라지역, 행정지원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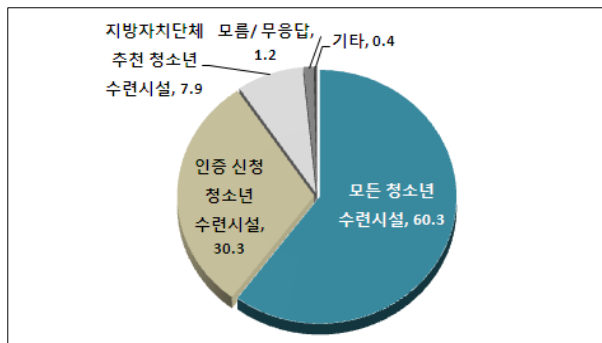
【그림 IV-1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주체

표 IV-1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주체

(단위:%, N=1,331)

구 분		정부	정부산하 기 관	민간기관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55.0	32.3	9.4	1.1	2.2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54.1	33.9	9.3	1.2	1.6	100.0	6.089
	청소년문화의집	56.5	29.7	9.6	1.0	3.2	100.0	0.193
성별	남자	56.3	29.8	11.9	0.8	1.2	100.0	11.720
	여자	54.2	33.8	7.9	1.3	2.8	100.0	0.020
근무 지역	서울	55.0	33.5	8.3	1.2	2.1	100.0	55.416 0.000
	인천/경기	53.5	36.9	6.3	1.8	1.5	100.0	
	대전/충청	50.0	38.3	10.8	0.0	0.8	100.0	
	광주/전라	51.0	28.1	15.6	1.0	4.2	100.0	
	대구/경북	70.0	26.0	4.0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59.8	31.2	6.0	0.5	2.5	100.0	
	강원/제주	51.0	26.2	17.2	2.1	3.4	100.0	
담당 업무	시설운영자	55.7	26.4	13.6	2.1	2.1	100.0	30.943 0.014
	활동지도직	56.3	32.9	7.2	1.1	2.5	100.0	
	행정지원직	49.2	33.3	15.9	0.5	1.0	100.0	
	기 타	66.7	0.0	33.3	0.0	0.0	100.0	
	모름/무응답	38.9	38.9	22.2	0.0	0.0	100.0	

③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



【그림 IV-1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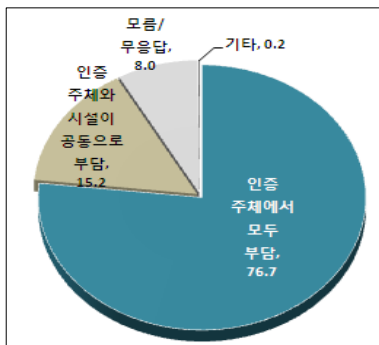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대상에 대해 응답(60.3%)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증 신청 청소년수련시설(30.3%),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인천/경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지도자, 강원/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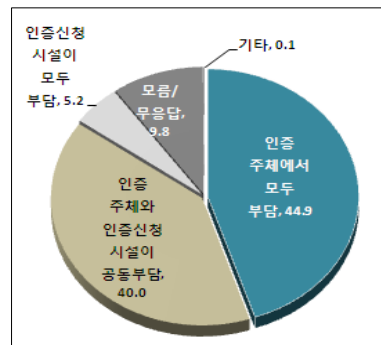
(단위:%, N=1,331)

구 분		모든시설	신청시설	추천시설	기타	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60.3	30.3	7.9	0.4	1.2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62.1	29.2	7.3	0.4	1.0	100.0	4.103
	청소년문화의집	57.1	32.1	8.8	0.4	1.6	100.0	0.392
성별	남자	59.0	29.2	10.1	0.0	1.6	100.0	9.735
	여자	61.0	30.9	6.5	0.6	1.0	100.0	0.045
근무 지역	서울	61.2	30.2	6.6	0.4	1.7	100.0	36.401 0.050
	인천/경기	68.2	25.2	5.4	0.0	1.2	100.0	
	대전/충청	54.2	35.0	10.0	0.0	0.8	100.0	
	광주/전라	55.2	32.8	9.4	1.0	1.6	100.0	
	대구/경북	59.0	31.0	8.0	0.0	2.0	100.0	
	부산/울산/경남	64.3	27.1	7.5	1.0	0.0	100.0	
	강원/제주	47.6	38.6	12.4	0.0	1.4	100.0	

④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주체



【그림 IV-14】 의무인증 시 자원부담 주체



【그림 IV-15】 자율신청 시 자원부담 주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 주체에 대해 의무인증 시에는 ‘인증 주체에서 모두 부담’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증 주체와 시설이 공동으로 부담’은 15.2%로 낮게 나타난 반면, 신청에 의한 자율인증 시에는 ‘인증 주체에서 모두 부담’ 44.9%, ‘인증 주체와 인증신청 시설이 공동 부담’이 40.0%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에 대해서는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가 40.2%로 가장 높았고,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이 33.0%, ‘영역별로 부문인증’이 26.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는 민간기관 위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은 공공기관직영, 공공기관위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

(단위:%, N=1,331)

구 분		점진적확대	종합인증	부문인증	기타	전체	x 2/유의도
전체		40.2	33.0	26.1	0.8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39.5	33.1	27.0	0.4	100.0	5.553
	청소년문화의집	41.3	32.9	24.4	1.4	100.0	0.135
성별	남자	37.4	37.0	24.9	0.8	100.0	5.995
	여자	41.9	30.6	26.8	0.7	100.0	0.112
운영 주체	공공기관직영	33.9	40.2	24.7	1.1	100.0	19.998 0.018
	민간기관직영	50.0	50.0	0.0	0.0	100.0	
	공공기관위탁	35.7	37.4	26.3	0.6	100.0	
	민간기관위탁	43.4	29.1	26.7	0.8	100.0	

⑥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에 대해 ‘포괄적 인증방식’(50.0%) 과 ‘등급부여 인증방식’(47.7%)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포괄적 인증방식은 30대와 40대, 청소년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지도자, 등급부여 인증방식은 50대와 20대, 청소년분야 근무

경력 2년 미만인 지도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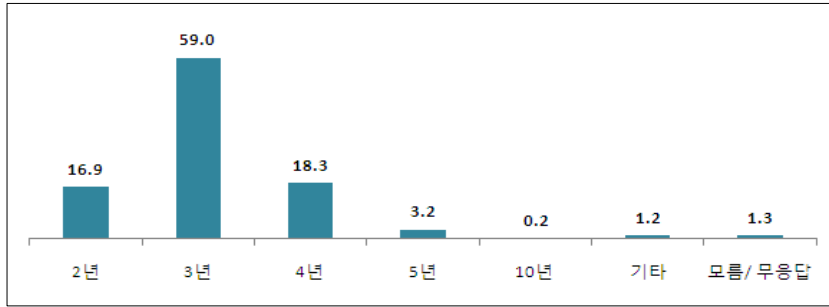
표 IV-19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방식

(단위:%, N=1,331)

구 분		포괄적 인증방식	등급부여 인증방식	기 타	모름/ 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50.0	47.7	0.2	2.1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49.5	48.1	0.2	2.2	100.0	0.210
	청소년문화의집	50.7	47.1	0.2	2.0	100.0	0.976
성별	남자	51.7	45.9	0.2	2.2	100.0	1.074
	여자	48.9	48.8	0.2	2.1	100.0	0.783
설립 주체	공공시설	50.0	47.8	0.2	1.9	100.0	25.719
	민간시설	42.9	35.7	0.0	21.4	100.0	0.000
운영 주체	공공기관직영	47.7	50.0	0.6	1.7	100.0	28.634 0.001
	민간기관직영	42.9	35.7	0.0	21.4	100.0	
	공공기관위탁	52.3	45.7	0.0	2.0	100.0	
	민간기관위탁	49.6	48.3	0.3	1.9	100.0	
연령	20대	43.9	54.3	0.0	1.8	100.0	18.125 0.034
	30대	53.9	43.8	0.3	1.9	100.0	
	40대	53.5	42.9	0.4	3.1	100.0	
	50대 이상	41.8	56.7	0.0	1.5	100.0	
청소년 분야 근무 년수	2년 미만	42.6	56.0	0.0	1.4	100.0	31.101 0.002
	2~3년 미만	52.1	47.2	0.0	0.7	100.0	
	3~5년 미만	46.9	51.5	0.4	1.2	100.0	
	5년 이상	56.7	39.8	0.4	3.1	100.0	
	모름/무응답	44.6	51.8	0.0	3.6	100.0	

⑦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59.0%)이 '3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4년(18.3%), 2년(16.9%), 5년(3.2%), 10년(0.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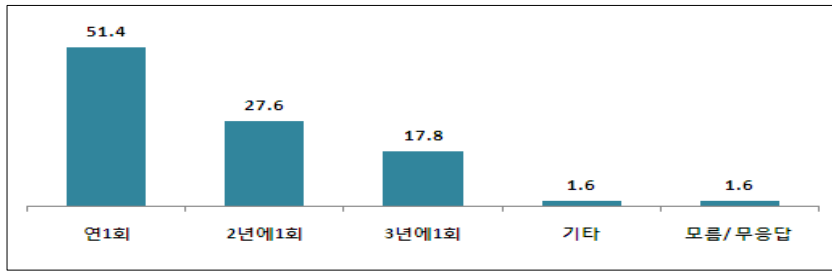
⑧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모니터링 필요성 및 모니터링 주기

표 IV-20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단위: %, N=1,331)

구분	필요없다	필요하다	모름/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10.9	89.0	0.2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10.2	89.5	0.2	100.0	2.221
	청소년문화의집	12.0	88.0	0.0	100.0	0.329
성별	남자	13.3	86.5	0.2	100.0	5.052
	여자	9.4	90.5	0.1	100.0	0.080
청소년 분야 근무 년수	2년 미만	9.1	90.9	0.0	100.0	15.618 0.048
	2~3년 미만	12.5	87.5	0.0	100.0	
	3~5년 미만	7.1	92.9	0.0	100.0	
	5년 이상	13.3	86.5	0.2	100.0	
	모름/무응답	12.0	86.7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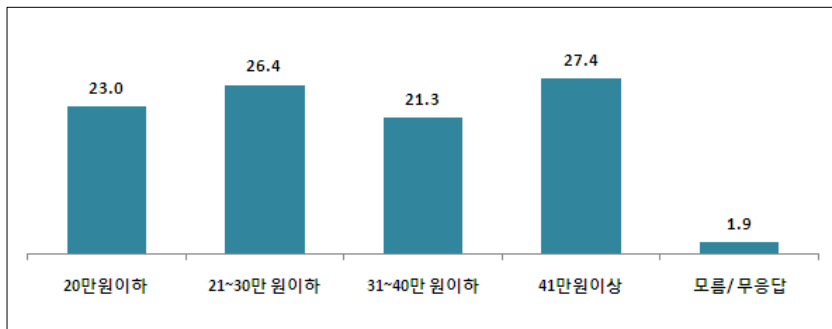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8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1,184)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주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51.4%)이 '연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년에 1회(27.6%), 3년에 1회(17.8%)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적당한 모니터링 주기

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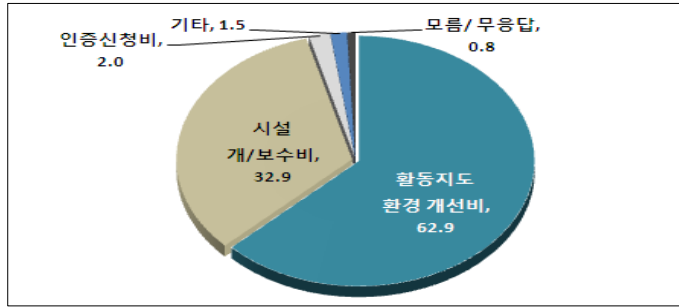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비용에 대해 20만원 이하부터 41만원까지 모두 20%이상의 고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1만원 이상(27.4%)과 21~30만원 이상(26.4%)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만원 이하(23.0%)와 31~40만원 이하(21.3%)라는 응답도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8】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 비용

⑩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인증 준비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윙정도(62.9%)가 ‘활동지도환경(프로그램, 기자재 등) 개선비’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 개보수비(32.9%), 인증 신청비(2.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9】 인증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⑩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중요도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4.34)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4.33), 적절한 인증기준(지표)설정 및 적용(4.33), 인증 후의 사후관리 체제(4.31),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29),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4.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청소년지도자)

구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	1331	4.19	0.691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	1331	4.33	0.678
적절한 인증기준설정 및 적용	1331	4.33	0.681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	1331	4.29	0.698
인증후의 사후관리체제	1331	4.31	0.688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	1331	4.34	0.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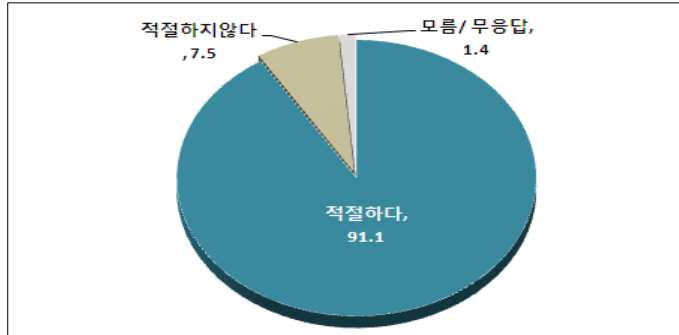
1):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 중요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중요함(4점), 매우 중요함(5점)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 및 기준

① 인증절차(안)의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안)을 [인증신청-자체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현

장인증심사(인증심사원)-인증심의(인증위원회)-인증서 발급-사후관리]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다수 (91.1%)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0】 인증 절차(안)에 대한 적절성

② 인증기준(안) :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각 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공통기준(3.85)보다 개별기준(4.05)에 대한 적절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적절성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공통기준: 모든 시설 공통적용 기준	1331	3.85	0.786
개별기준: 수련시설특성별 적용기준	1331	4.05	0.720

1): 전혀 적절하지 않음(1점), 적절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적절함(4점), 매우 적절함(5점)

③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안)에 대한 적절성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인적자원 관리'영역이 4.03으로 가장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시설(운영 및) 관리(3.97), 이용자(청소년)관리(3.87), 재정/사무관리(3.84) 순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시설 운영 및 관리	1331	3.97	0.711
인 적 자 원 관 리	1331	4.03	0.792
이용자(청소년)관리	1331	3.87	0.762
재정 · 사무 관리	1331	3.84	0.777

1): 전혀 적절하지 않음(1점), 적절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적절함(4점), 매우 적절함(5점)

④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안)에 대한 적절성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프로그램 계획/관리(4.00)영역이 지역사회관계(연계)영역(3.85)보다 적절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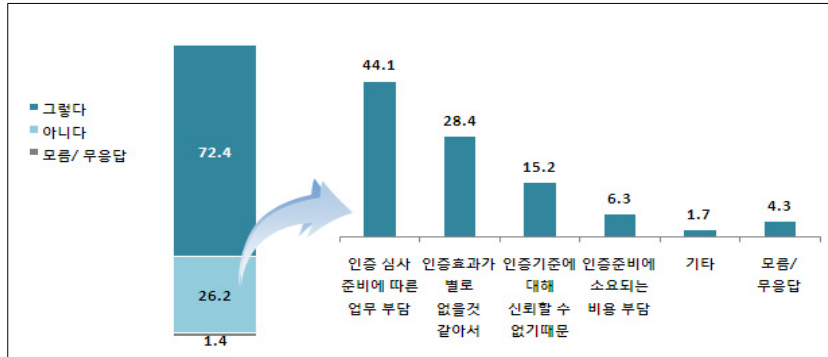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프로그램 계획 · 관리	1331	4.00	0.711
지역사회관계(연계)	1331	3.85	0.728

1): 전혀 적절하지 않음(1점), 적절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적절함(4점), 매우 적절함(5점)

(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 여부 및 도입 효과

① 인증신청 희망 여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4 정도(72.4%)는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 인증신청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26.2%) 이유로는 ‘인증심사 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28.4%), 인증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15.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증심사 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민간기관위탁, 20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증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는 40대,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때문에’는 공공기관직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1】 인증신청 희망 여부 및 비신청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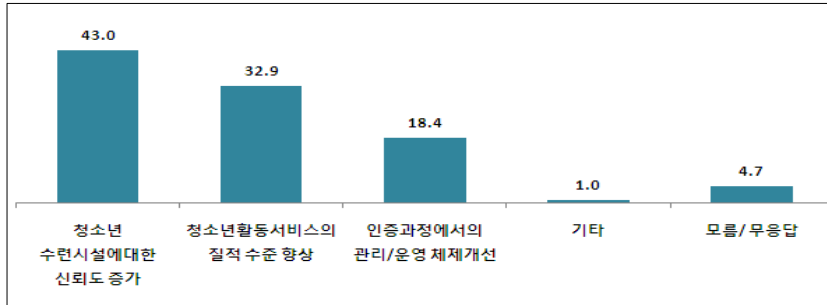
표 IV-25 인증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N=349, base: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신청 미희망자)

구분	업무부담	효과기대 못함	기준신뢰 못함	비용부담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44.1	28.4	15.2	6.3	1.7	4.3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39.3	29.9	17.4	7.5	2.5	100.0	7.785
	청소년문화의집	50.7	26.4	12.2	4.7	0.7	100.0	0.169
설립 주체	공공시설	44.4	28.5	15.3	6.1	1.7	100.0	17.666
	민간시설	0.0	0.0	0.0	50.0	0.0	100.0	0.003
운영 주체	공공기관직영	38.1	33.3	9.5	14.3	2.4	100.0	29.869 0.012
	민간기관직영	0.0	0.0	0.0	50.0	0.0	100.0	
	공공기관위탁	37.6	29.4	18.8	8.2	2.4	100.0	
	민간기관위탁	48.2	27.3	15.0	3.6	1.4	100.0	
연령	20대	53.0	25.2	12.2	4.3	1.7	100.0	27.796 0.023
	30대	46.2	26.3	17.3	6.4	0.6	100.0	
	40대	23.0	41.0	18.0	6.6	4.9	100.0	
	50대 이상	41.2	23.5	5.9	17.6	0.0	100.0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가장 큰 효과로는 과반수정도(43.0%)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활동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2.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18.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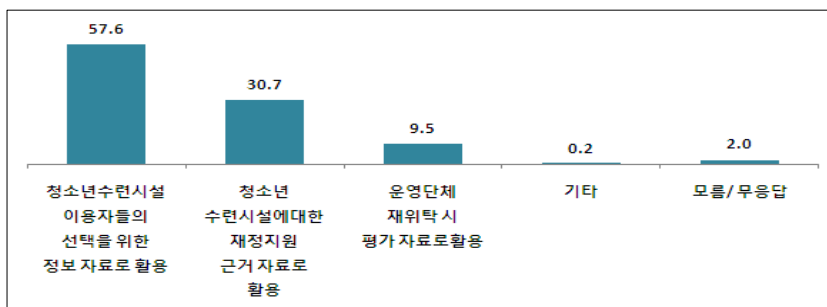


【그림 IV-2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사후관리체제

① 인증결과 활용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57.6%)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30.7%),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은 공공기관위탁, 청소년분야 근무경력 2년 미만 지도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은 공공기관직영, 청소년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지도자,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은 민간기관 위탁, 청소년분야 2~3년 미만 근무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3】 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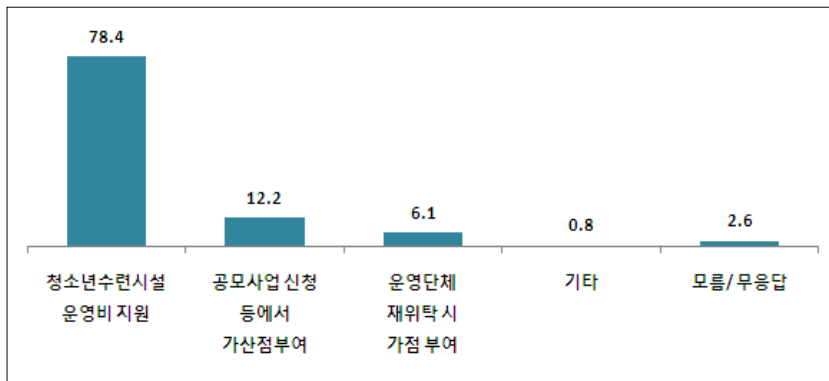
표 IV-26 인증결과 활용방안

(단위:%, N=1,331)

구 분		이용자의 정보자료	재정지원 근거자료	재위탁 평가자료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57.6	30.7	9.5	0.2	2.0	100.0	-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59.6	28.8	10.0	0.1	1.4	100.0	7.624
	청소년문화의집	54.3	33.9	8.8	0.2	2.8	100.0	0.106
운영 주체	공공기관직영	48.9	47.1	2.9	0.0	1.1	100.0	61.708 0.000
	민간기관직영	85.7	7.1	0.0	0.0	7.1	100.0	
	공공기관위탁	65.4	28.3	4.9	0.0	1.4	100.0	
	민간기관위탁	55.6	28.6	13.2	0.3	2.3	100.0	
청소년 분야 근무 년수	2년 미만	62.6	29.1	7.1	0.3	0.9	100.0	27.709 0.034
	2~3년 미만	57.6	27.8	14.6	0.0	0.0	100.0	
	3~5년 미만	57.3	29.9	11.6	0.0	1.2	100.0	
	5년 이상	54.4	33.9	8.2	0.2	3.3	100.0	
	모름/무응답	57.8	25.3	13.3	0.0	3.6	100.0	

②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4이상(78.4%)이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2.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점 부여(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③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평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인증기준이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업무 과부하 및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적 부담, 효과성의 우려, 시설 간의 과대 경쟁과 격차에 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그 외에 홍보, 준비 기간, 사후관리,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인센티브 등의 문제도 거론되었다.

1-2.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담당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현황 및 관련업무, 청소년활동 및 정책,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인식과 요구수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Ⅳ-27〉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94명으로 전체의 56.6%, 여자지도자는 72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하고 있어 남자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 이하 27.7%, 40대 50.6%, 50대 이상이 21.7%로 나타나 3/4 정도가 40~5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업무담당연수는 6개월 미만이 15.1%,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7.3%,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이 11.4%,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이 10.8%, 2년 이상이 25.3%인 것으로 나타나 3/4 정도가 2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서울지역 6.0%(10명), 인천/경기 16.3%(27명), 대전/충청 18.1%(30명), 광주/전라 17.5%(29명), 대구/경북 16.3%(27명), 부산/울산/경남 14.5%(24명), 강원/제주 11.4%(19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졸업 12.0%, 전문대학교졸업 16.3%, 대학교졸업 71.1%로 3/4 이상이 대학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청소년관련학과 1.8%, 사회복지관련학과 24.7%, 교육관련학과 3.6%, 기타학과 68.1%로 나타났다. 보유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5.9%, 청소년지도사 6.6%, 교사 4.2%, 평생교육사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조사대상자(청소년관련업무담당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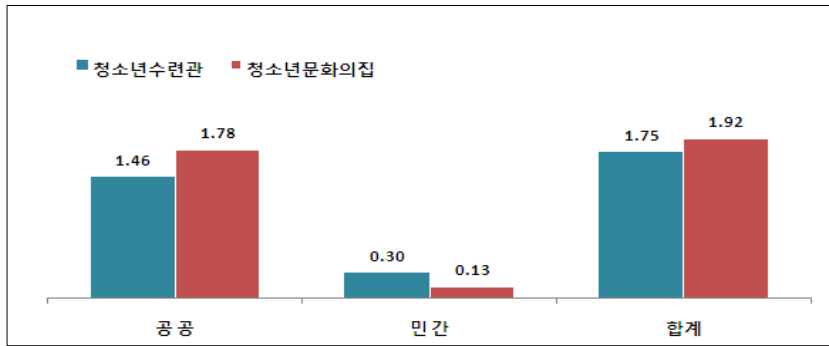
구분		계	
		사례수	%
전체		166	100.0
성별	남자	94	56.6
	여자	72	43.4
연령별	30대 이하	46	27.7
	40대	84	50.6
	50대 이상	36	21.7
근무지역	서울	10	6.0
	인천/경기	27	16.3
	대전/충청	30	18.1
	광주/전라	29	17.5
	대구/경북	27	16.3
	부산/울산/경남	24	14.5
	강원/제주	19	11.4
현직장근무기간	2년 미만	40	24.1
	2~5년 미만	21	12.7
	5~10년 미만	19	11.4
	10~20년 미만	46	27.7
	20년 이상	40	24.1
청소년업무담당년수	6개월 미만	25	15.1
	6개월~1년 미만	62	37.3
	1년~1년 6개월 미만	19	11.4
	1년 6개월~2년 미만	18	10.8
	2년 이상	42	25.3
학력	고졸	20	12.0
	전문대졸	27	16.3
	대졸 이상	118	71.1
	무응답	1	0.6
전공	청소년관련	3	1.8
	교육관련	6	3.6
	사회복지관련	41	24.7
	기타	113	68.1
	무응답	3	1.8
보유자격증	사회복지사	43	25.9
	청소년지도사	11	6.6
	교사	70	4.2
	평생교육사	25	3.0
	기타	15	9.0
	없음	73	44.0
	무응답	21	12.7

2) 담당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수준

(1) 담당시설 현황 및 운영형태

① 담당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현황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평균 공공시설 1.46개소와 민간시설 0.30개소로 전체 평균 1.75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Ⅳ-28〉 참조), 청소년문화의집은 평균 공공시설 1.78개소와 민간시설 0.13개소로 전체 평균 1.9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Ⅳ-29〉 참조).



【그림 IV-25】 담당 청소년시설 현황

표 IV-28 담당 청소년수련관 현황

(단위: %, N=166)

구분	없음	1개	2~5개	6~10개	11개이상	전체	χ^2 /유의도
전체	14.5	63.9	15.1	3.6	3.0	100.0	-
근무 지역	서울	10.0	60.0	20.0	0.0	10.0	18.975 0.753
	인천/경기	14.8	70.4	11.1	3.7	0.0	
	대전/충청	13.3	53.3	26.7	6.7	0.0	
	광주/전라	13.8	65.5	17.2	0.0	3.4	
	대구/경북	14.8	77.8	0.0	3.7	3.7	
	부산/울산/경남	25.0	50.0	16.7	4.2	4.2	
	강원/제주	5.3	68.4	15.8	5.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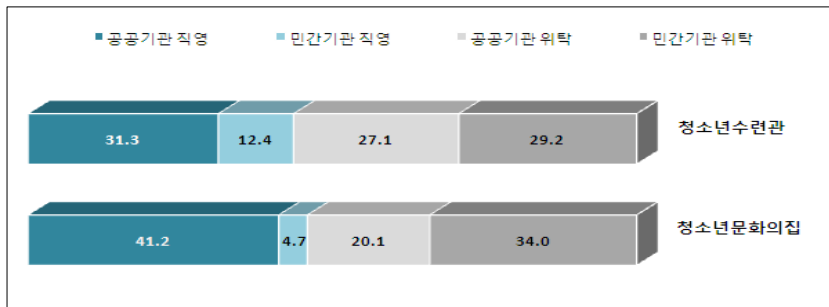
표 IV-29 담당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단위:%, N=166)

구 분		없음	1개	2~5개	6~10개	11개이상	전체	χ^2 /유의도
전체		26.2	48.2	18.3	4.9	2.4	100.0	-
근무 지역	서울	40.0	40.0	20.0	0.0	0.0	100.0	35.877 0.056
	인천/경기	25.9	33.3	37.0	3.7	0.0	100.0	
	대전/충청	30.0	46.7	13.3	10.0	0.0	100.0	
	광주/전라	25.0	64.3	10.7	0.0	0.0	100.0	
	대구/경북	33.3	59.3	0.0	3.7	3.7	100.0	
	부산/울산/경남	20.8	50.0	16.7	8.3	4.2	100.0	
	강원/제주	11.1	33.3	38.9	5.6	11.1	100.0	

② 담당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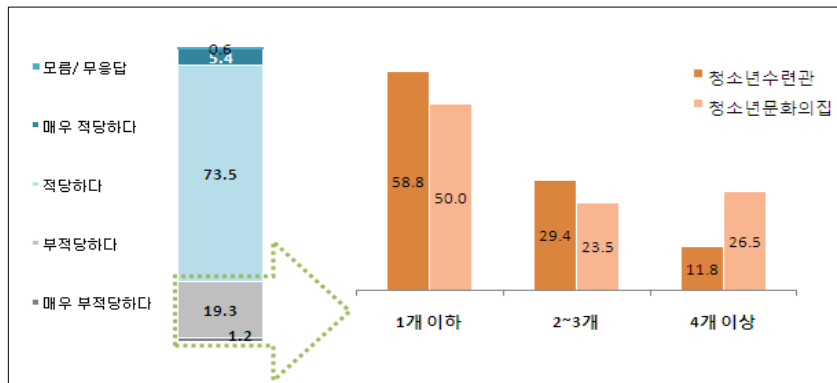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100% 기준으로 했을 경우, 운영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직영 31.3%, 민간기관위탁 29.2%, 공공기관위탁 27.1%, 민간기관직영12.4%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직영 41.2%, 민간기관위탁 34.0%, 공공기관 위탁 20.1%, 민간기관직영 4.7% 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공기관직영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6】 담당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형태

③ 담당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수 및 적정 수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에 대해 4이상(78.9%; 매우적당 5.4%, 적당 73.5%)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당하다(20.5%; 매우부적당 1.2%, 부적당 19.3%)고 응답한 공무원을 대상(N=34)으로 적당한 시설수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개 이하 58.8%, 2~3개 29.4%, 4개 이상 11.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1개 이하 50.0%, 2~3개 23.5%, 4개 이상 26.5%로 나타났다.



【그림 IV-27】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에 대한 적당성

④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의 효과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별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관(단체)위탁방식(3.3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위탁(3.17), 공공기관직영(2.79) 순으로 위탁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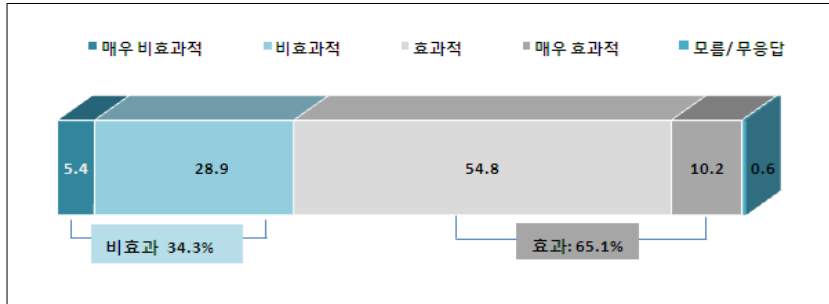
표 IV-3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별 효과성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공공기관직영	166	2.79	1.131
공공기관위탁	166	3.17	0.975
민간기관위탁	166	3.31	1.040

1): 매우 비효과적(1점), 비효과적(2점), 보통(3점), 효과적(4점), 매우 효과적(5점)

⑤ 청소년수련시설 민간기관위탁 운영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및 이유

민간기관위탁 운영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65.1%(매우 효과적 10.2%, 효과적 54.8%),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이 34.3%(매우 비효과적 5.4%, 비효과적 28.9%)로 민간기관위탁 운영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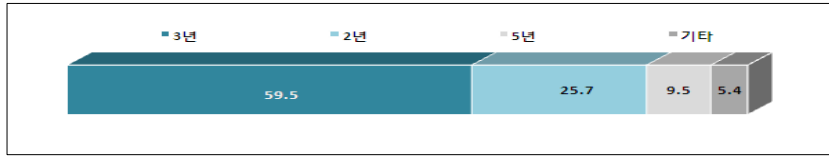
【그림 IV-28】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효과성

민간기관위탁 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이유: 민간기관위탁 운영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총이상(67.6%)이 '수탁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영보다 혁신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25.0%),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6.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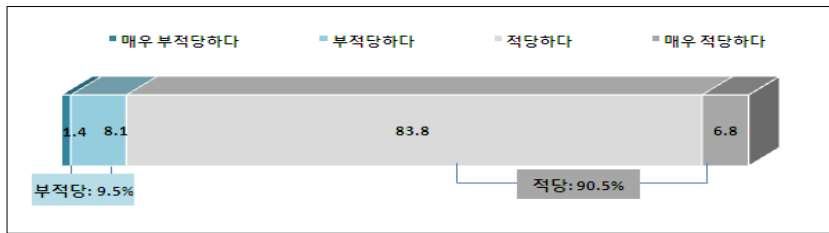
민간기관위탁 운영방식이 비효과적인 이유: 민간기관위탁 운영방식이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수익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35.1%), 공공서비스 사업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33.3%),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12.3%), 수탁단체의 산하시설처럼 운영되기 때문에(10.5%), 재위탁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3.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민간기관위탁 계약기간 및 적절성

민간기관위탁 계약기간은 과반수이상(59.5%)이 3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은 25.7%, 5년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다수(90.5%)는 3년 계약기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9】 민간기관위탁 계약기간



【그림 IV-30】 민간기관위탁 계약기간의 적당 여부

(2)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수행 시 만족수준 및 애로사항

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수행 시 만족수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수행 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련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3.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3.35),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3.34),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3.30) 등에 대한 업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 확보 관련업무(2.97)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수행 시 만족도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	166	3.34	0.72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66	3.41	0.697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66	3.21	0.795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166	3.13	0.788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166	3.30	0.73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166	3.35	0.695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확보	166	2.97	0.842
청소년수련시설관련 민원업무처리	166	3.27	0.723
계약심사 등 공사관련 심의	166	3.20	0.742

1):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

②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 및 집행의 과다, 예산의 감소 등 예산에 관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에 관한 의견도 많았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의 미비, 행정 절차의 인식 부족 등 제도적 문제도 언급되었다. 그 외에 타 기관 또는 관계자와의 협력 부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활동 및 정책관련 인식수준

(1) 청소년정책관련 연수경험 및 만족수준

① 청소년정책 관련 연수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정책관련 연수(교육)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8.0%, 없다는 응답이 62.0%로 연수(교육)를 받지 않은 응답자가 2배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0대와 5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연수경험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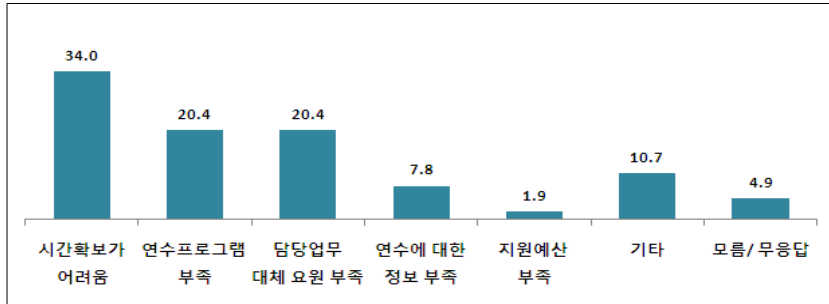
표 IV-32 청소년정책 관련 연수 경험 유무

(단위:%, N=166)

구 분		없다	있다	전체	χ^2 /유의도
전체		62.0	38.0	100.0	-
성별	남자	54.3	45.7	100.0	5.589
	여자	72.2	27.8	100.0	0.018
연령	30대 이하	67.4	32.6	100.0	7.674
	40대	52.4	47.6	100.0	0.022
	50대 이상	77.8	22.2	100.0	

② 청소년정책 관련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연수경험이 없는 공무원(N=103)을 대상으로 받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연수 참가를 위한 시간확보 어려움(34.0%), 연수프로그램 부족/담당업무 대체요원 부족(20.4%), 연수에 대한 정보부족(7.8%)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1】 청소년정책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③ 청소년정책 관련연수 내용 및 만족도

내부연수: 청소년정책 관련 내부연수에 대한 자유응답 결과 연수내용은 실무자 교육, 청소년사업 지침 교육·설명회를 포함하는 청소년정책교육(9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 위탁, 지역사회 연계 방안, 청소년지도사 운영, 자체 워크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수준은 보통 54.2%, 만족 41.7%로 만족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연수: 청소년정책 관련 외부연수에 대한 자유응답 결과 연수내용은 청소년정책사업과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74.3%)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지도자, 시설관리, 청소년정책대상자(아동·청소년), 평가 관련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수준은 보통 40.4%, 만족 53.2%로 내부연수보다 외부연수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연수 참가 만족수준

구 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단위, N
내부연수	4.2	54.2	41.7	100.0	%, N=24
외부연수	6.4	40.4	53.2	100.0	%, N=47

④ 청소년정책관련 연수 희망 내용

변화하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연수받고 싶은 내용에 대한 자유응답 결과 청소년정책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설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정책의 이해, 시설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수련시설 신뢰도 제고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4.2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우수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4.1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4.13),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 확대(4.08),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4.02), 지도인력의 배치인원 확대(4.0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수련시설 신뢰도 제고 및 활동참여 활성화 방안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우수활동프로그램개발·보급	166	4.17	0.629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지도자의 자질향상	166	4.13	0.644
평가컨설팅 통한 운영 및 관리시스템개선지원	166	3.97	0.59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	166	4.22	0.700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	166	4.02	0.742
지도인력의 배치인원 확대	166	4.01	0.68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확대	166	4.08	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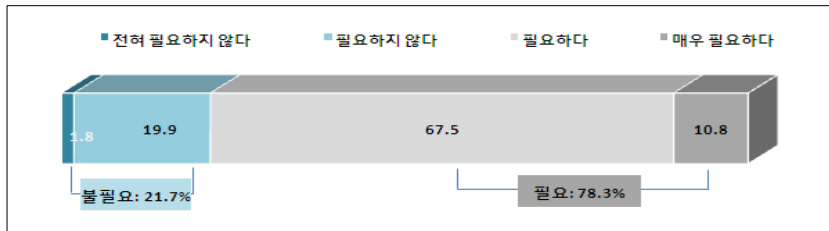
1) 전혀 불필요(1점), 불필요(2점), 보통(3점), 필요(4점), 매우필요(5점)

4)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인증제 도입관련 인식 및 요구수준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도입

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도입의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대해 4이상(78.3%; 매우필요 10.8%, 필요 67.5%)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1.7%(전혀불필요 1.8%, 불필요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공무원)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N=36)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정도(47.2%)가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16.7%),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11.1%), '인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8.3%),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5.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여지도자는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남 58.3%, 여 25.0%), 여자지도자는 인증기준을 신뢰 할 수 없어서(남 4.2%, 여 25.0%), 인증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남 12.5%, 여 0.0%)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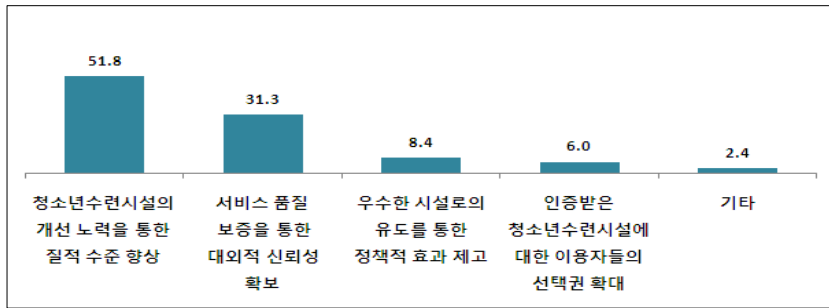
표 IV-3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불필요 이유

(단위:%, N=36)

구 분	인증효과 신뢰못함	현재운영족 만	인증기준 신뢰못함	인증이후 관리염려	준비시간 소 요	기타	전체	χ^2 /유의도
전체	47.2	16.7	11.1	8.3	5.6	11.1	100.0	-
성별	남자	58.3	16.7	4.2	12.5	4.2	100.0	9.882
	여자	25.0	16.7	25.0	0.0	8.3	100.0	0.079

(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체제

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주된 목적



【그림 IV-3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의 주된 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의 주된 목적에 대해 과반수이상(51.8%)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품질 보증을 통한 대외적 신뢰성 확보(31.3%),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유도를 통한 정책적 효과 제고(8.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수요자)들의 선택권 확대(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

표 IV-3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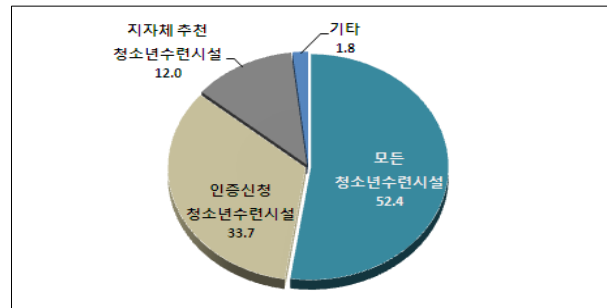
(단위:%, N=166)

구분	정부	정부산하기관	민간기관	기타	전체	χ^2 /유의도	
전체	42.2	34.3	21.7	1.8	100.0	-	
현직장 근무 기간	2년 미만	27.5	32.5	37.5	2.5	100.0	33.765 0.001
	2~5년 미만	23.8	66.7	4.8	4.8	100.0	
	5~10년 미만	78.9	10.5	10.5	0.0	100.0	
	10~20년 미만	39.1	41.3	19.6	0.0	100.0	
	20년 이상	52.5	22.5	22.5	2.5	100.0	
인증제 도입	필요	45.4	36.2	16.9	1.5	100.0	8.558
	불필요	30.6	27.8	38.9	2.8	100.0	0.036

과반수정도(42.2%)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산하기관(34.3%), 민간기관(2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직장 근무년 수별로 살펴보면, 5~10년 미만의 경우 정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근무년수가 2년 미만 응답자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서도 인증주체(필요하다; 정부 45.4%, 필요없다; 민간기관 38.9%)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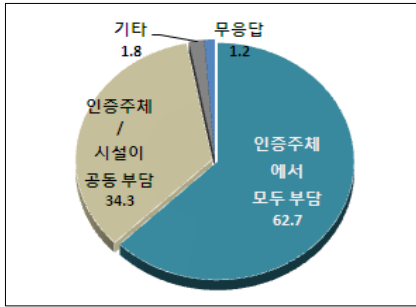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대상에 대해 과반수(52.4%)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증 신청 청소년수련시설(33.7%),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12.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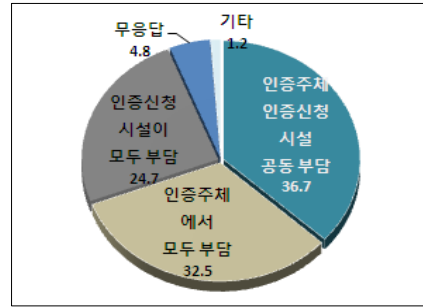
【그림 IV-3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

④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주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 주체에 대해 의무인증 시에는 ‘인증 주체에서 모두 부담’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증 주체와 시설이 공동으로 부담’은 34.3%로 나타난 반면, 신청에 의한 자율인증 시에는 ‘인증 주체와 인증신청 시설이 공동 부담’ 36.7% ‘인증 주체에서 모두 부담’ 32.5%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24.7%는 인증신청시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5】 의무인증 시 자원부담 주제



【그림 IV-36】 자율인증 시 자원부담 주제

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에 대해서는 과반수정도(47.0%)가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28.3%), 영역 별로 부문인증(24.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는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은 40대, ‘영역별 부문인증’은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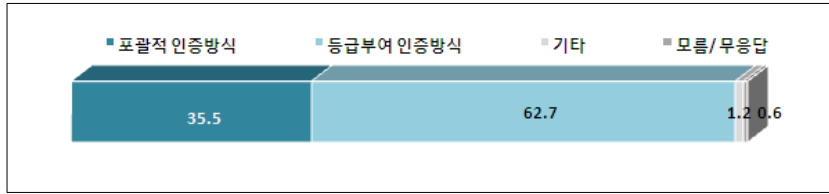
표 IV-3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

(단위:%, N=166)

구분	종합인증	점진적확대	부문인증	기타	전체	χ^2 /유의도	
전체	47.0	28.3	24.1	0.6	100.0	-	
연령	30대 이하	43.5	21.7	34.8	0.0	100.0	13.694 0.033
	40대	56.0	27.4	16.7	0.0	100.0	
	50대 이상	30.6	38.9	27.8	2.8	100.0	

⑥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에 대해 옳정도(62.7%)가 ‘등급부여 인증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괄적 인증방식’은 35.5%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3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

⑦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57.2%)이 ‘3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년(24.7%), 4년(12.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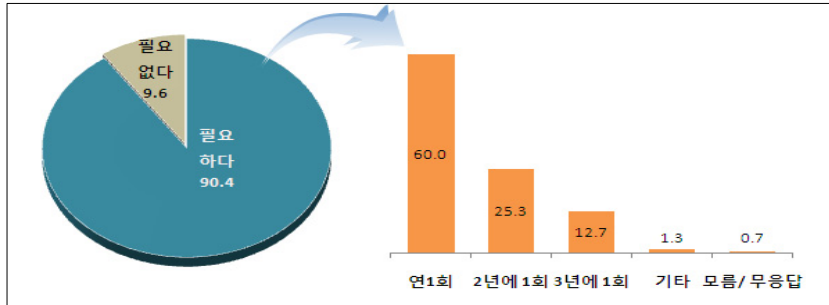
표 IV-3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

(단위:%, N=166)

구 분		2년	3년	4년	기타	전체	x 2/유의도
전체		24.7	57.2	12.0	6.0	100.0	-
성별	남자	25.5	55.3	12.8	6.4	100.0	0.338
	여자	23.6	59.7	11.1	5.6	100.0	0.953
연령	30대 이하	30.4	52.2	15.2	2.2	100.0	7.637
	40대	19.0	64.3	8.3	8.3	100.0	0.266
	50대 이상	30.6	47.2	16.7	5.6	100.0	
청소년 수련 시설 인증 대상 수	6개월 미만	28.0	52.0	20.0	0.0	100.0	11.628 0.476
	6개월~1년 미만	29.0	53.2	9.7	8.1	100.0	
	1~1년6개월미만	15.8	78.9	5.3	0.0	100.0	
	1년6개월~2년미만	16.7	66.7	5.6	11.1	100.0	
	2년 이상	23.8	52.4	16.7	7.1	100.0	

⑧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모니터링 필요성 및 모니터링 주기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9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150)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주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0%가 ‘연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년에 1회(25.3%), 3년에 1회(12.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8】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비용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비용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32.5%)와 21~30만원 이하(30.7%)가 거의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1~40만원 이하가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21~30만원 이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20만원 이하, 50대 이상은 31~40만원 이하 응답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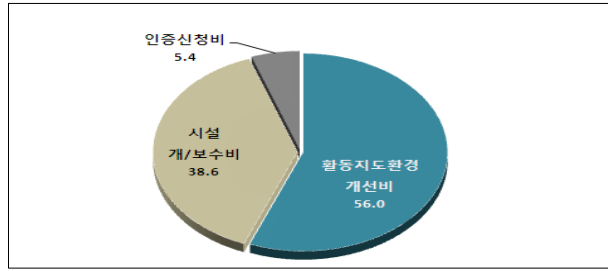
표 IV-39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 비용

(단위:%, N=166)

구분	20만원이하	21~30만원이하	31~40만원이하	41만원이상	전체	χ^2 /유의도	
전체	32.5	30.7	18.7	18.1	100.0	-	
연령	30대 이하	30.4	43.5	10.9	15.2	100.0	10.885 0.092
	40대	36.9	27.4	16.7	19.0	100.0	
	50대 이상	25.0	22.2	33.3	19.4	100.0	

⑩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인증 준비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56.0%)이 '활동지도환경(프로그램, 기자재 등) 개선비'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 개보수비(38.6%), 인증 신청비(5.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9】 인증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⑩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중요도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4.19)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인증기준(지표)설정 및 적용(4.16), 인증 후의 사후관리 체제/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11),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3.98,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3.9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청소년관련업무담당공무원)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	166	3.98	0.687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	166	4.19	0.687
적절한 인증기준설정 및 적용	166	4.16	0.663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	166	4.11	0.730
인증후의 사후관리체제	166	4.11	0.655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	166	3.90	0.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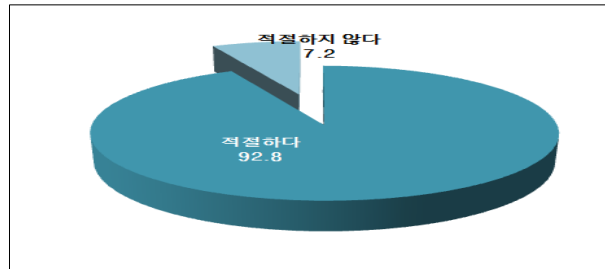
1):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 중요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중요함(4점), 매우 중요함(5점)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 및 기준

① 인증절차(안)의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안)을 [인증신청-자체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현

장인증심사(인증심사원)-인증심의(인증위원회)-인증서 발급-사후관리]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다수 (92.8%)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0】 인증 절차(안)에 대한 적절성

② 인증기준(안) :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각 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공통기준(3.78)보다 개별기준(3.92)에 대한 적절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적절성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공통기준: 모든 시설 공통적용 기준	166	3.78	0.717
개별기준: 수련시설특성별 적용기준	166	3.92	0.713

1): 전혀 적절하지 않음(1점), 적절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적절함(4점), 매우 적절함(5점)

③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안)에 대한 적절성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대체적으로 평균이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시설운영 및 관리'영역이 3.87로 가장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청소년)관리(3.70), 재정·사무관리(3.69), 인적자원관리(3.38) 순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시설 운영 및 관리	166	3.87	0.647
인 적 자 원 관 리	166	3.38	0.705
이용자(청소년)관리	166	3.70	0.742
재정·사무 관리	166	3.69	0.742

1): 전혀 적절하지 않음(1점), 적절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적절함(4점), 매우 적절함(5점)

④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안)에 대한 적절성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프로그램 계획/관리(3.93)영역이 지역사회 관계(연계)영역(3.73)보다 적절성이 조금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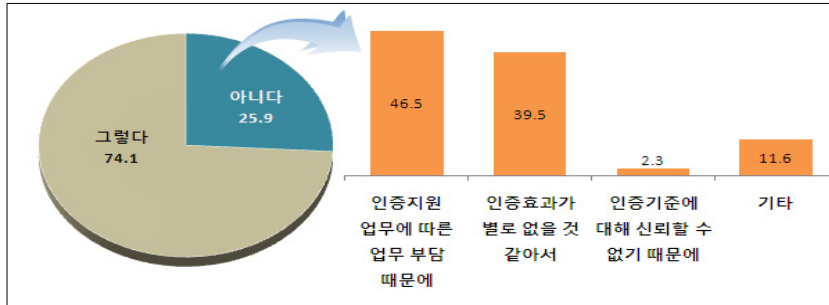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프로그램 계획·관리	166	3.93	0.638
지역사회관계(연계)	166	3.73	0.708

1): 전혀 적절하지 않음(1점), 적절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적절함(4점), 매우 적절함(5점)

(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 여부 및 도입 효과

① 인증신청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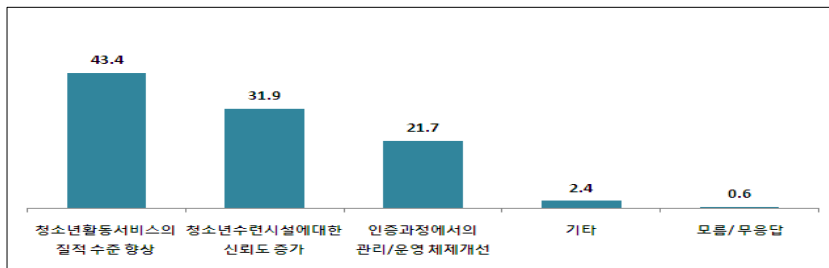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4 정도(74.1%)는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인증신청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25.9%) 이유로는 '인증지원업무에 따른 업무 부담 때문에'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39.5%), 인증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1】 인증 신청 희망 여부 및 비신청 이유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가장 큰 효과로는 과반수정도(43.4%)가 ‘청소년활동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31.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21.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2】 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사후관리체제

① 인증결과 활용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수정도(49.4%)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2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2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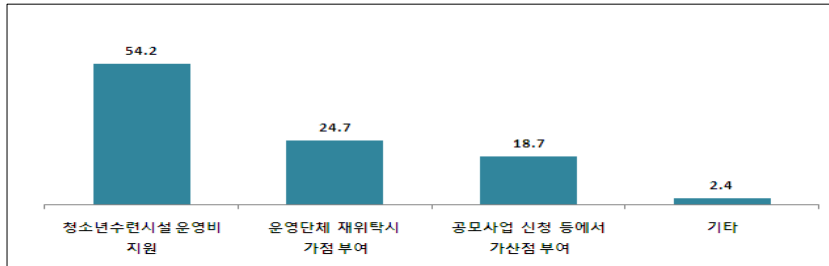
표 IV-44 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

(단위:%, N=166)

구 분		이용자의 정보자료	재위탁 평가자료	재정지원 근거자료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49.4	28.3	20.5	1.2	0.6	100.0	-
성별	남자	50.0	27.7	20.2	1.1	1.1	100.0	0.858
	여자	48.6	29.2	20.8	1.4	0.0	100.0	0.931

②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과반수이상(54.2%)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점 부여(24.7%),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3】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③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자유응답 분석 결과 합리적인 인증기준 마련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 예산확보 및 재정 지원 문제, 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포함하는 인식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1-3.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이용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시설이용현황 및 만족도, 학교활동 만족수준 및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수준,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인식과 요구수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Ⅳ-45〉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18명으로 각각 전체의 5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은 고등학교 53.5%(340명)가 중학교 46.5%(296명)에 비해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청소년이 58.5%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청소년(41.5%)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14.9%(95명), 인천/경기 22.2%(141명), 대전/충청 10.5%(67명), 광주/전라 17.1%(109명), 대구/경북 5.5%(35명), 부산/울산/경남 13.2%(84명), 강원/제주 16.5%(105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조사대상자(시설이용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구분	계	
	사례수	%
전체	636	100.0
이용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264 41.5
	청소년문화의집	372 58.5
성별	남자	318 50.0
	여자	318 50.0
학교	중학교	296 46.5
	고등학교	340 53.5
지역	서울	95 14.9
	인천/경기	141 22.2
	대전/충청	67 10.5
	광주/전라	109 17.1
	대구/경북	35 5.5
	부산/울산/경남	84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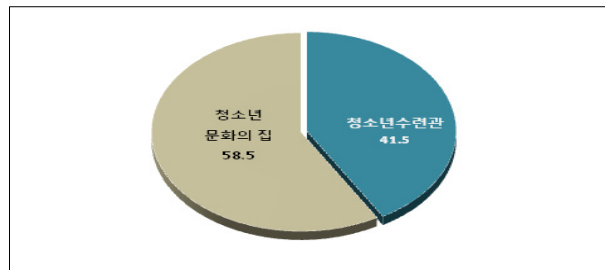
구분		계	
		사례수	%
성적	강원/제주	105	16.5
	상위권	92	14.5
	중위권	385	60.5
	하위권	159	25.0
경제수준	못사는편	113	17.8
	보통	474	74.5
	잘사는편	49	7.7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현황 및 만족수준

(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현황

① 이용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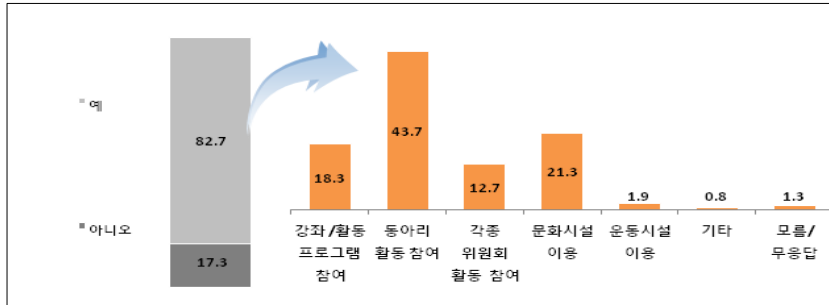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는 청소년수련관이 41.5%, 청소년 문화의 집이 58.5%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청소년이 청소년수련관 이용청소년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4】 이용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② 청소년수련시설 정기이용 여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82.7%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반수정도(43.7%)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이나 도서실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21.3%), 강좌 및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18.3%), 각종 위원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5】 청소년수련시설 정기 이용 여부 및 이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유 중 ‘강좌 및 활동프로그램 참여’는 중학생과 청소년수련관 이용청소년이, ‘동아리 활동 참여’는 경기/인천지역과 고등학생이, ‘각종 위원회활동 참여’는 강원/제주지역 및 고등학생이, ‘인터넷/도서실 등 문화시설 이용’은 대전/충청지역 및 중학생이, ‘수영장/체육관 등 운동시설 이용’은 경기/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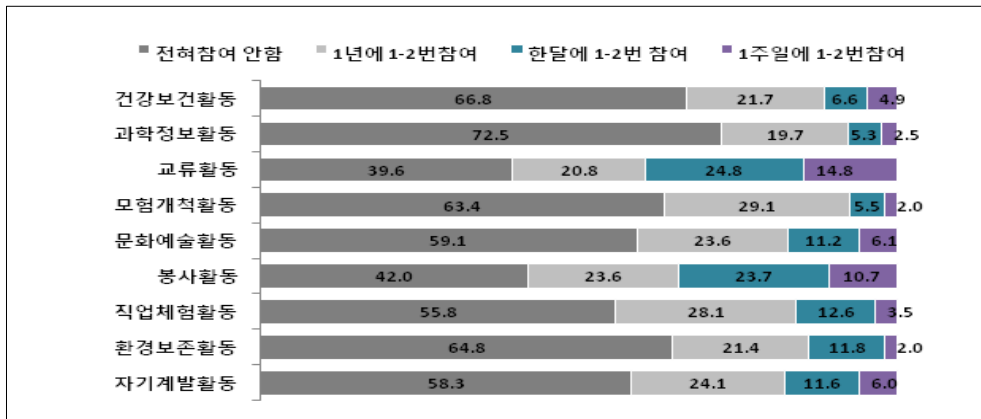
표 IV-46 청소년수련시설 정기 이용 이유

(단위:%, N=526)

구분	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참여	위원회 참여	문화시설 이용	운동시설 이용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18.3	43.7	12.7	21.3	1.9	0.8	1.3	100.0	-
지역	서울	22.9	51.8	6.0	14.5	0.0	3.6	100.0	64.538 0.002
	인천/경기	10.4	57.5	9.4	16.0	4.7	1.9	100.0	
	대전/충청	15.3	27.1	18.6	37.3	0.0	0.0	100.0	
	광주/전라	20.0	37.9	13.7	25.3	2.1	0.0	100.0	
	대구/경북	21.4	53.6	7.1	14.3	3.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9.4	41.8	11.9	23.9	0.0	0.0	100.0	
	강원/제주	21.6	35.2	20.5	19.3	2.3	1.1	100.0	
학교	중학교	32.4	21.8	8.8	33.2	1.3	1.3	100.0	131.467
	고등학교	6.6	61.8	16.0	11.5	2.4	0.3	100.0	0.000
학년	1학년	18.0	36.0	10.0	28.7	4.0	3.3	100.0	27.472 0.007
	2학년	19.3	48.0	15.2	14.8	0.9	1.3	100.0	
	3학년	17.0	45.1	11.8	23.5	1.3	0.7	100.0	
시설 종류	청소년수련관	27.8	45.4	10.1	10.6	3.5	1.3	100.0	50.873
	청소년문화의집	11.0	42.5	14.7	29.4	0.7	0.3	100.0	0.000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활동프로그램 참여수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활동프로그램 참여수준을 살펴보면, 교류활동에의 참여수준(한달에 1~2번 참여 24.8% 일주일에 1~2번 참여 14.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자기계발활동 순으로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건강보건활동프로그램 참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6】 청소년수련시설의 활동프로그램 참여수준

④ 이용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만족수준

이용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만족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지도자(4.21)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 이용 시 서비스 수준(3.95), 프로그램(3.94), 시설의 공간이나 설비(3.86) 순으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의 개보수나 효율적인 이용방안 등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표 IV-47 이용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만족수준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시설의 공간이나 설비	636	3.86	0.968
지도자	636	4.21	0.809
프로그램	636	3.94	0.837
이용시 서비스 수준	636	3.95	0.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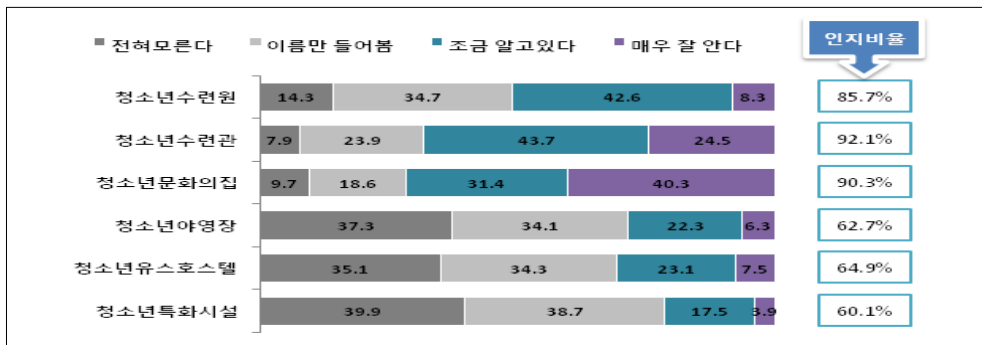
1):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

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한 자유응답 결과는 시설의 공간이나 설비, 지도자, 프로그램, 서비스 수준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설의 공간이나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활동 공간 확충, 노후시설 및 장비 점검, 환경미화 개선, 부족한 시설 보충 등이었으며, 지도자관련 요구사항으로는 다양한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확보, 프로그램 관련사항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강화, 시설 이용 시 서비스 수준 관련사항으로는 청소년들의 수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청소년수련시설 인지수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92.1%)과 청소년문화의집(90.3%)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반면,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의 경우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유스호스텔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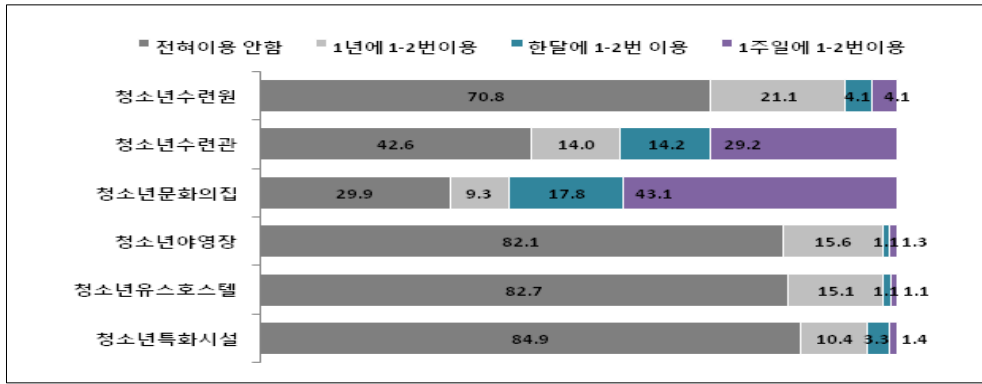


【그림 IV-47】 청소년수련시설 인지수준

⑦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준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빈도가 다른 시설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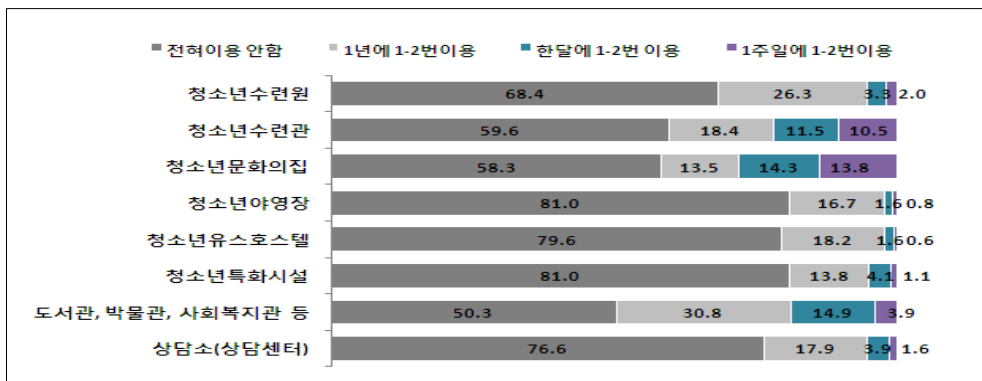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의 경우 전혀 이용 안한다는 응답이 80%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8】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준

⑧ 학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특별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실시 할 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 빈도도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전혀 이용 안한다는 응답이 8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9】 학교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준

⑨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과반수이상(55.0%)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 부족(18.4%),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정보 부족(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문제점

(단위:%, N=636)

구 분	프로그램 참가비용	참여시간 부 족	이용정보 부 족	프로그램 부 족	기타	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3.1	55.0	11.3	18.4	3.5	8.6	100.0	-
지역	서울	5.3	42.1	12.6	22.1	5.3	12.6	51.329 0.009
	인천/경기	2.1	63.1	8.5	13.5	6.4	6.4	
	대전/충청	1.5	47.8	11.9	25.4	0.0	13.4	
	광주/전라	4.6	54.1	17.4	13.8	5.5	4.6	
	대구/경북	2.9	65.7	5.7	20.0	0.0	5.7	
	부산/울산/경남	0.0	64.3	6.0	15.5	2.4	11.9	
학교	강원/제주	4.8	50.5	13.3	23.8	0.0	7.6	10.278 0.068
	중학교	2.7	53.0	9.1	22.6	2.7	9.8	
	고등학교	3.5	56.8	13.2	14.7	4.1	7.6	

3) 학교활동 만족수준 및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수준

(1) 학교생활 만족 및 여가활동 수준

① 학교생활 만족수준

표 IV-49 학교생활 만족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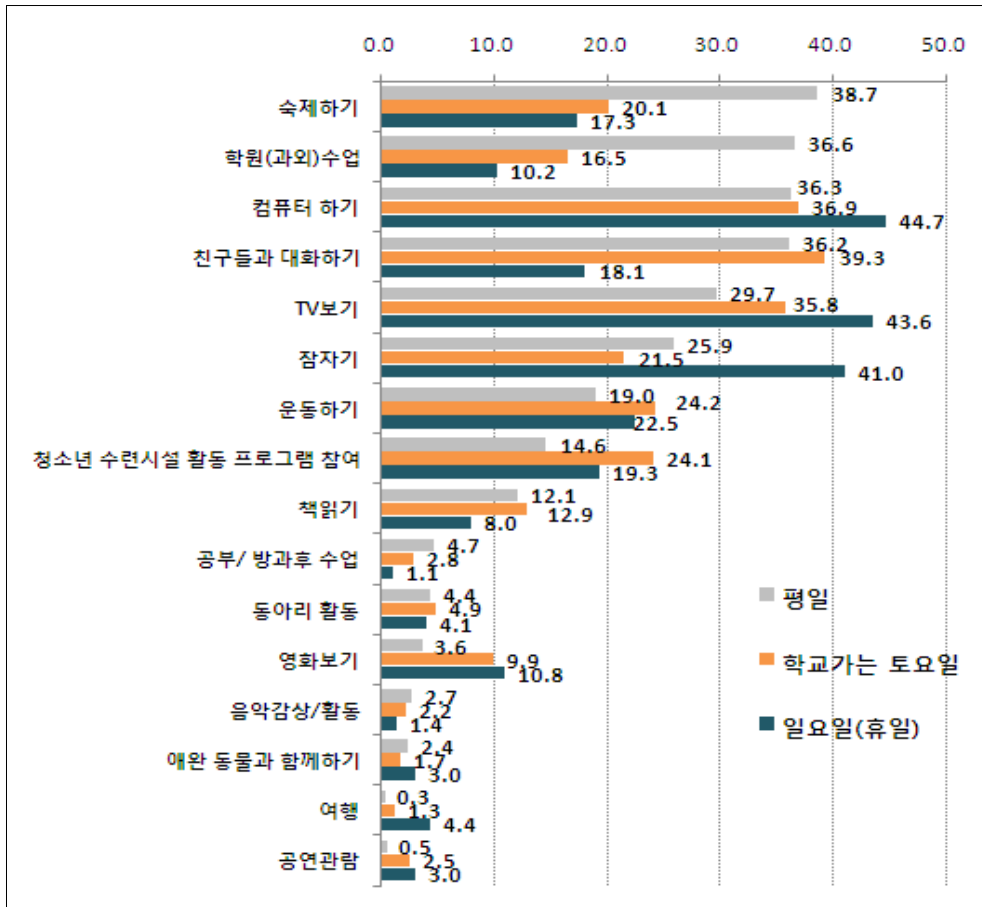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평균 ¹⁾	표준편차
학교시설	636	2.90	1.081
교사	636	2.91	1.088
교과교육	636	2.97	0.989
체험활동	636	2.89	1.171

1):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

학교생활 만족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교과교육(2.97)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2.91), 학교시설(2.90), 체험활동(2.89) 순으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험활동 활성화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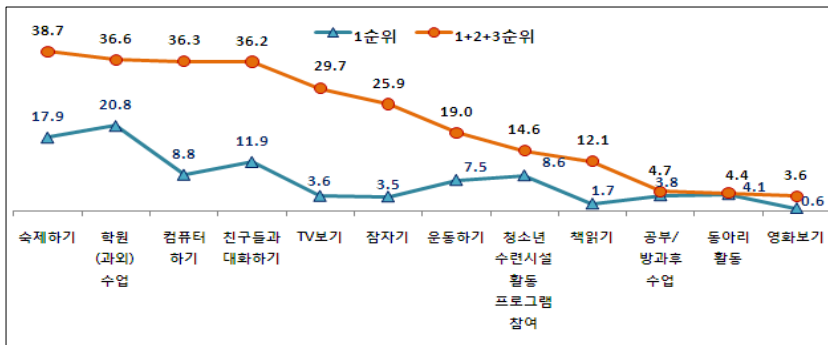
② 여가활동 참여수준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평일에는 숙제하기, 학원(과외)수업, 컴퓨터하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TV 보기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가는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대화하기, 컴퓨터하기, TV 보기 순으로, 일요일(휴일)에는, 컴퓨터 하기, TV 보기, 잠자기, 운동하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요일에 상관없이 컴퓨터하기, TV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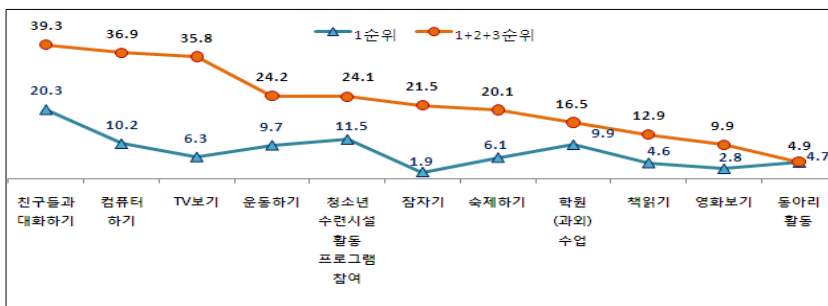
【그림 IV-50】 여가활동 참여수준

평일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평일에 학교 수업 후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활동(1순위), 두 번째 많이 하는 활동(2순위), 세 번째 많이 하는 활동(3순위)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해 살펴본 결과, 숙제하기(38.7%), 학원(과외)수업(36.6%)과 같은 학과 공부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하기(36.3%), 친구들과 대화하기(36.2%), TV보기(29.7%), 잠자기(2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하기, TV 보기, 잠자기, 책읽기 등은 1순위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아니나, 1+2+3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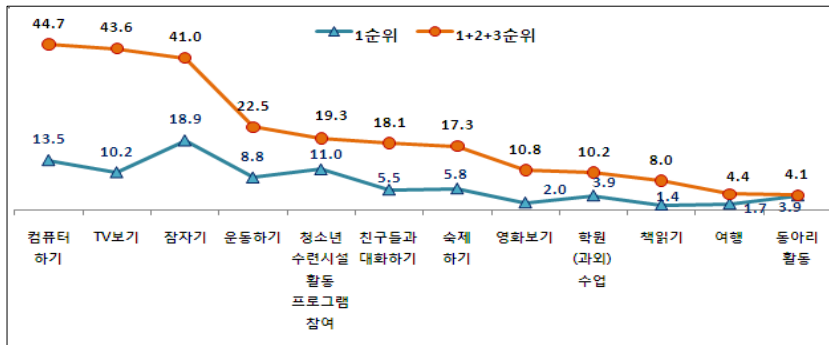
【그림 IV-51】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평일

학교 가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학교 가는 토요일에 학교 수업 후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활동(1순위), 두 번째 많이 하는 활동(2순위), 세 번째 많이 하는 활동(3순위)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해 살펴본 결과, 친구들과 대화하기(39.3%), 컴퓨터 하기(36.9%), TV 보기(35.8%), 운동하기(24.2%),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참여(2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52】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학교 가는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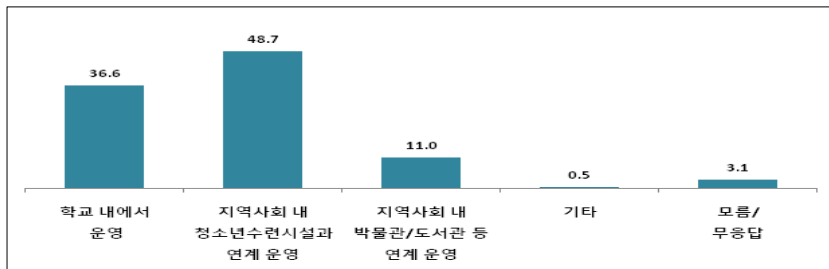
일요일(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일요일 또는 휴일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활동(1순위), 두 번째 많이 하는 활동(2순위), 세 번째 많이 하는 활동(3순위)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해 살펴본 결과, 컴퓨터 하기(44.7%), TV 보기(43.6%), 잠자기(41.0%)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동하기(22.5%),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참여(19.3%), 친구들과 대화하기(18.1%), 숙제하기(17.3%), 영화보기(10.8%), 학원(과외)수업(10.2%), 책읽기(8.0%), 여행(4.4%), 동아리 활동(4.1%), 숙제하기(17.3%) 순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3】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일요일(휴일)

(2) 학교체험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수준

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법



【그림 IV-5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법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해 과반수정도(48.7%)가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내에서 운영(36.6%), 지역사회 내 박물관도서관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 운영(11.0%) 순으로 나타나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운영 희망 이유

표 IV-50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운영 희망 이유

(단위:%, N=310)

구분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적합한 시설사용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60.0	13.5	22.3	1.9	2.3	100.0	-	
지역	서울	43.5	26.1	23.9	2.2	4.3	100.0	28.646 0.234
	인천/경기	55.0	18.3	23.3	1.7	1.7	100.0	
	대전/충청	67.6	14.7	14.7	0.0	2.9	100.0	
	광주/전라	62.5	8.9	25.0	0.0	3.6	100.0	
	대구/경북	64.7	17.6	11.8	0.0	5.9	100.0	
	부산/울산/경남	68.6	5.9	19.6	5.9	0.0	100.0	
성별	강원/제주	63.0	6.5	28.3	2.2	0.0	100.0	6.477 0.166
	남자	54.2	15.7	24.8	3.3	2.0	100.0	
학교	여자	65.6	11.5	19.7	0.6	2.5	100.0	5.769 0.217
	중학교	59.8	10.6	26.5	2.3	0.8	100.0	
	고등학교	60.1	15.7	19.1	1.7	3.4	100.0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등과 연계하고 싶은 이유로 60.0%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체험활동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22.3%),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지도자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비율은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운영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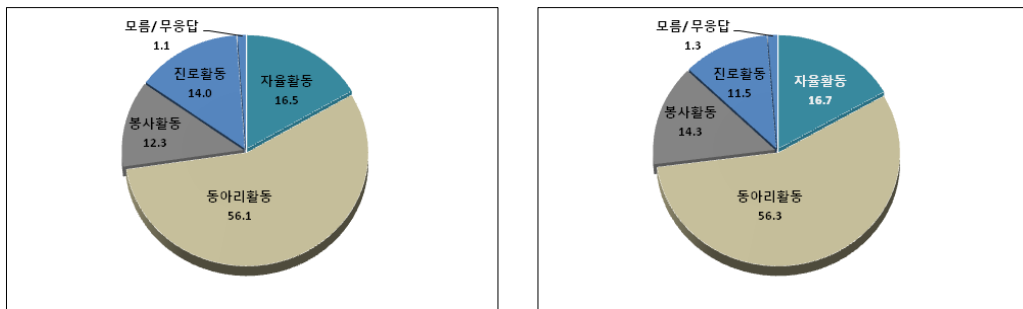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과반수이상(57.2%)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22.3%), 시설의 안전성(13.1%)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은 여학생과 중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응답은 고등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1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운영 시 고려사항

(단위:%, N=636)

구분	시설의 안전성	전문적 지도자	다양한 프로그램	없음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13.1	22.3	57.2	0.2	0.5	6.8	100.0	-
성별	남자	14.8	22.6	51.9	0.3	0.3	100.0	16.251
	여자	11.3	22.0	62.6	0.0	0.6	100.0	0.006
학교	중학교	14.5	15.5	63.2	0.0	0.3	100.0	16.941
	고등학교	11.8	28.2	52.1	0.3	0.6	100.0	0.005

④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운영하기 적합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그림 IV-55】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영역 및 지역사회시설 연계 희망 영역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56.1%)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동아리활동’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율활동(16.5%), 진로활동(14.0%), 봉사활동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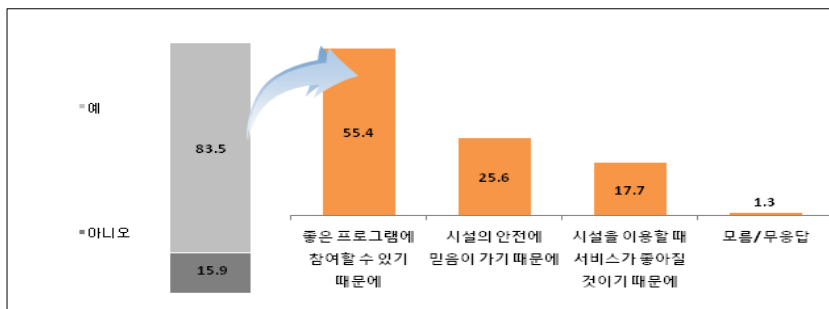
순이었다. 동아리활동이라는 응답은 고등학생,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활동은 중학생, 봉사활동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실시하기 좋은 활동영역 역시 과반수이상(56.3%)이 동아리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율활동 (16.7%), 봉사활동(14.3%), 진로활동(11.5%) 순이었다.

4)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인증제 도입관련 의식 및 요구수준

(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인증시설 참고 및 이유

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인증시설 참고 여부

대다수(83.5%)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품질에 대해 보증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시설 이용 시 참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V-56】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참고여부 및 이유

②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인증시설 참고 이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로는 과반수정도(55.4%)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의 안전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25.6%),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17.7%) 순으로 나타났다.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경제수준이 상위권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을 이용할 때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고등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참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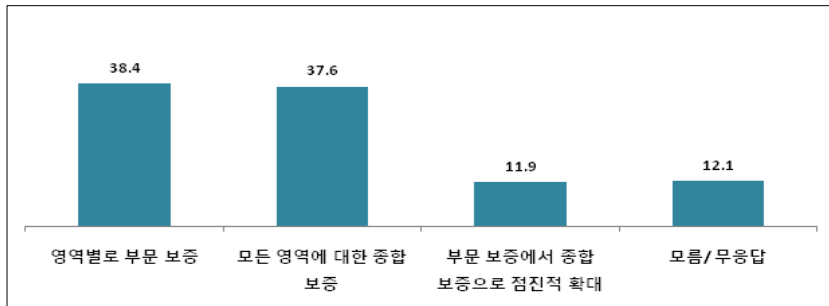
(단위:%, N=531)

구 분		좋은프로그램참여	시설안전 신뢰	서비스향상	모름/무응답	전체	x 2/유의도
전체		55.4	25.6	17.7	1.3	100.0	-
학교	중학교	59.6	26.3	12.5	1.7	100.0	8.575
	고등학교	51.9	25.1	22.0	1.0	100.0	0.036
경제 수준	못사는편	53.7	30.5	14.7	1.1	100.0	15.326 0.018
	보통	53.0	26.6	18.8	1.5	100.0	
	잘사는편	81.0	4.8	14.3	0.0	100.0	

(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체제 및 효과

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부문인증’(38.4%)과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7.6%)이 비슷한 비율로,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는 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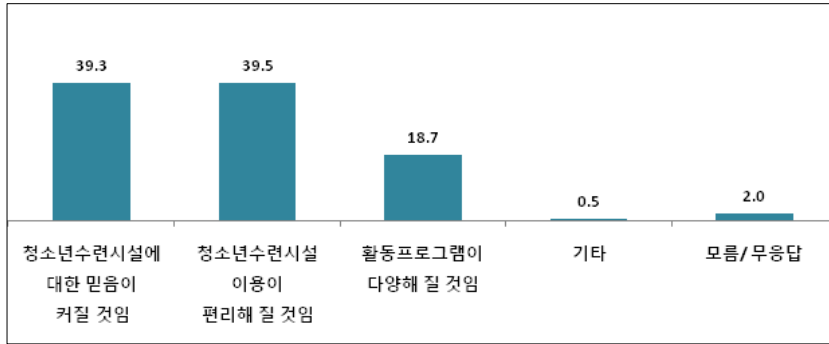


【그림 IV-57】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영역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가장 큰 효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편리해 질 것’(39.5%)이라는 응답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39.3%)이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활동프로그램이 다양해 질 것’이라는 응답은 18.7%로 나타났다. ‘시설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는 응답은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5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표 IV-53 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단위:%, N=636)

구분		시설의 신뢰도 증가	시설이 융합 이용	프로그램 다양화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χ^2 /유의도
전체		39.3	39.5	18.7	0.5	2.0	100.0	-
성별	남자	43.1	34.0	19.2	0.3	3.5	100.0	13.824
	여자	35.5	45.0	18.2	0.6	0.6	100.0	0.008
시설종류	청소년수련관	46.2	37.5	15.9	0.0	0.4	100.0	16.061
	청소년문화의집	34.4	40.9	20.7	0.8	3.2	100.0	0.003

1-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관련 공통문항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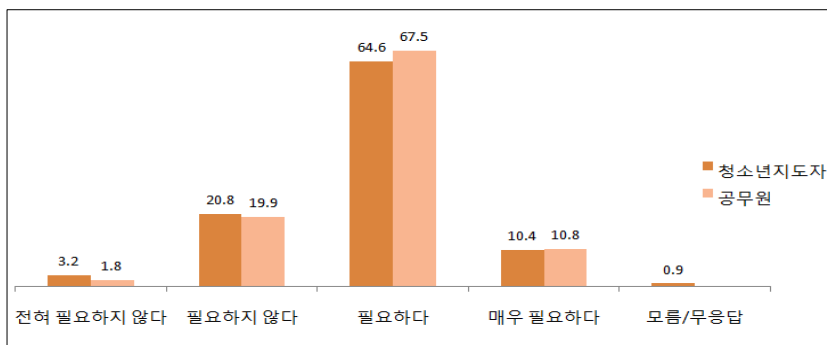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청소년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사항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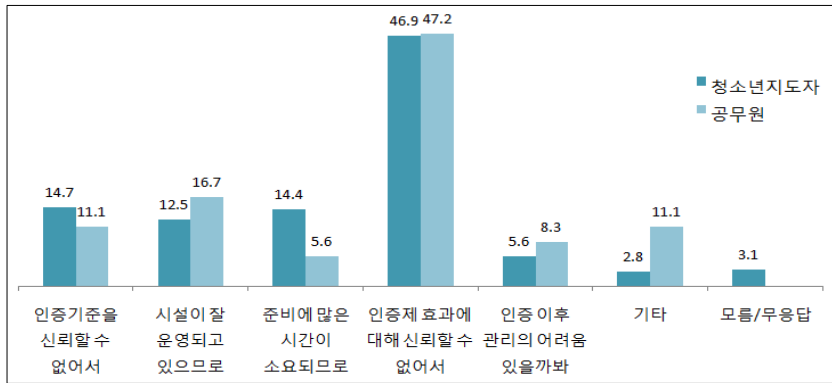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8.3%; 매우필요 10.8%, 필요 67.5%)이 청소년지도자(75.0%; 매우필요 10.4%, 필요 64.6%)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9】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비교

②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불필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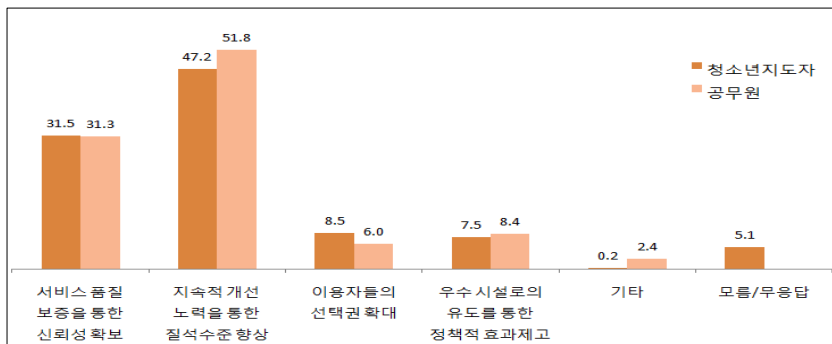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지도자는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46.9%),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14.7%),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14.4%),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12.5%), ‘인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5.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47.2%),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16.7%),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11.1%), ‘인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8.3%),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5.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60】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불필요 이유

③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공무원 51.8%, 청소년지도자 47.2%)과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유도를 통한 정책적 효과 제고’(공무원 8.4%, 청소년지도자 7.5%)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청소년지도자에 비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품질 보증을 통한 대외적 신뢰성 확보’(청소년지도자 31.5%, 공무원 31.3%)와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수요자)들의 선택권 확대’(청소년지도자 8.5%, 공무원 6.0%)는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비해 청소년지도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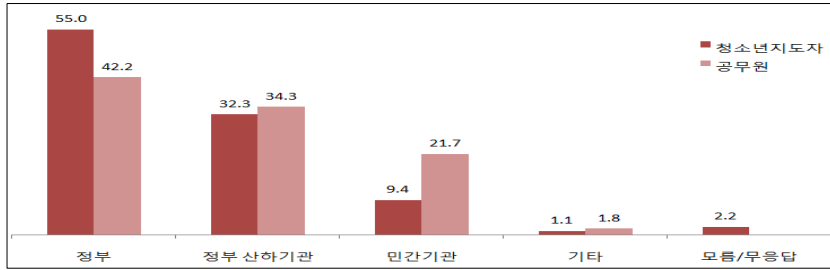
【그림 IV-61】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의 주된 목적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체제 및 인증절차에 대한 의견

(1) 인증체제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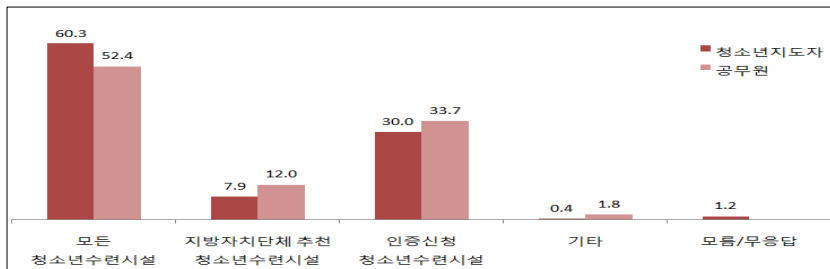
① 인증주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는 ‘정부’(청소년지도자:55.0% 공무원:42.2%)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더 높고, ‘정부산하기관’(청소년지도자:32.3% 공무원:34.3%)과 ‘민간기관’(청소년지도자:9.4% 공무원:21.7%)이 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2】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 주체

② 인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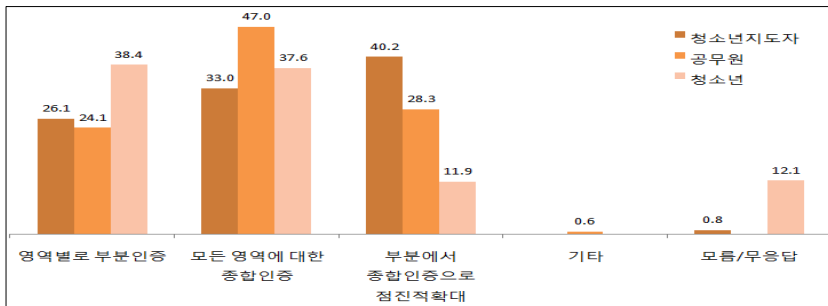


【그림 IV-6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60.3%, 공무원 52.4%)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면,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30.0%, 공무원 33.7%)과 ‘지방자치단체추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7.9%, 공무원12.0%)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인증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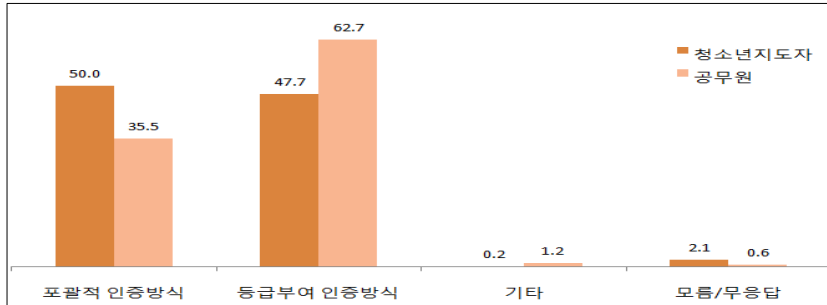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부분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40.2%),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3.0%), ‘영역별 부분인증’(2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47.0%), ‘부분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28.3%), ‘영역별 부분인증’(24.1%) 순으로, 청소년은 ‘영역별 부분인증’(38.4%),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7.6%), ‘부분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11.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4】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범위

④ 인증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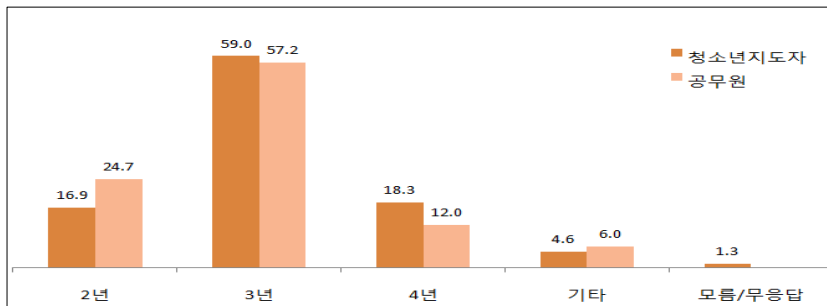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포괄적 인증방식’(50.0%), ‘등급부여 인증방식’(47.7%)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등급부여 인증방식’(62.7%), ‘포괄적 인증방식’(35.5%)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5】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식

⑤ 인증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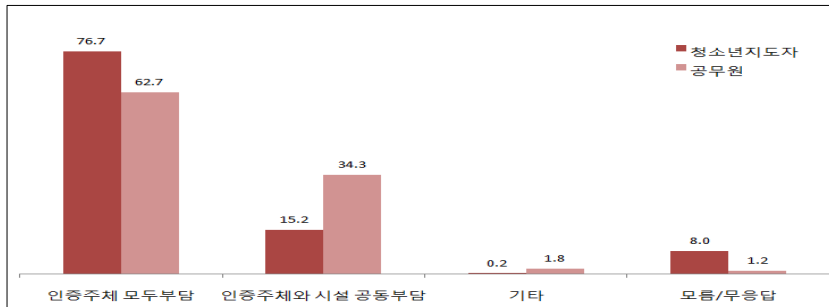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3년’(59.0%), ‘4년’(18.3%), ‘2년’(16.9%),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3년’(57.2%), ‘2년’(24.7%), ‘4년’(12.0%)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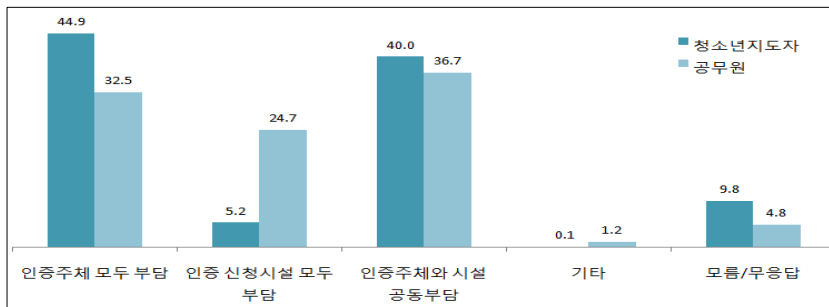
⑥ 인증재원 주체

임무인증 시 청소년수련시설의무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은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76.7%, 공무원 62.7%)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 15.2%, 공무원 34.3%)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7】 의무 인증 시 재원부담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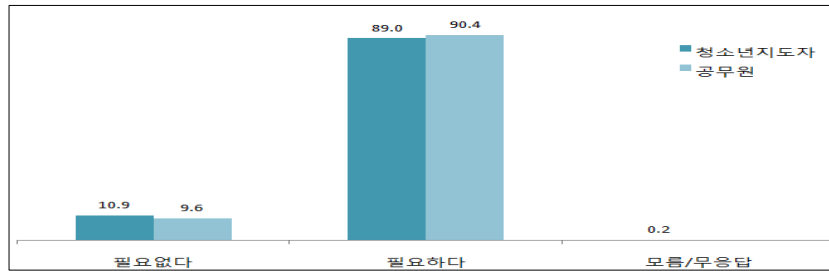
자율인증 시 자율신청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은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44.9%, 공무원 32.5%),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 40.0%, 공무원 36.7%)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증신청시설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5.2%, 공무원 24.7%)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8】 신청에 의한 자율인증 시 재원부담 주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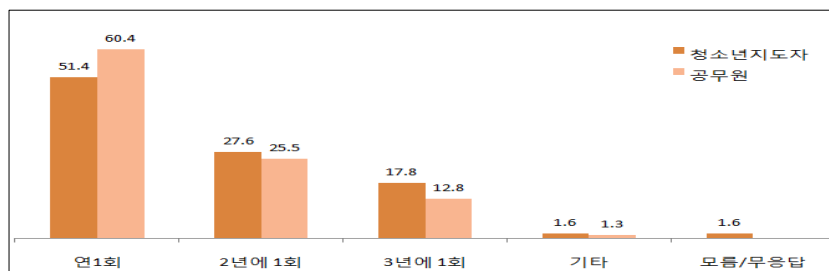
⑦ 모니터링 필요성 및 주기

모니터링 필요성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89.0%)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0.4%)은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9】 모니터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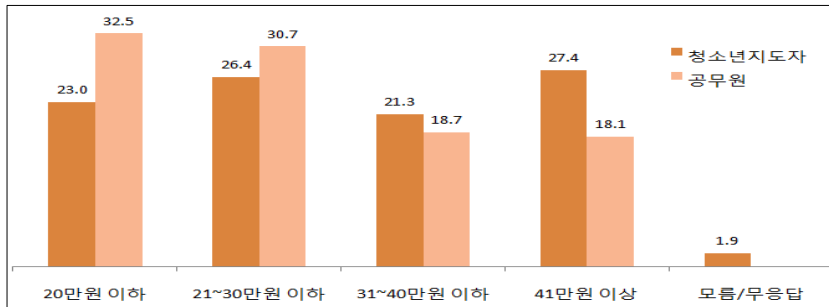
모니터링 주기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는 ‘연1회’(공무원 60.4%, 청소년지도자 51.4%)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년에 1회’(청소년지도자 27.6%, 공무원 25.5%), ‘3년에 1회’(청소년지도자 17.8%, 공무원 12.8%)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0】 적당한 모니터링 주기

⑧ 컨설팅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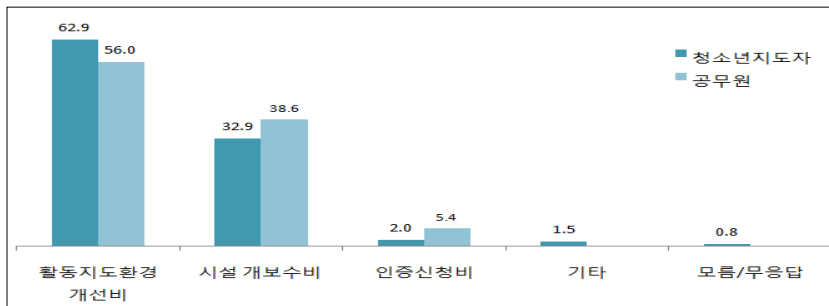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비용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41만원 이상(27.4%), 21~30만원(26.4%), 20만원 이하(23.0%), 31~40만원(21.3%)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20만원 이하(32.5%), 21~30만원(30.7%), 31~40만원(18.7%), 41만원 이상(18.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1】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 비용

⑨ 인증준비를 위한 정부지원부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활동지도환경개선비’(청소년지도자 62.9%, 공무원 56.0%)라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설개보수비’(청소년지도자 32.9%, 공무원 38.6%), ‘인증신청비’(청소년지도자 2.0%, 공무원 5.4%)라는 응답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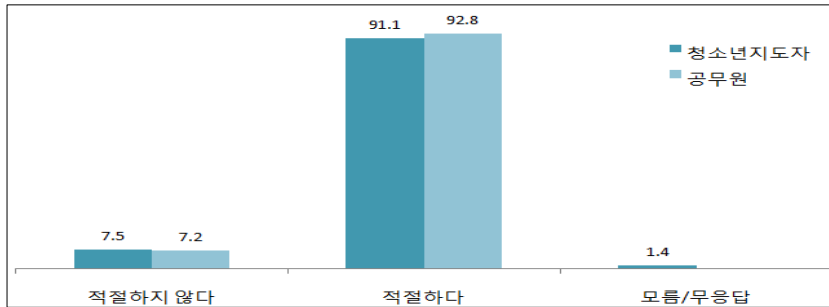
【그림 IV-72】 인증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2) 인증절차 및 기준 관련 의견

① 인증절차(안)에 대한 적절성

청소년지도자(91.1%)보다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2.8%)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자체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현장인증심사→인증심의→인증서발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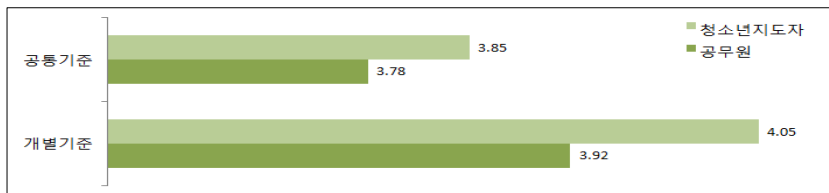
후관리 단계로 이루어진 인증절차(안)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3】 인증 절차(안)에 대한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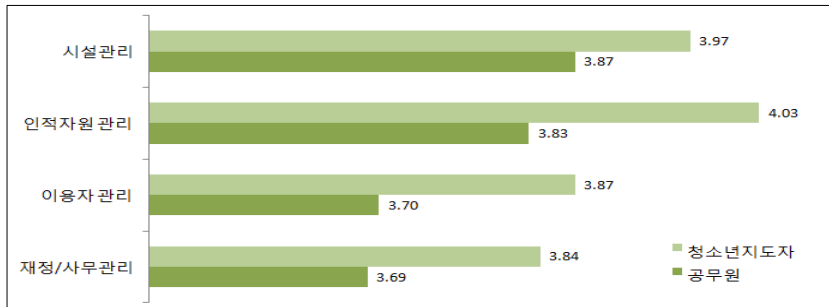
② 인증기준

공통·개별기준 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공통기준’(청소년지도자 3.85, 공무원 3.78)과 ‘개별기준’(청소년지도자 4.05, 공무원 3.92)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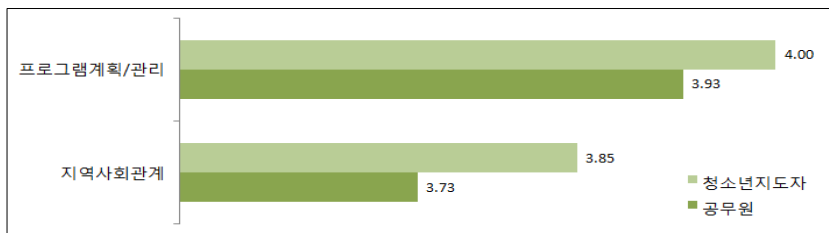
【그림 IV-74】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구분에 대한 적절성

공통기준의 하위영역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인적자원관리’(청소년지도자 4.03, 공무원 3.83), ‘시설운영 및 관리’(청소년지도자 3.97, 공무원 3.87), ‘이용자관리’(청소년지도자 3.87, 공무원 3.70), ‘재정·사무관리’(청소년지도자 3.84, 공무원 3.69)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5】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개별기준의 하위영역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프로그램 계획·관리’(청소년지도자 4.00, 공무원 3.93), ‘지역사회관계’(청소년지도자 3.85, 공무원 3.73)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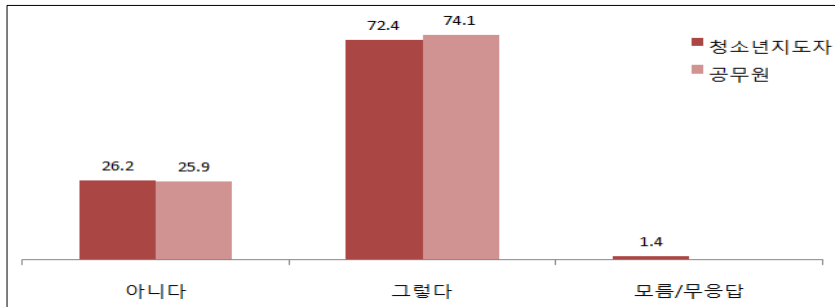
【그림 IV-76】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 여부 및 도입 효과

(1) 인증신청 희망 여부 및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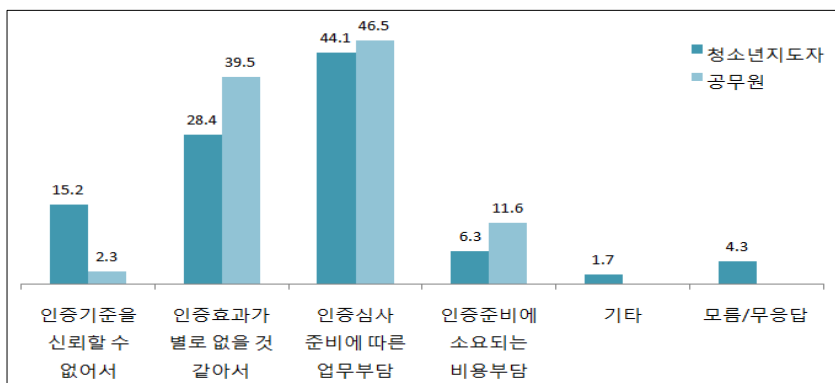
① 인증신청 희망 여부

인증신청 희망 청소년지도자(72.4%)보다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4.1%)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증 신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7】 인증 신청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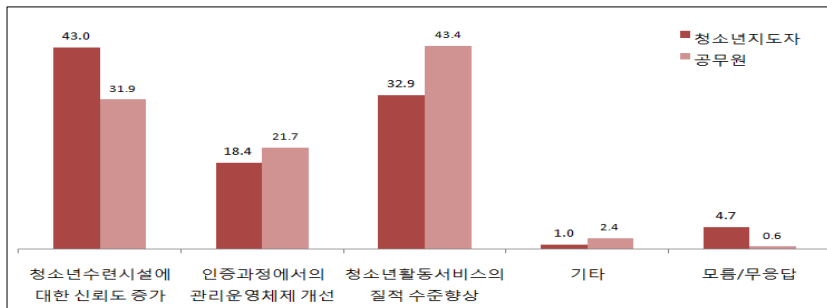
인증신청 희망하지 않는 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근무 또는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증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26.2%) 청소년지도자들의 이유로는 ‘인증심사 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28.4%), 인증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1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증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25.9%)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이유로는 ‘인증지원업무에 따른 업무 부담 때문’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39.5%), 인증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78】 인증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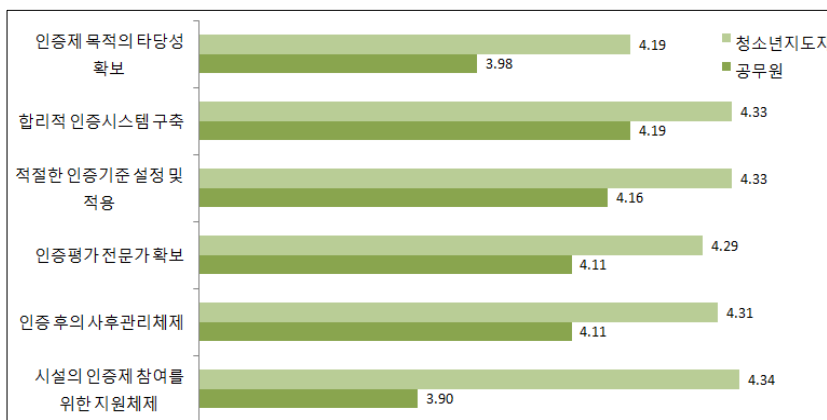
② 인증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43.0%),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32.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 체제 개선’(18.4%)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43.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31.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21.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9】 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③ 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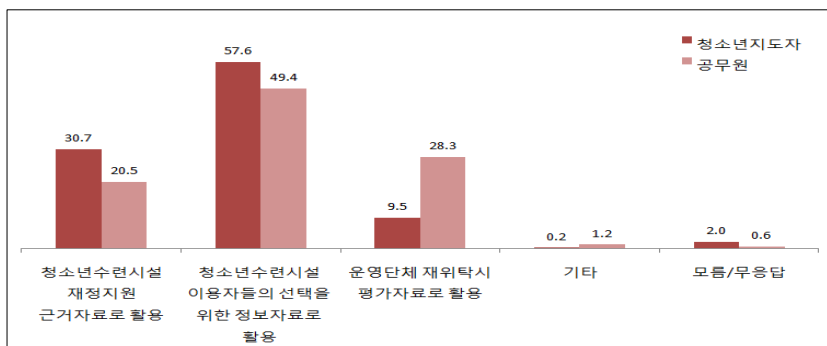
【그림 IV-80】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5점 척도)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4.34),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33)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4.31),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2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4.19), ‘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16)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11),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3.98)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사후관리체제

① 인증결과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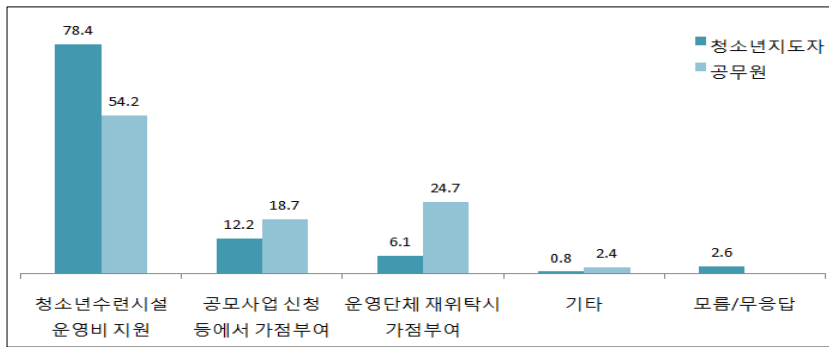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57.6%),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30.7%), ‘운영단체 재위탁시 평가자료로 활용’(9.5%)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49.4%), ‘운영단체 재위탁시 평가자료로 활용’(2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20.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1】 인증제 도입 시 인증결과 활용방안

②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78.4%),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2.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54.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24.7%),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2】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1-5. 소결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업무관련 공무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청소년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사항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의견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8.3%; 매우:10.8% 필요: 67.5%)이 청소년지도자(75.0%; 매우:10.4%, 필요: 64.6%)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청소년지도자:47.2% 공무원:51.8%) 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품질 보증을 통한 대외적 신뢰성 확보’(청소년지도자:31.5% 공무원:31.3%),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수요자)들의 선택권 확대’(청소년지도자:8.5% 공무원:6.0%),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유도를 통한 정책적 효과 제고’(청소년지도자:7.5% 공무원:8.4%)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체계에 대한 의견

인증주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는 ‘정부’(청소년지도자:55.0% 공무원:42.2%)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산하기관’(청소년지도자:32.3% 공무원:34.3%), ‘민간기관’(청소년지도자:9.4% 공무원:21.7%)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60.3% 공무원:52.4%),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30.0% 공무원:33.7%), ‘지방자치단체추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7.9% 공무원:12.0%)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영역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영역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40.2%),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3.0%), ‘영역별 부문인증’(2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47.0%),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28.3%), ‘영역별 부문인증’(24.1%) 순으로, 청소년은 ‘영역별 부문인증’(38.4%),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7.6%),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11.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방식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포괄적 인증방식’(50.0%), ‘등급부여 인증방식’(47.7%)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등급부여 인증방식’(62.7%), ‘포괄적 인증

방식'(35.5%)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효기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3년'(59.0%), '4년'(18.3%), '2년'(16.9%),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3년'(57.2%), '2년'(24.7%), '4년'(12.0%)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재원(의무인증 시) 청소년수련시설의무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은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76.7% 공무원:62.7%),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15.2% 공무원:34.3%)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재원(자율인증 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은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44.9% 공무원:32.5%),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40.0% 공무원:36.7%), '인증신청시설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5.2% 공무원:24.7%)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89.0%)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0.4%)은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는 '연1회'(청소년지도자:51.4% 공무원:60.4%), '2년에 1회'(청소년지도자:27.6% 공무원:25.5%), '3년에 1회'(청소년지도자:17.8% 공무원:12.8%)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비용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비용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41만원 이상'(27.4%), '21~30만원'(26.4%), '20만원 이하'(23.0%), '31~40만원'(21.3%)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20만원 이하'(32.5%), '21~30만원'(30.7%), '31~40만원'(18.7%), '41만원 이상'(18.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부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활동지도환경개선비’(청소년지도자:62.9% 공무원:56.0%), ‘시설개·보수비’(청소년지도자:32.9% 공무원:38.6%), ‘인증신청비’(청소년지도자:2.0% 공무원: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기준에 대한 의견

인증절차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91.1%)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2.8%)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자체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현장인증심사→인증심의→인증서발급→사후관리 단계로 이루어진 인증절차(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공통기준’(청소년지도자:3.85 공무원:3.78), ‘개별기준’(청소년지도자:4.05 공무원:3.92) 모두 평균(3.0)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인적자원관리’(청소년지도자:4.03 공무원:3.83), ‘시설운영 및 관리’(청소년지도자:3.97 공무원:3.87), ‘이용자관리’(청소년지도자:3.87 공무원:3.70), ‘재정·사무관리’(청소년지도자:3.84 공무원:3.69) 모두 평균(3.0)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프로그램 계획·관리’(청소년지도자:4.00 공무원:3.93), ‘지역사회관계’(청소년지도자:3.85 공무원:3.73) 모든 영역에서 평균(3.0)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인증신청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72.4%)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4.1%)은 근무 또는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증 신청을 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43.0%),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32.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18.4%)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43.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31.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21.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4.34),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33)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4.31),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2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4.19), '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16)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11),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3.98)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활용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57.6%),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30.7%),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9.5%)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49.4%),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2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20.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시설지원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78.4%),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2.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54.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24.7%),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면접조사 결과

2-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와 주요 수요자들인 청소년, 시·도 및 시·군·구의 수련시설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관련 현장의 현실적 여건, 향후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즉, 설문조사에서는 수련시설인증제의 필요성이나 방향성 등 연구진이 유목화해낸 설문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골라서 대답함으로써 인증제 실시를 앞두고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현장의 실태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면접조사를 통해 인증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분위기 등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인증제 실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주요 조사내용

(1)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로 인증에 대한 인식 및 요구수준, 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요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련활동인증제와 시설 평가 등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지도자 대상 심층면접은 주로 6월에서 8월말까지 실시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중 시설유형 및 지역별로 2~3명을 선정, 총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주로 관장이나 부관장,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수련시설 인증제와 관련하여 향후 실시 여부에 중요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그룹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조사를 위해 선정된 시설은 기존의 수련시설 평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그룹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적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선정하게 되었다. 심층면접은 연구진과 2인의 면접조사요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지도자들의 근무연한은 8개월부터 18년으로 다양했으며, 성별은 여성이 5명, 남성이 10명이었다. 연령대는 3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표 IV-54 심층면접 참가 청소년지도자

지역	시설 유형	이름	성별	나이	근무연한
서울	DS청소년문화의집	안수지	여	58	6년
		강민경	여	31	6년
수도권	D청소년문화의집	박주아	여	39	5년
		신은영	여	36	5년
중소도시	SI청소년문화의집	안선길	남	41	8개월
		유준하	남	45	8개월
군읍면	YD청소년문화의집	신옥정	남	35	8년
서울	MR청소년수련관	민선현	남	46	18년
		최현기	남	37	14년
수도권	AD청소년수련관	한진성	남	57	2년
		나은철	남	45	10년
중소도시	SK청소년수련관	이수용	남	53	1년
		장선희	남	40	1년
군읍면	SH청소년수련관	박 환	남	39	10년
		손정엽	여	55	6년

(2) 청소년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고객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과정의 만족도 및 욕구, 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청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로 시설을 이용해 온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대상 면접은 주로 6월에서 8월말까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시설유형 및 지역별로 2~3명을 선정하였고 총 2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 중 수련시설 이용에 보다 관심이 많거나 이용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련시설 이용 관련 경험이나 의견, 평가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요청하였고 주로 2-3인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IV-55 심층면접 참가 청소년

지역	시설 유형	소속(학교)	이름	성별	나이(학년)	시설이용기간
서울	DS청소년문화의집	S고등학교	신준호	남	19(3학년)	중2부터(4년)
		H공업고등학교	양연서	남	19(3학년)	고1부터(2년)
		J고등학교	한철희	남	19(3학년)	중3부터(3년)
수도권	D청소년문화의집	S중학교	김세윤	여	16(3학년)	1년 6개월
		Y고등학교	정구현	여	17(1학년)	중2부터(2년)
		H중학교	홍애경	여	14(2학년)	초3부터(5년)
중소도시	SI청소년문화의집	W여자중학교	민 희	여	16(3학년)	초3부터(6년)
		J고등학교	김나희	여	19(3학년)	초6부터(6년)
군읍면	YD청소년문화의집	DY고등학교	김순애	여	19(3학년)	초등학교부터
		DY고등학교	김아람	여	19(3학년)	중1부터(5년)
		DY고등학교	박수아	여	19(3학년)	고1부터(2년)
서울	MR청소년수련관	SS고등학교	양국영	남	18(2학년)	고1부터(1년)
		SM고등학교	정우석	남	16(1학년)	올해부터(약7개월)
		KS고등학교	최성혁	남	18(2학년)	올해부터(약7개월)
수도권	AD청소년수련관	AS기중학교	최유라	여	13(1학년)	초1부터(6년)
		AS중학교	최정환	남	16(3학년)	초1부터(8년)
		BR중학교	류연선	여	14(1학년)	초1부터(6년)
중소도시	SK청소년수련관	D방송예술대학	문송윤	여	19	고1부터(3년)
		KS중학교	이유나	여	14(1학년)	중1부터(약7개월)
		KS중학교	전효리	여	14(1학년)	중1부터(약7개월)
		KY여고	나 현	여	17(1학년)	중1부터(3년)
군읍면	SH청소년수련관	H여자고등학교	오희윤	여	17(2학년)	초6부터(5년)
		H고등학교	이현정	남	18(2학년)	초3부터(8년)
		H고등학교	최원혁	남	18(2학년)	중2부터(3년)

(3)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마지막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질 관리 방안, 시설간의 차이(시설기준, 운영기준, 안전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15명으로 남자 9명, 여자 6명이었다.

표 IV-56 심층면접 참가 공무원

자치단체공무원	지자체 유형	시설운영유형	성별	연령대	근무연한
서울K구 공무원	자치구	위탁	남	30대	2년
S시 시청 공무원	50만이상 도시	재단	남	40대, 30대	3년 3개월
강원도 W시 시청공무원	도농통합시	위탁	남	50	6개월
경북 C군 공무원	군	직영	여	40대	9개월
D시 시청 공무원 2인	광역시	위탁	남	50대, 40대	4년, 3년
B시 시청 공무원	광역시	위탁	남	40대	1년
CW시 시청 공무원	50만 이상 통합시	위탁	여	40대	1년
K시 시청 공무원	광역시	위탁	남	50대	2년 6개월
전남 N시 공무원	소도시	위탁	남	40대	2년 6개월
전북 J군 공무원	군	위탁	여	40대	5개월
충남 NS시 공무원 2인	소도시	직영	여	50대, 40대	5개월
충북 Y군 공무원	군	직영	여	30대	6개월
	광역시3/중도시1/ 소도시2/통합시2/ 군3/자치구1	직영3/재단1/위탁8			

(3) 분석

심층면접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내용분석에 활용되었다. 내용 분석을 위해 전사자료로 부터 핵심개념을 도출하였으며,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의

유목화하고, 유목화 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내용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으며, 피면접자의 해석이나 발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직접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 자료는 설문조사의 주요 변인들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각 시설의 특수성, 함축된 의미, 구체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시설과 참가자들의 실명은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2-2. 청소년지도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1) 인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수련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1) 기존 제도와 의 관련성 속에서 필요성 인식

수련시설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련활동인증제 및 수련시설 평가제도와 의 연계 속에서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련활동인증제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인증 절차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과정이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을 인증해 줌으로써 보다 융통성 있고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 평가와 연계하여 시설 인증을 해 줌으로써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현기: 시설 인증이라는 게 나온 배경 자체도 좀 약간은 처음에 이제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으로 되었을 때,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최다(인증활동) 보유 기관으로 두 번이나 상도 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증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 인증 받는 거라든지 뭐 장단점이 있긴 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처음 많이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차라리 기관을 인

증을 해줘라. 프로그램이 아니라라는 것에서부터 저는 출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민선현: 인증제 처음 시작할 때 기관 인증하자 했을 때 대다수가 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마다 다 하나. 국가에서 청소년기본법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다 허락받아서 신고하고 운영하는 곳인데 왜 인증을 만나. 차라리 기관인증을 해라. 기관에서 했다면 다 인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중략) 제가 봤을 때는 인증제 프로그램이 나올 건다 나왔고,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기관도 있어요, 많이 개발한 데는. 안하면 또 안 되니까. (중략) (시설 평가와 인증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관인증 받은 부분들은 시설평가에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인증된 기관 같은 경우는 다 믿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증을 받고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평가해서 인증을 해준다는지.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이 위탁이 바뀌어서 엉망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인증이 무르익어갈 때 그런 부분들은 보강을 하면 되니까.

박 환: 잘 하는 쪽을 저희 나라 교육이 좋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면 예를 들어 국, 영, 수 중에 수학을 못하면 수학 학원을 보내요. 못하는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따라가니까. 당연한 거죠. 수련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기관일수록 못하는 기관에 지원을... 지원이라는 것은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애네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애네가 탄 데보다 못하는구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구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유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낮으면 낮을수록, 인식이 없거나. 거기 청소년 지도자 마인드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물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하는 쪽만 계속 쓰다듬고 그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르면 제가 인증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각 수련시설들을 토대로 보면은 같이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도 많지 않아요. 거의 틀려요. 색깔이. 그게 어떻게 보면 수련시설들을 똑같이 생각하시지만 운영주체가 다 틀리고 저희처럼 보조금을 받냐 안받냐.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도사들을 몇 명이나 채용했고 그 사람들이 건 당 얼마씩 벌여오는지, 아니면 학생들이랑 노는 건지 막. 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인증제가 당연히 도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통일을 시켜놓으려면 시켜놓은 다

음에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아까처럼 미흡한 데는 보충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수련시설 인증제의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강민경: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입이 돼서 어느 정도 체계화를 이루면 참 좋을 거 같은데요. 도입은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도입이 됐는데, 그걸 정말 시설에서만 알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돌리는 일로도 힘들거든요. 근데 인증제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가 인증 이후에 없다면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수련활동인증제도 마찬가지로였던 거 같아요. 수련활동인증제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문화의집 평가나 수련관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에는 모든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평가 준비를 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게 좀 더 크게 알려지고, 이런 시설들이다 라고 인증이 되면 모르겠는데, 인증을 받았는데 학교에서도 사실 그런가보다 이런 식이 된다면 사실 이게 굳이 필요할까? 오히려 인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입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략) 지방이라든지 문화의집에 배치된 혼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고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하려면 확실히 제대로 해서 모두가 참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효과나 보상 같은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면, 3년 뒤에 뭐 다시 인증하세요 이러면 안할 거 같아요. 어차피 해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증이 제대로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인증기관이다 요거 하나 붙여 놓는 건 기관 입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서는 수련시설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증제의 도입으로 수련시설의 규모나 여건을 표준화하고 그 후에 인증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각 시설의 운영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청소년시설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손정엽: 필요해서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그거를 원한다면 지자체에서도 해 줄 거 같아요. 필요해요. (중략)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차마 평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말도 많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격제로 인증제로 해놓으면 평가하기도 좋잖아요. (중략) 그러니까 평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속감이 없어요. 지금.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푹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어디 소속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평가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평가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조금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준하: 필요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략) 국가에서 인증이라고 하면은 보육시설 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은 국가에서 청소년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 시설 이 기관을 신뢰를 해준다. 공인해 주는 거잖아요. 공인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많은 이용객들을 그만큼 유치할 수 있고, 또 다른 학교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 시설 아까 둘러보셨지만 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성 뭐 뭐가 있을 텐데. 그런 여건들 갖추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인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어떤 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해줄 것인가. 지원을. 전혀 어렵다. (중략) 이런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일선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정책에 따라야 하는가, 분명 머리 아픕니다.

신옥정: 시설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005년도에 시범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준비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관반민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가지는 외부적인 실천들을 이런 서류를 보여줄 뿐이지 이런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의집이 하나하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2) 인증제 불필요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현재 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을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소모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선 수련시설에서는 시설 평가를 위해 일 년 내내 준비를 해야 하며, 중앙의 평가 뿐 아니라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평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까지 실시한다면 지나친 부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설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에서도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아직 수련시설인증제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실시과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청소년시설의 지도사들은 시설 평가와 인증이 모두 실시된다는 가정하에 응답을 한 경우이다.

나은철: 중앙 정부에서 하는 차원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어요. 그 참여하는 이유가 물론 국가적으로 하는데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다면 참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구요. 반대를 하는 건 그게 수련시설에 역행이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하지 않는 이상 참여를 하는 게 같이 동반자로 봐야지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를 또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평가를 한 번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됩니다. (중략) 평가를 2년에 한 번 받으면 그 직전에 하는 게 아니구요, 사실은 2년 내내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이나 공공기관들이 회계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감사에 염두를 두고 있다면 저희는 항상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의 시설인증을 염두에 둔다면 너무 많은 거죠. 차라리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A를 받았다면 그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닙니까? A등급으로 시설을 인증해줘서 거기에 다른 혜택을 주면 좀 덜하죠. 그럼 더 다른데도 전력질주를 하겠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평가 받으려고 준비들을 엄청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하는 데가?

한편 인증의 효과와 관련해서 인증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찾는 이유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소 이용을 위해 오는 것이지 인증 유무에 따라 방문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인증을 통해서 청소년시설 전반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것 또한 시설 간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반면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촉구하다보면

현장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을 받고 제대로 관리와 확인이 이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이 지적된다. 인증이라는 명목상의 기준과 별개로 현장의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선길: 인증이 된다고 해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청소년들이 인증이 됐다고 해서 오고 인증이 안됐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애들은 여기 시설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재밌는 것이 있으면 오는 거지 인증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청소년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도움이 없겠다. (중략) 저도 좀 헛갈리는데, 과연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 만약 그게 되게 된다면 또 경쟁이 된다는 말이죠. 경쟁이 나쁜 건 아닌데, 경쟁이 되게 되면 또 서열화가 생겨요. 또 기본적으로 청소년계에 대한 지원은 바닥이면서 자꾸만 경쟁만 붙인다 하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거와 상관이 없다면 또 노력하지 않고 또 그 수준에 만족하고 그럴 거 같아서 그 양면성을 저는 좀 아직 판단이 잘 안서요.

신은영: 제 입장을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같은 데 서울시에서 인정해줬다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고 이용했는데 근데 그게 꾸준한 확인과 절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거기서는 그것만 믿고 허투로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보낼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거...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거기 인증 받은 그 시설도 자부심 뿐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까 해요.

한편 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것인데 다시 인증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과 활동진흥법 상에 시설 건립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공공시설로 허가를 받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인증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인증에 신경 쓰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시설 환경이나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된다.

이수용: 문화의집과 수련관은 법적으로 이미 기본법, 활동진흥법에서 국가시설로서 인증 받은 시설이에요. 민간 시설이 아니에요. 민간 시설은 인증이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제 같이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같이 지은 거잖아요. 이걸. 그렇잖아요. 집을 지어놨는데, 이미 이걸 시설로 인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집 주인이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살까 정성을 안 들여 놓고 이 집이 나쁜가 쓸만한가 이런 거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집을 자기가 지어놓고, 보고나서는 아 이거 청소년들이 와서는 안 되는 집이네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내용을 채워갈 것인가 컨설팅 해주고 지도력을 보내주고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포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젖을 먹이면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되고 동아리 활동도 잘되고 청소년도 많아질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요. 전문 청소년 지도자도 없고 이직률은 계속 높고, 청소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청소년 애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시설 관리하느라 빙빙 돌아다니다가 프로젝트 따가지고 몇 가지 캠페인성 프로그램 하고 이런 거 하다가...

한편 수련활동인증제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련활동인증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서서히 부정적인 결과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수련시설인증제도 선불리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선희: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과 비교하여서 보면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를 하면 현장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정규체계와 예산이 잡혀 있는 수련관이 많지 않은데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는 불가능하다. 자연권에도 실시를 하게 된다면 각자 다른 기준을 도입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권 수련관의 경우 지역 자치단체 보조금이 마이너스부터 10억이 되는 곳까지 다양한데 평가한다는 것은 웃기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평가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이 인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인증제를 보면 프로그램이 규격화가 되고 하면서 체계는 잡히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지 보면 그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관리는 관리고 실제 활용하는 것은 다 다르다. 그래서 기관인증까지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안전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인지 예산에 집중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결국 현장지도자들은 수련시설인증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증의 필요성, 인증의 내용, 인증을 위한 절차, 인증 방법, 인증기준 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나 수련활동인증제 등 관련 제도, 관련법, 현장의 실정에 맞추어 수련시설인증제에 대한 개별적 개념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인증제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위와 같이 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대안으로서의 기관인증제

수련시설 인증제의 방향으로 먼저 수련활동인증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시의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융통성 있는 변형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수련시설 자체를 인증해 주는 기관인증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선현: 기관인증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계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힘들지 않게 지도자가 수련관에 와서 프로그램 한 거는 다 기관인증이 되어 있으면 교과부에서 다 등록을 해준다면 이건 뭐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이런 얽혀 있는 실타래를 누가 어떻게 합의 도출해서 풀거냐가 사실은 제일 큰 선행조건이라고 봐야죠. 그것만 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죠. 물론 이런 거는 있죠.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갖춰져 있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인증제 할 때 ISO인증제도도 참 많이 애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방에 있는 자연권시설들은 점차적으로 대안을 내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의 인증은 등급별로 한다든지. 방법적으로 찾으면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관장님 입장은 수련활동인증제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기관을 인증해 줌으로써 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민선현: 셋팅화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요즘의 트렌드가 창의
 잦아요? 창의적인 마인드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장점을
 더 크게 보지는 거지요. 프로그램인증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저는 더 봐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선행조건만 갖추어진
 다면 기관인증제로 가는 게 마지막 답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기관인증제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인증과 함께 시설인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적으로 명시된 시설기준 및 지도자 확보 기준 등 공공시설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들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시설과는 차별성을 갖고 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한진성: 시설 인증을 하려면 프로그램 인증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설인증을 강하게 밀
 어 붙이려고 하려면 공공시설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되요. 규모라든지, 시설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지도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활동진
 흥법에 시설기준, 안전관리기준 등 다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조금 더 공
 공시설 쪽에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그 끝에 그거를 기준으로 인증점수를 매기
 는 거죠. 이미 법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어요. 용어만 바꿔주면 되요. 용어만. 어떻게
 도표화해서 가중치를 얼마나 둘거나 하면 된다는 거죠. 방법은 쉽죠. 공공에다가는 좀
 강하게 밀어 붙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엔 수련원을 비롯한 민간 중소규모의 시설들을
 어떻게 하게 해 줄 것인가.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 인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
 들어줘야 되요. 시설은 좀 규모가 적더라도, 활동범위를 크고 길게 안 잡았더라도. 왜냐
 하면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수련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설인증 받은
 것 못지않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2)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제도와의 연계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을 실시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최우수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뒤에도 일시적인 홍보만 있지 장기적인 후속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시설평가와
 지자체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증까지 실시된다면 너무 중복되는 업무가 과중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평가와 연계하여 인증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현기: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시범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성이 없었던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씩 인센티브 평가라는 걸 해요. 서울 시립 수련시설만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실적이 뛰어나고 운영을 잘 한 기관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시상을 해요. 1등, 2등, 3등 이렇게 다 뽑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운영 잘하고 있는 기관한테 인증을 주는 거랑 지금 평가 받는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그냥 인증이라는 이름만 하나 붙이는 경우가 되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하거든요. 이번년도는 청소년수련원 평가를 하고. 뭐 내년에는 청소년수련관 평가 전국에 있는 수련관만 평가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전체 평가를 하면서 3년 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2009년 3년 전에 할 때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1등한 기관으로 수상만 받고, 저희만 홍보를 해요. 홈페이지에, 1등한 기관입니다. 최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정 최우수 기관. 그게 사실 최우수 기관이라는 것을 보고서 혜택을 있거나, 아님 주변 인식들이 바뀌거나 하는 건 사실 동종업계나 뭐 학교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 인증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평가는 평가대로 받고, 거기서 1등한 기관이 인증을 못 받는 것도 이상하겠죠. 거의 뭐 대부분 받겠지만. 인증 받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 준비해서 다 서류 준비해서 다 해서 인증 받는 거랑 또 저희 1년에 한번 씩 서울시 평가도 하고, 3년에 한번 씩 그런 평가를 받고 하면 너무나 중복되는... 저희는 다 평가 개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증이건 평가건.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인증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중복되는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평가가 나와서 뭐 평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들이 저절로 인증을 받게 된다거나... 평가와 인증 받는 시스템 간에 평가항목들을 어느 정도 중복되게 맞춰서 하나로 통합한다던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인증받기 위해서도 애 써야 되고, 그렇다고 또 인증 못 받은 기관들은 또 그만큼 인증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특별한 대미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하는 파트 쪽에서는 굉장히 대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받는 거랑 저희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다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현장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결국 인증과 평가가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인증을 받는다면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신옥정: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시범청소년 수련시설 지정이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인증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것이 평가 자체가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도 있었고, 각 시설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지지부진 지금은 전체적인 문화의집과 수련관 평가로 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육시설 인증처럼 저희가 시범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지정도 받고 인정도 받았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중략) 평가가 인증인 거죠? 뭐, 따로따로 받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기관 인증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간에 대한 인식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증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3년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수련시설 위탁 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최현기: 평균적으로, 여성가족부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프로그램 인증도 4년에 한번 받아요. 또 청소년 기관들이 위탁을 받을 때, 3+2제도를 하고 있어요. 3년 위탁을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위탁을 2년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장 5년 기본 3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3년 정도는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상 맞을 것 같고요. 혹시 3년 하다가 법인이 바뀌어 버리면 그 기관이 인정받은 프로그램 같은 것이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민경: 3년 정도가 좋을 거 같아요. 더 오래된다면 좀 더 많이 바뀔 수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3년에 한 번씩 재위탁 하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 환: 대부분이 그렇고 이제 위탁 계약을 받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부분 3년. 지자체에서 받던 어디서 받던. 3년이란 게 있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3년이면 어느 정도 공정성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3년이에요. 1년 2년은 너무 짧고, 4년은 안일해지죠. 처음 2년차부터 안일해져서 3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유준하: 조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해줘야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보통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기간이 평균 2~3년이거든요. 그래서 2~3년마다 법인이 바뀔 수도 있고, 연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2~3년 3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게. 기관이 위수탁 받음에 맞게. 인증도 함께 더불어서 가야하지 않을까. 물론 일이 많겠죠. 중앙에서는. 시기적으로 동시에 몇 년 단위로 탁탁 끊으시면 쉽겠지만 현장에서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바뀌면 인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옥정: 최소 3년 이상은 해주시고 중간에 점검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인증제 도입 시 인증비용에 대한 인식

인증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련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인증 받는 당사자가 직접 자비 부담을 하여 인증 받는 시스템은 일반 영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체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자비 부담을 하여 인증을 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현기: 수련관에서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이걸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좋은 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아서 퀄리티를 따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것 밖에는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 장치나 이런 거 사실은 다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잘하는 기관들한테 인증을 부여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예산을 써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기업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비영리기관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이걸 정말 수련관들 경쟁붙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진짜 돈 있는 기관은 인증 받을 거고, 그거에 반대하는 데에서는 “인증 나 그깟 것 안 받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노릇인 거고 반대급부가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민경: 비용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나요? 좀 무리한 것일 거 같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청구한다는 건. 그럼 예산을 받았으면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리고 시설이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바뀌어 갈 텐데 그거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설 입장에서는 저희는 당연히 지원해주시면 좋죠. 왜냐면 인증할 때마다 저희가 들어가는 준비며 이런 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박 환: 제 마인드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투자 사업이지. 이런 것을 수련 시설 쪽으로 경비부담을 주면 수익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질이 떨어지고, 많이 유치해서 많은 돈을 벌려 면 짧은 시간 모아져야 쉽게 되니까. 꾸준히 1년씩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게 되요. 이런 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돈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시설 내에서는 대부분 다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5) 인증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수련시설인증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인증 후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된다. 우수한 시설이라고 인정받은 기관이나 미흡한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관 모두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수시설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미흡한 시설은 컨설팅을 통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강민경: A등급이라고 최우수라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시상 을 내리는 주세요. 그리고 지자체에 우리가 우수하다 이렇게 공문을 한번 뿌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지자체에서도 그랬구나 그냥 공문 한 장 봐도 애네가 잘 했구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만약에 인증이 된다면 그 위탁이 아니라 운영 주체가 됐던 지자체 장을 모시고 정부차원에서 포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장을 준다면지 이런 식이면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아 여기는 정말 잘하는 기관이다”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팔랑 공문 한 장 내려오면 아 너희 이랬대. 이렇게 넘어오는 게 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잘하는 기관들이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걸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수용: 저는 인증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평가를 해서 미약한 부분은 컨설팅에 들어가

야 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키워 올리고, 평가가 단순히 기관평가가 아니고 정부 지원 정책도 평가를 해야 돼. 실은 저희가 정부 기관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중략)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말씀 드린 대로 운영지침서 하나 없어요. 그리고 관장들, 팀장들 직무연수 하나 체계적으로 없어요. 직무연수를 하자니 지침서가 있어야 하지. 그리고 직원에 대한 OT 하나 없어. 그리고 안정된 국고 재정책 하나 없어요. 다 지자체 알아서 단체장이 관심이 있을 때 됐다 안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담당 주사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 아래 직원들이 근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인증을 잘 받은 기관은 잘 받은 기관대로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사후조치가 취해져야 현재 실시되는 평가와 차별성을 가지고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증을 잘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후 조력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기: 지금은 시범 기관이나 평가 1위 같은 것들은 사실 수련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존감 높이는 것이라든가 수련관 홍보에만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인증 받는 것도 대부분 그렇게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거기에 좀 더 저는 발전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에 인증 받은 기관이나 평가 잘 받은 기관에는 잘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게 보여지거나 전파가 되서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수준이 올라올 수 있게끔 맞춰지는 역할들이 사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인증도 제가 볼 때는 평가와 마찬가지로 ‘인증되었습니다’하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기관 홍보할 때 쓰이는 것 말고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관 전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잘하는 것들이 좀 보급되고 할 수 있게 매뉴얼화 되고 그런 것들을 뭐 썸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못하는 것들을 보급한다던가. 그러니까 인증 받은 기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 못 받은 기관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맞춰가야 하는 게 사회 프로그램적으로 좀 갖춰지거나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단순히 홍보에만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증제도가 열악하거나 아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준

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아직 지도사 배치나 운영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과정을 표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박 환: 수련시설을 인증하게 되면 또 그에 따라 또 기본 조건들이 다 있어야 할 거예요. 그거 충족시키려면 각 수련시설이 입장이 똑같지 않다보니까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치면 그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인증제를 실시하다보면 분명히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똑같이 준비가 된 상태니까 니네 실적을 평가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평가가 수련시설이 3년마다 평가를 해요. 문화의집도, 청소년수련원. 근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가 잘 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해요. 의욕이 안 생겨요. 제가 원하는 것은 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돼서 평가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시설 점수 평가가 낮게 나온 데는 우선 물론 지도사 자질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여건이 안 되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점수가 낮은 쪽에다가 더 투자를 ‘니네 문제가 뭐냐’ ‘뭘 해주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평가를 잘 본 쪽에 돈을 더 잘 보조금을 운영비를 더 많이 주다 보면 잘하는 데는 계속 잘 하고, 못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설이 낡고 손을 못 대는데 자꾸 그런 것 까지 깎이게 되면 평가는 계속 낮아지는 거죠.

시설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설들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프로그램과 행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이나 시설 간에 운영 노하우, 프로그램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손정엽: 만약에 인증된 기관이면 어느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되 있는 곳을 해줄 거 아녜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업무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니까 부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쪽 아이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공유 시스템으로 해서 뭔가 위에서 지원센터처럼 메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한 것을 넣으면 거기서 평가도 되고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메인 컴퓨터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열고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관장들끼리나 만나지 그 기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거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다 백서로 해서 공유하잖아요. 일 년마다. 그럴 경우에 공유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6) 인증제 홍보에 대한 인식

또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용대상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인증제는 별 의미가 없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더라도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시설 이용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민경: 인증이 된 기관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청소년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기관이 지금 자원봉사 터전으로 지정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시설만 알아요. 학교도 잘 몰라요. 아무리 우리끼리 막 했어도 실질적인 수요자가 모르면 그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창의적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사들이 일반 프로그램과 똑같이 처리를 해버린다면, 사실 에듀팍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걸로 막 창의적 체험활동을 입력해서 막 대학을 가야되고 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인증 승인해 주는 거 굉장히 번거로워 하시구요. 외부에서 활동했던 거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승인받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설에 나와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게 자꾸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인증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인증 다 되서 이렇게 준비된 시설이라고 했는데 교사들에게 인식이 안 되고 아이들도 모른다면 이건 정말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로 인증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홍보가 가고 의욕 있게 진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7)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인증방안 모색에 대한 인식

청소년시설 인증제의 방향으로 이미 공공 영역에서 법적인 시설기준 설립요건에 맞추어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인증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청소년들이 드나들며,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이용시설로 인증을 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용: 청소년 이용시설을 인증하는 게 어떻겠냐. 청소년활동과 동아리 활동 할 만한 곳 그런 개념이라면 몰라요. 예를 든다면 에어로빅 강습소가 있다.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예를 든다면 이곳은 청소년들이 가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수영장, 문화센터가 있다 하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몇 시간씩 할인 제도가 되고 이용할 수 있겠다 하면 우리는 넓혀가는 거잖아요. 민간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해 가지고 이걸 인증을 해 주자 해 가지고 하면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건, 자율활동을 하건 활동시설이 될 수 있죠. 난 처음에 (인증한다고 한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민간 시설이나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이 기관은 청소년 활동에 인증을 받은 좋은 기관입니다 해 가지고 근데 문화의집과 수련관은 그 자체가 우리 집이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인증을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럼 평가기관은 우리가 아니니까. 물론 인증 심사라 해서 인증 해주면 청소년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 거구요. 우리 수련시설은 평가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야죠. 약한 부분은 그리고, 평가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되야겠다 운영지침서 같은 거랑 재정지원 같은 부분, 인력체제, 동아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 신나게 해서 가야되지….

3) 인증제 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한 예측

(1)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

①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수련시설과 학교 연계 증가 가능성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되고 난 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이용 양상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부분을 살펴보겠다. 일단 현재 일선 현장에서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들과 비교적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와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학교들에 이미 인정받고 있고 인지도가 있는 시설의 경우 학교에서 먼저 연계 요청이 오기도 한다.

민선현: 지금 교육청에서 주중에 수련관을 하루 학생들을 위해서 좀 비워주면 어떻겠냐.. 근데 결론은 예산 문제잖아요. 저희 수련관은 다른 수련관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수익구조모델이 없어요. 비자립 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딜레마인데. 내년에 일단 장학사님하고 일차 합의를 하는 거는 우선은 제가 며칠씩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루정도는 우리가 체험학습 프로

그램을 세팅화 시키고 예를 들어 10개면 10개, 오면 학교단체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관내의 아이들이 온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중략) 학교들과 저희가 협약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는 부분들이고, 지난해(2010년도)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개발운영해서 할 때 여가부나 진흥원에 저희가 시범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쪽에서 많이 불러서 저도 가서 많이 발표하고 우리 담당 팀장도 가서 발표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초중고 창체 시범학교를 작년부터 돌리고 있어요.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창체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희망을 할 때는 저희 수련관에 와서도 하고, 학교는 무지 좋아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죠, 사실은.

안수지: (창의적 체험활동 이후로) 학교 연계가 좀 늘어난 편이죠.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가 다 나가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학교에서 요청해 오고...(중략) 성동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교육사업도 같이 하고 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는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수련관이 큰 게 있음에도 우리를 찾아요.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선생님들은 더 잘 알죠. 애가 열심히 하는지, 최선을 정말 다하는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학교 나갔다 오면 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근을 가서도 연락 올 정도로.

강민경: 저희가 사실은 올해 초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시설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나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학교에서는 C.A와 창체의 개념을 똑같이 보세요. 전혀 그것에 대한 분리 개념이 없어요. C.A 하던 거 이름만 바꾸면 창체가 되고, 자원봉사 하던 것 이름만 바꾸면 창체가 되는구나. 그러다보니까 학교의 수요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중략) 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고등학교와 원활한 연결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창체 명목으로 일학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그 전년도 보단 조금은 증가가 됐어요. 근데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은영: 일단은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으로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학교랑 얘기할 수 있는 끼리는 좀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구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시도하는 단계고 보완 수정하는 단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아이들이 많잖아요. 수가요. 그렇고 전문가 선생님들은 한정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역할과 학교 측의 역할과 전달, 협력체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준비되어야겠다 하는 생각들은 많이 하죠.

질문자: 앞으로 수요는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신은영: 수요는.. 그죠. 이 창체가 계속 간다고 하면 수요는 좀 더 발생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② 학교의 소극적 대응으로 큰 변화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었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의 지도자들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은철: 아직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이 솔직히 자리 잡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요, 강사를 계속 부르지 말고 뭔가 체험이니까 지도사가 직접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몇 백만 원 들여서요, 학교가 갑자기 돈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저희 직원이 교육을 엄청 받아서, 그래서 교육을 자기 네들끼리 준비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불러서 직접 개들이 선생님을 심사를 했습니다.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떠니?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게 부족하니? 해서 청소년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또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간 하고 있는데요. (중략) 진로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는 일단 전문가가 한 번 되어보자, 여기 선생님들이. 근데 전국적으로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로 직접 가서,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건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구요. 요거를 좀 더 체계화를 잡으면 이 선생님들이 강사들이랑 어떤 프로그램을 내서 그분들이 이끌어나가는 모토로 준비를 하죠.

박 환: 창의적 체험활동이 그거가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요. 학교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서 그런 것 참견하는 게 아니고... 질문오고 하는 학교가 한 몇 군데 있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주에 몇 시간씩을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활동을 하게끔 데려왔는데 실상 학교 담당 담임선생님 입장으로는 예산 같은 게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로 선뜻 못나서요. 전화 와서 시설 이용료 같은 것 감면해 달라고 시설 이용료가 크지 않거든요. 수익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 배분 차원에서 끊어주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 당구가 1시간 2천원인데 그 돈도 없어서 선생님이 아쉬워하는 입장이 생기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데 그 학교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해버리면 이제 총체적으로 군 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포화도 포화지만 이용에 대한 기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죠. 아직 표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진성: 크게 늘어난 건 없어요. 학교의 인식이 아직은 작년까지 하는 CA활동의 변형정도(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정규교과과정이다 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학교자체에서도 그런 인식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깐 종전까지 우리하고 CA활동을 같이 해오던 학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하고 있고.

유준하: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사도 그렇고. 뭐 이걸 국가적인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의 움직임이 거의 아직까지는 소극적이예요.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문화의집하고 수련관하고 3군데 초청을 해서 창의적 활동 프로그램을 와서 좀 발표를 해 달라. 해서 3개월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바는 그거였어요. 학교에서 지금 당장 창의적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에 손을 내민 것인데, 이것을 청소년 전문가들이나 청소년시설이 들어와서 학교에 해달라는 내용보다도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달라. 이런 니앙스를 많이 품겼고요. 그 이유의 답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어떤 변화의 움직임은 인식하고 있는데,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방까지는 그 움직임이 학교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또 풀어 나간다면 우리의 재원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될 것인가 이런 것 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 문제뿐 만은 아닐 거예요.

신욱정: 저희가 지금도 종합지원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기관을 구성을 하고 있구요. 우리 지역에서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건 아직 뭐 제대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기관하고 학교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매뉴얼 책자가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희 지역에 있는 세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조사를 하구요. 각 평생학습센터나 문화시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게 책자로 나오면 학교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중략)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 연계 움직임 없는 경우(창체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한편,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시설을 연계하기에는 시설의 규모와 운영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왜 청소년시설에서 수용하여 일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스스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수련시설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오면 수련시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정엽: 그거(창의적 체험활동) 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와서 확인만 해요. 몇몇 선생님들은 와서 당구장을 사용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와 연계해서(창의적 체험활동) 하는 것이 불분명해요.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던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던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면 학생도 불편해요. 우리도 도움이 안돼요. 누구 하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설명회 같은 거 해서 저는 다 가서 들어봤어요. (중략) 그러니까 자기들 수업시간 내에서 쪼개서 너무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이만큼은 공부를 하고, 이만큼은 예체능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라고 한 거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뺏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장소가 안 되잖아요. 여건이.. 그래서 나는 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창의적 체험활동 설명회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다 가고 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저 위하고 우리랑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천차만별인 이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선길: 여기 지역에서는 아직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학교의 움직임이 없어요. 혹시 내년엔 이제 조금 학년이 늘어나서 시행을 하게 되면 잘 모르겠네요. 한 학년만 실시해서 학교에서도 별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공짜로 와서 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생각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청소년 단체가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제공을 많이 해요. 그럼 교육청은 그걸 교사들한테 가르쳐라 교사들이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중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교사들도 있겠지만 사립은 좀 나은 거 같고 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뭐 그렇게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여기는 아닌 거 같아요.

특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모와 청소년시설의 물리적 여건, 지원인력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된다. 지방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관장과 지도사 한 명 정도인데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유준하: 그냥 하는 것보다 국가적 인증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활동시설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도.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수련시설 인증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나는 잠시 또 한 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닐까. 진정으로 학교에서 접근한다면 학교에서는 그거예요. 와서 만약에 한다면 다 해줘라.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 다 해줘라. 이 부분인데, 실제로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해서 수탁 받아서 1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한 명을 더 법인에서 월급을 주고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4명이지. 원래는 3명이예요. 직원이. 배치지도사 한 명이죠. 그럼 두 명입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에서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참 우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방과후 선생님 SM, PM이 3명이예요. 그분들을 이쪽으로 빼서 아무리 가깝다고 좋은 관계라고 해서 이쪽으로 빼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인증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청소년 배치지도사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내용이 개선이 되고 자꾸 뭔가 만들어져야하는데, 갈수록 없애고 더 환경은 열악하게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참 이게 의도는 좋아요.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어렵다는 거죠.

최현기: 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활발하게 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지는 좀 않을 수 있다. 네. 조금 미흡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가지고서 학교에서 이렇게 좀 달려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2) 인증제 도입 이후 이용자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난 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았는

데 이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 여부보다는 이 시설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이용 여부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현기: 그건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아직 많이 열려있거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실 ‘여기가 인증 받은 기관입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인증 받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뭐하는 기관인지 조차가 사실은 1단계부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벌써 사실 인증 받은 기관이라는 것은 2단계적인 부분인 것이잖아요. 예전에 인증 이전에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문화관광부나 여기서 지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90년대 이때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이제 시범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여기는 다른 수련시설보다 뭐 좀 잘하는 기관이다. 우수한 기관이다.’라고 해서 시범수련시설을 지정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만 시범인 걸 알지 사실 그것을 홍보 전면에 내세워도 사람들은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학교라든가 학부모님들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꼭 그게 학교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와! 저기는 인증 받은 기관이니까 믿고 신청하겠다.’ 사실 이거 이전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여기 수련관은 이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기 수련관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있는 수련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인증이 되 있느냐 없느냐 보고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본인 학교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들이 개설이 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의 숫자 자체가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보육시설 등 지역에 시설이 많아서 선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역에 한 두 개 정도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인증 여부 보다는 기존에 이용했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시설의 지도자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설 자체가 열악한 경우에는 어렵게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놓고 홍보나 소개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강민경: 위상변화는 솔직히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보육시설도 인증 받아야 하는 거 아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수련 시설이지 인증의 개념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수련시설을 제외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각 구에 많아야 두개 세 개 아니면 한 개인데, 선택의 폭이 없는 데에서 그런 걸 굳이 따지면서 그쪽이랑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시설처럼 숫자가 많아서 골라야 될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한정이 되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랑 연결할 때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도 물론 청소년 시설과 전부 연결을 하지는 않잖아요. 외부 시설도 연결을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저를 주세요. 항상. 수련관에 연결하고 문의하고 연결하는데, 저희가 모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없냐? 이런 쪽으로 많이 요청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피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게 있다고 연결하고 없다고 연결 안하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안선길: 인증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게 안 와 닿아요. 왜냐면 우리 시설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고 이런 상태로는 인증을 받기도 어렵지만 인증 받았다 한들 홍보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이런 데로 오라고 하는 거 자체가...

(3) 지역사회에서의 위상변화 가능성

청소년지도자들은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위상이 변화하는 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증을 받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용자의 선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현기: 사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님들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이 그냥 뭐 유관기관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희와 유사한 기관들이나 뭐 시나 구나 이런 공공시설들이나 이런 기관끼리는 ‘아, 저기 인증 받은 테구나. 잘하네.’ 라고 느낄 수 있

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인증 받았으면 ‘아, 저기는 상 하나 받았다.’ 정도지 사실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코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번 5월달에 그 수련관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실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와! 저 기관 잘한다.’ 항상 칭찬받고 ‘잘 한다.’ 라고 하는 건 저희랑 같은 동종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나 인사 받지 지역주민들이 ‘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기관이 대통령 표창 받았으니까 믿을 수 있어서 내가 더 이용하겠다.’ 라는 부분은 사실...미흡하다고 봐야죠.

박 환: 그다지 없다고 봐요.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신설인 경우에는 그런 걸 내세우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10년 정도 되었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플러스는 되겠죠.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준하: 저는 있다하더라도 순간적이다. 우리의 역할이다. 이쪽 각 시설의 역할이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 자녀를 안심하고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시설적인 환경 여건이 만들어져야한다. 깨끗하고, 거기가면은 좋은 시설이 많다.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가면 지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프로그램도 많이 의논을 하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증시설과 함께 인증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계가 되겠죠. 주민과 학생들과 연계가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인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인증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변하기까지의 어려움. 변한다 하더라도 인증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이지, 그 이후에는 지원과 대책이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신은영: 인증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용자 수의 변화가 크게 없을 거 같아요. 만약에 여기 O동이랑 X동이 있는데 X동이 인증됐다고 해서 여기 사는 아이들이 X동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4)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

(1) 건물 등 시설 개선 지원

인증을 받기 전에 청소년수련시설 질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

다. 먼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물의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 특히 수련시설이 새로 건립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던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하거나 지어진지 오래된 시설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건물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예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물리적 환경보다 인적 환경이나 프로그램 등으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수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을 높이려면 현재 건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금 건물이 10년이 되거든요? 10년 된 이 건물을 앞으로는 몇 년 이내로 재차 손을 좀 봐줘야 돼요. 보수도 해줘야 되고, 10년 전과 비교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새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예산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니까. 옛날(10년 전)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지어놓은 규모인데 이 서비스를 갖고 50% 더 활용해서 서비스를 더 만들어내라 이걸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의 100%를 해줬다면 115%를 해줘야 만족하거든요? 그 겹을 누가 채워주냐구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더 투입이 돼서 사람투입이 돼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으로 그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직원의 사명감으로 그게 그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게 최선인데 그 최선을 하기 위해선 좀 힘들다는 거죠. 직원들이. 근데 서비스라는 건 무한정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선길: 시설 확장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 공간이 없어요. 그냥 와서 인터넷 하고 만화책 보고 노래방 하고 이런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활성화 시키려다 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시설 건립 시 청소년 이용자들이 활동 욕구를 반영하는 공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한 수련관에서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체육관으로 건립을 하고 청소년들이 공연할 때는 공연장으로 사용하거나 전람회 등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손정엽: 수련관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수련관에는 큰 체육관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체육도 하지만 공연 같은 것도 앞에 무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장소가 너무 적어서 인증할 때 좀 물론 기존에 있는 수련관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짓는 수련관에는 체육관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당 같은 경우 아이들이 활동하기에는 저렇게 의자 있는 곳 있잖아요. 저런 거보다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에 갔을 때 보니까 의자를 다 치우더라구요. 거기서 미술전람회 같은 거도 하고, 저러한 형식(원래 있던 의자들)은 필요 없어요. 모두 치워서 게임도 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중략) 시설이 좀 컸으면 좋겠고, 정부지원이 조금만 더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소속감 같은 것, 자존심 같은 것을 좀. 정부가 청소년 상담실은 조금씩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없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자기네들이 주는 게 CYS-NET보다 작기 때문에. 재정하고, 시설에 대해 조금만 더 청소년지도자들의 의사가 조금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곳에서 문화공연 못해요. 작아서 200명밖에 못 들어가서. 그런데 플로어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보통 70석 80석 되어야 우리 애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호응이 잘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에서 뭐 한다 하면 믿고 오잖아요. 개네들 말 그렇죠?

(2) 지도사 지원

수련시설 인증에 앞서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들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직업 자부심을 갖기 힘들며, 이직률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 및 시설운영에 전력투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보수체계 등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나은철: 청소년지도사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인건비죠. 누구나. 그 다음이 지도사가 전문가로서 대우받는 거는 지금 어쨌든 말로가 아니라 돈이 좀 중요하니까. 남들이 다 욕해도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전문가라 하는데 받는 건 자원봉사라면 사실 그 부분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억지로 생각하고 있죠. 자부심을 갖고, 그래선 안 된다고 보구요. 공무원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땐 8~90%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유준하: 목표 이전에 지도사들에 대한 지원이요. 지도사가 너무 적고, 환경이 열악하고, 왜냐하면 여기를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사들이거든요.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나와서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해서 결국 프로그램을 돌리고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꼭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여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질 좋은 내용과 프로그램과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환: 정책 말씀을 한다면 전국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딱 한 가지예요. 지도사 보 조금. 저희도 지금 직원이 14명이에요. 지도사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어요. 2급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청소년 지도업무를 하는 직원은 두 명 있어요. 이 수련관에. 안내에 계신 분 같은 분은 청소년 배치지도사라고 1년 단위 나라에서 국비로 매칭해서 나오는 임금으로 오신 배치지도사 분이에요. 저분까지 포함해도 저희 수련관 면적에 순수하게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는 분은 3명이에요. 많이 부족해요.

질문자: 나머지 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박 환: 나머지 행정. 시설. 그리고 중간관리자가 있잖아요. 중간관리자 뭐 관장님, 보통 사무국장이나 그렇게 되고, 저 같은 행정이나. 이 수련시설들 뿐 아니라 필수죠. 이 3가지는. 그 답에 그 쪽으로 치중되고, 시설도 노후 되면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자가 또 하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인데, 파헤쳐 보면 숫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 업무를 봐야하는 지도사들이 많이 없어요.

예산 지원과 함께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하지만 지도사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지도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도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 지도사 자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은영: 예산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지도사들이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근무를 하는데 본인의 자질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해 가는데 지도사인 우리들은 얼마나 성장해가느냐 저희 안에서는 참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중청에서 직무연수 같은 거 꾸준히 있지만 사실 굉장히 바빠서 있는 연수들이 많아서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지 않아서 해마다 보면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실무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이들과 할

때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섭외하고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자격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회가 조금 많이 주어진다 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근무를 하면서 점점 더 아쉬워지는 부분이라구요.

신은영: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는 아이들도 지도자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와서 선생님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의집의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도사와 이들이니까 지도사가 아이들과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저희도 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동아리담당, 누구는 청소년담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만큼 저희가 아이들과 신뢰를 쌓고 아이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만화동아리 하나 운영한다고 해도 만화에 대한 기술적인 거 만화가들 뭐... 만화동무들.. 사실 많이 알아야 아이들과 대화거리가 많은 건데 사실 소통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깨어 있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 많이 없다는 걸 느껴서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질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성: 전문성은 확실히 높아져야 되는 거구요. (중략) 프로그램 인증을 할 때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어야 될 부분이, 어디 가서 뭘 한다하는 이런 거는 사실 외형적인 부분이 에요. 아이টে에 불과한 건데, 누가 그것을 소화 하는가 즉 지도자가 외부강사냐 아니면 수련시설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수련활동가(지도자)가 담당하는가에 대해서 배점기준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역량이 높아진다고. 예를 들어 강화나 부여, 경주를 갔다 와요. 갔다 오면 뭐해요? 누가 가나 다 똑같아요. 강사 한 명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거기 현지 가이드를 섭외해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수련관에 와요, 많은데. 학교 선생님하고는 못 가나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철학적인 요소와 결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하면서 해주는거면 좋아요.

(3) 홍보와 예산

청소년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 청소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먼저 홍보 및 예산을 들고 있다.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산 지원은 어느 시설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언급되는 부분이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데 치중하다보면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이 필요함이 지적된다.

최현기: 일단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홍보구요. ‘수련관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라는, 청소년수련관이 전문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고 지역 주민이든 학교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서 홍보에서 조금 더 나가면 연계망 구축이라던가, 그런 부분 교육과학기술부라던가, 서울교육청과의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시급하긴 하구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없어도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래도 더 많은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들이 돈을 직접 벌어서 월급을 주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니까 청소년 사업이 100% 중에 수익사업이 70에서 80%이고 청소년 사업이 20~30%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수영장 운영하는 자립형 시설들이에요. 다행히 저희들은 교육 강좌 같은 것이 없어서 100% 청소년 사업만 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1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기관 간에 차이가 심화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청소년 기관들이 마음껏 펼쳐야 그나마 프로그램이 나와야 청소년들을 저희가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거고, 시설 면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룹실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요새 다른 곳은 로비가 무지 크고 건물 하나짜리에 방도 별로 없고 하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시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와 예산 쪽이 우선적으로, 뭐 어느 기관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4) 프로그램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된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2006년부터 계속 주관 부처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가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면 아이들이 이게 필요하고 재미있을 거 같고 그럼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와요. 인원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뭔가 아이들이 원하는 요소가 빠져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덧붙이자면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평가와 관련이 되는 부분은 참가자 수 등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프로그램의 질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나은철: 그렇죠. 질이나 양이나. 그 다음에는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상에 많이 투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질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한두 번에 걸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6~10번 정도는 지속적인 뭔가를 해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캠프 한 번 갔다 오는 건 그냥 재미입니다. 근데 이런 장기프로그램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이용자)가 계속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많은 숫자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실적에서는 최고거든요? 지금 중앙에서의 평가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엄마들도 그런 거를 많이 원하고. 깨우치는 분들은 성취포상제나 이런 계속적인 것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막상 요즘은 엄마들이 참여를 시키려고 해도 저희 프로그램이 2~3:1 정도 됩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죠. 당장 준비가 12명인데 당장 20명 왔다고 해서 20명 다 받으면 진행이 안 되죠. 그렇다고 사람을 갑자기 또 쓰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죠.

(5) 시설별 운영 여건에 대한 고려 우선

현재는 시설 규모 및 여건이 천차만별이므로 인증 심사를 받고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는 구조이다. 그에 따라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리고 청소년시설 마다 운영여건이 다르고 재정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진성: 제가 팔도를 다 돌아다녀 본 결과 수련시설을 인증을 했을 때의 소규모, 그 지역에서 한 철 장사 하시는 분들, 그나마 재정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다 말이죠. 뭐 하려고 하면 그런데는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시설인증제를 만들려면 시설이 인증되는 곳에서 프로그램이 인증된 것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내놨을 경우에 그런 소규모 시설에서는 점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지고...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거기는 길(수련원의 진로)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수련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인증제를 했다가는 그런.. 그리고 뭔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서건, 아니면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이건 다 키워나가면서 이 사업들을 해야지 근데 이걸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을 싹 도려내버리잖아요.

안수지: 사람들이 인증제라고 하면 일단은 한 번은 관심을 갖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를 해서 뭐가 특별히 달라지겠냐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하고 서비스가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이며, 그걸 한 번 틀을 정해놓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틀에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지원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한데 이게 지자체마다 운영지침(혹은 지원)이 다 틀리잖아요? 100% 지원하는데 하고, 프로그램도 광명 같은 경우에는 100%지원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업을 따와야 되고 직접 뛰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인증으로 가야될지. 그러면 이렇게 인증하려면 정말 국가의 손으로 모든 문화의집에 일정하게 다 투입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돈으로. 그래야지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구청에서 인건비가 60%밖에 안와요. 우리 자체적으로 40%의 인건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정말 사람을 더 써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힘든 거죠.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솔직히 사람만 더 있으면 더 하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는 거죠. 그럼 질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중략) 그렇다고 운영체에서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줄는지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정확한 틀이 잡혀 있을 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규모에다가 똑같은 돈을 주면서 잘하고 못하냐를 평가를 해서 애는 A급이다, 애는 B급이다 평가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 쉽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이걸 여건이 다른데 인증제를 하게 되면 또 인증제를 안 해서(참여를 하지 않으면) 탈락하게 되고..

장선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평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시설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 지자체, 직영마다 다른 상황에서 평가한다는 것도 반발이 심한데, 또 하나 문제는 자연권과 생활권이 나눠져 있다. 자연권은 기업적 마인드로 한다. 근데 일반 생활권 수련시설이나 문화의집은 다르다.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해야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증제에서 자연권은 빼야한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전제는 시설에 대한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것이면 좋겠다.

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게 되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음을 지적한다. 일단 현장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된다. 인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거친 후에는 주변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다.

민선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예산이거든요? 저는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뭔가 정리가 되니까, 왜냐하면 준비를 해 놓으니까,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낸 거는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서류를 보고 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는 정비는 된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현장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증을 잘 받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할 거고..

특히 수련활동인증제의 경우에도 시작 전에는 반대도 많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행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을 상품화해낼 수 있었고 이는 학교와의 연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것이다. 새롭게 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수련활동인증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반대가 있어왔고,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한 뒤에는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수련시설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민선현: 진흥센터 쪽에서도 사실은 저 정도 끌고 가 준 것도 청소년 쪽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고생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했음에도 뭔가를 이뤄낸 거는 저희가 박수쳐주고, 손잡고 같이 가야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누가 봐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증제도를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고, 큰 틀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쪽에 가 있을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MR수련관 소속이나 꼴찌 했던 기관장 소속이나를 떠나서 큰 틀 차원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중략) 인증제로 저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청소년계에서 누가 인증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우리가 학교하고 할 때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좋아요. 우리가 전국평가에서 1등을 했다, 우리랑 협약서 맺어서 한 번 해 볼래 라는..(중략) 그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저도 예전에는 현장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불만도 많았지만 연륜이 쌓이면서 어차피 청소년분야가 열악한데 같이 좀 도와주고, 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내 얘기가 좀 들어간다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좀 느끼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장들이나 지도자들의 마인드들이 좀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우리 시설에서 인증제 많이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인증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고생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미지 괜찮더라, 외부에서 다 인정해주고.

이러한 인증제의 도입은 또 평가제도와의 관련되어 설명된다. 증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도 시행 이전에는 거부도 많고 부담스러웠지만 시행이 되고 난 후 얻어지는 장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기준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련시설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나은철: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8~90%가 인정을 하고, 오히려 저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 생각해요. 한 번은 그렇게 전국단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서류나 행동이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긍정적인 면도 많거든요? MOU를 지역사회에 30개 이상 체결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전에는 내가 왜 이래야 되냐 했는데, 그

리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왕이면 MOU 체결합시다 이러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걸 끌려면, 말로 해서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업 하나만 달랑 갖고 오고, 이왕이면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6) 요약 및 소결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증제 실시에 대한 향후 방향성, 인증제 도입 이후의 변화, 수련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인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련시설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련활동인증제 및 수련시설 평가제도와 연계 속에서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현재 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을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소모, 지나친 경쟁유발, 파급효과 미미 등의 이유로 인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② 수련시설 인증제의 방향성

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수련활동인증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평가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증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3년 정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인증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련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인증 후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된다. 우수시설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미흡한 시설은 컨설팅을 통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더라도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시설 이용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한 예측

첫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되고 난 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교와의 연계 양상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부분을 살펴보았다. 일단 현재 일선 현장에서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들과 비교적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와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었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시설을 연계하기에는 시설의 규모와 운영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모와 청소년시설의 물리적 여건, 지원인력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된다.

둘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난 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 여부보다는 이 시설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이용 여부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셋째로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부분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위상이 변화하는 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는 시설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증을 받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용자의 선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④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인증을 받기 전에 청소년수련시설 질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물의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 특히 수련시설이 새로 건립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던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하거나 지어진지 오래된 시설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수련시설 인증에 앞서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들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직업 자부심을 갖기 힘들며, 이직률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 및 시설운영에 전력투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보수체계 등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과 함께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셋째는 홍보와 예산이다. 청소년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 청소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먼저 홍보 및 예산을 들고 있다.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산 지원은 어느 시설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언급되는 부분이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데 치중하다보면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이 필요함이 지적된다.

넷째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청소년 면접조사 분석 결과

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서비스 만족도

수련시설 인증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시설이용과정에서 가장 만족하며,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수련시설 이용과정에서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측면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측면(동아리방, 인터넷 이용, 노래방, 수영장, 기타 시설 등)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갖추어져 있는 이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취미활동을 하거나 편안히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시설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청소년들이 보낼 만한 여가 공간이 없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경우 청소년시설의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특히 시설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들의 연령대나 시설에 갖추어진 별도의 공간 특성에 따라 선호도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도서실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설에 갖추어진 헬스장, 여가시설 독서실 등의 이용료가 저렴하여 이용에 부담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한철희: 지도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좋고요. 일단 독

서실 오백원. 저렴하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또 헬스장도 있는데 학생 또 할인을 해줘요. 여기는. 그런 것도 좋고. 헬스장은 한 달에 3만원. 하고 싶을 때 시간 아무 때나 와가지고.

홍애경: 저는 동아리방? 저희가 창작공방이라고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창작공방 할 때는 거기서 하고 저쪽 동아리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밥도 먹기도 하고 만화도 그리고 글도 쓰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친숙해요. 한 곳에서 뭔가 같이 하니까 집 안, 안방 느낌.

이현정: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을 빌리는 것보다 바로 책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점이 좋고요. 싼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포켓볼이나 탁구 같은 것을 칠 수 있어서 좋아요.

민 희: 요새 좀 달라진 거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막 밴드나 여기 노래방? 컴퓨터 이용을 했었는데 중학생 되니까 시간도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거나 비디오를 봐요.

김순애: 촌이에요. 다른 도심지역 같은 경우 뭐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잘 많이 그래가지고 놀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쇼파에 앉아서 얘기 떨고 컴퓨터하고 막 그런거죠.

김아람: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다 공짜잖아요. 무료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동아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컴퓨터도 무료고, 만화책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중략) 일단 지역 특성을 연관 지어 말하면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어요. 카페 그것도 올 해 딱 하나 생겼는데요, 거기 생기기 전에는 만약 여기 문화의 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진짜 운동장에서 초등학교처럼 고등학생이 그렇게 놀았다거나, 할 일 없이 밤늦게까지 시내를 활보하거나 그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화의 집이 생겨서 중고등학생이 밖으로 배회도 안하고, 더우면 여기 잠깐 들렀다가 애들이랑 수다도 떨고, 책도 읽다 나가고, 지나가다가도 뭐 시간 때 올 데가 없다가나 뭐 잠깐 공부도 하고...

김나희: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응) 옛날엔 노래방이 제일 좋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북카페가 제일 좋아요.

질문자: 북카페?

김나희: 아까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기,

질문자: 아 거기서 뭐 책도 보고..

김나희: 네 저희는 거기서 회의하거든요. 회의도 하고 책도 보고 가끔 집에서 공부 안 되면 여기서 공부도 하고 제일 애착이 가요 사실.

박수아: 보통 어렸을 때는 컴퓨터나 DVD방 많이 이용했구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도서 관이나 책 주로 이용했어요.

신준호: 다른 기관에 교류를 했을 때 가보면 그런 시설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다른 기관은 없는데, 저희만 공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기서. 가장 윗 층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실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도 아까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분들이 직원이고 우리는 운영회지만 학생이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만큼은 저희끼리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2) 청소년지도자 측면(선생님과의 상담, 만남)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지도사와의 관계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도사와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따뜻하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지도사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정구현: 지도자측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자: 그러면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정구현: 상담이요.

김나희: 선생님은요 그냥 진짜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선생님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만해도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항상 그렇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뭐가 하시길 원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저 같은 경우 고3이라 많이 활동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선생님이 엄마같이 절 대해주세요. 다른 애들한테도 다 그래요. 근데 물론 애들이 좀 잘 못한 것도 있으면 되게 엄하게 항상 엄하게 까지는 아닌데 그걸 딱딱 집어 주시고 이거

는 다른 걸로 고쳐야 돼. 항상 이런 조언을 굉장히 좋으세요. 잘 고쳐주시고, 엄마 같이 잘 대해주시고 되게 좋아요 (중략) 그냥 저는 선생님이랑 항상 집에 갈 때 ‘선생님!’ 이라고 안고 가요. ‘나희야!’이라고 포옹하고 집에 가고 뭐랄까? 선생님이 나이가 좀 더 있었다면 딸 느낌? 항상 그래요 포옹하고 ‘저, 선생님, 저 오늘 남자친구 생겼어요’선생님한테 가서 쪼르르 말하고 그래요.

박수아: 선생님들이 거의 너무 재밌으세요. 착하셔 가지고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되게 좋아요. (중략) 좋은 점이 최대한 저희의 의견을 잘 들어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좋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 의견을 수렴하세요.

이유나: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재미있고 하니깐 좋은 것 같아요.(중략) 저도 자원봉사 할 때랑 서로 친목, 돕고 협동하고 그런 것 했거든요. 그런 거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자: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어떻게 잘 해주세요?

이유나: 선생님 더워요. 그러면 부채질도 해주시고, 음료수 같은 것도 사주시고 되게 우리를 뭐지 방명록 같은 것도 써주시고 심심하다고 하면 장난도 쳐주시고, 편안한 것 같아요.

김세운: 선생님들이 너무 착하고. 상담이 좋아요.

최성혁: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직접 들으시고, 저희 수련관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수련관과 다르게 가끔씩 분기마다 한 번씩 관장님과 만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의견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양국영: 음... 일단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잘 귀를 열고 계신다는 점. 동아리 활동 선생님 경우에는 동아리 친구들 말 잘 들어주고, 수정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질문자: 선생님들의 관심이 항상 쏠려있다는 말씀이세요?

양국영: 네. 선생님들이 항상 청소년들의 이용이나 불편한 점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구요.

(3) 프로그램 측면(봉사활동, 진로활동, 문화행사 기획 등)

청소년들은 이용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생활을 통해 배우거나 경험하기 힘든 부분을 청소년시설의 캠프나 동아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진로프로그램

먼저 프로그램 중 진로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 중 특정 분야에 대해 해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시설의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동아리나 워크숍,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정구현: 저는 진로 프로그램요. 만화캠프도 매년마다 가고 있구요. (중략) 만화가분들도 실제로 와서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으로 만화책을 낸 적도 있구요. 실제로 지금 출간되고 있어요. 여기 만화동아리가 엄청 커요. 정말. 규모가 엄청 커서 만화동아리 애들을 또 따로 모아서 잡지도 만들어서 발간한 적도 있구요.

문송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도자 선생님은 제가 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밴드부에 들어오면서 음향 쪽으로 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동아리 학교지도자 선생님이든 여기 지도자 선생님이든 제 꿈을 많이 지지해 주시는 편이셨고 저희 담임선생님도 '그래 니가 가고 싶은 길이면 거기도 좋다' 그러시면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장학금 받고 학교 들어갔어요(현재 관련 분야 대학교 재학 중).

김아람: 저는 어릴 때 잠깐 만들기 종이접기 동아리 들었는데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돈 내고 배우려고 엄마한테 줄라봐도 그런 거 어디서 배우냐. 그냥 니 혼자 해라. 해서 미술적인 것은 잘 못 했는데요.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여기 종이접기동아리가 있더라고요.

② 사회성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취미나 진로 등 관심분야에 대한 소질을 계발하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사회관계 형성 및 문화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현정: 사회성 기르기가 가장 좋다고 해야 되나? 여기 도보여행 막 그런 것 하고, 생판 모르는 애들 여기 친구만 한 명 씩 가고 나머진 생판 모르는 애들이니까 같이 알고 싶고 그런 것. 캠프 같은 데 같이 가면, 가격도 싸고 좋으니까. 거의 여기서 지원 많이 해주니까.

질문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이현정: 도보여행이요. 홍성 8경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홍성에서 볼만한 것을 보러다니는 건데요. 좋았던 것 같아요.

최정환: 아 저 옛날에 ‘함께 걷기’란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인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체험 활동이에요.(네) 저는 그렇게 많이 참석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함께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서울랜드도 가고 같이 만나서 놀고 막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중략) 장애인 친구들 보면서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 그런 걸 느끼기도 했고, 그 친구들 의외로 말도 못하고 잘 못 알아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잘 해주면 그걸 마음 속으로는 아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느꼈어요.

나 현: 음...아무래도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보통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주가 돼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동아리를 한다던가 활동을 할 때 참여를 하니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 분과에서 활동을 할 때도 선생님 개입은 거의 없었고,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이런 게 안 좋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목소리 내서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재밌어요.

양국영: 5월 5일날요. 공원에서 보람 놀이 한마당 이라고 해서 그 문화존 같은 작은 축제 같은 걸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청소년이랑 해서 부스같이 작은 천막을 열어서 그 때 5월 5일 아이들이랑 어린이들이랑 잠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그 활동이 저희 같은 봉사활동. 저 빼고 다른 봉사활동자나 아니면 다른 놀러오는 어린이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아 뭔가 배울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요..그냥 집에만 있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그쪽에만 눈이 가는데, 잠깐 옆으로 눈을 돌리면 다른 게 있다. 봉사활동일수도 있고 아니면은 ... 더 다른 것 일수도 있고...

양연서: 저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도 있고, 또 부속 프로그램으로 ‘난장판’이라고 있는데, 문화체험이라고 해야 하나? 2년 전부터 했던 것인데, 뭐 어떤 때는 지역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에 유명한 물건? 그런 거 짚신이면 짚신 같은 거 그런 것 만들기도 하고, 막 시장체험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중략) 재미있었고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김나희: 여긴 뭐가 “내 세상이다” 이런 느낌을 항상 줘요. 기관이 크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주축이 될 수 있잖아요.

박수아: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거에 비해서 수상스키도 경험하기 힘든건데 그런 걸 경험한다던가? 아니면 매년 레프팅도 할 수 있다던가? 그런거는 좋은 거 같아요.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걸 경험할 수 있다는게.

최원희: 적기는 하지만 탁구나 그런 것들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랑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돈을 많이 안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③ 운영위원회 활동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설에 설치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김아람: 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직책을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버린다는 게 포기한다는 게 아쉽구요. 봉사활동도 여기서는 즐겁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려면 힘들게 신청해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복잡하고.

질문자: 청운위 라는 직책이 어떤 의미예요? 아람 학생한테?

김아람: 저한테는 진짜 고등학교 대학 때문에 포트폴리오 한 번 써봤거든요. 진짜 장난 아아니예요. 6년 이라는 시간이 저도 하면서 좀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되게 놀랐고, 중학교 때부터 사진이 짝 있잖아요. 내가 성장을 많이 했구나 함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 인생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신준호: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건, 이런 말하면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소속된 운영

위원회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여기 대표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희는 저희가 이뤄낸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주고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저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뭐든지 그렇거든요.

김순애: 그렇겠지요. 저도 원래 저 작년부터 운영위원회 시작했었는데 작년이 고2때부터 시작했었는데 고1때부터 저 쪽 친구 친구가 먼저 했었던 말이에요. 이거를 친한 친구여 가지고, 아 이거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따라왔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막 회의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쏘 매력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저도 2학년 때 저기 선생님 제 의받고 여기 운영위원회 했어요.

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인식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이 일반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현재 수요자들과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일반적인 고객층은 청소년시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향후 질 제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변 친구들의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 봉사활동 장소로 인식

먼저 청소년시설을 봉사활동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시수를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이 봉사활동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다.

양국영: 처음에 친구들한테...수련관에 간다고 하면은 ‘어 거기서 뭐하는데?’ 라고 하면서 잘 몰라요. 친구들이 제가 뭘 하는지. 그래서 어떤 어떤 게 있는 데 그런 걸 전부 다 설명해 주기가 힘들니까. 그냥 친구들한테는 봉사활동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잘은 몰라요. (중략)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어...저도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이 지금 운영위원회 하기 전까지 뭐가 있는 지 잘 몰랐거든

요. 그리고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분은 이런 활동이 있는데 어떠한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제가 만약 모르고 있으면 사실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어디 같은 데 알려주고 싶은데, 수련관에서는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려졌으면 더 많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김나희: 아 저희 처음에는 다들 봉사활동 하는 데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락생락사’ 이런걸 해주면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아 진짜 그거 너네가 해?’ 그러면 ‘아 내가 한다’ 이러는데 한편으론 좀 그래요. 애들이 여기를 봉사활동 그런 것만 인식하는 물론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좀 애네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데 괜히 막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여기 막상 들어와보니까 이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고 학업에 지장도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 애네들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멀어지고 좀... 물론 저는 그런 점이 좋아요. 사실 ‘내가 우월해’ 이런 우월감을 살짝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거리감을 둔다는 게 약간 아쉬워요. 항상

한철희: 아직까진 애들이 잘 놀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재 또 간다.’ 이라고

질문자: ‘또 간다.’ 의 의미는 놀러간다?

한철희: 아뇨, 그니까 저기서 사는구나. 막 봉사활동 이런 거 하는 지는 알아요.

(2) 시설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은 수련시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 곳에 간다고 하면 특별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이곳에 다니는 친구들의 성향에 맞추어 시설의 기능을 유추하여 생각한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다니면 공부하는 곳,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가 가면 봉사 활동을 하는 곳,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가는 수련회와 관련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류연선: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잘 뭘 하는지를 모르죠.

질문자: 그럼 보통 연선이가 ‘나 수련관 가.’ 하면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류연선: 그냥 제가요 전교 회장을 했어서 애들이 되게 저를 똑똑하다고 아는데 제가 수련관에 다니면 애들이 엄마한테 가 가지고 ‘재 수련관 다닌다고. 자기도 공부 할 테니까 거기로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하하하) 제가 수련관을 다니면요 애들이 제가 공부를 잘 해서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좋게 보거든요.

질문자: 수련관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고? 안 물어봐요? 뭐 하는지?

류연선: 뭘 하는지 물어보는데 농구랑 영어한다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하고 학원 다니는 것처럼 재는 저기를 다니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최정환: 반응이라기 보단 일단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그냥 간다고 하면 그래도 ‘아 좋은 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질문자: 아 그럼 여기 가면 봉사활동 하러 온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건가요?

최정환: 아! 그렇진 않고요. 그냥. 애네도 옛날에 이제 몇몇 애들이 여기서 농구를 한 적이 있고, 개네도 막 봉사활동을 하러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죠. 이거 하는 거.

최성혁: 처음에는 운영위원회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중략) 청소년수련관 하면 애들이 중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갔던 그런데 생각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 친구들이 잘 모르는 이유를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서 찾고 있다.

이현정: 뭐하는 곳인지 몰라요. (중략) 근데 애들도 여기서 집이 가까운 애들은 컸으니까 가끔씩 필요할 때 오는 데요 이제 좀 나이가 먹고 하면요 집이 멀면 귀찮아지고 안 오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데 보면요 셔틀버스가 집에 와서 태워 가는데요. 여기는 그런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아람: 사실 제가 만약에 문화의 집에 안다녔더라면 애들은 아예 여기 운영위원회 인식조차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의집을 한다고 말해도 그런 것도 있냐. 그게 뭐냐? 그러거든요. 거의 인식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 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아람: 홍보가 진짜 늘 6년 동안 생각했는데요. 늘 애들이 6년 동안 이거예요. 모이놓

은 활동 인원이.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죠. 애들은. 이 지역이 약간 활성화 되지 않았어요. 학교랑 여기랑. 홍보글이 내려와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나 현: 알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자: 알고 있는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나 현: 알고는 있어도 잘 오지는 않아요.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정적인 학생들만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 왜 한정적일까요?

나 현: 학생들 스스로도 처음에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수련관 자체도 홍보가 좀 덜 돼있지 않나. 학교에서도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

질문자: 학원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홍보도 잘 안 되어있고,

나 현: 학원도 문제지만 주말 같은 때에는 시간이 남잖아요. 특히 방학 같은 때는 이런 데 이용할 수 도 있고요. 근데 학생들이 잘 몰라요.

(3)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한정적으로 이용

결국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일부 이용 청소년들은 잘 알고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대체로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가서 쉬거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과업이나 역할이 부여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민 희: 여기 아는 애들은 진짜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 거의 연습실 쓰려고 오는 애들이나, 아님 다른 거 이용하고 여기 좀 자주 와요. 그럼 오는 애들은 잘 알더라고요. 좋아하고. (중략)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실 자주 이용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연습실 이용하는 친구들은 같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여기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고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박수아: 저희가 속한 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는데요. 후배들은 그렇게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막상 저희가 후배들한테 말해주면 “아 언니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아무리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네들이 잘 모르고...보통 문화의집 하면 애들 쉽터. 돌아갈 데 없으면 가서 책보고 공부하는 시설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한다는 건 모르고 있어요.

이유나: 그냥 지금 안 왔던 애들한테 말하면 신기해하기도 하고, 왔었던 사람이랑 말하면 재미있었다고 얘기 많이 해요.

질문자: 그럼 친구들한테 여기 간다고 유나 학생이 말하면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이유나: 몇 명은 같이 가고 싶다고도 하고, 왜 가냐고도 하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가서 뭐 하냐고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질문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요?

이유나: 뭐 하는 지도 가르쳐주고, 같이 갈 거냐고도 물어봐가지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질문자: 데리고 온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이유나: 좋다고. 가끔 갈 데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몇 명 같이 다니고.

3)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

(1) 부모님의 인식

수련시설 인증이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 및 부모들의 인지도는 어떠한 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수련시설 이용에 대해 부모들은 별다른 기대 없이 PC방 등 소비지향적인 장소나 유해환경으로 향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업에 방해가 되므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수련시설 이용 후에 자녀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기도 한다.

막연하게 “나쁜 장소”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다가 청소년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참여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시설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질문자: 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모님 반응은 어때요?

최정환: 반응이라기보다 그냥 ‘아, 좋은 일 하는구나.’예를 들면 pc방 가는 것 보다 더 좋게 생각하시겠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현정: 저희 부모님은 옛날에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어디 나갈 때 게임하는 것 보단 이런 데 와서 탁구 하는 게 좋다고.

양국영: 일단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별로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수련관 간다고 하면은 ‘열심히 하다가 와라.’이러시고, 그리고 또 어... 봉사시간을 떠나서 어머니가 그걸 해본다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고...(중략) 학교에서는 아직. 잠깐 한 번 1학년 때 얘기를 했었는데...뭐 학교에다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봉사활동을 다른 데서 하고 있구나 하고...

최성혁: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한다고 말씀 드렸을 때, 한번 해보라고 지지해 주셨어요.

신준호: 엄마가 처음에는 이상해 하셨는데요. 이상하게 교회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토요일날 가다보니까 웬지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면 교회 같잖아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딱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 상을 받았거든요. 부모님이 그때부터 놀라시더라고요.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반장을 했는데, 교내활동에 자꾸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렀거든요. 그래도 반장을 하니까 참 신기해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도 그렇게 하니까 믿어주시고, 아까 선생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 드렸던 형이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맨날 책만 읽었어요. 사회 관련 책만 읽고 신문만 맨날 읽더니만 그런대로 대학을 가시더라고요. 그 분이 근데 말을 너무 잘해서요.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니까요 형을 믿어주시더라고요.

질문자: 아 형을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이랑 말했나요?

신준호: 네 제가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오셨었거든요. 제가 좀 한순간 실수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반대편의 차랑 부딪쳐서 좀 크게 다쳤거든요. 산 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다리에 다 철심을 박아놨거든요. 그때 누워서 형이 오셔서 머리로 감겨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동생들이 다 제가 동생이 둘인데, 한명은 중학생 여자예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생이라 둘 다 어리니까 근데, 그 형이 와서 머리를 감겨 주시고 어머니랑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경찰이신데요. 사고 났을 때 아픈 것 보다 아빠

한테 혼날까봐. 그런데 다행히 제가 헬멧을 쓰고 면허도 있고 신호위반을 상대방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형이 나서서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원래 외박이 안되요. 근데 형이 부르실 때는 외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부르실 때는 뭐 회의 같은 거 나갈 때 도와라 하면서 부르시거든요. 그때 저도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양연서: 부모님은 일단 되게 좋아하시고요. ‘사람 됐다고.’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사 왔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질문자: 문화의집에서 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양연서: 네. 그래서 좋아서 더 오는 것 같아요.

한철희: 부모님 반응은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오기 전에는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오고 나서 ‘사람 되간다.’ ‘좋다.’ 이리시고, 학교에서도 좀 학교생활 재미있게 하려면 막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놀면 재미있잖아요. 막 같이 다니니까 안 좋게 보는데 봉사활동 확인서 같은 거 가져다 내니까 ‘아, 애가 이런 애구나.’ 이리세요.

질문자: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철희: 네. 활발한 애면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이유나: 반응이 좋긴 좋아요. 중학교는 몇 명 없는 데 제가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관심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질을 계발하고 성과물을 보였을 때 부모들의 반응은 더욱 시설 참여를 지원하게 된다. 관심 분야의 동아리 가입을 통해 활동 내역을 보여준다던지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준 경우 부모님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

문송윤: 처음에는 이렇게 밴드 동아리로만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얘길 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락팀끼리 다 축제를 만드는 동거동락이라고 K시 락팀이 모두 모여서 축제를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 때 첫 공연을 했는데 엄마 아빠를 그 때 초대하고 엄마아빠 그때 보시고 ‘아 너가 정말 열심히 한 게 보였다’고 그때부터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잘 활동하라고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정구현: 근데 제가 좀 막장이긴 한데요. 저희 엄마가 너는 절대로 동아리 들어가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씹고 신청을 했어요. 청개구리기가 있어서. 근데 붙었어요. 2학년 때.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했는데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연합회 회장이, 제 밑에 3백 명이 깔린 거죠, 털려 된 거예요. 그날 엄마한테, 중3 때 돼서 야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있다고. 엄마 기겁을 하셨죠.

질문자: 아,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정구현: 지금은 완전히 그냥 존중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이 들어서 떠날 수가.. (웃음).

김나희: 엄마는 막 아빠는 사실 옛날에 조금 반대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빠 이제 이렇게 했다고 박정현처럼 PT를 짜서 막 말한 건 아니지만 ‘아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여기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도 해먹고 다해먹었어. 아빠만 해먹을 줄 알아?’ 이 러면서 아빠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아빠도 그 뒤로는 ‘아 애가 좀 컸구나’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 너한테 도움이 되는거면 너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엄마는 원래 처음부터 방과후 활동 할 때부터 제가 원래 성격이 밝고 좀 잘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오늘 누구랑 친해지고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셨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엄마는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김순애: 반응을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 아 거기 가? 알았어 근데 여기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바로 뒤에요. ‘독서실 가?’ ‘네 문화의 집 간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학업 성취를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공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자녀들은 청소년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부모와 갈등을 빚게 된다. 결국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즉, 인증을 위해서는 수요자 층을 형성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련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김세윤: 저는 공부보다는 자기계발이거든요. 자기능력계발이거든요? 하다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시간대 외에는 공부에 미쳐서, 아니면 차라리 자기능력 계발해서 상이라든지, 돈을 벌 재능은 돼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뭐해요? 사회에서

안받아주면 그만인데. 근데, 아빠가 공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 여기도 못 오게 하려고 해요. 지금. 성적이 좀 나쁘게 나와 가지고.

홍애경: 저희 엄마아빠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아빠는 제가 국어에 관심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엄마아빠는 넌 지금 성적이 그래서 어딜 가냐, 통금시간도 원래는 6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6시면 꼬박꼬박 갔어요. 근데 그 전 시간까지는 밖에서 자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유롭게 있었죠. 근데 너 공부 안하고 어디 싸돌아 댕기냐.. 통금시간이 다시 5시로 줄었어요. 그래서 5시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있고 싶잖아요. 여기 정들었으니까. 여기 우리집 안방 같은데. 학교 끝나면 4시예요. 4시에 학교 끝나면 바로 여기에 왔어요. 아, 피곤해 이려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왜 지금까지 안 들어오냐고.

김아람: 오빠는 중학교 때 활동을 하고, 고등학교 때 그만 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서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해라 하셔서. 고등학교 때는 그만 둔거거든요. 근데 저도 부모님이 저를 시킬 때도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할 시기 되니까 이제 너 문화의집 활동 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라. 이러시는데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나는 이것을 계속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맨날 놀러갔다는 인식이라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슨 체험 하는지 잘 모르고, 맨날 회의 갔다 와도 모야 재 놀러갔다 왔으니까. 놀러만 다니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생각. 뭐 지금도 고3이니까 그러는데요. (중략) 저도 부모님의 영향이 커서 그런지 올 해만 하고 그만 뒤야겠다.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신청기간 되고 선생님께서 너 올해도 할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가 아깝고,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만두려니 문화의집과 인연이 끝인가? 이런 생각 들으니까.

(2) 교사들의 인식

교사들의 경우에도 수련시설의 존재에 대해 별다른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고, 활동 내역을 알고 난 뒤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생긴다.

질문자: 학교선생님들은?

최정환: 그냥 별다른 반응은 없으셔서. 학교 쌤들은 모르시고 아직.

김나희: 선생님들. 봉사활동을 바쁘시니까 해야겠다 해서 떼서 갔거든요. 그 다음날 집으로 전화 오셔서가지고 바로 여기가 어디냐고 뭐하는 데냐고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회장 같은 거 해 본적 있냐? 그래 가지고 아 저 선생님 위원장 경험도 있고 막 그랬다고 오래 있었다고 알았다. 좋은 말 써줄게. 그리고 끊으셨거든요.

질문자: 아직 그럼 잘 모르셨구나?

김나희: 근데 2학년 때,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은 잘 설명은 해드려 가지고 선생님 애들 봉사활동 시킬 데 없으면 여기로 오세요, 이리로 그러기도 하거든요.

질문자: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계세요?

최성혁: 학교 선생님들도 처음에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들도 잘 모르셨어요.

질문자: 알고 나서는 선생님도 좋아하세요?

최성혁: 네 좋은 일 한다고. 학생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구.

나 현: 음...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너무 학교 공부에만 치중을 한다던가, 집에만 있다가보다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 활동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좋아하세요.

오희윤: 운영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하면 봉사시간을 줘요. 지금은 안주나? 그래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한 거를 내역에 쓰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말씀 드리기도 하고.

질문자: 그럼 선생님 반응이 어떠세요?

오희윤: 그냥 좋은 거 하네. 운영위원회. 좋은 경험이 될 거 같다고 좋아하세요.

민 희: 막 나쁘게는 생각 안해요. 그냥 좋게 보고 굉장히 잘 응원해 주시고 조심히 갖다 오라고 하세요. 여기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있게 보세요.

문송윤: 학교선생님들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아신다고 하셔도 일단 동아리활동만 하는지 알고 계시고 밴드 지도자 선생님만 YMCA랑 연계되어 있구나. 이

렇게 알고 계시는데 7월 17일쯤 그때 저희 밴드 후배들이 주체로 한 공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학교 모교 선생님들도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셨더라고요.

질문자: 음.. 그런 관심이 되게 많네요?

문송윤: 네. 지금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한편 일부 교사들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등이 학업에 관심없는 청소년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성적이 좋지 못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의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공부를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문송윤: 학교 측에서도 많이 동아리 하면은 공부 안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중략) 학생들이 자기가 이 동아리를 하면서 자기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구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계속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성적은 아이들이 다 떨어지는 건데 이 동아리를 함으로써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죠.

4) 청소년수련시설 질 제고를 위한 제언

청소년수련시설 인증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다음의 영역에 대하여 질 제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1) 프로그램 측면

① 진로 및 학습관련 프로그램

청소년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보다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중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청소년 고객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양국영: 요즘에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중·고등학생이 많은데...그 친구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진로 탐색, 그리고 왜 아까 말했던 바리스타나 제빵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알 수 있게. 진로탐색 프로그램 같은 걸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나희: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니까 진로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상 여기 상담실이라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니까 뭐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와 닿지 않는 느낌? 그니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항상 활동을 하잖아요. 그니까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뭔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없다는 생각? 진로 적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질문자: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김나희: 물론 지금도 조금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가 더 많이 사람을 모으고 발전을 하려면 그런 쪽이 더 필요하지 않나?

박수아: 다양하긴 한데요. 저 친구들이 원하는 건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긴 하는데, 사진 같은 것도 취미로 하면 좋을 거 같구요. 보컬 같은 것도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토론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논리성도 키울 수도 있고 근데 애들이 워낙 다방면으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딱 해야 하는 건 없을 거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직업체험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좋을 거 같아요.

양국영: 수련관에서는 사실 바리스타나 제빵 같은 거 또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한 번 하고 싶어도 친구들이...또 요즘에 실업계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쯤 경험해 보고 싶은 것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역시 잘 안 알려지니까.

한편, 학원이나 별도의 학습지도자를 주변에서 구하기 힘든 지역의 경우 청소년들은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이나 학습 보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보인다.

오희윤: 외부강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EBS강사를 초청한다던가 하면 애들 되게 많이 몰릴 거 같아요.

질문자: 그렇지. 그럼 그런 거 학원에서 하지 않아요?

오희윤: 여긴 학원이 잘 없어요. 학원이 있긴 한데 그렇게 외부강사 초청하고 그러진 않아요. 고 2의 마음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공부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 많이 해주시면. 저기 강당 같은 것도 이용해서 뭐 자기주도학습 그런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 되면 좋을 거 같아요. 많이 알리고 공개되고 그렇게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도 다 초등학교 위주거든요. 애기들이 여기서 막 합창단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학업이니까 그냥 거의 그래서 그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거의 못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학업이나 활동) 두 개 다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거 제안했거든요. 이번에 회의에서 최신 영화를 여기서 강당 같은 데서 상영하면 좋을 거 같다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애들 많이 올 거 같아요. 최신 영화 같은 거 공짜로 보여주면.

최정환: 일단 이걸 제 생각인데 청소년들은 저희가 특히 중. 고등학생은 솔직히 입시 때문에 되게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유아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올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네) 차라리 계속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려면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좀 더 뭐라고 해야 하나 입시교육과 가까운 프로그램을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 고등학생들.

질문자: 중. 고등학생. 그러면 입시교육을 여기서 만약에 비슷하게 하면.

최정환: 입시교육이라기보다 그냥 단순히 영어나 수학 그런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저렴한 비용에.

② 동아리 지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분야 동아리가 더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동아리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부대시설이나 비용 지도자 등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원하는 동아리가 모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철희: 저는 동아리. 밴드동아리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강사님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강사가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그런 게 있

있으면 좋겠고, 또 관심 있는 애들끼리 모이잖아요.

김세윤: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다른 동아리에도 많이 맞춰가지고 골고루 다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만화가 너무 독점 되어 보니까 만화에 드는 지원금이 많이 있어요. 만화 쪽에는, 저희 샬롬 같은 시 창고라든가, 밴드부라든가, 연극부라든가 엄청 꽤 많아요. 모를 뿐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금도 많이 받지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샬롬 같은 시 고 경우에는 처음 만들었으니까 일단 지원금 받아요. 근데 다른 데는 만든 지 꽤 오래됐는데도 만화만 중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정환: 시설은 자주 말했듯이 제가 듣기론 이거 다시 증축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실패한 걸로 듣고 있는데...이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좀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답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알기론 댄스동아리? 막 그런 동아리 밖에 없는데 좀 연구중심 동아리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정치외교 토론동아리나 그런 동아리 있잖아요. 그런 동아리가 개설이 돼서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좀 더 그러니까 너무 노는 애들 말고, 그 외 부류 애들도 좀 더 참가할 수 있는 동아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김아람: 저는 즐기는 동아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팝송, 영어회화 동아리 말고, 스포츠 상관이 체험 활동이라든지, 여행, 여행 동아리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나 현: 그거는 학생 개인마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랑 토론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하고 싶었다고 이런 게 있냐고 하면서 좋다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 저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꾸미는 것 좋아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 것 좀 많이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어른 돼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것 보다는 학생들이 공부도 공부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뭔가 옷에 관련된 패션에 관련된 그런 동아리라든가, 메이크업에 관련된 동아리 같은 거 만들면 여학생들이 다니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③ 청소년 연령대에 맞는 활동 공급

청소년 고객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에 제기되는 문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개설되는 프로그램들이 유아나 초등학생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만한 프로그램이나 강좌 개설에 대해 희망하고 있다.

박수아: 프로그램 면에서는 대부분 너무 어린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막상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완하면 좋겠구요. 그리고 시설 면에서는 다른 수련시설과 비교해서 많이 뒤쳐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유나: 딱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고, 지금도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며칠마다 이주일마다 한번씩 하기도 하니까 왔다 안 왔다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하긴 해도, 좀 프로그램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어떤 것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개설 안 됐는데 이런 것 한번 해 보고 싶다. 수련시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

이유나: 청소년들 인권 같은 건 지금 하고 있는데, 애들 반응 같은 걸 보면요. 애들 불만 같은 거 있거든요. 불만 같은 거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애경: 참여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놀이 활동을 좋아하니 까 놀이 활동을 늘리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기개선의 분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분야를 좀 더 세분해서 그러던가 해서 하거나, 대학생들도 여기 가끔 와서 해요. 그런 분들은 뭔가 실습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나누거나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될 거 같아요.

류연선: 일단, 저희 동생들도 수련관을 다니는데, 작은 애가 다쳐서 지금 수련관에 못 다녀요. 근데 수련관을 정말 다니고 싶는데 수련관에 정말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련관에 유아만 있거든요? 수련관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생긴다면 더 많이 찾아올 거 같아요. (중략) 관장님한테 저번에 여쭙봤어요. 원래 예전에는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수련관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은 중학생도 되니까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이 제일 많고 어린애들은 정말 조금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부터 여기 학원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점점 인구 피라미드가 뒤집어 진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 고등학생도 거의 없어지려고 하고, 중

학생은 쫓겨 있고 유치원생이 제일 많고 초등학생이 그다음 많고, 그래서 관장님도 중학생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옮기려면 수련관에 방들이 부족하잖아요. 방들이 그리고, 또 방들이 몇 개 방은 유치원생을 위한 방이에요. 막 매트 깔아져 있고 쪼그만 책상이고, 그런 방들은 아예 유아 프로그램을 위한 방들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방들을 만들어 주시고 싶었는데, 예산을 다 빼갔대요.

최정환: 일단 그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일단 너무 유아적인 그런 수준에 미쳐있다고 해야 될까? 주로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은데, 원래 청소년은 거의 그러니까 턴에이저는 13세부터 18세인데, 너무 유아하고 초등학생 측면에 치우쳐 있어서 중고등학생은 거의 오면 진짜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좀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2) 시설 측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질 제고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열악한 시설 여건 하에서 활동을 해야만 한다. 활동 공간의 페인트칠이나 편의 시설의 고장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은 잠재적 신규 고객인 주변의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① 환경개선 및 시설 보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거나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청소년들의 눈에 쉽게 띄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물환경이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시설 이용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류연선: 수련관 여기 너무 보시기에, 떨어진 것도 있고, 페인트칠도 반만 되어있고, 담에 저기 선풍기는요 언제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은요, 저기 어떤 방이지? 어떤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창문 고장 '수리중'을 진짜 3달 내내 봤어

요. 3달 내내 수리를 안하는 건지 고장난 지도 모르는 건지 모르겠고, 선풍기 저건 언제 청소했는지도 모르겠고.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페인트 칠도 싹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담에 책상도 의자도 한쪽 없어서 덜렁덜렁 거리고요.

최유라: 시설들은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기 이 교실도 많이 낡고 좀 리모델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수기 물 맛이 되게 이상해요. 화장실도 그렇구 거부감이 들게 만들어요. 여기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구요. 애들이 사용하기 위험한 물건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정환: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벽면이나 저런데 보면 솔직히 낙서도 아직 방치되어있고, 이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뭐라 하지? 청소소년이란 그런 이미지에 맞지 않게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김나희: 시설은 음 좀 저기 제일 아까 탁구장 보셨어요? 거기 뒷벽이 탁구를 하면 완전 온실이에요. 진짜 3분만 쳐도 혹 더워져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여기 주변 보면 금간테도 있고 그래요. 보면.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애들이 여기 와서 놀아야 되는데 괜히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불안해 이럴까봐 저는 괜히 걱정이 되니까 이 시설 입장이니까 항상 걱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좀 애매해요. 되게 애들이 막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되게 기구 같은 게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고 할까. 흐 좀 그래요 많이 슬퍼요.

질문자: 왜 근데 이게 안 고쳐지고 계속 그럴까요? 뭐 때문에?

김나희: 저 그거 들었어요. 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실 이번 년도에는 보조금이 해 바뀌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달인가 그래가지고 그 때 저희가 처음 원래 학기 시작할 때쯤이면 저희가 원래 첫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서 겨우 회의하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더 줄인다는 소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 한 200만원 준다고 하면 그걸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 쓰는 게 아니 운영위원회가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된 말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보조금이 줄면 여기는 전부 노후화 되어있고 고칠 것은 많은데 못 고친다는 거잖아요. 좀 그런 면도 있고...

민 희: 네 2층은 좀 괜찮은데 여기 3층으로 오면 좀 겨울에는 춥고 그래요. 1층도 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이런 걸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좋은데 되게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다시 페인트칠을 하고 해야 할 거 같아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농구대회가 좀 사람이 많이 참여해요. 그래서 농구대 같은 게 좀 열악하고, 지하 같은 경우는 비오면 물이 차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습기가 차 가지고 거기가 얼룩져있고 그런 거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② 비좁은 공간

청소년들은 활동공간이 비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활동이 주말 등에 치우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한꺼번에 활동을 하는 주말 오후에는 매우 비좁아 제대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수다를 떨거나 에너지를 발산할만한 여유 공간이 없는 시설도 있다.

정구현: 근데 실제로는 이런 교육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경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프로그램상도 받았어요. 대통령상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되게 잘 짜여져 있고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이 별로. 시설이 인간적으로 너무 열악해요. 1층은 어차피 좁고, 선생님 일하시는데도 좁고, 동아리실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좁고, 안 좁은 데가 없어요.

양연서: 시설이요? 여기가 문화의 집인데 아이들이 놀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방과 후 애들도 그렇고, 막 앞에서 놀다가 독서실에서 신고 들어오고, 시끄럽다고, 위에도 원래 공원이었는데 탁구장으로 막 변하고 그래서.

질문자: 어떤 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연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요. 아이들이.

질문자: 안 다치게 이렇게 좀 공터?

양연서: 다쳐도 되니까 축구도 괜찮고.

김세윤: 너무 좋아요. 여기는 다른 시설들보다 너무 좋고 한테..

질문자: 음.. 너무 좋아서.. 애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공간이 작아서..

김세윤: 기계가 뭐 결함이 나면은 그거 고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비용 들어가는 거 때문에 뭔가를 하나도 못 고치고 있어서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

이 피해를 입어요. 요쪽에다 지원금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③ 여가활동 시설 확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유라: 그러니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볼링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질문자: 여기 볼링장 있지 않아?

최유라: 네 있어요. 근데 볼링장 사실 별로 크지 않아요.

한철희: 근데 옥상 같은 데요. 골프용 천막 같은 것 치고, 배팅하는 거 있잖아요. 야구 배팅.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현정: 헬스 운동기구가 너무 없어요. 포켓볼도 칠라면요 한 명이 공을 빌리면 그 다음 사람이 치려고 하면요 공이 없어요. 공이 없는 채로 쳐야하는 게 불편하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처음에 DDR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게 좋아서 오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유나: 도서관 이용 같은 거 하니까 애들이랑도 학교에서 도서관 왔을 때는 시립가도 사람이 많으면 앉을 데도 없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한 한시간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니까. 도서관 가도 책은 별로 없고, 애들이랑 모여서 공부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도서관에 책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도서관은 넓은데 책상도 있고, 빈 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늘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지도자 측면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원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관심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거나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원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분야 활동을 진행하기를 원하지만 이를 지원해 줄만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청소년지도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에너지가 투입되다보면 청소년들과의 소통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준호: 저희가 동아리 같은 건 하고 싶는데 지도자 선생님들이 안 오세요. 여기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께서는 만능이 아니시잖아요. 저희는 밴드 동아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다 다룰 수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밴드동아리라는 건 기타일렉베이스 보컬트레이닝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섭외하려고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모으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악기도 그렇구요. 악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사주셨어요. 그런데 난타 선생님이 여기 초등학교생들이랑 하시려고 오셨는데, 난타 악기 보더니 안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좋은 기구로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얘기 했어요. 구에서 지원 너무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못한다고. 그래서 구에서는 좀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아리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프로 동아리나, 할 줄 알아서 저희들끼리 하면 좋죠. 근데 문화의집이라는 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마추어 동아리는 처음에는 누가 이끌어줘야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은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밑에 청소년 지도사 분들께서 애쓰고 애쓰셔서 뭐 아는 분들 데리고 와서 하시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강사들도 저희 말로 팔리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인력 풀이. 되게 많이.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 일주일에 두 시간 시간 내기가 힘들시지 않나요?

질문자: 그렇죠 만약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두 번은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준호: 한 번도 평일에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오셔야 하는데 주말에 오기가 참 힘든 분이시잖아요. 아 좀 쉬어야 하는데, 그러시면서. 그래서 이런 데 전문 강사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줘도 좋지 않을까요? 특히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잖아요. 물론 저희 나라 실정에는 안 맞긴 하지만,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드만 뭐 20개 된다고 하는데,

문송윤: 이제 예전에는 작았고 선생님도 적으셨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졌으니깐 청소년들과 지

도자 선생님들대화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제

(1) 홍보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와 기능,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 및 주변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지역교육청,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현: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수련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학생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있다.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밖에 외출을 해도 놀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이런 시설이나 또 다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 같은데 그런데 충분히 알아보면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청소년 수련관 자체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수련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류연선: 홍보를 많이 해야지 애들이 많아지고 애들이 많아지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거 아녜요. 그러니까 먼저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도 수련관에 오면 학원만큼 해줄 수 있다는 홍보를 하거나, 학생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계속 심어줘서, 예전처럼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연서: 일단 홍보를...

질문자: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연서: 그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정구현: 홍보도 중요하고 시선 개선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질문자: 시선?

정구현: 네. 여기 있는 애들이요. 진짜 아까처럼 조그만한 애들이나 만화가 활성화 되는데 뭔가 좀 오타쿠가 많다? 뭐 이런 반응들이예요. 후배들이.. (웃음) 그래서 시선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여기서 밴드 하는 분들은 소위 좀 노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고 까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도 아닌데.. 괜히 여기서 제공받으면 아 제 갈데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저 갈 데 많거든요? (웃음). 좀 시선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여기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약간 후진 동네?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게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거기 좀.. 이런 이미지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지역발전 이러면서 벽화도 그리고요. 근데 정작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김아람: 일단은 위원 애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뭐가 적극적인지, 적극적인 홍보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전단지 만들다던지, 홈페이지를 만들다던지, 그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겠고, 위원들도 열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페스티벌 있는데 학생들 오게 하려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생한테 전단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특히 기숙사생들은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박수아: 저는 우선 학생들의 기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말로 재미있다고 해도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앞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에서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질문자: 문화의 집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홍보에 신경을 쓰면 좀 더 아이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박수아: 직접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접적으로 들리는 말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지로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보여주는 거죠. 영상 같은 걸.

질문자: 청운위에서 이런 거 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박수아: 하자고 의견이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인데 워크숍이라든지 견학을 해보고 청소년들과 교류를 갖다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제 자신이 되는 걸 느끼는 거 같아요. 이런 활동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작용을 하니까 학생들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이유나: 학교 같은 데서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뭐 어디로 와라 라던가 학교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안 말해주면 이런 것도 하는지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질문자: 여기 수련시설 자체에서 홍보물을 뿌리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유나: 지금 복지선생님들은 이런데 다니니까 복지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해주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제가 복지 선생님하고 왕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 선생님이 추천해서 이거 한 건데 모르는 애들은 하고 싶은 애들도 있고,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전효리: 이걸요. 학생들이 우선 알아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자주 오는 학생들 모아서 학생들이 학생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니까 많이 오라고 전단지를 주고 전단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스터 같은 거 크게 붙여놓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학교 주변이나 학교 안에다가나 입구에서 붙이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류연선: 남자들은 운동을 하면 무조건 와요. 운동을 너무나 좋아해서 근데 여자들은 수다 떠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빵 쪽을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고, 그니까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올 거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도 홍보가 안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니까 먼저 빨리 홍보를 시켜야지 되지 않을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김아람: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지 다 좋아요. 수상스키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초 등학생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래도 중,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좋은데 애들이 잘 몰라요. 운영되는 것도 모르고요 프로그램이 있는 지도 몰라요. 홍보가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초등학생이 바글거리는데 고등학생이 신청하고 싶지 않잖아요. 또 초등학생이 바글거리니까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운영되죠. 그래서 중, 고등학생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2) 청소년활동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수련시설인증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청소년활동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다. 현재 실시되는 봉사활동인증에 대해서도 결국 일부 특목고등학교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실천하는 청소년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수련시설이나 수련활동에서 청소년들의 대입진학을 높여 주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신준호: (문화 활동 등) 많이 개설하거든요? 많이 개설하는데 오는 청소년들은 꼭 와요. 한번 해보고 재밌으니까 꼭 오는데, 대부분은. 참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을 때 인증제라는 게, 여기도 봉사활동 인증터전이거든요? 이렇게 듣고 하다보면 과연 인증제가 소용이 있나? 뭐하러 국가가 간섭을 해서 관리를 하나? 결국에는 그게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가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봉사활동해서 대학가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도 보면 여기에서 하는 분들은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밀려서 와요. 보통 대원외고, 서울 과학고, 또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봉사활동만 하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활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하고 나서 그것들을 평가도 할 줄 알고 좀 더 어떻게 할지 보완점도 생각하고 스스로 하는 게 청소년 자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안했다라도, 인증제를 굳이 안했다라도 할 사람은 하거든요? 저는 여기 인증제 하기 전부터 했었는데, 정말 그게 상관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누가 봉사를 오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활동을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도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구요.

(3) 재정지원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이 많은 시설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골고루 운영하기 힘든 면이 있다. 결국 인증제의 실시에 앞서서 재정지원 규모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박수아: 저희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좀 큰 건 경제적인 여유가 돼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원혁: 시간 확보도 그렇고, 10년 전에 안양에 있을 때 다녔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가 거기보다 프로그램이 많이 뒤쳐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강좌고 개설되고 하는 데는 돈이 가장 큰 문제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있으면은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뭔가를 지금 부족한데도 뭔가를 더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운영위원회 가보면은? 근데 재정적인 것 때문에 애들도 잘리게 되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되고. (중략) 제가 안양에 있을 때는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은데 형이 청소년이었어요. 형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었어요. 형 보면은 컴퓨터를 배우러 다녔었고, 친구들을 보면은 서예나 이런 것을 배우러 다녔었고. 배울 건 엄청 많았어요. 영어 강좌 같은 것도 한 두 개가 아니라 4~5개씩 되가지고 나이대별로 맞춰서 강좌를 해주고, 수학은 아니어도, 영어 쪽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컴퓨터 같은 경우도 강좌가 하나가 아니라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눠서 되어있고, 서예 문화 장기. 바둑 같은 것도 있었고, 취미활동 쪽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4) 법적인 활동 시간 확보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찾아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와의 연계가 더욱 활발해져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고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아람: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365일 구속 받지 않고, 일주일에 한 두 세 시간만이라도 스펙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주변 시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랑 학교가 정책적으로 더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교장선생님이 연계하자 이렇게 관계적인 그런 것 말고, 법적으로 몇 % 연계해라.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나 현: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 야자. 야간 자율 학습을 하는데 그것도 이런 시설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충학습만 끝나도 6시 20분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이런 시설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주말에도 애들이 10시까지 평일날에는 수업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학원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은 평일날이든 주말이든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아마 청소년 수련관이 빛을 발 할 때는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지거나, 청소년들한테 자유시간이 충족되는 그 때 일 것 같아요.

(5) 접근성 확보

중소도시나 군지역의 경우 청소년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설들일수록 서비스를 찾는 고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셔틀버스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오희운: 일단 교통이 필요할 거 같아요. 걸어 다니기 힘들니까 셔틀이 필요할 거 같아요. 대전 같은 데는 시간마다 셔틀이 돈대요. 그래서 나와 있으면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래서 애들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도 역사 인증인가? 궁 탐방인가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애들이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나봐요. 애들이 엄청 많은데 버스가 한 대 밖에 안 되가지고 그것 밖에 못 간다고 해서 애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6) 학교와의 연계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계 방안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이처럼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청소년시설에서 알차게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최정환: 요즘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좀 무의미하게 보낸 경우가 많으니까. 거의 자습 시간이나 아님 그냥 무의미하게 동영상만 보니까 계속. 그런 활동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철희: 다른 학교는 무학여고라던가 다른 학교 국악고등학교 이런 데는 막 환경 교육을 나가거든요.

질문자: 환경교육? 그게 뭐예요?

한철희: 그 천연비누 있잖아요. 기름이랑 EM 가성소다 막 섞어가지고 비누 만드는 교육

나가거든요.(중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학교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교육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구현: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데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뭐 어떤 식으로 해요?

정구현: 요즘 에듀팟 아시죠? 그거 정말 짜증나요. 인간적으로. 그거 창체 기록하는 데에요. 입학사정관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아... 이거 정말. 창의적 체험활동이랍시고 저희는 진로교육을 하거든요? 월요일 첫 시간 마다 그걸 해요. 뭘 봐요 이렇게. 그럼 그걸로 에듀팟에 자기가 기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한숨). 이거 학교에서 별로 지도해주지도 않구요. 선생님들이 홍보하지도 않고 그냥 할려는 애들만 해라 이려고. 봉사활동도 올 애들만 여기 찾아서 오는 정도고, 몰라요. 제가 미술 관련 진로 갈려는 애가 뭐하러 펀드매니저를 공부해야 되요? 그거 올릴 때도 수학이랑 관련지어서 캐네디대 통령이 예전에 무슨 공식을 만든 게 있대요? 그거랑 관련해서 올려야 점수를 주겠다고. (중략) 학교에 TV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저희 학교에. 이걸로 방송실에서 틀어준다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해야 되요. 보고, 여기서 나와서, 펀드매니저잖아요? 그럼 펀드매니저가 나와서 막 이래요. 저희 직업은.. 막 이래요. 그럼 그거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에듀팟에 이런 건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미술 이런 건 좀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올리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건 안 된대요. (중략) 저는 아, 진짜. 잡지에 저 혼자 연재하는 것도 있거든요? 만화 연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올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만화캠프 여기 하는 거 있거든요? 매년마다? 그것도 안되요. 학교에 신청을 하고 가야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김세윤: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활동이라고 해봤자, 활동지 검사하는 거. 그런거만 나눠주고 그 이상은 안 해요.

이유나: 저번에 방학에도 지금 방학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두, 세 개는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원봉사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자연학교 그런 것도 여기서 하더라고요.

6) 요약 및 소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서비스 만족도와 인식, 수련시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및 인증제에 대한 전제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수련시설 이용 서비스 만족도

첫째는 시설 측면(동아리방, 인터넷 이용, 노래방, 수영장, 기타 시설 등)이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갖추어져 있는 이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취미활동을 하거나 편안히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시설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청소년들이 보낼 만한 여가 공간이 없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경우 청소년시설의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지도자 측면(선생님과의 상담, 만남)이다.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지도사와의 관계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도사와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따뜻하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지도사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셋째는 프로그램 측면(봉사활동, 진로활동, 문화행사 기획 등)이다. 청소년들은 이용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진로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생활을 통해 배우거나 경험하기 힘든 부분을 청소년시설의 캠프나 동아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주변의 인식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이 일반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현재 수요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일반적인 고객층은 청소년시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향후 질 제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변 친구들의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수련시설 이용에 대해 부모들은 별다른 기대 없이 PC방 등 소비지향적인 장소나 유해환경으로

향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업에 방해가 되므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수련시설 이용 후에 자녀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기도 하였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수련시설의 존재에 대해 별다른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고, 활동 내역을 알고 난 뒤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생긴다.

③ 청소년수련시설 질 제고를 위한 제언

청소년수련시설 인증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다음의 영역에 대하여 질 제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보다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유아나 초등학생 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질 제고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청소년시설 환경의 개선 및 보수, 보다 넓은 공간 확보, 여가나 체육 활동 공간 확보 등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원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관심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거나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원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분야 활동을 진행하기를 원하지만 이를 지원해 줄만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청소년지도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에너지가 투입된다보면 청소년들과의 소통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④ 인증제를 위한 전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와 기능,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 및 주변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지역교육청,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의 연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제안된다.

2-4.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면접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은 1년 미만이 8명, 1년에서 2년 미만이 2명, 그리고 2년 이상이 5명으로 대부분 청소년관련 업무 경험이 1년 미만으로 업무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정도도 낮은 편이다.

1)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업무 시 애로 및 건의사항

(1) 예산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들이 말하는 수련시설 관련 업무 시 어려운 점은 예산 확보 및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현장 시설들의 노후화로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B시 공무원: 위탁 기관들에 보조금 지원 많이 못해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설이 노후한 것을 개보수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예산 편성 시 물가 상승률이나 공공요금 사용증가율이 반영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내에서 청소년 관련직에 대한 인지도는 중간 정도이고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한 수준 보다 덜 배치되어 있습니다.

K시 공무원: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난점입니다. 시설 개보수시에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사 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곳 같은 경우 99년도에 시설이 설립되어서 이제는 노후화 된 탓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수련원 숙박시설 확충 공사도 진행 중인데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2013년으로 완공 예정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J군 공무원: 시설에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화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량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보통 인력 확보가 안돼서 청소년 업무 전체를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Y군 공무원: 지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외부 간판이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시설을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D시 공무원: 청소년 활동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광특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받는데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예산은 700억중에 15억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 편성의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문화의집이나 수련원 같은 경우 각 사업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저희 종합지원센터 안의 문화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큼니다. 예산 편성 시에 면적을 고려 해줘야 되는데 기능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청소년 직의 위상도 높지 않아서 직원들이 이 자리로 잘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요. 특별히 위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도 많고 예산도 적으니까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설의 예산 지원 및 인건비 증액, 물기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싶지만 청소년 분야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예산 증액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시설 규모에 따라 예산 지원이 차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차등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조직 내 청소년업무에 대한 관심도 별로 높지 않고, 주말에 행사가 많고 예산은 적으며 기피하는 분위기가 주도적이라고 말한다.

W시 공무원: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련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급되는 위탁지원금은 고정되어있어 위탁단체의 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일반 행정이나 사회 복지 쪽에서도 소외되고 있고, 시에서도 무관심한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업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지도 및 행정인력 관련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업무 처리 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시설에

기관장 등 전문인력이나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시설에 배치되는 지도사도 부족하며, 지도사 인건비도 너무 낮아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한다.

NS시 공무원: 우선은 행정업무 처리 시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소한 것도 결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련시설에 기관장 등 전문직이 없어서 시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CW시 공무원: 먼저 행정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동계, 청소년계가 독립되어 있다가 합쳐져 업무가 늘어나고, 구청 다섯 개를 관리해야 하는 데, 담당 인원이 3명이 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시설관리 운영을 따로 점검할 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배치지도사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지도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시설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에서 육성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으로 가다보면 수익성 창출에 목적이 맞춰지는 한계 피하기 어렵고, 한군데 오래 운영하다 보면 운영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지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져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진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측면을 맞추다 보면 예산이 바닥나고, 청소년 업무가 사업 순위에서 밀려서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수련시설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학교로 보내도 학교 내에서 행정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데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3) 기관운영관련

또한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타 기관과 중복되어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거나, 청소년 이용이 특정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C군 공무원: 지역 특성상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월-금 접근성 특히 떨어져 주말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충돌 하는 경우도 난점 중에 하나인데 요,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과도 중복되는데 이에 대해 기

관 별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련 시설 공간이 넓고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특별히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 사항은 없으며 시설 운영에 관련된 인력 수급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수련 시설을 처음 지을 때부터 예산이 쪼여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독자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것과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인력 배치나 이동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NS시 공무원: 시설 자체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S시 공무원: 시간에 따른 시설이용률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지어 놓은 시설의 운영시간이 청소년이 이용 불가능한 시간대로 편성되어 있어 정작 초등학교생들만 겨우 이용하는 형태가 되어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나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설 활용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에 대한 분위기는 사업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였다.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보다 제도시행에 따른 시설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여건이 충족되면 시행할만 하다는 정도의 조건부 찬성이 많았으며, 인증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1) 긍정적인 의견

인증제 도입에 대한 기본 취지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인증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의 형평성을 위하여 우선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 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자 인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 연계사업이나 시설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시 공무원: 기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시설 보강 등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후 지역 내 인지도나 이용자의 인식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와의 연계도 좋아 질 것 같고요.

서울 K구 공무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지역 내 인지도가 이미 높은 편이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존의 학교와의 연계성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고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N시 공무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존 학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증 하면 더욱 학교 연계가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조건부 찬성

다음으로 인증제의 전면 실시보다는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예산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인증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CW시 공무원: 인증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조건에 한해 조건부 찬성입니다. 인증제가 실시되면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도 되고, 시설 홍보의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시 공무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설의 기본 조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시 공무원: 글썄,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는데요, 만약 인증제가 실시된다면 지속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3) 부정적인 의견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인증 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며, 인증에 따른 효과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공시설로 독점적 상태에서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독점 기관을 인증하는 것은 마치 동사무소를 인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프로그램 인증제의 경우에도 처음에 실시될 때는 인센티브 등 후속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인증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D시 공무원: 프로그램 인증제 처음 실시 할 때 인센티브를 기대했었는데 실익이 거의 없어서 활동프로그램 인증제도는 현재 소강상태입니다. 인증제를 실시해서 인증마크를 받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듯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이체도가 정착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 단체의 경우 평가자체 받는 것이 부담인데 비용까지 부담해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NS시 공무원: 인증 준비과정이 번거롭고 효과성이 불투명하다고 생각 합니다.

Y군 공무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련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저조하고, 인증 후 활동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인증함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오히려 인증제 도입으로 더욱 여건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인증제 실시에 따른 지역연계에 대한 효과도 의심받고 있다.

C군 공무원: 현재 실시 중인 수련활동인증제처럼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나 시설 자체의 인증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 해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가부에서 표창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인증제 실시 후 학교와의 연계가능성도 별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와 수련시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다르고, 관심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인가한다고 해도 학교와의 연계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뿐 아니라 저희 군처럼 시설 자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설 자체로 평가 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상황이고, 이곳은 청소년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 보다 많기 때문에 인증제 도입 전에 수련 시설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군 공무원: 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요, 인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이미 수련시설과 학교와의 연계가 잘 되고 있으므로 인증제를 한다고 해서 학교와 연계성 정도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방향 관련 의견

(1) 인증기간

만약에 추후에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인증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년 또는 3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W시 공무원: 인증 기간은 3~5년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에 대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인증 비용은 연회비 개념으로 관리기관에서 부담하고 인증 정보와 사례 등의 전파가 필요합니다.

C군 공무원: 만약에 인증제 실시한다면 기간은 5년은 너무 길고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제에 비용 부담은 인증 신청비용은 적으니까 기관에서 부담하더라도 상관 없이 없는데, 독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팀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군 공무원: 인증 기간은 위탁 기관과 비슷하게 3년 정도로 하고 인증에 드는 비용은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인증비용

인증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기관 부담과 중앙정부 부담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서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설 위탁인 경우 기관부담, 직영인 경우 중앙정부 부담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다.

NS시 공무원: 인증 비용은 국가(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기간은 3년 정도로 하되 프로

그럼 지원비 차등 지원 등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군 공무원: 인증 기간은 2년 정도,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그 후에는 기관에서 (지자체 포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로는 프로그램 예산 차등지급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K구 공무원: 인증평가 기준을 설정해 평가한 뒤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기간은 2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하되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로서 프로그램운영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N시 공무원: 선행조건으로 예산 지원과 관련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예산 자급률 높은 지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로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별도 지원이 좋을 것이다. 인증 기간은 2년 정도로 인증 비용은 위탁 단체가 부담해야 책임성이 높아 질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은 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나중에 중앙 정부가 지원 예산 지원 보강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인증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데 유의할 점으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의 지속성, 기준의 공정성, 인증 비용 납부 방안, 시범 운영 방안 등이 요구되었다.

S시 공무원: 인증 지속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인증 기준의 공정성, 당시 상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사후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인증 후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약간은 향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기간은 2년 정도로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별 특성 반영과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및 인력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중앙정부의 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B시 공무원: 인증제가 실시되면 지역 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인증 뒤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인센티브 방법은 개보수비 포함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증제가 실시되면 인증 기준에 맞춰서 시설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수반 되는 예산이 부담됩니다. 아마 그래서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CW시 공무원: 인센티브 방법으로는 격려금 인센티브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법도 좋지만, 자격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아예 기준 미달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태로는 시설들이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이미 개설된 기관들을 폐쇄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인증제의 기간은 2년 정도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증제가 실시되면 현장에서 업무부담 과중될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K시 공무원: 경제 원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인증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한다면 반드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설 위탁 기간 2-3년 정도로, 특별한 언급 없으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니까 인증제도 길면 2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매년 인증을 새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는 예비 평가 기간을 운영하여 평가 비용 및 기타 사항들을 점검한 뒤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인증제의 중요성이나 시설 질 제고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현장의 태도가 많이 좌우된다는 부분과 관련이 깊다. 또한 인증 평가지표 개발 시 지도사나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증평가항목에 있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시설별로 지표를 개발하고 수련시설의 특징이 들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D시 공무원: 인증 되는 시설에는 20퍼센트 예산 증액 등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기관장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면 기관장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밑의 직원들도 따라 갑니다. 평가 지표도 시설 종사자들이나 관계공무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잘 개발해야 하고, 인증 평가 항목의 독창성 필요합니다. 또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평가 지표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정책관련

청소년정책의 중요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경중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에 따라 일정정도의 청소년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연계 공조가 중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 시 지자체 의견수렴절차 필요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CW시 공무원: 시설 활성화 방안은 역시 돈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사람들의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해주고, 지도 인력도 확보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시설관련

청소년시설의 건립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지역성을 반영하고 창의성이 드러난 수 있도록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내부의 인테리어도 청소년들의 욕구 및 활동 내역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마인드가 시설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S시 공무원: 시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련 시설 설계

시에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설이 한 번 건설되고 나면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기초 설계를 할 때부터 인테리어까지 여러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활동도 생각해서 시설을 건립하려면 설계 전부터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친편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 개성을 살린 수련 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군 공무원: 수련시설 활성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예산 관련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서울/경기도 지역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수련 시설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NS시 공무원: 어떤 제도보다도 기관단체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 기관들의 협력과 직영운영 시 잔 업무들을 줄여주는 등 우선 현재 업무 진행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3) 청소년지도인력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부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수체계도 잡혀있지 않고 급여도 낮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 및 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직무관련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서울 K구 공무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보수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직률도 높은 편이고요.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부서와 비교해 봐도 이쪽의 보수가 낮은 편이더군요. 청소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시 공무원: 보수체계의 통일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데에 반해 청소년 시설은 봉급 급여 체계부터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종교기관에서 위탁 운영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욱 봉급 수준이 낮은 실

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청소년 담당 공무원(전문직)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방안으로 사회복지 계열 내에서 청소년 분과를 따로 뽑아 청소년 관련 학과 생들의 입학이 좀 더 쉬워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에 청소년 지도사2급 자격증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하는 방안으로요.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처럼 청소년 분야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 뽑을 때 청소년 분야를 따로 뽑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시 공무원: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및 이 분야 관련 근무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수체계가 열악해서 우수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실력 있고 우수한 사람들이 지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에 앞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군 공무원: 중앙의 지도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도 인력 전문 연수 기회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 현재는 예산 때문에 인건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법적 기준인 청소년 지도사 4명 배치하는 것도 준수가 곤란합니다. 인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업무담당직을 전문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4)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어 투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Y군 공무원: 프로그램이 단체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향후에 시설 중심으로 전환을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W시 공무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에 중복 투자 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관행적인 행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요약 및 소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면접조사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정확한 제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이 초기단계에 있고, 이러한 인증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인증제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당시부터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둘째, 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공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정한 운영 예산의 지원, 지도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의지,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의 안정적인 확보,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 등의 수련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이를 실행할 정책수단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인증을 받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인증 방향으로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증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 시 현장 지도자나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규모나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지표개발과 인증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지원체계구축,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에서 인증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정착단계에서 기관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인증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로 지적된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해외연수, 사업예산의 차등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기 시행되고 있는 수련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시설별 사업비 차등 지급의 경우, 시설간 격차만 더욱 커질 뿐 그 피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 위탁기관의 경우 차기 위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대국민 홍보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공공시설인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서비스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섯째, 정책당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단지 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관

이나 문화의 집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 특히 생활권이 위치한 공공수련시설의 경우, 건립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 공공수련시설운영에 대한 제도적·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3. 소결 및 시사점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업무관련 공무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의견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8.3%; 매우:10.8% 필요: 67.5%)이 청소년지도자(75.0%; 매우:10.4%, 필요: 64.6%)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 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지도자는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46.9%),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14.7%),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14.4%),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12.5%), ‘인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5.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47.2%),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으므로’(16.7%),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11.1%), ‘인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8.3%),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5.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도자 면접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련활동인증제 및 수련시설 평가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었다.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현재 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을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소모, 지나친 경쟁유발, 과급효과 미미 등의 이유로 인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면접조사결과에서는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목 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공무원 51.8%, 청소년지도자 47.2%)과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유도를 통한 정책적 효과 제고’(공무원 8.4%, 청소년지도자 7.5%)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청소년지도자에 비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품질 보증을 통한 대외적 신뢰성 확보’(청소년지도자 31.5%, 공무원 31.3%)와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수요자)들의 선택권 확대’(청소년지도자 8.5%, 공무원 6.0%)는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비해 청소년지도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체계에 대한 의견

인증주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는 ‘정부’(청소년지도자:55.0% 공무원:42.2%)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더 높고, ‘정부산하기관’(청소년지도자:32.3% 공무원:34.3%)과 ‘민간기관’(청소년지도자:9.4% 공무원:21.7%)이 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60.3%, 공무원 52.4%)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면,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30.0%, 공무원 33.7%)과 ‘지방자치단체추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자 7.9%, 공무원12.0%)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40.2%),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3.0%), ‘영역별 부문인증’(2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47.0%),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28.3%), '영역별 부문인증'(24.1%) 순으로, 청소년은 '영역별 부문인증'(38.4%),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37.6%),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11.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방식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포괄적 인증방식'(50.0%), '등급부여 인증방식'(47.7%)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등급부여 인증방식'(62.7%), '포괄적 인증방식'(35.5%)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효기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3년'(59.0%), '4년'(18.3%), '2년'(16.9%),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3년'(57.2%), '2년'(24.7%), '4년'(12.0%)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면접조사결과에서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증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3년 정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면접조사결과에서는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증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 시 현장 지도자나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규모나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지표개발과 인증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지원체계구축,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인증재원(의무인증 시) 청소년수련시설의무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은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76.7%, 공무원 62.7%)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 15.2%, 공무원 34.3%)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면접조사결과에서는 수련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인증재원(자율인증 시) 자율신청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재원 부담은 '인증주체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44.9%, 공무원 32.5%),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청소년지도자 40.0%, 공무원 36.7%)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증신청시설에서 모두 부담'(청소년지도자 5.2%, 공무원 24.7%)해야 한다는 인식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필요성 및 주기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89.0%)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0.4%)은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받은 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주기는 ‘연1회’(공무원 60.4%, 청소년지도자 51.4%)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년에 1회’(청소년지도자 27.6%, 공무원 25.5%), ‘3년에 1회’(청소년지도자 17.8%, 공무원 12.8%)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비용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적정비용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41만원이상’(27.4%), ‘21~30만원’(26.4%), ‘20만원 이하’(23.0%), ‘31~40만원’(21.3%)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20만원이하’(32.5%), ‘21~30만원’(30.7%), ‘31~40만원’(18.7%), ‘41만원이상’(18.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부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준비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활동지도환경개선비’(청소년지도자 62.9%, 공무원 56.0%)라는 응답비율은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설개보수비’(청소년지도자 32.9%, 공무원 38.6%), ‘인증신청비’(청소년지도자 2.0%, 공무원 5.4%)라는 응답비율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기준에 대한 의견

인증절차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91.1%)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92.8%)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신청→자체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현장인증심사→인증심의→인증서발급→사후관리 단계로 이루어진 인증절차(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공통기준’(청소년지도자 3.85, 공무원 3.78)과 ‘개별기준’(청소년지도자 4.05, 공무원 3.92)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인적자원관리’(청소년지도자 4.03, 공무원 3.83), ‘시설운영 및 관리’(청소년지도자 3.97, 공무원 3.87), ‘이용자관리’(청소년지도자 3.87, 공무원 3.70), ‘재정사무관

리(청소년지도자 3.84, 공무원 3.69)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5점 척도)에 대해 ‘프로그램 계획·관리’(청소년지도자 4.00, 공무원 3.93), ‘지역사회관계’(청소년지도자 3.85, 공무원 3.73) 모두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

인증신청 청소년지도자(72.4%)보다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74.1%)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증 신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신청 희망하지 않는 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근무 또는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증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26.2%) 청소년지도자들의 이유로는 ‘인증심사 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28.4%), 인증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1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증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25.9%)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이유로는 ‘인증지원업무에 따른 업무 부담 때문에’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39.5%), 인증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증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43.0%),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32.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18.4%)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활동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43.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신뢰도 증가’(31.9%), ‘인증과정에서의 관리운영체제 개선’(21.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면접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되고 난 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교와의 연계 양상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부분을 살펴본 결과 현재 일선 현장에서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들과 비교적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와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도입하고 난 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입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 여부보다는 이 시설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이용 여부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입 시 고려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시설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체제’(4.34),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33)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4.31), ‘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29)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4.19), ‘적절한 인증기준(지표) 설정 및 적용’(4.16) ‘인증 후의 사후관리체제’·‘인증평가 전문가 확보’(4.11), ‘인증제 목적의 타당성 확보’(3.98)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면접조사결과에서도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되었다. 우수시설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미흡한 시설은 컨설팅을 통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용대상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인증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인증활용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57.6%),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30.7%), ‘운영단체 재위탁시 평가자료로 활용’(9.5%)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49.4%), ‘운영단체 재위탁 시 평가자료로 활용’(2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20.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시설지원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78.4%),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2.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6.1%) 순으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54.2%), '운영단체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24.7%),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가산점 부여'(1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전제조건(인증 받기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대한 의견

시설 재정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자 면접조사결과에서는 새로 건립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던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하거나 지어진지 오래된 시설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건물의 유지 보수가 중요하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면접조사결과에서도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지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함을 지도자 면접조사결과에서 강조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직업 자부심을 갖기 힘들고 이직률도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활동 및 시설운영에 전력투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과 함께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도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처우개선은 공무원 면접조사결과에서도 강조한다.

시설운영예산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정한 운영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공무원 면접조사결과에서 지적한다. 시설운영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이를 실행할 정책수단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이나 학교와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도자 면접조사결과 분석이다.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데 치중하다보면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청소년 면접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와 기능,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 및 주변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지역교육청,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 방안 모색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시사점

이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이 초기단계에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인증신청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운영 예산의 지원, 지도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의지,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의 안정적인 확보,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 등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이를 행할 정책수단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진단이 요구된다. 공공수련시설의 경우, 건립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제도적·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인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합리적·체계적으로 인증과정 전반관리, 인증결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지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기준(지표)은 평가를 받아야 할 항목 자체인 동시에 그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정기준도 이 인증기준이 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인증기준(지표)은 인증체계 구축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충분한 연구기간과 시범기간을 확보하여 인증기준(지표)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섯째, 인증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을 받은 후 인증상태에 맞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행·재정 지원, 교육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인증 기간 중에 기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규칙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인증결과 활용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활동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의 연계방안 모색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인증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홍보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측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준비하고,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기간을 두어야 한다.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제 5 장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안) 관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
2.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제 5 장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안) 관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는 청소년수련시설관련전문가(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관련기관 관계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다. 45부 중 회수된 42부(학계 9부(21.4%), 관련기관 12부(28.6%), 청소년수련관 11부(26.2%), 청소년문화의집 10부(23.8%)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표 V-1 **조사대상**

		사례수	비율(%)
전문가집단	청소년관련학계	9	21.4
	청소년관련기관	12	28.6
	청소년수련관	11	26.2
	청소년문화의집	10	23.8
계		42	100.0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시 ① 필요성, 개념, 목적 진술에 대한 적절성 ② 운영유형의 적절성 ③ 인증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④ 인증방식 및 주체의 적절성 ⑤ 인증절차(안)의 적절성 ⑥ 인증기준(안)의 적절성 ⑦ 인증기준 영역 및 하위영역의 적절성 ⑧ 인증제 도입 및 학교 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 ⑨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⑩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조사항목은 인증제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분석을 기초로 구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안면타당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성된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V-2 조사영역

조사영역	세부항목
인증제 관련 개념	○ 인증제도입의 필요성, 인증제 개념, 인증제 목적 진술의 적절성
인증제 유형	○ 인증유형의 적절성
인증대상 및 방식	○ 인증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 인증방식 및 주체의 적절성
인증절차 및 기준(안)	○ 인증절차(안)의 적절성 ○ 인증기준(안)의 적절성 ○ 인증기준 영역 및 하위영역의 적절성
기 타	○ 인증제 도입 및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 ○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지원방안 ○ 인증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2) 조사결과

(1) 인증제 도입 필요성 기술에 대한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되 앞으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여 평가하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정책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기술한 것에 대한 적절성(3점 척도)은 평균 2.29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필요성 기술에 대한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청소년관련학계	9	2.33	.707	.263
청소년관련기관	12	2.42	.793	
청소년수련관	11	2.18	.751	
청소년문화의집	10	2.20	.632	
계	42	2.29	.708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기술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시설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인 자체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자문과 교육이 진행됨으로써'라는 부분 추가 필요 ② 재정 투자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 더 분명한 ③ 수요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신뢰도 증진 추가 필요 ④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되'라는 것은 과거의 실적이 인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⑤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이라는 표현은 모호함. 향후()년간 운영시스템의 운영력을 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으로 수정 필요 ⑥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련시설 내 체계적인 업무 체제 정비 및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내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의 운영 체제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통한 청소년활동(시설) 관련 정책서비스의 품질 제고 포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증제 개념에 대한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개념에 대해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의 경영 전반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검증된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한 적절성은 평균 2.43으로, 전문가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개념 기술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청소년관련학계	9	2.56	.726	.296
청소년관련기관	12	2.50	.674	
청소년수련관	11	2.36	.809	
청소년문화의집	10	2.30	.483	
계	42	2.43	.668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제 개념 기술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표준적 기준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점검한 내용들을 심사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검증과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검증된 청소년시설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좀 더 풀어 써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② 증명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수정 ③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검증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심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충족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수정 ④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의 경영 전반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설정하고 그 수준을 인증지표처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 ⑤ 검증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으로 수정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3) 인증제 도입 목적에 대한 적절성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의 목적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둠'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한 적절성은 평균 2.43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V-5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목적에 대한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청소년관련학계	9	2.67	.500	.570
청소년관련기관	12	2.42	.669	
청소년수련관	11	2.27	.786	
청소년문화의집	10	2.40	.699	
계	42	2.43	.668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제 도입 목적 기술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와 교육, 자문만이 아니라 수련시설의 미션, 비전, 안전, 위생, 환경, 지도력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질적, 양적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야 함 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인증시설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진학 및 진로지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둠 ③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공공성 담보에 필요한 일정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둠 ④ 품질의 우수기준을 제시하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둠 ⑤ 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시설 경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자문을 통해로 구체화하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임 ⑥ 수행하는을 제공하는으로 변경, 교육 및 자문에 지원의 개념을 추가 ⑦ 전체적인 품질보다 전반적인 품질이 적절 ⑧ 자문이라는 의미에 지원이 포함되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지원의 개념도 포함되었으면 함 ⑨ 인증제의 주목적 대상은 청소년이라는 내용이 적절하게 적용되었으면 함(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자문을 통해 발달되어져 가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4) 인증제 도입 시 운영유형의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시 운영유형으로서의 적절성은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인증제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하위유형으로의 운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인증제로의 운영(2.17)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하위유형으로의 운영(1.83)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문가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운영유형으로서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인증제로 운영	청소년관련학계	9	2.00	1.118	2.266
	청소년관련기관	12	2.08	.793	
	청소년수련관	11	2.73	.467	
	청소년문화의집	10	1.80	1.033	
	계	42	2.17	.908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하위유형 운영	청소년관련학계	9	2.11	.928	.849
	청소년관련기관	12	1.83	.937	
	청소년수련관	11	2.00	1.000	
	청소년문화의집	10	1.40	1.350	
	계	42	1.83	1.057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제 도입 시 운영유형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인증제,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이용청소년들에게 보다 어필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너무 복잡해질 수 있음 ②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설립목적과 기능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수련시설유형별 인증을 할 경우 유형별 인증기관, 인증기준, 인증위원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인증제로 운영할 경우 시설크기에 따른 인증표준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따름(현재 유형구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의 규모(기준 1,5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최대기준으로 포괄하고 있으므로 크기에 따른 운영력 등 경영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임) ④ 청소년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청소년시설인증제’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인증기관, 인증기준, 인증위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며, 혼란을 피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내용이 다를 경우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5) 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의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시 인증 대상의 적절성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무인증),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자율인증),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추천인증)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2.36), 모든 청소년수련시설(1.81),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1.43)순으로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모 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관련학계	9	1.56	.726	.505
	청소년관련기관	12	2.00	.953	
	청소년수련관	11	1.91	.831	
	청소년문화의집	10	1.70	1.059	
	계	42	1.81	.890	
인 증 신 청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관련학계	9	2.78	.667	.880
	청소년관련기관	12	2.25	.866	
	청소년수련관	11	2.27	1.009	
	청소년문화의집	10	2.20	.919	
	계	42	2.36	.879	
지 방 자 치 단 체 추 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관련학계	9	1.56	.527	.481
	청소년관련기관	12	1.33	.492	
	청소년수련관	11	1.27	.905	
	청소년문화의집	10	1.60	.966	
	계	42	1.43	.737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공공청소년시설의 경우 의무인증으로 질적 향상을 통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민간시설의 경우는 자율인증으로 경쟁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의무인증은 공공성에는 적합하나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 필요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담보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위상 제고(국민적 인식)를 위해서라도 자율인증보다는 의무인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④ 시설 간 운영방식이나 운영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의무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⑤ 공공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시설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 받도록 해야 함 ⑥ 자율인증으로 할 경우 참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⑦ 자율인증인 경우 우수운영시설에 국한하여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운영수준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임 ⑧ 지자체에서 추천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반영해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의무인증으로 해야 함 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 단,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지원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추천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⑩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증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독립적 운영 기능 저하와 자발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우 지역에 따라 편중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⑪ 자율인증 신청기간(2년)을 두어 인증기관에는 다소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후 의무인증을 전면 실시 ⑫ 시설종합평가와의 통합을 통한 의무인증이 바람직함 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의무인증(2012년도 평가 후 인증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으로 나타났다.

(6) 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의 적절성

인증범위의 적절성은 영역별 부문인증과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2.57)이 영역별 부문인증(1.67)보다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영역별 부문인증	청소년관련학계	9	2.00	.866	2.344
	청소년관련기관	12	1.58	.900	
	청소년수련관	11	2.00	1.000	
	청소년문화의집	10	1.10	.738	
	계	42	1.67	.928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	청소년관련학계	9	2.44	.726	.254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669	
	청소년수련관	11	2.55	.688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57	.630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영역별 부문인증은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특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증자체의 위계 설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수요자 입장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큼 ② 현재 프로그램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인증은 업무 일체에 대한 포괄적 인증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임 ③ 정착단계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 종합인증 시행 바람직(시설부분/기반부분/행정부분) ④ 최소한의 인증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인증조건은 시설, 경영, 프로그램 전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⑤ 서비스 내용별 부문인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방향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로, 역량(역량이면 무슨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는 내용을 가졌는지 등), 시민성 등 내용별 부문인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⑥ 인증기준의 자체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여 모든 영역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종합인증이 적절함 ⑦ 영역별 부문인증은 공급자중심의 인증제로 판단됨 등으로 나타났다.

(7) 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의 적절성

인증방식의 적절성은 포괄적 인증방식과 등급부여 인증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포괄적 인증방식은 최적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급부여 인증방식은 운영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등급부여 인증방식(2.57)이 포괄적 인증방식(1.67)보다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등급으로 서열화하기보다 표준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 인증방식이 적절하나 최적 인증기준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 인증기준의 수준 및 유형을 몇 가지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② 포괄적 인증방식에서 인증/불인증 만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③ 등급 구분은 필요하고 차기 신청 시 등급 상승도 고려할 문제임 ④ 시설부분/기반부분/행정부분의 공통적 인증의 경우 포괄적 인증이 가능하지만 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질적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나 등급별 인증방식으로 질적 향상 도모 ⑤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면 등급부여인증방식이 더 적절함 등으로 나타났다.

표 V-9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포괄적 인증방식	청소년관련학계	9	2.00	.866	2,344
	청소년관련기관	12	1.58	.900	
	청소년수련관	11	2.00	1.000	
	청소년문화의집	10	1.10	.738	
	계	42	1.67	.928	
등급부여 인증방식	청소년관련학계	9	2.44	.726	.254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669	
	청소년수련관	11	2.55	.688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57	.630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8) 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의 적절성

인증주체에 대한 적절성은 정부, 정부 산하기관, 민간단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2.02), 정부 산하기관(1.98), 민간(1.38) 순으로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주체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내외적 인정과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② 공신력은 우수하나 행정 중심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음 ③ 전문성 측면이나 신뢰성 측면, 그리고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산하기관이 위임받아 전문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④ 인증업무의 실무는 정부산하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인증증명서는 관련부처에서 주는 것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⑤ 인증부여 주체는 국가가 되지만, 운영은 위임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⑥ 시설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하여 영국처럼 다양한 인증주체가 있는 것이 서로 경쟁도 되고 인증별 특성화도 될 수 있음. 인증주체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제시도 필요함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정부	청소년관련학계	9	1.78	1.202	1.811
	청소년관련기관	12	1.67	.985	
	청소년수련관	11	2.55	.820	
	청소년문화의집	10	2.10	.876	
	계	42	2.02	1.000	
정부 산하기관	청소년관련학계	9	2.22	1.093	1.383
	청소년관련기관	12	2.33	1.073	
	청소년수련관	11	1.55	.934	
	청소년문화의집	10	1.80	1.033	
	계	42	1.98	1.047	
민간기관	청소년관련학계	9	1.33	.866	2.652
	청소년관련기관	12	1.83	.835	
	청소년수련관	11	1.00	.447	
	청소년문화의집	10	1.30	.675	
	계	42	1.38	.764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9) 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안)의 적절성

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증단계, 각 단계별 활동내용, 각 단계별 소요기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증단계는 5단계(1단계: 인증신청, 2단계: 인증시설개선, 3단계: 현장실사, 4단계: 인증심의, 5단계: 인증확정)와 중간에 이의신청과정, 그리고 마지막 사후관리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① 인증단계에 대한 적절성

인증단계 각 단계에 대한 적절성(3점 척도)은 1단계: 인증신청(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단계: 인증확정(2.69), 3단계: 현장실사(2.67), 이의신청(2.67), 4단계: 인증심의(2.64), 사후관리(2.57), 2단계: 인증시설개선(2.45)의 순으로 나타나 인증단계의 구분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표 V-11 인증절차(안)의 인증단계에 대한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1단계: 인증신청	청소년관련학계	9	3.00	.000	.881
	청소년관련기관	12	2.67	.651	
	청소년수련관	11	2.55	.934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71	.636	
2단계: 인증시설개선	청소년관련학계	9	2.89	.333	1.125
	청소년관련기관	12	2.42	.793	
	청소년수련관	11	2.27	1.104	
	청소년문화의집	10	2.30	.823	
	계	42	2.45	.832	
3단계: 현장실사	청소년관련학계	9	3.00	.000	1.207
	청소년관련기관	12	2.75	.452	
	청소년수련관	11	2.45	1.036	
	청소년문화의집	10	2.50	.850	
	계	42	2.67	.721	
이의신청	청소년관련학계	9	3.00	.000	1.575
	청소년관련기관	12	2.75	.452	
	청소년수련관	11	2.36	1.027	
	청소년문화의집	10	2.60	.699	
	계	42	2.67	.687	
4단계: 인증심의	청소년관련학계	9	3.00	.000	2.233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669	
	청소년수련관	11	2.27	1.009	
	청소년문화의집	10	2.80	.422	
	계	42	2.64	.692	
5단계: 인증확정	청소년관련학계	9	3.00	.000	.955
	청소년관련기관	12	2.50	.798	
	청소년수련관	11	2.64	.924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69	.680	
사후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78	.441	.268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669	
	청소년수련관	11	2.45	1.036	
	청소년문화의집	10	2.50	1.080	
	계	42	2.57	.831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단계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시설개선(2단계) 후 인증신청(1단계) 하는 것이 더 적절함 ② 현장실사(3단계) 먼저 실시한 후 시설개선(2단계)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함 ③ 시설개선보다는 시설자체점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④ 시설개선은 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간이 지체된다는 측면에서는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함 ⑤ 이의신청은 4단계(인증심의)와 5단계(인증확정)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 이의신청 또는 피드백은 인증기준 충족 시까지 이루어져야 함 ⑦ 인증확정단계(5단계)는 인증심의단계(4단계)로 통합 가능함 ⑧ 인증신청 - 컨설팅 - 현장실사 - 이의신청 - 인증심의 (인증, 불인증, 조건부인증) - (조건부인증 시설에 한해 인증시설 개선) - 인증확정 (인증, 불인증) 단계로 수정 필요함 등으로 나타났다.

② 활동내용에 대한 적절성

인증절차(안)의 각 단계별 활동내용에 대한 적절성은 5단계: 인증확정(2.57)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단계: 인증신청, 3단계: 현장실사, 사후관리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2.52), 이어서 이의신청과 4단계: 인증심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2.48).

표 V-12 청소년수련시설 절차(안)의 활동내용에 대한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1단계: 인증신청	청소년관련학계	9	2.89	.333	1.544
	청소년관련기관	12	2.17	1.115	
	청소년수련관	11	2.45	.934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52	.833	
2단계: 인증시설개선	청소년관련학계	9	2.89	.333	1.525
	청소년관련기관	12	2.17	1.115	
	청소년수련관	11	2.27	1.009	
	청소년문화의집	10	2.60	.516	
	계	42	2.45	.861	
3단계: 현장실사	청소년관련학계	9	2.78	.441	.676
	청소년관련기관	12	2.25	1.138	
	청소년수련관	11	2.55	.934	
	청소년문화의집	10	2.60	.699	
	계	42	2.52	.862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이의신청	청소년관련학계	9	2.89	.333	.771
	청소년관련기관	12	2.33	1.155	
	청소년수련관	11	2.45	.934	
	청소년문화의집	10	2.30	1.059	
	계	42	2.48	.943	
4단계: 인증심의	청소년관련학계	9	2.89	.333	.902
	청소년관련기관	12	2.25	1.138	
	청소년수련관	11	2.36	.924	
	청소년문화의집	10	2.50	.972	
	계	42	2.48	.917	
5단계: 인증확정	청소년관련학계	9	2.89	.333	1.338
	청소년관련기관	12	2.17	1.193	
	청소년수련관	11	2.64	.924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675	
	계	42	2.57	.887	
사후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78	.441	1.617
	청소년관련기관	12	2.08	1.165	
	청소년수련관	11	2.55	.934	
	청소년문화의집	10	2.80	.632	
	계	42	2.52	.890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단계별 활동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자체점검과정에 자체점검위원회 구성(관장, 직원, 이용자(청소년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② 인증기준 충족 시까지 컨설팅과 피드백이 계속(또는 일정 정도, 예컨대 3회) 진행되어야 함 ③ 시설장인터뷰는 현장실사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함 ④ 사후관리의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 ⑤ 시설 개선계획서 보다는 신청서에 인증신청기준에 관한 자체평가서를 포함해야 함 ⑥ 인증신청하는 시설의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므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음 ⑦ 사후관리단계에서 기준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인증취소가 가능하여야 하며, 인증기간 중 기관장 및 위탁단체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등으로 나타났다.

③ 인증절차 각 단계별 소요기간에 대한 적절성

인증절차(안)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에 대한 적절성 분석 결과, 4단계: 인증심의(2.64)의 기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단계: 인증확정(2.55), 1단계: 인증신청(2.52), 3단계: 현장실사(2.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후관리(2.36), 이의신청(2.24), 2단계: 인증시설개선(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3 인증절차(안)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에 대한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1단계: 인증신청	청소년관련학계	9	2.56	1.014	.122
	청소년관련기관	12	2.42	.996	
	청소년수련관	11	2.64	.809	
	청소년문화의집	10	2.50	.707	
	계	42	2.52	.862	
2단계: 인증시설개선	청소년관련학계	9	2.22	.833	.030
	청소년관련기관	12	2.17	.937	
	청소년수련관	11	2.18	.982	
	청소년문화의집	10	2.10	.876	
	계	42	2.17	.881	
3단계: 현장실사	청소년관련학계	9	2.56	1.014	.202
	청소년관련기관	12	2.42	.900	
	청소년수련관	11	2.64	.674	
	청소년문화의집	10	2.40	.699	
	계	42	2.50	.804	
이의신청	청소년관련학계	9	2.56	1.014	1.298
	청소년관련기관	12	2.50	.905	
	청소년수련관	11	2.00	1.095	
	청소년문화의집	10	1.90	.738	
	계	42	2.24	.958	
4단계: 인증심의	청소년관련학계	9	2.56	1.014	.378
	청소년관련기관	12	2.50	.905	
	청소년수련관	11	2.82	.603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64	.759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5단계: 인증확정	청소년관련학계	9	2.44	1.014	.621
	청소년관련기관	12	2.33	.985	
	청소년수련관	11	2.73	.647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55	.803	
사후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44	1.014	.784
	청소년관련기관	12	2.00	1.128	
	청소년수련관	11	2.55	.934	
	청소년문화의집	10	2.50	.707	
	계	42	2.36	.958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인증절차(안)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자체점검 및 컨설팅 결과 당해 연도에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년도에 인증절차를 재 시행하여 바로 현장실사 단계로 직행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② 2단계는 자율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임 ③ 2개월 정도로 개선이 가능한 시설에 한해 인증(4개월의 경우 너무 장기화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요인 발생) ④ 이의신청기간 10일 이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 ⑤ 3년간 사후관리는 소모적이므로 필요시 사후관리 실시 ⑥ 전체 인증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하는 것이 준비하는 데 있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⑦ 인증시설개선은 2개월로 하고 불가능한 시설은 차기년도로 이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후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⑧ 2단계 4개월을 2개월로 하고 현장실사 결과 조건부인증 시설에 한해서만 개선기간(4개월) 을 두는 것으로 제안함 ⑨ 인증시설개선 기간을 2개월로 축소, 전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함 등으로 나타났다.

(10) 인증기준 영역 및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① 인증기준 영역 구분에 대한 적절성

인증기준 영역은 각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공통기준(경영관리지표)과 시설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개별기준(프로그램서비스지표)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기준영역(2.43)이 개별기준영역(2.38)보다 적절성(3점 척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준 영역 구분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라는 영역구분이 어색함. 차라리 경영관리 영역과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것임 ② 프로그램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도 내용상으로는 모든 시설에 공통적인 요소임. 개별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4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기준 영역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공통기준	청소년관련학계	9	2.56	.527	.658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515	
	청소년수련관	11	2.36	.924	
	청소년문화의집	10	2.20	.789	
	계	42	2.43	.703	
개별기준	청소년관련학계	9	2.44	.726	.107
	청소년관련기관	12	2.42	.669	
	청소년수련관	11	2.27	.905	
	청소년문화의집	10	2.40	.699	
	계	42	2.38	.731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② 공통기준의 하위영역 구분에 대한 적절성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3점 척도)은 크게 경영관리와 시설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경영관리 부문에는 청소년참여, 계획수립/평가, 인적자원관리, 리더십을 포함하였고, 시설관리 부문에는 시설관리, 정보·문서관리, 재정·회계관리, 지역사회관계관리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기준의 하위영역 중 계획수립/평가(2.71) 영역이 적절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부문은 계획수립/평가(2.71), 인적자원관리(2.60), 리더십(2.55), 청소년참여(2.52)의 순으로, 시설관리 부문은 시설관리(2.64), 정보·문서관리(2.60), 재정·회계관리(2.55), 지역사회 관계관리(2.40)의 순으로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공통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경 영 관 리	청소년 참여	청소년관련학계	9	2.67	.500	.408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669	
		청소년수련관	11	2.36	.674	
		청소년문화의집	10	2.50	.707	
		계	42	2.52	.634	
	계획수립/평가	청소년관련학계	9	2.78	.441	.392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669	
		청소년수련관	11	2.73	.467	
		청소년문화의집	10	2.80	.422	
		계	42	2.71	.508	
	인적자원 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78	.441	.576
		청소년관련기관	12	2.48	.669	
		청소년수련관	11	2.64	.505	
		청소년문화의집	10	2.40	.843	
		계	42	2.60	.627	
	리더십	청소년관련학계	9	2.78	.441	1,988
청소년관련기관		12	2.75	.452		
청소년수련관		11	2.36	.505		
청소년문화의집		10	2.30	.823		
계		42	2.55	.593		
시 설 관 리	시설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44	1.014	.480
		청소년관련기관	12	2.67	.651	
		청소년수련관	11	2.82	.405	
		청소년문화의집	10	2.60	.699	
		계	42	2.64	.692	
	정보·문서 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33	1.118	.773
		청소년관련기관	12	2.75	.452	
		청소년수련관	11	2.55	.522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60	.665	
	재정·회계 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33	1.118	.835
		청소년관련기관	12	2.75	.452	
		청소년수련관	11	2.36	.924	
		청소년문화의집	10	2.70	.483	
		계	42	2.55	.772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지역사회 관계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33	1.118	.185
	청소년관련기관	12	2.42	.669	
	청소년수련관	11	2.55	.688	
	청소년문화의집	10	2.30	.823	
	계	42	2.40	.798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공통기준의 하위영역 중 경영관리영역에 대한 기타의견은 ① 경영관리와 시설관리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나 두 개 영역으로 구분함에 따라 전체 내용을 대표하지 못함. 공통영역을 경영관리/조직 및 인력관리/운영관리/시설관리로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하였으면 함 ② 청소년참여에서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공간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함. 특히 청소년들의 자치 조직은 시설의 핵심가운데 핵심임 ③ 계획수립/평가에 경영이념, 사명, 목표, 전략, 과제 등 경영정책 수립 항목 추가 ④ 인적자원관리보다 조직관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임 ⑤ 인적자원관리의 경우 기본법에 명시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⑥ 의무(보수)연수와 전문연수 교육기회 제공과 참여 정도 추가 ⑦ 제시된 자원봉사자나 실습생 활용은 정확한 근거를 찾거나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변동적인 것으로 심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음. 자원봉사자나 실습생 활용은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외부자원 연계 노력 항목으로 들어갔으면 함 ⑧ 리더십을 지표(수치)로 계산한다는 것은 무리임 ⑨ 재단임원, 공단임원, 시설장의 청소년 관련 전문성 확인 척도 포함 ⑩ 경영관리 영역에 예산관리를 추가하고 인증기준 내용에 예산확보방안 및 청소년사업예산 비율 등 추가 등으로 나타났다.

공통기준의 하위영역 중 시설관리영역에 대한 기타의견은 ① 청소년시설로서 필요한 공간 확보와 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으로 하위 영역을 구분하였으면 함 ② 정보·문서관리영역은 경영관리영역에 더 적합함 ③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제시를 통한 지원 필요하며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유도(종합관리) ④ 지역사회관계관리에서 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학교연계 항목 추가 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시설관리영역보다 경영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음 등으로 나타났다.

③ 개별기준의 하위영역 구분에 대한 적절성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3점 척도)은 크게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부문에는 청소년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매뉴얼 관리,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서비스 부문에는 홍보, 직원의 태도, 이용자 권리보호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기준의 하위영역 중 홍보(2.50) 영역이 적절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적절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청소년프로그램 관리(2.40), 프로그램매뉴얼 관리(2.38), 사회적프로그램 참여(2.26)의 순으로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홍보(2.50), 이용자 권리보호(2.36), 직원의 태도(2.29) 순으로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부분의 프로그램매뉴얼 관리 영역은 청소년관련기관과 청소년수련관지도자들이 청소년문화의집지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별기준의 하위영역 중 프로그램영역에 대한 기타의견은 ① 프로그램영역은 서비스영역보다 가중치를 더 주어야 함 ②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 보다는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참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함 ③ 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함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준의 하위영역 중 서비스영역에 대한 기타의견은 ① 서비스 영역은 공통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좋음 ② 홍보영역에서 온라인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특히 SNS 활용을 통한 실질적 참여가 일어 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경영관리부분에 적합함 ③ 직원의 태도는 직원의 서비스로 명칭 변경 필요하며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 내포 ④ 이용자 권리보호는 이용자 편의 및 권익 보호로 명칭 변경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6 개별기준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성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프 로 그 램	청소년 프로그램 관리	청소년관련학계	9	2.33	.866	.480
		청소년관련기관	12	2.33	.778	
		청소년수련관	11	2.64	.505	
		청소년문화의집	10	2.30	.823	
		계	42	2.40	.734	
	청소년 매뉴얼 관리	청소년관련학계(1)	9	2.33	.726	3.919* (2),(3)(4)
		청소년관련기관(2)	12	2.58	.515	
		청소년수련관(3)	11	2.64	.505	
		청소년문화의집(4)	10	1.70	1.059	
		계	42	2.38	.795	
	사회적 프로그램	청소년관련학계	9	2.33	.866	1.967

		구분	사례수	평균 ¹⁾	표준편차	F
서 비 스	참여	청소년관련기관	12	2.50	.522	
		청소년수련관	11	2.36	.674	
		청소년문화의집	10	1.80	.789	
		계	42	2.26	.734	
	홍보	청소년관련학계	9	2.56	1.014	2.072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669	
		청소년수련관	11	2.82	.405	
		청소년문화의집	10	2.00	.943	
		계	42	2.50	.804	
	직원의 태도	청소년관련학계	9	2.22	.972	1.204
		청소년관련기관	12	2.58	.515	
		청소년수련관	11	2.36	.674	
		청소년문화의집	10	1.90	1.197	
		계	42	2.29	.864	
	이용자 권리보호	청소년관련학계	9	2.33	1.118	1.499
		청소년관련기관	12	2.67	.492	
		청소년수련관	11	2.45	.522	
		청소년문화의집	10	1.90	1.197	
		계	42	2.36	.879	

1) : 부적절하다(1), 보통이다(2), 적절하다(3)

(1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및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이상(2.55)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관련 학계가 청소년문화의집지도자보다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평균이상(2.24)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및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

구분		사례수	평균1)	표준편차	F
인증제 도입	청소년관련학계(1)	9	2.89	.333	2,840* (1))(4)
	청소년관련기관(2)	12	2.58	.515	
	청소년수련관(3)	11	2.55	.688	
	청소년문화의집(4)	10	2.20	.422	
	계	42	2.55	.550	
학교 체험활동과의 연계	청소년관련학계	9	2.33	.866	.362
	청소년관련기관	12	2.25	.965	
	청소년수련관	11	2.36	.809	
	청소년문화의집	10	2.00	.816	
	계	42	2.24	.850	

1) : 불필요하다(1), 보통이다(2), 필요하다(3)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① 시설 이용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청소년활동은 학교체험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하나인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②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 지역사회자원 등을 함께 연계하는 모델 개발을 통한 비예산/저예산사업 개발 절실함 ③ 학교와의 연계보다는 청소년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연계의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함. 앞으로는 대집단 단위의 활동프로그램보다는 소집단 활동들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크기 상으로도 한 학교도 커버해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보다는 가족단위나 소집단체험활동을 보다 전문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④ 학교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시설인증을 홍보한다면 역효과가 우려됨(예: 인증 받지 않은 시설은 학교에서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발생).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 단계에서 법적으로 일정 수준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학교의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 많음 ⑤ 학교체험활동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먼저 재정립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그 역할을 두었으면 함 등으로 나타났다.

(1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을 위해서는 ① 인증제 도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료화 하는 것.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 ② 인증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③ 인증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공하는 것 ④ 인증제 도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시설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와의 명확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⑤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통해 사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중심시설로의 역할 확대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⑥ 인증제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국 또는 조직 설치 및 인증정보시스템 구축 ⑦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⑧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 ⑨ 시설의 기능과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⑩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증기준 및 지표 마련 ⑪ 시범운영과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도입 ⑫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의 통합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3)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는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② 직무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시설경영시스템들이 매뉴얼화 되면 업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과정들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에 따른 적정인원의 배치와 청소년지도사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중심)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제 운영유형은 청소년수련시설유형별인증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운영유형은 청소년수련시설유형별인증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수련시설유형별인증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증대상은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대상은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 순으로 적절성이 높은 낮으로 나타나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의 점진적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인증범위는 종합인증 형태가 적절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범위는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이 영역별 부문인증보다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종합인증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방식은 최적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으로 구분하는 포괄적 인증방식이 운영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등급부여 인증방식보다 적절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증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주체는 정부, 정부 산하기관, 민간 순으로 적절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부가 인증주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섯째, 인증절차는 5단계 2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절차(단계)는 1단계(인증신청)-2단계(인증시설개선)-3단계(현장실사)-이의신청-4단계(인증심의)-5단계(인증확정)-사후관리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인증기준 영역은 공통기준영역과 개별기준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 영역은 각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공통기준과 시설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개별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¹²⁾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의의

(1) 개념적 특성

최근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함께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증은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증명하는 것”(민중서립, 1997)으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KS 인증이나 ISO, HACCP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증의 사례들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이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프로그램 인증과 실적 인증의 사례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나 서울복지재단의 복지시설 인증사업은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인증 시스템 도입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인증을 했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섰음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평가모형 관점에서의 인증은 전문가가 정한 기준을 전제로 하여 이 기준을 인증대상이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증의 기준은 연구,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규정으로 반영이 되고 인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증을 하는 주체나 대상이 민간기관 중심으로 내부적이고 자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시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증하는 인증이거나 정부 차원 또는 정책차원에서 인증이 부여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국가 공인이라는 기준에서는 인증 자체가 하나의 정책이 되며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이나 지침을 공식적으로 갖추기를 요구하게 된다. 인증이 하나의 정책으로서 일정한 법적 기준과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될 때 인증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제도로써 존재하게 된다. 인증제란 인증이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2)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자료집 중 ‘청소년수련관 인증제(안)(김혁진)과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안)(조남익)을 요약·정리한 것임.

여기에서 제도적이라고 할 때 정치, 경제, 가족, 종교제도와 같은 사회제도의 개념도 배경으로 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제도란 법과 운영체계를 제도화의 기반으로 한다. 인증이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로 안착되고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규정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조직, 정책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할 경우 인증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제란 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도적 기반은 법적 근거와 정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스템은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운영체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정책적 관점에서 본 인증제의 필요성 및 의의

인증제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근거는 정책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로 평가의 방향이 확대 또는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미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표자나 사업 담당 운영인력의 변화 문제이다.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담당자의 의지, 역량에 따라서 매우 우수한 수준에서부터 매우 미흡한 수준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 사업이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수준이 담당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면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감소하게 된다. 인증평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되 앞으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정책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인증제의 필요성이 된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인증사업의 경우 인증사업을 “복지시설의 경영 전반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인된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이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울복지재단, 2010). 정책적으로 인증이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인증제의 중요한 특징이나 의의는 과거 지향적 평가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 평가라는 점에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도입의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를 목표와 장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목표를 둔다. 품질의 관리는 협의와 광의가 있다. 협의는 기본적으로 개별 시설이 자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의로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제의 적용은 기존의 수련시설 평가나 시설 컨설팅, 지원 등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확보해나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수요자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이다. 다양한 공급자가 있는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 원하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셋째,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증제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유통을 확대하는 기회가 된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일정 시설 공간을 전제로 하여 시설 자체가 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증을 받았다는 점은 그 과정에서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참여자는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인적자원, 프로그램 자원, 청소년 등 다양한 자원이 유통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기준 및 제도적 기반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기준

다른 평가모형과 마찬가지로 인증평가 모형 또한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의 방향이나 관점, 평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평가절차가 대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청소년수련관이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이든지 평가체계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로 일부 민간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시설에 해당이 된다. 직영체제이든지 민간위탁이든지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지원과 운영관리 시스템이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일반적인 인증평가 절차에 따르게 될 것이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시스템 구축 시 차이가 있는 부분은 평가의 내용과 지표가 되는 인증기준의 내용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적 기준이나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 수준을 진단해야 한다. 특히 기관의 규모와도 관계가 되는데 공간의 규모와 소요 인력의 편차에 따라 인증기준의 요소나 평정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종합적인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인력이나 조직관리, 사업영역의 특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의 품질 관리 체제가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적합한 수준을 갖고 있는지 진단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평가의 요소들은 평가모형이나 절차 체계의 차이가 아니라 인증기준의 영역, 평가요소 및 평정기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수련관 인증제와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가 별개로 존재하기 보다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증대상의 하위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각 하위 유형별로 각 시설의 정체성과 기능, 서비스 특성 및 규모의 편차를 고려하여 인증의 기준을 적합하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2) 제도적 기반: 법제화 및 정책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이 제도화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정책과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른 정책사업도 있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제정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이 법적 근거 없이 정책계획에 포함된 정책사업으로 시행되어도 제도적으로 시행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인증의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담당할 운영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한다. 운영조직에는 행정조직도 필요하며 실제 사업의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과 같은 실무조직도 필요하다. 특히 인증은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의 심사와 협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로 인증위원회와 같은 심의-의결 조직이 필수적이다. 법적 규정만으로 인증 자체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계획에 반영이 되고 실무조직이 설치되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정책과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와 같이 법적 근거, 행정적인 운영 조직, 정책실행 계획에의 반영과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조항의

신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규정중 제17조(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제19조(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조항에 이어 제19조의2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한 시설 중 국가가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서비스 인증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서를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항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였던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은 임의적인 시설 평가 사업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 1992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근거로 삼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을 시범시설로 지정을 하고 3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는 인증평가를 의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절차에는 완전하게 부합하지 못했지만 운영형태나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방식은 인증제의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였다(김혁진, 2011). 그러나 2006년 이후 실시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사업은 이와 다른 일반적인 정책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후 시범청소년수련시설이 지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시행령 제 9조에 해당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부 자구는 수정되었지만 1992년 제정 당시의 규정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V-18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법 규정의 변천

(구)청소년기본법시행령(1992.12.31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2010.8.11일부개정)
제34조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 체육 청소년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 및 수련거리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중에서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시설·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개발원등에서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시설·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

<p>을 담당할 수련시설</p> <p>3. 기타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한다.</p>	<p>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p> <p>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p> <p>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	--

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나 행정조직 체계, 정책계획과 예산에 의한 뒷받침도 중요하나 실제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제도의 완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법적 근거는 단지 법령상에 선언적으로 제시된 것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기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 법령에서의 규정을 근거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 규정과 매뉴얼을 통해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때 인증의 제도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인증평가에 따른 평가는 일회성 종합평가 보다는 인증을 받는 대상 기관의 운영과정을 기획단계부터 분석하고 진단하여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과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인증평가가 단지 기준 충족 여부나 성과 수량을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인증기준의 충족을 통한 품질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의 인증제가 도입이 된다면 어떠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자료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증제 운영의 내용이 아니라 운영내용 개발을 위한

제안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개요

① 운영목표 설정기준

-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적 운영시스템 개선을 기반으로 청소년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의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에 기여

② 인증대상 및 인증범위

- 대상기관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공공 및 민간 포함)
- 인증범위 : 인증범위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인증과 운영영역 중 일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인증 중 종합인증

③ 조직체계

- 인증제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은 여성가족부로 하되 운영 실무는 위탁
- 인증제 운영의 실무는 인증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에 설치
- 국가에서 설립한 정책수행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신력 확보
- 인증사업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의, 인증기준의 제정 및 관리, 인증심사와 인증여부의 판단을 위해 ‘인증위원회’ 설치·운영
- 인증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또는 실무전담 운영기관에 설치·운영
-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소년 및 시설분야, 경영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며 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

④ 평가모형

- 인증평가는 전문성중심 평가모형으로 실시되므로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전문성에 따른 판단을 평가 결과로 인정

- 인증평가 운영과정 측면에서는 인증 신청단계부터 심사종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평가를 통한 정보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컨설팅’ 이루어짐
- 운영과정 측면에서는 정보처리모형에 따른 평가모형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CIPP 모형과 같이 상황-투입-과정-산출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중심, 컨설팅을 연계한 개선 중심의 평가모형을 적용함

(2) 인증기준 체계

① 인증기준의 방향

- 인증기준은 평가를 받아야 할 항목 자체도 인증기준인 동시에 그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정기준도 인증기준이 되므로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음
- 인증기준은 인증평가체계 구축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충분한 연구기간 및 시범기간을 확보하여 인증기준을 개발해야 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의 체계와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인증평가 지표에 활용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갖도록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평정의 기준이나 방향은 인증평가의 취지에 따라 재구성해야 함

② 인증기준의 영역

- 공통기준영역과 개별기준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형태나 지역 여건 등에 따른 차별화된 장점을 반영케 함
- 공통기준지표는 경영목표, 사업운영, 경영관리, 시설관리, 서비스관리(이용자지원), 지역연계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평가기준을 적용함
- 개별기준지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특성화된 영역을 지표화 하여 실제 운영 수준과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함

③ 평가요소 및 개발방향

-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평가요소를 도출하여 필수적인 평가항목 구성
- 인증평가모형에 따른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요소는 계량적 실적 중심의 성과 수준이 아닌 운영의 현재 상태와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④ 평정기준의 적용

- 평정기준은 각 인증기준 영역별로 편제되는 평가요소별로 적용함
- 평정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기준 준수와 미준수로 구분하나 수준의 판단을 위해 등급 기준을 적용함(예: 우수-적정-미흡-불가 등급 등)
- 모든 평가요소마다 적정 이상일 때 각 영역별로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3) 인증기준(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지표’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인 인증기준(지표)은 아래에서 제시하는 2개 지표 6개 영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① 공통기준(지표)

공통기준(지표)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공통기준영역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경영관리’영역은 계획수립 및 평가, 청소년참여,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영역이 포함된다. 경영관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시설의 목적의식과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갖추었는지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탐색하게 된다. 둘째, ‘자원관리’영역은 시설관리, 정보·문서·회계 관리, 지역사회관계 관리가 포함된다. 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대한 전반적인 역량을 확인하게 된다. 셋째, ‘프로그램’영역은 청소년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매뉴얼 관리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영역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역량과 더불어 이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매뉴얼 과정에 대한 준비와 실천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영역은 홍보, 직원의 서비스, 이용자 권리보호로 구성된다.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와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 등은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표 V-19 공통기준 인증요소 및 내용(안)

영역	인증요소	인증기준 내용
경영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적절한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반영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과정평가 포함) 실시
	청소년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이용자와 부모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적극반영
	인적자원관리	적정인력확보,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활용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 지원
	리더십	시설의 목표 실현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 확립
자원관리	시설관리	청소년전용공간 확보, 시설위생관리, 편의시설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
	정보·문서·회계 관리	체계적인 정보·문서관리 재정 및 회계의 투명관리
	지역사회관계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도모,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관리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과정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매뉴얼 관리	프로그램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관리
서비스	홍보	지역의 청소년의 이용절차에 대한 안내 지역 청소년의 참여(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및 대외 홍보실적
	직원의 서비스정신	직원의 친절한 태도와 서비스 정신 청소년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
	이용자 권리보호	청소년 및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청소년 및 가족의 의사 존중

② 개별기준(지표)

개별기준(지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공통기준(지표)와 일부 중복되거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부 내용이나 역할 등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준(지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기준(지표) 중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인증요소는 지역사회연계 및 공헌,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 경영혁신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에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또는 외부 자원 등과의 협력과 지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학교와의 협력관계 및 지역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제도와 정책에 연계된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수련관의 운영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한 실천기구의 운영 등도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지역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을 주요한 인증요소로 볼 수 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의 자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성장의 중요한 기회가 되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내에서 이러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에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자발적 관심과 주체적 참여를 조장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표 V-20 개별기준 인증요소 및 내용(안)

구분	인증요소	인증기준 내용
청소년 수련관	지역사회 연계 및 공헌	지역 청소년시설 내 기관 등과 협력적 관계 모색(허브역할) 대외 협력업무 - 학교 및 지역 내 청소년사업의 확장, 협력기관 모색 등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	각종 제도 및 정책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경영혁신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 개발 수련관 운영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합리적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기구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 연대, 지도자 연계, 공간 제공 등 청소년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변화 참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문제 개선 참여 지원 지역변화에 대한 실천적 노력 지역협의체 운영 및 참여

(4) 인증절차(안)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주어진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인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증절차는 일반적인 기관인증 평가의 절차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으나 연간단위를 기준으로 인증기간을 설정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판단한다. 인증절차는 인증평가모형의 평가방식에 적용되는 과정중심 평가 및 정보 제공을 통한 개선관리 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인증절차과정(1년 단위 인증심사 운영 시)은 다음과 같다.

- ▶ 인증신청서 제출
- ▶ 인증신청서 검토 및 접수/반송
- ▶ 인증심사원 배정 및 기관 연계
- ▶ 기획단계 심사 : 문서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연초 기준)
- ▶ 기획심사 결과 통보 및 개선사항 요구
- ▶ 개선여부 확인 심사 및 보완
- ▶ 과정단계 심사 : 기관의 운영과정 현장방문 평가(정기 또는 수시 방문)
- ▶ 운영과정 확인 내용 통보 및 개선사항 요구
- ▶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 수합 및 평가
- ▶ 기관 운영과정 및 업무처리 시스템 컨설팅(연중)
- ▶ 수련시설 자체의 종합평가 운영에 대한 컨설팅
- ▶ 수련시설에서 연간 종합운영 보고서 제출
- ▶ 성과단계 심사 : 종합심사 및 개선 방안 컨설팅
- ▶ 개선관리 계획 제출 및 확인
- ▶ 인증심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여부 결정
- ▶ 인증결과의 통보 및 인증서 발급
- ▶ 인증서 등록 및 사후관리

① 1단계: 인증신청(인증신청 및 준비)

- 인증신청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함
- 인증신청을 위해 인증제 운영과 준비, 과정에 대한 안내를 위한 인증매뉴얼을 제공함
- 인증을 신청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자체적인 인증준비팀을 구성하고 인증평가에 따른 제반 규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인증신청은 정기신청 및 연중 수시 신청 방법을 적용하되 연간단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함(1월~12월을 기준으로 하되 인정이 될 경우 전체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할 수 있음)

② 2단계: 인증시설개선(컨설팅 및 개선 지원)

- 인증심사를 위해 전문가로 인증심사원을 위촉하여 인증 신청 수련관에 배정함
- 인증평가는 일정 기간 동안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모형으로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함
- ISO 인증과 같이 일정기간동안 컨설턴트가 사전에 업무처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연중 수시 방문 및 컨설팅에 한계가 있으므로 격월 또는 분기 등 정기적인 현장방문 중심 과정평가와 정기컨설팅 체제를 기준으로 운영함

③ 3단계: 현장실사(현장 확인 및 인증과정 시작)

- 현장심사는 심사시작 단계, 운영단계 및 최종 심사단계에 인증심사원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방문하여 심사하며 각종 자료의 현장 확인, 시설의 관리 실태, 이용자들의 이용 형태, 지도자들의 과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관찰을 실시함
- 현장심사를 위한 실사단 구성 및 인증기관(인증심사원 배정)과 사전회의를 통한 심사일정 조정
- 문서심사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자체점검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히 분석되고 계획되었는지를 확인
- 현장심사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자체점검 보고서에 따라 개선에 대한 실천여부를 확인
- 인증심사원들은 심사 후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사무국으로 제출하고 현장 또는 심사 이후에 심사결과를 해당 시설로 피드백 하여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케 함

- 해당기관은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인증사무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④ 4단계: 인증심의(인증심사의 실제)

-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대상에 대한 제출서류와 현장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 면접심사는 평가요소의 특성상 직접적인 면담이 필요할 경우 실시하며 관장 및 직원, 수련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인증심의위원회는 모든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판단

⑤ 5 단계: 인증확정(인증결정 및 통보) 및 사후관리(인증시설의 지속적 관리)

- 인증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함(인증시설)
-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 인증을 취득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대장을 기록하며 인증 취득에 대한 홍보 자료 배포
- 인증서와 함께 인증패를 제공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홍보함
- 인증 받은 수련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인증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심을 받게 함
- 인증 후 인증사무국에서는 수련시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의 현장 확인 실시
- 인증 받은 사항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자체 보고 및 확인 실시
- 인증 이후에 인증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함

제 6 장

정책제안

1. 인증관련 정책현황
2. 정책제안

제 6 장 정 책 제 안

1. 인증관련 정책현황

1) 타 분야 인증관련 정책현황

최근 과학, 정보, 교육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가고 있는 인증제도가 다양한 정책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이유는 정책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평가인증제와 의료기관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도 진행된 상황이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 확대정책에 따라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우려가 높아지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제는 세부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는 수많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11년 1월 24일부터 ‘의료법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IMF 이후 한정된 자원과 그에 따른 공공자원 투입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요구가 증대하였고, 시설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행되었다.

2) 청소년분야 인증관련 정책현황

청소년정책분야에서의 인증제 도입은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실적/성과에 대한 개인 실적 중심 인증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영국의 에딘버러공작포상계획)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인증제는 아니지만 **씨랜드청소년수련원의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전기, 건축 등에 대한 시설별 안전등급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평가**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시작은 2000년부터 (구)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시설평가 방식으로 수행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은 인증 방식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부터 전수조사를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3년을 주기로 평가대상 유형에 따라 순차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는 운영시스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순위제, 등급방식이 적용이 되나 최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평가 또는 일반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한 인증제로 평가의 방향이 확대 또는 전환되는 이유는 과거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미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인증제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되 앞으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정책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평가시스템이 없는 곳 보다는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경우에 더 쉽게 적용이 되고 인증평가 방법이 쉽게 정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즉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인증방식의 평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혁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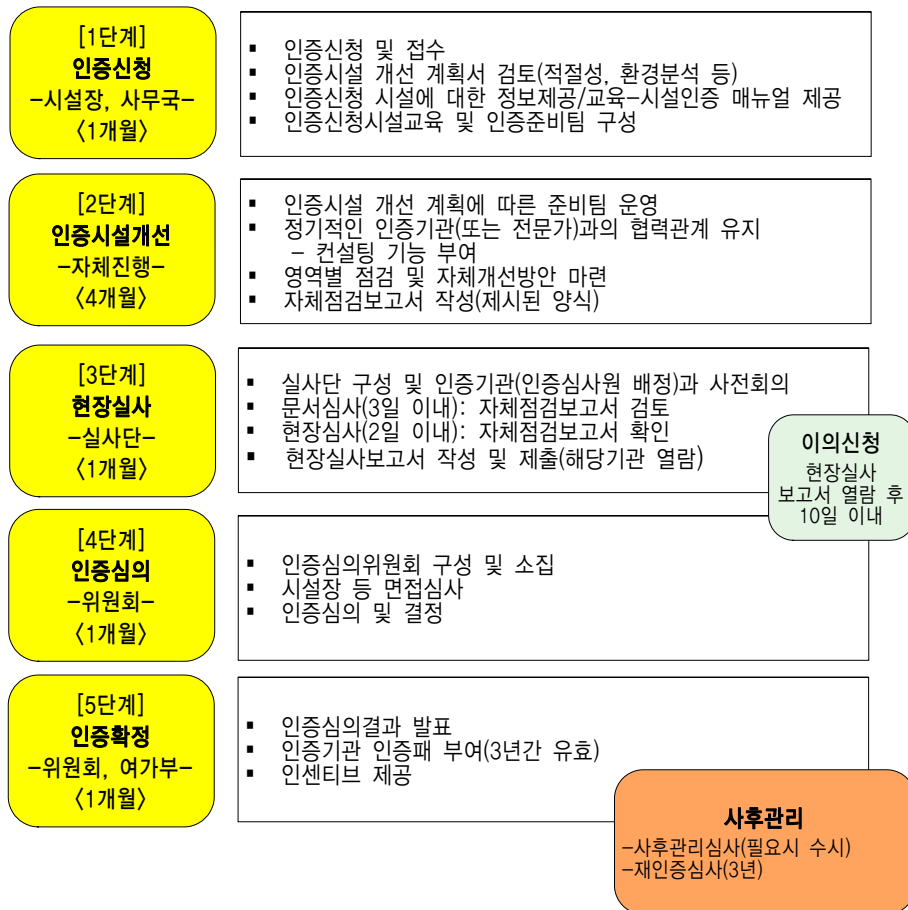
이러한 논의들은 지금이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반영해 주고 있다.

주로 지자체 등에서 설립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의 방식을 다양화 또는 전환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 정책제안

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체계 및 절차

청소년수련시설인증체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는 기관인증으로 **인증주체**는 정부,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전담기구, **인증범위**는 종합인증,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 **인증유효기간**은 3년, **인증재원**은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 적용되어야 하며,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림 VI-1】 인증절차

2)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 중심 제언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얼마나 공공재적 성격을 갖춘 기관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점검과 정책적 보완 및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첫째: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인증제가 도입되고 있는 이유는 정책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인증평가로 평가의 방향이 확대 또는 전환되는 이유는 지나간 과거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미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증제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되 앞으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정책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필요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실행을 위한 다각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목적이 공공예산이 투입된 공공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차원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적인 신뢰도나 참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필요성과 동일한 평가시스템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적용이 될 경우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운영체제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정책담당자와 현장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층에게도 의미 있는 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가 제도화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 확대정책에 따라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우려가 높아지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는 수많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의료기관인증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의료법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정책과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증제가 법적 근거 없이 정책계획에 포함된 정책사업으로 시행되어도 제도적으로 시행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인증의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 제도를 담당할 운영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운영조직에는 행정조직도 필요하며 실제 사업의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과 같은 실무조직도 필요하다. 특히 인증은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의 심사와 협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로 인증위원회와 같은 심의-의결 조직이 필수적이다. 법적 규정만으로 인증 자체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계획에 반영이 되고 실무조직이 설치되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정책과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와 같이 법적 근거, 행정적인 운영 조직, 정책실행 계획에의 반영과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조항의 신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규정중 제17조(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제19조(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조항에 이어 제20조에 청소년수련시설인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였던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사업’은 임의적인 시설평가 사업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 1992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근거로 삼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을 시범시설로 지정을 하고 3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는 인증평가를 의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절차에는 완전하게 부합하지 못했지만 운영형태나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방식은 인증제의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실시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사업은 이와 다른 일반적인 정책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후 시범청소년수련시설이 지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시행령 제 9조에 해당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자구는 수정되었지만 1992년 제정 당시의 규정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규정을 청소년수련시설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인증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에서의 규정을 근거로 구체적인 운영지침, 규정과 매뉴얼을 통해 운영체계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때 인증의 제도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인증평가에 따른 평가는 일회성 종합평가 보다는 인증을 받는 대상 기관의 운영과정을 기획단계부터 분석하고 진단하여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과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인증평가가 단지 기준 충족 여부나 성과 수량을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인증기준의 충족을 통한 품질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운영목표 설정(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적 운영시스템 개선을 기반으로 청소년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의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기능의 강화에 기여 등) ② 인증대상(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공공 및 민간시설 포함) ③ 인증범위(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인증과 운영영역 중 일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④ 조직체계(인증제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인증사업의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의, 인증기준의 제정 및 관리, 인증심사와 인증여부의 판단을 위한 ‘인증위원회’설치·운영 등) ⑤ 평가모형(상황-투입-과정-산출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중심, 컨설팅을 연계한 개선중심의 평가모형 적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불필요하게 거치기보다는, 다소 늦지만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A에서는 1975년 33만 달러의 예산으로 1977년까지 36개월 동안 기관인증체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인증체제(안)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는 기관인증으로 **인증주체**는 정부,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전담기구, **인증범위**는 종합인증,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 **인증유효기간**은 3년, **인증재원**은 인증주체와 시설 공동부담,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지표)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 및 지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뒤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기준은 평가를 받아야 할 항목 자체인 동시에 그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정기준도 인증기준이 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인증기준은 인증체계 구축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충분한 연구기간과 시범기간을 확보하여 인증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의 체계와 전반적인 구성체계를 인증지표에 활용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갖도록 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평정의 기준이나 방향은 인증제의 취지에 따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의 영역은 공통기준영역과 개별기준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형태나 지역 여건 등에 따른 차별화된 장점을 반영케 한다. 공통기준영역은 경영목표, 사업운영, 경영관리, 시설관리, 서비스관리(이용자지원), 지역연계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개별기준영역은 특성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장점을 지표화 하여 실제 운영수준과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단, 개별 영역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증을 신청한 수련시설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요소는 계량적 실적 중심의 성과 수준이 아닌 운영의 현재 실태와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평정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기준 준수와 미준수로 구분하나 수준의 판단을 위해 등급 기준(예: 우수-적정-미흡-불가 등급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모든 평가요소마다 적정 이상일 때 각 영역별로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증기준 영역의 특성이나 평가요소별 특성에 따라 인증기준을 충족한 평가요소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해당 영역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시설의 안전이나 서비스의 효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한다.

다섯째: 합리적인 인증추진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절차는 일반적인 기관인증절차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으나 연간단위를 기준으로 인증기간을 설정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인증평가모형의 평가방식에 적용되는 과정중심평가 및 정보 제공을 통한 개선관리 과정을 기반으로 절차를 구성한다. 인증신청, 자체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선관리, 현장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결정 및 발급관리,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통해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합리적인 인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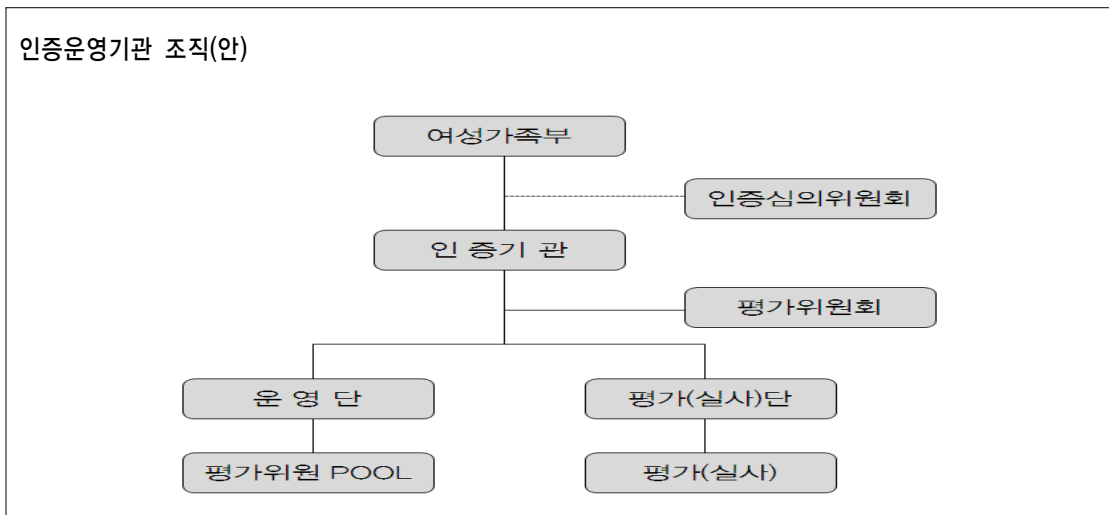
인증추진절차(안)



여섯째: 인증기관(인증전담기구) 구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전담기구의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인증주체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인증주체는 국가차원에서 수행되는 기관인증 방식과 제3자 인증주체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식, 민간의

자율적 기구(협의회/혹은 협회)에 의해 인증 받는 방식이 있지만 현재 청소년분야가 갖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한계, 역량을 감안해 보면 제3자 인증주체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식은 청소년분야에 대한 선이해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인증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이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는 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에 인증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인증과정 전반관리, 인증기준 개발과 조사 실시, 실적 분석과 보고, 조사요원 교육, 각종 의료기관에 대상 평가 통합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접근성, 적절성, 수용성, 연속성, 효과성, 효율성, 민감성, 안정성, 지속성 등 국제인증기구 평가기준으로 갖추어야 할 9가지 원칙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일곱째: 인증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을 받은 후 인증상태에 맞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행·재정 지원, 교육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인증 기간 중에 기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규칙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결과에 기초하여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품질관리단과 유사한 지원강화방안을 수립하여 미흡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지원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화 되어있지 않은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적, 행정적 정부 기준안이 제시되어 운영의 차이점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 사후관리는 인증결과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인증결과에 기초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유인책 개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과정은 시설 종사자들에게 부가적인 업무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증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Berman, 1995; Morrysey and Wandersman, 1995; 박정일, 2008 재인용). 또한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다수 시설들의 인증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인증결과에 따라 시설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재정적 지원이 위주가 되는데, 직접적 재정지원과 간접적 재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재정지원은 서울형데이케어인증제와 같이 인증을 취득한 시설과 종사자들에게 보조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간접적 재정지원은 인증 취득 시설에게 민간의 후원금을 동원하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United Way’ 등 대표적인 기금모금 및 자원배분기관에서 기관 심사를 COA 인증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COA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경우 보다 수월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위탁심사 시 인증시설에 대한 가산점, 비재정적 지원으로 인증취득시설에 대한 홍보, 각종 정부평가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여덟째: 시범기간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 시 예측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준비하고,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기간을 두어야 한다. 과도기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제도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인증제의 전격 도입에 대한 어려움과 반향을 줄일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청소년수련시설장과 실무자 대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도입단계는 현재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그 의의와 목적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그전에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에 대한 사회적 설명과 일반 국민들 대상의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에 있어서는 인증제의 지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에의 참여를 위한 합의의 과정 및 참여에 대한 준비과정을 가질 수 있게 시간적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홉째: 청소년수련시설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증 시스템의 도입은 시설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성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수련시설과 민간수련시설의 특성에 따른 조건을 반영한다. 공공시설은 설립 목적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품질관리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평가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평가를 인증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증이 민간시설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자율적인 민간인증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적용한다면 시설의 입지 여건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방문이용형 시설과 숙박형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증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심형 시설과 자연권형 시설의 특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도심형은 방문형이고 야외형은 숙박형이나 도심의 숙박형 시설의 경우도 있고 자연권형에도 방문이용 중심의 시설이 있을 수 있다. 수요자의 참여 방식도 다르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시설이 갖고 있는 입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시스템의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인증제 도입 대상 시설의 유형 또는 시설 유형별 도입방안을 검토할 때 유용한 기준은 현재의 법적 유형이다.

열째: 청소년수련시설평가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의 통합(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06년도부터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3년 단위의 정기-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체계 자체

가 변화되면서 현재는 결과 통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시설에서 평가결과를 자체적인 개선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후속지원프로그램(평가 이전 또는 이후의 컨설팅 제공 등)이 필요하게 된다. 평가의 목표나 내용, 평가의 결과가 단순한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의 운영에 대한 품질 보장이 가능한 운영시스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인증평가 모형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인증방식은 우수시설의 개념 보다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운영시스템을 갖춘 점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정책적 효율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인증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평가와 인증제 병행에서 오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증결과를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인증제 추진 초기 과정부터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경기가족여성연구원(2009). 경기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연구. 경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 경기복지미래재단(2008). 아동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경기: 경기복지미래재단.
- 경기복지미래재단(2009).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경기: 경기복지미래재단.
- 곽미영(2006). 아동복지시설(국공립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을 위한 기초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3(1), pp.1-25.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대통령보고서(2001. 6. 29).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김미숙 외(2007).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지원 연구(V).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민(201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관련 논의의 초점들. 콜로키움 자료집 11-S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주·김혁진 외(2009). 농업교육 프로그램 인증모델 수립 연구. 경기: 농업인재개발원.
- 김주영(2008).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구성타당도에 관한 연구: 2007년 장애인 생활시설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태(2009). 친환경학교건축프로그램과 인증제도.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6(2), pp. 4-8.
- 김진규(2002). 프로그램 평가방법. 서울: 학지사.
- 김혁진(2011).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 콜로키움 자료집 11-S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모(2010). 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형모(2011).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도입 방향 및 경과: 청소년시설 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 콜로키움 자료집 11-S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정(2008). 사회복지시설인증: 서울복지재단 인증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2008년 봄호, pp. 100-113.
- 박남철(2002). 사회복지관의 효과적 ISO 9000 인증 취득 방안에 관한 연구 - D 종합사회복지관의 ISO 9001 인증 취득 사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민(2009).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200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매뉴얼.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기능 연계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9). 사회복지시설평가 2009(Ⅰ):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09). 2009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2010). 2010의료기관인증기준집(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제 개선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가족부·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2010). 2010의료기관인증기준집(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인증제 도입 및 평가체제 개선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서문희(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청소년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 콜로키움 자료집 11-S2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복지재단(2005).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 미국·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2007). 사회복지관 인증모형개발: 인증지표 및 지침서. 서울: 서울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2009). 장애인복지관 인증모형개발: 인증지표 및 지침서. 서울: 서울복지재단.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2010 여행프로젝트 시설인증평가 보고서.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손광훈(2010).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0). 2010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오해섭 외(2009).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진흥센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의 성과(2003-2008).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윤혜경(2008). 일본의 보육시설 제3자 평가사업에 대한 연구. 한국육아지원학회 3(1), pp. 105-124.
- 이광호 외(1996). 수련거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 외(200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이광호(200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시행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3권 제1호, pp. 39-54.
- 이광호·이태제·윤철경(1999). 학교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전명기(2002). 학교 주 5일제에 대비한 청소년수련활동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대균(2005). 한국과 미국,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비교분석. 유아교육학논집, 9(2), pp. 125-150.
- 이대균(2008). 미국과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25, pp. 25-41.
- 이민희 외(20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방안 연구: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미(2003). 호주 평가인증제 실태 파악 출장보고서: 귀국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이순자(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한·일간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숙·류명석·윤희숙·선화숙(2005). 사회복지시설 인증체제 수립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이지숙·정호원(2005). 국내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기본연구.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서울: 서울복지재단.
- 정기원·유성렬(2001). 사회복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인준제도 도입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4호, pp. 61-87.
- 정원주(2007).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51, pp. 45-64.
- 조영승(1999).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연계의 방향. 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김정주(1999).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의 연계방안. 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최균(2010).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담기구 설치방안.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최재성(1998). 사회복지기관 평가모델개발의 방향과 과제-장애인복지관 운영평가프로그램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pp. 265-290.
- 최재성(2001). 사회복지분야의 평가경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4호, pp. 89-115.
- 최창욱(20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청소년수련관과 학교의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창의워크숍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
- 최창욱 외(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흥기(2010).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비교연구: 3단계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모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공학교육인증원(2010). 2009년 공학교육인증 성과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

- 연구원.
-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지표 개발 최종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터전인증제 운영매뉴얼.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2006). 학교와 청소년단체 연계활동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09). 2010년도 사업계획.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2011년도 사업계획.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황경란·박영란(2010).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 중간보고서. 경기: 경기복지재단.
- Berman, E. M.(1995). Implementing TQM in State Welfare Agenci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9(1)*, pp. 55-70.
-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2002). *First steps in quality*. London: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
-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2006). *PQASSO in practice*. London: Charities evaluation services.
- Charity 4 Children(2011). <http://www.4children.org.uk/>(검색일: 2011. 5. 12).
- Department for Children, Families and Schools(2007). *Aiming high for ten years strategy*. London: Department for Children, Families and Schools.
- Deusche Jugendherbergswerk(2011). *Die Jugendherbergen Jahresbericht 2010*. Hannover: Medien GmbH.
- Hunt, A.(1970). Institution-Wide Accreditation and Corporation Responsi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13(4)*, pp. 602-628.
- Klarberg, Richard(2005). 미국의 인증사례.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 서울: 서울복지재단.
- National AfterSchool Association(2006). *Endorser Manual 2006-2007*.

National Youth Agency(2008). *Raising the Standards – a guide to Quality Systems in the Youth Sector*.

National Youth Agency(2011). <http://www.nya.org.uk/>(검색일: 2011. 4. 10).

Rooney, A. L. and Ostenberg, P. R.(1999). *Licensure,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Approaches to Health Services Quality*. Quality Assurance Project(<http://velosi.com/>)

Shaw, C. D(2004). *Toolkit for Accreditation Programs*, ISQua,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Statistisches Bundesamt(2011). *Statistisches Jahrbuch 2010*.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Yamatani, Hidenori(2005). 인증제도를 통한 사회복지 윤리성 제고.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 서울: 서울복지재단.

<http://www.iso-kc.com>(검색일: 2011. 5. 7).

http://kca.childcare.go.kr/cais/content/cnt_intr_05.jsp(검색일: 2011. 6. 15).

<http://www.acacamps.org/accreditation>(검색일: 2011. 4. 21).

<http://www.naaweb.org>(검색일: 2011. 5. 10).

<http://www.koiha.or.kr/home/system/system.jsp>(검색일: 2011. 6. 9).

<http://www.koraward.or.kr/>(검색일: 2011. 7. 12).

<http://www.bundesforum.com/index.php?id=homepage>(검색일: 2011. 8. 7)



부 록

1. 면접조사지
2. 설문조사지
3. 전문가의견조사지

부 록

1. 면접조사지

1-1. 청소년수련시설 질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지(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고유과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 보다 우수하고 이용하고 싶은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의 방향성 모색과 함께 질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며,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 137-715

전화번호: 2188-8813

팩스번호: 2188-8819

- (7)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교사, 부모님 등)은 어떤지요?
- (8) 청소년수련시설의 어떠한 측면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요?
- 프로그램 측면
 - 시설 측면
 - 지도자 측면
- (9) 내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지, 계속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 시설이 안전한가..
 - 시설 환경이 쾌적한가..
 - 프로그램이 흥미로운가...
 - 참가할 만한 동아리가 있는가...
 - 지도자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가...
 - 그 외의 것이 있다면...
- (10)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서비스인가?
 -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11)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2. 청소년수련시설 질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지(청소년지도자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고유과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 보다 우수하고 이용하고 싶은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시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의 방향성 모색과 함께 질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며,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 137-715

전화번호: 2188-8813

팩스번호: 2188-8819

■ 답변을 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해드릴 예정이오니 답변을 작성하신 뒤에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록은 답례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물로 남기는 것이며, 개인 정보 유출은 절대 없음을 보장합니다.

이 름:

이메일:

전화번호나 핸드폰:

소속:

주 소:

생년월일:

- (1) 현재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 ***청소년문화의집/수련관에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2) 청소년문화의집/수련관 종사 계기
- 어떻게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하게 되셨습니까?
- (3) 시설현황
- ① 연간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② 시설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③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 ④ 운영주체 (공공기관직영, 민간기관직영, 공공기관위탁, 민간기관위탁 등)
- (4) 지역사회에서 시설의 위상/지역사회와의 관련성
- ① 이 시설에 지역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② 지역의 단체나 시설(복지관, 아동센터 등)과 연계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5) 학교와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 별 차이가 없는지/ 더 줄었는지
- (6) 수련시설 인증에 대한 생각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 지속적 품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과거의 운영실적과 현재의 운영과정 개선을 위한 시스템 확인으로 현재와 미래의 안정성을 수요자들에게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평가와 차이가 있다.

- ① 인증의 필요성
 - 수련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인증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인증을 받고나서 이용자들의 규모나 인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인증 받는다면 학교와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② 필요하지 않다면 수련시설의 질관리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③ 타 분야(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에서 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청소년시설에 적용한다면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7)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 기관인증/ 프로그램 인증/ 참가자 인증
- 인증의 활용 및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 인증 기간
- 인증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결과로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인증을 위한 비용, 준비과정, 현장의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8) 청소년들이 더욱 시설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 시설
- 지도자

1.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시설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 하나에 V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1.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의 **설립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① 공공시설(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② 민간시설(개인단체, 법인 등에서 설립)
2.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① 공공기관 직영(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직접 운영)
 ② 민간기관 직영(청소년단체, 종교단체, 사단법인, 개인 등에서 설립하여 직접 운영)
 ③ 공공기관 위탁(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독립법인 등에 위탁)

문 2-1번으로

- ④ 민간기관 위탁(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단법인 등에 위탁)

문 2-2번으로

- 2-1. (공공기관 위탁이라면) 위탁 단체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① 시설관리공단(사업소) ② 지자체 설립 독립법인(수련관운영법인, 청소년재단 등)
 ③ 지자체 설립 관련법인(지역문화재단 등) ④ 기타 (_____)

- 2-2. (민간기관 위탁이라면) 위탁 단체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① 청소년단체 ② 종교단체 ③ 사회복지법인
 ④ 학교법인 ⑤ 지역시민단체 ⑥ 기타 (_____)

3.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자기개발활동 ② 모험개척활동 ③ 교류활동 ④ 건강보존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과학정보활동 ⑦ 봉사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직업체험활동 ⑩ 기타 (_____)

4.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는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①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문 4-1번으로** ② 보통이다 **문 4-2번으로** ③ 많이 하고 있다 **문 4-2번으로**

- 4-1.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프로그램 부족 ② 학교의 폐쇄적·소극적 태도
 ③ 안전등의 문제에 대한 부담 ④ 지도인력 부족
 ⑤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⑥ 기타 (_____)

- 4-2. [연계하고 있다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사업)은 무엇입니까?

II.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 하나에 V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속에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5.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는 각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의 연계 등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준비 안함 **문 5-1번으로** ② 계획수립 중임 **문 5-2번으로** ③ 현재 운영중임 **문 5-2번으로**

5-1. [전혀 준비안 하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련정보 부족
 ② 사업예산부족
 ③ 프로그램 부족
 ④ 지도인력 부족
 ⑤ 학교와의 연계가능성 부족
 ⑥ 기타 (_____)

5-2. [계획수립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영역 중 가장 많이 운영(계획)하고 있는 활동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자율활동 ② 동아리활동 ③ 봉사활동 ④ 진로활동

6.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하고자 할 때 예상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활동시 안전에 대한 학교의 신뢰
 ② 시설의 안전 등에 대한 학교의 신뢰
 ③ 학교일정에 맞추어 실시해야 하는 점
 ④ 사업예산 마련의 어려움
 ⑤ 기타 (_____)

7.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전 분 필 요	필 요	불 필 요	보 통	필 요	매 필 요	HO-T
(1) 우수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	② -----	③ -----	④ -----	⑤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	① -----	② -----	③ -----	④ -----	⑤		
(3)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컨설팅을 통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개선 지원	① -----	② -----	③ -----	④ -----	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5)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	① -----	② -----	③ -----	④ -----	⑤		
(6) 지도인력의 배치인원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확대	① -----	② -----	③ -----	④ -----	⑤		

12.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의 재원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인증과 자율인증 각각에 대하여 **√표** 하여 주십시오.

의무인증시	신청에 의한 자율인증시
① 인증주체(정부 등)에서 모두 부담	① 인증주체(정부 등)에서 모두 부담
② 인증주체와 시설이 공동으로 부담	② 인증 신청 시설이 모두 부담
③ 기타 (_____)	③ 인증주체와 인증 신청 시설이 공동으로 부담
	④ 기타 (_____)

13.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영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역별로 부문인증(고객서비스, 업무시스템, 시설환경 등)
- ②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
- ③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
- ④ 기타 (_____)

14.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방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포괄적 인증방식(최적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으로 인증/불인증/조건부인증으로 인증)
- ② 등급부여 인증방식(운영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③ 기타 (_____)

15.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년
- ② 3년
- ③ 4년
- ④ 기타 (_____)

16.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없다
- ② 필요하다 **▶ 문 16-1번으로**

16-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니터링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 1회
- ② 2년에 1회
- ③ 3년에 1회
- ④ 기타 (_____)

17.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준비를 위한 건설담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만원 이하
- ② 20~30만원 이하
- ③ 30~40만원 이하
- ④ 40만원 이상

18.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시설에서 **인증 준비**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활동지도환경(프로그램, 기자재 등) 개선비
- ② 시설 개보수비
- ③ 인증신청비
- ④ 기타 (_____)

1.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 **아나에 V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구 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 공	개 소	개 소
민 간	개 소	개 소
계	개 소	개 소

2. 귀하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운영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구 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직영	개 소	개 소
민간기관 직영	개 소	개 소
위 탁	공공기관 위탁	개 소
	민간기관 위탁	개 소
계	개 소	개 소

3. 귀하의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업무수행 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당하다 **문 3-1번으로** ② 부적당하다 **문 3-1번으로**
 ③ 적당하다 ④ 매우 적당하다

3-1.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적당한 시설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계	개 소	개 소

4.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운영 방식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공공기관 직영	① -----	② -----	③ -----	④ -----	⑤
(2) 공공기관 위탁	① -----	② -----	③ -----	④ -----	⑤
(3) 민간기관(단체) 위탁	① -----	② -----	③ -----	④ -----	⑤

III.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관련사항입니다. 해당 번호 하나에 V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설명자료: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산합리화 수단으로 의식적인 표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온 인증제도는 최근에는 그 대상이 과학, 정보, 교육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평가인증제(2006)’와 ‘의료기관인증제(2011)’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인증제’도입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던 시범청소년수련시설(현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9조)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 지속적 품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위에서 설명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 11-1번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 **☑ 문 11-1번으로**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 11-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증기준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②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③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④ 인증제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⑤ 인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⑥기타 (_____)
12.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주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품질 보증을 통한 대외적 신뢰성 확보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③ 인증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수요자)들의 선택권 확대
 ④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유도를 통한 정책적 효과 제고
 ⑤ 기타 (_____)
13.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② 정부산하기관
 ③ 민간기관 ④ 기타 (_____)
14.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대상**은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②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
 ③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
 ④ 기타 (_____)

15.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의 재원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인증과 자율인증 각각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의무인증시	신청에 의한 자율인증시
① 인증주체(정부 등)에서 모두 부담	① 인증주체(정부 등)에서 모두 부담
② 인증주체와 시설이 공동으로 부담	② 인증 신청 시설이 모두 부담
③ 기타 (_____)	③ 인증주체와 인증 신청 시설이 공동으로 부담
	④ 기타 (_____)

16.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영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역별로 부문인증(고객서비스, 업무시스템, 시설환경 등)
- ②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
- ③ 부문인증에서 종합인증으로 점진적 확대
- ④ 기타 (_____)

17.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방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포괄적 인증방식(최적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으로 인증/불인증/조건부인증으로 인증)
- ② 등급부여 인증방식(운영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③ 기타 (_____)

18.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년
- ② 3년
- ③ 4년
- ④ 기타 (_____)

19.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없다
- ② 필요하다 **답문 19-1번으로**

19-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니터링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 1회
- ② 2년에 1회
- ③ 3년에 1회
- ④ 기타 (_____)

20.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만원 이하
- ② 20~30만원 이하
- ③ 30~40만원 이하
- ④ 40만원 이상

21.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시설에서 **인증 준비**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활동지도 환경(프로그램, 기자재 등) 개선비
- ② 시설 개보수비
- ③ 인증신청비
- ④ 기타 (_____)

2-3.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용 설문조사지



ID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조사(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상태와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 발전을 위한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본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과제 책임자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문의 : 이윤진 SV ☎ 02-3484-3018

SO1.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II.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와의 연계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 하단에 V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9. 귀하의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① 학교 내에서 운영
 - ②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운영 **예 문 9-1번으로**
 - ③ 지역사회 내 박물관, 도서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운영
 - ④ 기타 (_____)
- 9-1. [연계하고 싶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③ 체험활동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 ④ 기타 (_____)
10. 귀하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의 안전성
 - ②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 ③ 다양한 프로그램
 - ④ 기타 (_____)
11. 귀하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어느 활동영역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① 자율활동
 - ② 동아리활동
 - ③ 봉사활동
 - ④ 진로활동
12. 귀하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실시하기 가장 좋은 활동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율활동
 - ② 동아리활동
 - ③ 봉사활동
 - ④ 진로활동
13. 귀하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품질에 대해 보증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참고 하시겠습니까?
- ① 아니오
 - ② 예 **예 문 13-1번으로**
- 13-1. [참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시설의 안전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 ③ 시설을 이용할 때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 ④ 기타 (_____)

14.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품질에 대해 보증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역별로 부문 보증(서비스, 시설환경, 지도자, 프로그램 등의 부문으로)
- ②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 보증
- ③ 부문 보증에서 종합 보증으로 점진적 확대
- ④ 기타 (_____)

15. 귀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이나 서비스 등의 품질에 대해 보증해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떤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임
- ②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임
- ③ 활동프로그램이 다양해 질 것임
- ④ 기타 (_____)

1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 및 어려운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요 구 사 항
(1) 시설의 공간이나 설비	
(2) 지도자	
(3) 프로그램	
(4) 이용할 때의 서비스 수준	

IV.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 관련 사항입니다

17. 귀하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학교시설	① ---	② ---	③ ---	④ ---	⑤
(2) 교사	① ---	② ---	③ ---	④ ---	⑤
(3) 교과교육	① ---	② ---	③ ---	④ ---	⑤
(4) 체험활동	① ---	② ---	③ ---	④ ---	⑤

3. 전문가의견조사지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 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제나 청소년활동 관련기관 및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의 고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에 대한 의견은 마지막 페이지의 인적사항까지 작성하시어 9. 17(토)까지 이메일(yimaeng@nypl.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응답 기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증제 관련 설명자료]

다음은 인증제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를 읽어 보시고, 이하 질문사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산합리화 수단으로 의식적인 표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인증제도는 최근에는 그 대상이 과학, 정보, 교육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평가인증제(2006)'와 '의료기관인증제(2011)'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인증제'도 입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던 시범청소년수련시설(현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9조)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정기간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우수기관 선정의 의미보다는 최소-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내용 또는 인증기준에 대해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인증을 못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인증평가 방식이 부담이 더 클 수 있지만 모든 요소에 대해 확인을 하고 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과중심평가와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표 1 > 성과중심 평가와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의 비교

기준	일반적인 성과중심 평가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평가
평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지표 구성 성취수준 확인 중심의 지표 활용 예: 참가자는 만족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지표 구성은 큰 차이 없음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지표 구성 (예:만족여부+만족도제고체제는?)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부여 항목별 점수의 합으로 총점 산출 평점에 의한 순위산정, 등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등급 부여 등급은 통과여부 기준으로 함 모든 지표의 등급 통과시 인증
평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심사를 통한 기획서 평가 중간점검, 평가를 통한 과정 평가 최종 성취평가를 통한 결과 평가 과정상 평가결과는 점수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평가단계 지체는 큰 차이 없음 기획-과정-성과에 대한 평가운영 단계별 평가는 개선을 전제로 함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과 중간평가를 통한 개선요구 개선 여부에 대한 수용은 임의적 필수항목의 평점이 매우 미흡하여도 총점에 서는 우수 평점 가능 다음해 개선여부는 기관의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보완요구 자체-건설성 효과 미흡항목에 대한 개선은 필수과제 1개 평가지표 미흡사-인증 탈락 적정 이상의 운영체제 구축 효과 지속적 개선을 거쳐 인증을 함
평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사업의 운영 수준 확인 익년도 사업에 가산점/불이익 효과 *불이익 효과:지원대상 배제, 감감-단, 익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으면 효과 없음(평가 결과는 해당 연도에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영역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운영시스템 확보여부 확인 인증 후 일정기간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인정(연례평가부담 경감) 평가 점수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

* 자료: 김학진(2011),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자료집.

[문 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적절하다		② 보통이다			③ 적절하다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되 앞으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여 평가하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정책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데 필요성이 있음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개념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개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적절하다		② 보통이다			③ 적절하다	
인증제의 개념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의 경영 전반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검증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임을 증명하는 것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3]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의 목적에 대한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의 목적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적절하다	② 보통이다	③ 적절하다
------------	-----------	-----------

인증제 도입의 목적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둠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4]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시 운영유형으로서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운영유형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운영유형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적절하다	② 보통이다	③ 적절하다
------------	-----------	-----------

인증제 운영유형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청소년수련시설유형별인증제 (예: 청소년수련관인증제 등)	①	②	③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의 하위유형(수련시설유형별) 으로 운영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5]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대상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 대상의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인증 대상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의무인증)	① ② ③									
인증신청 청소년수련시설 (자율인증)	① ② ③									
지방자치단체 추천 청소년수련시설 (추천인증)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6]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범위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인증 범위(영역)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영역별 부문인증	① ② ③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인증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7]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시 인증 방식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인증 방식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①	②	③	
포괄적 인증방식 (최적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으로 인증/불인증/ 조건부인증으로 인증)	①	②	③	
등급부여 인증방식 (운영수준을 등급으로 구분 하여 인증)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8]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시 인증 주체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인증주체 각각에 대하여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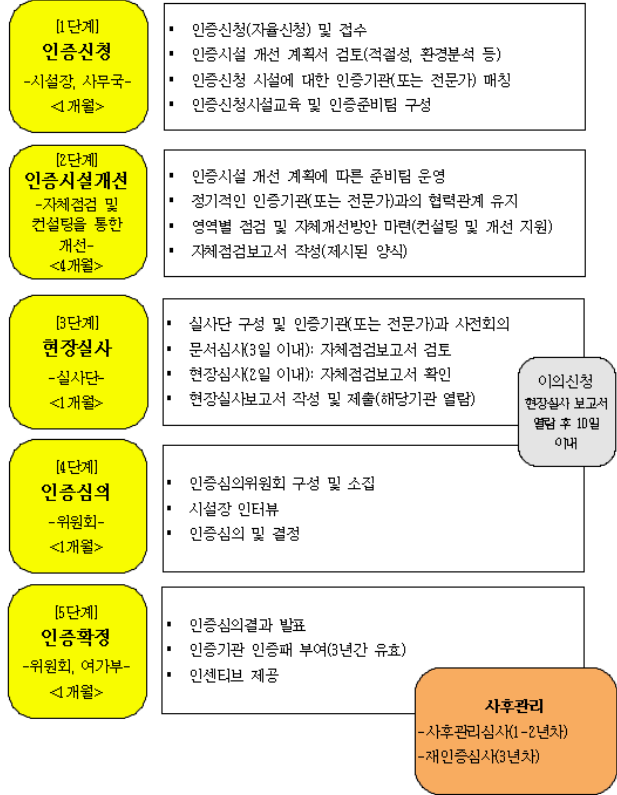
①	②	③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인증 주체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①	②	③	
정부	①	②	③	
정부산하기관	①	②	③	
민간기관	①	②	③	
기타의견				

[문9 관련 설명자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 절차(안)

다음은 인증 절차(안)입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질문(문9)에 응답해 주십시오.

인증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주어진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인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림 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 절차(안)

[문 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 절차(안)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 절차(안) 각 단계, 각 단계별 활동내용 및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비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기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인증단계 ((그림1)참조)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1단계: 인증신청	① ② ③	
2단계: 인증시설개선	① ② ③	
3단계: 현장실사	① ② ③	
이의신청	① ② ③	
4단계: 인증심의회	① ② ③	
5단계: 인증확정	① ② ③	
사후관리	① ② ③	
기타의견		

활동내용 ((그림1)참조)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1단계: 인증신청	① ② ③	
2단계: 인증시설개선	① ② ③	
3단계: 현장실사	① ② ③	
이의신청	① ② ③	
4단계: 인증심의회	① ② ③	
5단계: 인증확정	① ② ③	
사후관리	① ② ③	
기타의견		

기 간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1단계: 인증신청 (1개월)	① ② ③	
2단계: 인증시설개선 (4개월)	① ② ③	
3단계: 현장실사 (1개월)	① ② ③	
이의신청 (10일 이내)	① ② ③	
4단계: 인증심의회 (1개월)	① ② ③	
5단계: 인증확정 (1개월)	① ② ③	
사후관리 (3년)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10 관련 설명자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기준(안)

본 연구에서는 인증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각각의 기준영역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고, 다음 질문(문10)에 응답해 주십시오.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경영관리지표)과 개별기준(프로그램서비스지표)으로 구분함으로써 수련시설의 운영형태나 지역여건 등에 따른 차별화된 장점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표 1> 인증기준(안)

인증기준 영역	인증기준 내용
공통기준(경영관리지표)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개별기준(프로그램서비스지표)	각 유형별 청소년수련시설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준

<표 2> 공통기준(경영관리지표)의 하위영역(안)

구분	영역	인증기준 내용
경영 관리	청소년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이용자와 부모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적극반영
	계획수립/평가	적절한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반영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인적자원관리	적정인력확보,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활용, 직원의 업무향상과 능력개발
	리더십	시설의 목표 실현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 확립
시설 관리	시설관리	청소년전용공간 확보, 시설위생관리, 편의시설관리, 재해 및 응급상황 대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
	정보·문서관리	체계적인 정보 문서관리
	재정·회계관리	재정 및 회계의 투명관리
	지역사회관계 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도모,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표 3> 개별기준(프로그램서비스지표)의 하위영역(안)

구분	영역	인증기준 내용
프로 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관리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과정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매뉴얼 관리	프로그램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관리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	각종 제도 및 정책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홍보	지역 청소년의 이용절차에 대한 안내 지역 청소년의 참여(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
	직원의 태도	직원의 친절함 태도와 서비스 정신 청소년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
	이용자 권리보호	청소년 및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청소년 및 가족의 의사 존중

[문 10]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기준 영역 및 하위영역의 적절성

아래 제시한 인증기준(안)의 영역 및 하위영역의 적절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단에는 질문 및 기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 문10-1 : 인증기준 영역

영역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공통기준(경영관리지표)	①	②	③	
개별기준(프로그램서비스지표)	①	②	③	
기타의견				

□ 문10-2 : 공통기준(경영관리지표)의 하위영역

영역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경영관리	청소년참여	①	②	③	
	계획수립/평가	①	②	③	
	인적자원관리	①	②	③	
	리더십	①	②	③	
시설관리	시설관리	①	②	③	
	정보·문서관리	①	②	③	
	재정·회계관리	①	②	③	
	지역사회관계관리	①	②	③	
기타의견					

□ 문10-3 : 개별기준(프로그램서비스지표)의 하위영역

영역	적절성			추가 및 수정란	
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관리	①	②	③	
	프로그램매뉴얼 관리	①	②	③	
	사회적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서비스	홍보	①	②	③	
	직원의 태도	①	②	③	
	이용자 권리보호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1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의 필요성 및 학교 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학교 체험활동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표 해 주시고 ①에 표시한 경우 **이유**란에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 란에는 질문 및 추가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구 분	필요성			불필요 이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	①	②	③	
학교 체험활동과의 연계	①	②	③	
기타의견				

[문 1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3]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시 어떤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4]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시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우선 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문 15]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타의견(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긴 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Introducing Accreditation System for Youth Facilities : Focusing on Youth Centers and Youth Cultural Cent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policy plans for introducing accreditation system on youth facilities, which aim to secure public reliability and quality control. In order to pursue the goal of this study, major examples of domestic and foreign accreditation systems and related literature were reviewed. In addition,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youth leaders who worked in the youth facilities including youth centers and youth cultural centers, youth participants who used the facilities,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who were in charge of the local youth policy.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the proper type of accreditation system needs to be institution based. Second, while objects that have to be accredited should cover all of the youth facilities, it is recommended that mandatory system should be gradually developed from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Third, the scope of accreditation needs to be comprehensive. Fourth, the way of accrediting should be inclusive. Fifth, the operating body of this system should be the government and executive agency needs to be established. Sixth, it is appropriate that accreditation procedure is run through 5 stages and 2 processes: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improving facility to be certified, visitation the center and a series of objection, deliberation for certificating, and consulting process after being certified as well as accreditation. Seventh, accreditation standards should be separated in common criteria (which are applied to all the facilities) and specific criteria (which are varying with each facility's properties). Additionally, we need several prerequisite tasks to be solved prior to introducing accreditation system. First, we need social consensus

on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youth facilities. Second, legal basis and budget are required. Third, operating system and reliable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urth, rational procedure of cert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we need to constitute the operating body. Sixth, post consulting system should be planned. Seventh, trial period and continuous appeal to the public are needed. Eighth, new accreditation system needs to be related with current evaluation system on youth facilities and certification system on youth activities.

Key Words : youth facilities, youth centers, youth cultural centers, accreditation system, the type of accreditation system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운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운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탁과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해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진 ◆

- 곽지숙(평택청소년문화센터·팀장)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관장)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수)
김민정(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관장)
김은영(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관장)
김정주(모든학교체험활동연구소·소장)
김제원(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국·국장)
김지영(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현경(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연수부·담당)
김현대(서울시복지재단 복지사업부 통합복지팀·팀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박선영(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교수)
박옥식(서울시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관장)
박찬열(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현수(중구청소년수련관·관장)
서문희(육아정책연구센터 기획연구실·실장)
설인자(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교수)
손의숙(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연수부·부장)
손정희(전주문화의집·관장)
송병국(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양은일(산울림청소년수련관·부장)
이관희(중원청소년수련관·팀장)

이광호(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교수)
이민희(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교수)
이승렬(금천청소년수련관·관장)
임용빈(서울역삼청소년수련관·팀장)
조계형(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조아미(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수)
황윤성(신월청소년문화센터·팀장)

◆ 전문가워크숍 참여진 ◆

김봉두(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사무관)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팀장)
김종국(창동청소년수련관·관장)
김지수(당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혁진(청소년지원네트워크·연구위원)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관장)
이영수(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건희(군산청소년수련관·부관장)
조금희(군포중학교·교무부장)
조남익(광운대학교·교수)
조재영(덕풍2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한성일(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창의인성교육과·사무관)
한도희(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전문위원)

연구보고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48-6(93330)